

장편소설

3인1강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101(2012)

이 작품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
된 불후의 고전혁명작
혁명연극 《3인1방》을
소설로 옮긴 것이다.

《박정승을 끌어내라!》

임금의 입에서 쨍쨍 터져나오는 추상같은 호령소리에 대전안의 아름드리 붉은 기둥들과 들보들이 드르릉 울었다.

다른 고관대작들과 함께 문무반렬에 서있던 박정승은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하였다. 중병으로 침상에 누워 운신조차 못하던 국왕이 어떻게 어전회의에 참석했을가? 언제 앓았던가싶게 건강한 국왕의 모습이 의아했고 까닭없이 자기에게 노기를 터뜨리는것도 이상했다.

《예-잇!》 좌우에서 국왕을 옹위하며 서있던 시위무사들이 어명을 받고 곧추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격절격 울리는 갑옷소리와 칼집소리가 대전안에 싸늘한 랭기를 몰아왔다.

《상감마마... 왜... 왜... 그러시나이까?》

허가 굳어져 말을 먹고 바위처럼 우람찬 몸이 가량없이 덜덜 떨린다. 어찌나 질겁했는지 커다란 종발눈이 휘짝 뒤집어지다싶이 하고 축 처진 메주불까지 후들후들 떨렸다.

시위무사들은 억센 손아귀로 그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도살장의 돼지를 다루듯 질질 끌고가서 탑전에 내동댕이쳤다.

《박정승! 네놈이 감히 역모를 꾸며?》

천둥소리같은 국왕의 노호질욕에 귀가 다 멍멍하고 머리가 뺑해났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모를 일이다. 비자루수염을 허영게 드리우고 걸음조차 변변히 옮기지 못하던 국왕이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던 짧은 시절의 모습으로 위엄있게 앉아있지 않는가. 불이 펄펄 이는 국왕의 눈을 마주하니 등골이 오싹하다. 한창시절에는 준마우에 몸을 날리기만 하면 필마단창으로 적진을 무인지경 넘나들듯 종횡무진하던 국왕이다. 국왕이 다시 짧어진다는 장생불로약이라도 먹

있는가?

그는 뭐가뭔지 통 갈피를 종잡을수 없어 초점이 흐려진 두눈알만 데룩거렸다. 주변을 휘둘러보던 그의 눈길은 음험한 웃음을 짓고있는 난쟁이 최정승과 키다리 문정승의 얼굴에 멎었다.

그랬됐구나. 네놈들이 나를 물어메쳤구나.

그는 이를 부르드득 갈았다. 이놈들!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족제비상판에 항상 눈알이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생쥐같은 최정승이 국왕의 귀에 대고 뽀족한 입질을 한게 분명하다. 입바람만 한번 불어도 홀 날아가버릴 허수아비같은 문정승의 머리로는 이런 수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하지만 저 허수아비도 최정승의 장단에 좋다하고 덩실덩실 맞장구를 쳤을것이다. 최정승이놈, 도적이 제발 저런다더니 네놈은 나보다 더 통상을 탐내지 않는다. 흥, 네놈한테 쉽사리 꺼꾸러질 박정승이 아니다.

그는 급히 두무릎을 꿇으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었다.

《현명하신 상감마마,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밝고 명철하신 상감마마의 천리혜안으로 소신의 흰눈처럼 티없이 깨끗한 충정을 굽어살펴주시기 바라나이다. 공신의 가문에서 태어나 대대로 하해같은 성은을 입어온 소신이 어찌 순간인들 감히 반역의 마음을 두오리까. 간신들이 거짓말로 상감마마의 총명을 흐리게 하고있사오니 부디 밝게 헤아려주시기 바라나이다.》

허나 들려오는것은 국왕의 노호성뿐이다.

《아직도 이실직고하지 못할고!》

《상감마마, 만물의 경중을 알고저 할 때 저울만큼 정확한것이 없는것처럼 송사의 옳고 그름을 가르자면 랑편 말을 다 들어야 하나이다. 한쪽의 말만 듣고 시비를 가벼이 판결치 말아주사이다.》

《흥!》

국왕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네놈이 수백년이나 대를 두고 물려오던 이 송도국의 통상을 불태우는 역적짓을 하고도 무슨 할말이 있다고 여적 입을 놀리는거냐?》

룡상이라는 말에 싸늘한 얼음이 맨살에 닿기라도 한것처럼 순간적으로 가슴이 섬쩍해났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한 그 일을 국왕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몸뚱이에 머리가 붙어있자면 마지막까지 우겨야 하였다.

《상감마마, 정말 억울하오이다. 충의만을 안고사는 소신이 어찌 감히 그런 불법무도한짓을 하겠나이까. 전하께서도 아시다싶이 룡상이야 뜻밖의 화재로 불타버린것인데 어찌 소신이 한짓이라 하나 이까.》

국왕은 최정승에게 눈길을 주었다.

《최정승, 경이 저 역적놈의 죄상을 발가놓으라.》

《상감마마, 황송하오이다.》

최정승이 없는 허리를 갑삭거리며 말뚝만 한 몸을 끌고 반렬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반질반질한 두눈이 음흉한 살기를 띠고 번쩍이였다.

《저 박정승은 오래전부터 왕관을 탐내왔으나 거룩하신 상감마마의 위엄에 눌리어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었나이다. 하오나 상감마마께서 병상에 드시자 드디어 짐승같은 본심을 드러내고 미욕한짓을 하기 시작했나이다. 나라와 사직에 충실한 왕실성원들을 역적죄로 몰아 하나둘 처리해버리고 나중에는 동궁마마와 공주님들까지도 살해하였나이다.》

《이놈, 이 발칙한 놈! 시퍼런 하늘이 내려다본다. 네놈이 한짓을 나한테 넘겨썩우자는거냐. ...》

박정승은 별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지랄을 부리듯 발광하였다. 그러나 시위무사들의 역센 팔이 어깨를 잡아 꼭 눌러앉히는 바람에 목구멍이 찢어지게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다. 생쥐같은 놈, 나더러 왕세자가 너무 총명하니 정사를 우리 손으로 쥐락펴락하자면 미리 없애치워야 한다고 쪽닥질을 한 놈이 누구길래 이제와선 뭐가 어찌구 어찌?

최정승은 승이 나서 양바탕한 목을 솟구느라 애쓰며 계속 열변을 토했다.

《그뿐이 아니오이다. 저 박정승은 상감마마가 병상에 계시는 기

회를 리용하여 왕실의 상징인 룡상까지 재가루로 만들어버렸나이다. 하늘의 재앙이 내려 룡상이 불타버린것처럼 만들면 민심이 흔들릴수 있다고 하면서 감히 그런짓까지도 서슴지 않았소이다. 정말이지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부도죄이나이다.》

《이놈아, 룡상은 절로 일어난 불에 타버렸다. 그래 네놈이 내가 불을 지르는걸 봤느냐?》

박정승은 종발눈을 부라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고아댔다.

《물론 박대감이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 하지만 조상궁을 시켜 룡상에 불을 지르게 한거야 대감이 아니요.》

최정승은 가느다란 뱀새눈을 쪼프리며 히죽이 웃었다.

영? 박정승은 한순간 숨이 꺾 막혔다. 나와 조상궁밖에 모르는 일을 저 생쥐같은 놈이 어떻게 알까? 정말 저놈이 생쥐가 되어 담벽을 뚫고들어와 우리 얘기를 엿들었는가? 아니면 조상궁 그 년이 루설했는가? 눈앞이 먹물을 풀어놓은것처럼 새까매졌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우기고 볼 판이었다.

《상감마마, 정말 억울하나이다. 지엄한 왕궁의 법이 있는데 외간 사내인 소신이 어떻게 구중궁궐의 상궁을 가까이 할수 있겠소이까. 상감마마께서도 아시다싶이 저 최정승은 소신과 소신의 동남당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나이다. 오늘 소신을 이렇게 모함하는것은 소신을 제거하고 자기네 북서당이 권력을 다 차지하자는 속심때문이나이다. 아니, 룡상을 탐내는것은 소신이 아니라 바로 저 최정승과 북서당패이나이다.》

허나 국왕은 그의 발명에 꿈쩍도 하지 않고 최정승에게만 눈길을 준다. 보아하니 최정승이 국왕을 푹 삶아놓은게 분명하다.

박정승은 못 견디게 몰려드는 후회로 하여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 자기의 이마를 쳤다. 미웁한 내가 바보지, 바보야. 저 최정승놈처럼 국왕앞에서 삽살개마냥 꼬리를 쳐야 하는건데 고작해서 몇푼어치도 안되는 체통값만 생각하며 잘난체 으시대다가 결국은 국왕의 신임을 잃지 않았는가.

아침기어린 최정승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상감마마, 신이 지금껏 아뢰인 말은 모두 사실이나이다. 그것이

티끌만 한 보탬도 없는 사실 그대로라는데 대해서는 여기 이 문대감도 목을 걸고 보증할 수 있소이다.》

문정승의 손이 영겁결에 목에 가닿는다. 진짜 목을 내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숨이 아깝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박정승은 간절한 눈빛으로 문정승을 바라보았다. 주대라고는 풀기조차 없고 귀가 물러 남의 말을 잘 듣는 문정승이 워낭소리만 듣고 졸졸 따라가는 눈먼 망아지처럼 놀면 끝장이었다.

문정승이 반렬앞으로 한걸음 나서며 긴 허리와 긴 목을 쭉 굽히었다.

《상감마마, 최대감의 말은 죄다 사실이나이다.》

앞이 막막하여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일이 이쯤되면 국왕의 성미에는 아무리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소용이 없다.

겨울날의 세찬 눈보라속에 서있기라도 한 것처럼 귀전에서 뿜뿜소리만이 울린다.

국왕의 근엄한 목소리가 다시금 대전안에 울렸다.

《박정승, 듣거라! 나라의 최고벼슬인 정승자리를 차지하고도 뭐가 모자라 지엄한 통상까지 탐내느냐. 수백년이나... 수백년이나 내려온 이 송도국의 왕업을 감히 넘보다니.》

국왕은 수백년이라는 말을 품씹으면서 너무 격해 턱까지 덜덜 떨었다.

송도국은 비록 영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적지만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동쪽은 바다와 면하고 남쪽과 서쪽에는 백마국과 솔개국이라는 대국들이 있다. 백마국과 솔개국의 국왕들이 자칭 황제라 일컬으면서 천하의 주인이 되려고 저마다 기승을 부리며 작은 이웃나라들을 병탄하였지만 대대로 군사를 중시하면서 국력을 다져온 송도국만은 감히 어찌지 못하였다.

국왕의 서리발찬 목소리가 계속 울려왔다.

《자고로 신하된자가 통상을 차지하겠다는 건 허공으로 지나가는 바람을 휘어잡고 땅바닥에 드리운 그림자를 부여잡겠다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죽어도 이걸 똑똑히 알고 죽어라. 여봐라! 저역적놈의 목을 치고 삼족을 멸해라.》

《에—잇!》

언제 끌려나갔는지 그의 몸은 형틀에 퐁퐁 묶이우고 시퍼런 옷을 입은 구척장신의 회자수가 시퍼렇게 날이 선 커다란 도끼를 들고 다가왔다.

《상감마마, 살려주사이다. 살려주사이다. …》

에타게 소리치며 만단에 걸하였으나 구레나룻으로 뒤덮인 회자수의 얼굴이 점점 크게 안겨오더니 시퍼런 도끼날이 그의 목을 향해 획— 내려쪼렸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쳤다. 그 서슬에 놀라깨며 두눈을 버쩍 뜨니 지금껏 있던 모든 것이 꿈이었다. 다행이었다. 후— 하고 막혔던 숨을 내쉬며 두손으로 굽직한 목대를 만져보았다. 목이 제자리에 그냥 붙어있다. 다시금 긴숨이 나갔다. 식은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온몸이 푹 젖고 이부자리까지 축축하다. 똘, 꿈자리도 사납군!

미닫이문이 스르르 열리며 안해 류화의 떡반죽같은 흰 얼굴이 나타났다.

《상공, 어디 편찮으시오이까?》

잠결에 그가 지른 비명소리를 들은 모양이다.

《아무것도 아니요. 재수없는 꿈을…》

허물없는 안해이지만 말하기가 멋적어 부러 잠기어린 목소리로 대꾸했다.

《꿈은 반대라니 좋은 일이 생길 모양이오이다.》

안해의 달래는 말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너자꼴이 없어져서 다른 계집의 궁둥이만 두드리며 귀찮게 여기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주는 건 안해다.

《됐소, 자자구.》

안해가 문을 닫자 박정승은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억지로 두눈을 지리감았으나 삼거웃처럼 엉켜드는 생각에 계속 정신이 새록새록해지고 땀에 젖어 축축해진 이불까지도 잠을 방해한다. 시너를 불러 이부자리를 갈고싶었지만 움직이기 싫어서 꼭 참고 그냥

누워있었다.

시간이 퍼그나 흐르도록 잠을 못이루고 계속 뒤치락거리는데 별안간 문밖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소신이올시다.》

심복 안사인의 목소리다.

《이 밤중에 웬일이냐?》

《방금 조상궁한테서 기별이 왔나이다.》

정말 묘한걸. 꿈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더니...

《어서 들어와라.》

안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머리맡에 앉았다.

《대감어른, 상감마마께서 별세했나이다.》

《뭐라구?》

박정승은 소스라치듯 놀라 이불을 휩 잡아제끼며 벌떡 일어나앉았다. 이것도 꿈인가? 오른손으로 넘적다리를 꼬집어보니 아파났다. 꿈이 아니다. 희미한 등잔불빛속에서도 안사인의 이마에 돋은 콩알만 한 사마귀가 확연히 알렸다. 그가 등잔을 가리키자 안사인은 얼른 기름등잔의 심지를 돌구었다. 방안이 확 밝아지며 안사인의 얼굴에서 넘실거리는 웃음이 푹푹히 보였다. 그 웃음이 그대로 그의 얼굴에 옮겨앉았다.

《그게 정말이냐?》

《확실하오이다.》

안사인은 히죽이 웃으며 오른손 집게손가락끝으로 이마의 사마귀를 슬슬 어루쓸었다. 기분이 좋거나 일이 잘될 때마다 하는 안사인의 버릇이다.

박정승은 배속깊이에서 웃음집이 움썰음썰거리는걸 가까스로 참았다. 정말이지 함지박같은 배를 북쳐럼 두드리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참아야 했다. 국왕이 끝내 죽었다단 말이지. 병석에 누워있어도 두렵기만 하던 국왕이었다. 꿈에서조차 두렵던 국왕이었다.

그는 뒤로 벌렁 드러누우며 큰 대자로 네활개를 쭉 폈다. 술에 취

하기라도 한 것처럼 몸이 붕 떠오른다. 이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만이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이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시각이 드디어 도래하였다. 꿈은 생사와 반대이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던 안해의 말이 신통히도 들어맞은 셈이다. 녀편네말은 들어도 망하고 안 들어도 망하거던.

《대감어른, 최정승의 복서당과 문정승의 서남당이 알기 전에 미리 선손을 써야 할 것 같나이다.》

무아경에 빠져있던 그는 안사인의 깨우쳐주는 말을 듣고서야 자기를 수습하였다. 역시 이놈은 쓸모있는 놈이다. 안사인이 늘 지혜 주머니라고 자랑하는 이마우의 사마귀가 오늘따라 별스레 더 정답게 느껴졌다.

《그래 어쨌으면 좋겠느냐?》

《상감마마의 유서부터 먼저 손에 쥐여야 하나이다. 그래야만이...》

박정승은 손을 들어 안사인의 말을 중지시켰다. 더 듣지 않아도 명백하다. 국왕이 남긴 유서에 왕위계승자의 이름이 올라있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유서에 내 이름이 올라있으면 별문제이지만 다른 이름이 올라있을 때는... 국왕이 죽었으니 이 송도국땅에 나와 겨를 남은 더이상 없다. 생쥐같은 최정승도 허재비같은 문정승도 나와는 어렵도 없다. 하지만 왕위에 오를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사인에게 령을 내렸다.

《당장 대궐로 가자.》

《예, 사람을 띄워 조상궁한테 기별을 하겠나이다.》

박정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국왕의 별세소식을 깊은 밤중에 제일 먼저 알려준 조상궁이 고마웠지만 꿈속의 일을 생각하면 패심한 생각이 없지 않다. 꿈이 현실과는 반대라지만 통상을 불태운 일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계집이란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입도 연약하다. 죽은 입만이 비밀을 지킨다고 하였는데 조상궁 그년을 없애버릴가? 하지만 조상궁의 아릿다운 자태를 그려보느라니 절로 고개가 저어졌다.

박정승이 조상궁을 손에 넣은것은 올해 봄이었다.

어느날 그는 최정승, 문정승과 함께 국왕의 령을 받고 침전으로 불리워갔다. 한달만에 처음보는 국왕을 대하는 순간 가슴이 섬찍하였다. 병에 시달려 삭정이처럼 말라버린 국왕의 모습이 상상했던것보다 더 험악해서였다. 숨을 쉬느라 오르내리는 가슴만 아니면 꼭 죽은 사람과 같았다.

내시를 통해 침전으로 부른다는 어지를 받았을 때 그는 국왕의 병에 차도가 생긴줄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형편은 그의 짐작과 정반대였다. 의술을 모르는 그가 보기에도 국왕은 전혀 가망이 없었다. 침상에 누워 몸도 일으키지 못하고 눈만 힘겹게 뜨는 국왕을 보느라니 지금껏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검은 마음이 무섭게 요동을 쳤다.

《파인이 경들을 부른것은 국사가 걱정되어서이다.》

국왕의 맥없는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위엄을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상감마마, 모든 일이 잘되어가고있으니 녀려하지 마시고 귀하신 옥체를 돌보시오이다.》

누가 말을 뻔세라 약삭바른 최정승이 먼저 고개를 갑삭거리며 자못 슬픈 목소리로 아뢰었다.

취새끼같은 놈, 또 아침이로군. 뭐, 모든 일이 잘되어간다구, 흥! 박정승은 코방귀를 끼었다. 전국도처에서 비발치듯 올라오는 상주 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남쪽변경에서는 송도국을 넘보며 느침을 흘리던 백마국이 다시금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날마다 각처의 파발들이 긴급한 전갈을 안고 혈레벌떡 궁성으로 달려왔으나 그들 세 정승의 의사가 합치되지 못해 령을 받고 궁성문을 나서는 파발은 하나도 없었다.

문정승도 최정승에 뒤질세라 국왕을 향해 긴 허리를 굽석이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으니 대자연에 활력을 부여하는 봄정기가 상감마마의 병도 가셔줄것이나이다.》

박정승은 최정승이나 문정승보다 더 절절한 말을 아뢰고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머리가 영 돌아주지 않아 종시 입술만 움썹거리다 말았다.

《국사는 하루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시국이 어수선하면 도적이 일고 도적이 일면 란이 이는 법이다. 그러니 경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정사를 바로잡도록 하라. 과인을 대신하여 상주문도 처리하고…》

국왕은 즐기침이 터져나와 말을 채 잊지 못했다.

《신이 상감마마의 뜻대로 상주문을 처리하도록 힘쓰겠나이다.》 이번에도 역시 최정승이 앞발치기를 한다.

뭐, 상주문을 처리하겠다구? 안된다. 상주문을 처리한다는것은 결국 국왕을 대신한다는것이다. 박정승은 얼른 두손을 마주잡고 침상을 향해 여쭙었다.

《상감마마, 신들이 아무리 성심을 다한다 해도 어찌 상감마마의 탁월한 식견을 따를수 있겠나이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상주문들은 상감마마의 옥체가 완쾌된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가 하나이다. 지금의 급선무는 상감마마의 병을 하루빨리 고치는것이오이다. 상감마마의 건강이자 나라의 안녕이고 신들의 행복이나이다.》

박정승은 자기의 마지막말에 스스로 흡족해났다. 자기의 입에서 이런 멋진 말이 나왔다는게 잘 믿어지지 않았다.

최정승이 불만이 한껏 어린 눈길로 그를 힐끔 바라보더니 다시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뢰었다.

《신들도 자나깨나 그 한가지 생각뿐이나이다. 신은 이미 옥련산의 대절간에 상감마마를 위해 치성을 드릴 준비를 해냈나이다.》

저놈은 확실히 머리가 팽이처럼 뱅뱅 돌거던. 최정승이 아니꼽고 얄미웠지만 뱅글뱅글 돌아가는 머리에는 감탄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거문고 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더니 문정승도 가

만있지 않았다.

《신은 상감마마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신령께 아뢰이고저 제사의식을 준비해왔나이다.》

말없이 떡수만 보며 기다리던 박정승은 문정승의 말까지 듣는 순간 머리속에서 한가지 수가 번개처럼 번쩍이었다.

(최정승, 네놈이 날 미옥한 꿈이라고 계속 흉하는데 걸이 둔스럽다고 속도 둔스러운줄 아느냐. 미옥한 꿈도 물때 썰때는 안다. 오늘은 어디 한번 미옥한 맛이 어떤가 봐라!)

그는 경건한 자세로 국왕을 우러렀다.

《상감마마, 두 대감의 지성이 정말 가륵하나이다. 그런데 어느쪽을 택해야 효험이 더 있겠는지…》

박정승은 부러 말끝을 흐렸다. 아니나다를가 교활한 물고기와 헤엄치는 물고기가 동시에 그의 낚시를 덥석 물었다.

《상감마마, 부처님께 치성을 드려야 하나이다.》

《상감마마, 신령께 치성을 드려야 하나이다.》

최정승과 문정승은 서로 지지 않겠다고 우렁을 따졌다.

《문대감, 부처의 도는 높기가 하늘과 같고 낮기가 땅과 같소.》

《최대감, 신선의 도는 해와 달처럼 천지를 덮는 도요.》

《나라의 흥망성쇠, 농사의 풍년과 흉년, 쟁인바치의 뛰어난 재간, 장사의 리익과 손해를 비롯해서 세상만사를 모두 부처님께서 말아보고있소.》

《신선의 도는 사람들을 해와 달처럼 밝게 비추주고 단비처럼 생명을 키워주고 이끌어주소.》

네가 한마디하면 나도 한마디한다는 식으로 두 정승은 저마끔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승벽을 부렸다. 박정승은 국왕의 얼굴에 어리는 실망의 빛을 놓치지 않고 제격 포착하였다.

《상감마마앞에서 이 무슨 해괴한짓들이요?》

때를 놓치지 않고 한 이 한마디 말로 모든것이 결정되었다. 문정승은 흥분을 삭이느라 씩씩거렸지만 최정승은 그제야 실수를 느꼈는지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쳐지나간다. 하지만 이 좌석의 주도권은 이미 박정승 자기의 손에 쥐여졌다. 그것을 증명하며 어지가 내

렸다.

《그 일은 박정승이 주관하도록 하라.》

최정승도 문정승도 긴장해서 박정승의 입만 지켜보았다. 박정승은 어깨를 쪽 펴며 보란듯이 자기의 권위를 뽐냈다.

《상감마마, 문정승의 제의대로 신령께 제를 지냈으면 하나이다.》

그의 말에 문정승은 례장받은 병어리처럼 병긋거리고 최정승은 도적놈 개 꾸짖듯 뽐족한 입술만 잘근잘근 씹는다. 통패했다. 주대없는 문정승도 미웠지만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최정승이 몇배나 더 밉다. 네놈이 계속 우둔하다고 비웃는 이 박대감님의 숨씨가 어때? 난 이정도로 끝내지 않는다. 미옥한 찌가 약은 찌보다 더 무섭다는걸 한번 툭툭히 당해봐라!

그는 두손을 머리앞에 모아쥐고 국왕을 향해 조심히 여쭙었다.

《상감마마, 지금 남쪽변경이 소란스럽나이다.》

지친 기색이던 국왕이 두눈을 버쩍 떴다.

《뭘라구? 그게 사실이냐?》

《상감마마께서 건강하실 때는 숨소리도 못내던 백마국놈들이 지금은 개떼처럼 날치고있나이다.》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느냐?》

《최대감과 문대감은 옥체미령하신 상감마마께 심려를 얹어드릴가 저어하여 감히 아뢰지 못하였지만 소신은 송도국의 종묘와 사직이 걱정되어 차마 바른 말을 아뢰이지 않을수 없다고 결심하였나이다.》

이번에는 한 몽둥이로 둘을 동시에 후려쳤다. 역시 성공이었다. 그 기세로 내정한 목표까지 냅다 계속 밀었다.

《그냥 놓아두면 후환이 있을가 두렵나이다. 그래서 신의 소견에는 최대감을 보내어 남쪽변방을 수습하게 하였으면 하나이다. 최대감은 그 지방 관찰사를 지닌적이 있어서 그곳 실태를 환히 꿰뚫고있나이다.》

《그리하도록 하라.》

며칠후 박정승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문무백관들을 거느

리고 궁성에서 30리 떨어진 주옥산으로 향하였다. 기치창검을 번쩍이며 선두에 선 의장대의 뒤를 따라 끝없이 줄지어 늘어선 가마행렬과 무수한 인마들…

사인교안의 폭신한 보료에 앉아 휘장을 들치고 행렬을 바라보느라니 꼭 나라님이 된 기분이였다. 교활부짱한 최정승은 어지를 빌어 남쪽변방으로 쫓아보내고 어리숙한 문정승은 궁성을 지키라고 집지기로 떨구어놓았다. 결국 굶은 최정승과 문정승이 했지만 떡은 그에게 차려진 셈이다.

봄을 맞은 주옥산의 수려한 풍치가 마음을 더 한층 흥뜨게 하였다. 노래하는 새, 웃음짓는 꽃, 쓰다듬는 바람, 사품치는 벽계수…

《뚜—》

제사의 시작을 알리며 주라가 길게 울렸다. 제단주위에 의장대가 위엄있게 늘어서고 악대가 자기위치를 차지하였다.

《뚜—》

두번째 주라가 울리자 레조의 관료들이 제물을 차린 제상과 제문을 놓은 제문상, 향로를 놓은 향상을 제단에 배설하였다.

《뚜—》

세번째 주라가 울리자 박정승은 고관대작들을 거느리고 제단에 올라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악대가 왕실제사때마다 울리는 장중한 악곡을 연주하였다. 향로에 향불을 피우고 제문을 읽은 다음 국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늘땅에 아뢰기 위해 제문을 불태웠다.

이어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제관의 구령에 따라 문무백관들이 4배를 하였다. 모든 관료들이 신하된 충성심을 발휘하느라 지성을 다해 절을 하였지만 박정승의 눈길은 못박힌듯 한곳에 멈춰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허, 정말 기막힌 계집인걸.)

보기만 해도 숨이 콕 막히는 아릿다운 그 미녀는 오늘의 제사의식을 위해 특별히 따라온 상궁이다. 백옥처럼 티 한점 없는 흰 얼굴에 흑보석처럼 반짝이는 교태어린 눈동자, 조금만 깨물어도 금시 빨간즙이 흘러나올것만 같은 앵두입술, 막 꽃향기를 풍기는것 같은

울긋불긋한 머리장식과 구름이 서린듯 한 색깔의 치마저고리가 미녀의 아릿다운을 기막히게 더해준다. 보면 볼수록 뽕내맡은 누에처럼 마음을 진정할길 없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안사인이 주인의 심기에서 이상을 느꼈는지 조용한 틈을 타서 그에게 다가왔다.

《대감어른, 어디가 편치 않으시오이까?》

박정승은 축 늘어진 턱으로 미녀를 가리키며 시조를 읊조리듯 말했다.

《제비는 쌍쌍 봄을 즐기고 꾀꼬리도 꾀꼴 짝을 부르는 양춘가절이라 마음이 절로 싱송송해지는구나.》

말을 하며 슬그머니 눈길을 주니 안사인의 눈이 대번에 화등잔만 해진다. 궁녀를 넘본다는것은 임금을 존경하지 않는 불경죄중에서도 제일가는 중죄이니 그럴만도 하다. 인차 거사를 해야 할 놈이 이렇게도 담이 작다구야.

그는 부러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흰목을 썼다.

《여긴 궁성이 아니야. 궁성밖에서는 누구도 내 령을 거역하지 못해!》

《예, 대감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주인의 우직한 성미를 잘 아는 심복이라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급급히 발라맞춘다.

《궁성으로 돌아가면 헛꿈인데...》

박정승은 넉지시 심복의 지혜를 빌었다.

안사인은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지혜주머니라 일컫는 사마귀를 살살 어루쓸며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좋은 수가 떠올랐는지 무릎을 쳤다.

《수가 있소이다. 원래 사람의 수명을 주관하는건 산신령이 아니라 칠성신이나이다. 그러니 밤에 칠성신께 다시 제를 지내겠다고 하시면 궁성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뗏뗏한 명분이 서나이다.》

그것 참 팬찮은 수인걸! 미녀의 아릿다운 자태에 눈길이 못박힌 박정승은 콩 본 하늘소처럼 흥흥거리며 함지배를 슬슬 쓰다듬었다.

그날 밤, 별이 돋는 초저녁에 칠성제를 대충 지낸 그는 립시숙소

로 둘러친 비단장막안에서 안사인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얼마후 장막문이 스르르 갈라지며 안사인이 조용히 들어섰다.

《분부대로 조상궁을 모셔왔나이다.》

몸에 단 패물을 절렁거리며 낮에 보았던 미녀가 들어섰다. 향내가 물씬 진동하며 장막안이 더 환해지는것 같았다.

손시늬를 하자 안사인은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물러갔다.

등잔불에 비쳐진 녀인의 얼굴은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 욕정을 불러일으켰다. 너무 고와서 애뵈보기까지 하였으나 사나이의 육감으로 어루쓸어본 녀인의 몸은 결코 봄날의 버들개지같은 어린 소녀가 아니라 여름숲처럼 싱싱한 처녀였다.

《대감께서는 어인 일로 한밤중에 궁중녀인을 부르셨나이까?》

궁녀의 신분에선 일국의 정승도 한갓 외간사내에 지나지 않는지라 그를 대하는 조상궁의 목소리도 몸가짐도 제법 도고하다. 흥, 궁궐 물을 먹었다고 코대를 세우지만 이 박정승앞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틀진 목소리로 뜨직뜨직 대꾸했다.

《자고로 준마와 보검, 미인은 영웅을 따른다고 했노라.》

쏟아놓은 말의 내용은 들췌치고 하대하는 말투 하나만으로도 당장 목이 잘리울 불손죄이다. 허나 상궁이 아니라 왕후가 앞에 서있다 해도 그는 달리 행동하지 않았을것이다. 왕후나 상궁도 어쨌든 여자다.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왕의 여자라는것뿐이다. 국왕은 지금 꺼져가는 초불이다. 그러니 국왕의 여자들은 임자없는 여자나 다를바 없다. 임자있는 여자도 내것으로 만들수 있는데 임자없는 여자야 더 말해 무엇하랴.

미녀는 얼굴이 희속하니 질리며 눈자리가 날 정도로 그를 쏘아보았다.

《조정신하들의 어른이신 대감님의 입에서 어찌 그런 불경의 말이 나오시나이까.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낮은 말을 듣는다 하였거늘 두 번다시 그런 말을 삼가하시오이다.》

이년이 아직 누구와 상대하는지 잘 모르는군. 육하는 평소의 성미가 되살아났지만 대방이 연약한 아녀자라 너름새있는 마음을 보여줄 양으로 재미나다는듯이 비웃음만 띄웠다.

《옛글에 재사가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재와 미인은 명이 짧다는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것 같구나.》

미녀의 얼굴이 이번에는 파랗게 질렸다.

《방금 네 입으로 하늘소리를 했는데 한갓 아녀자의 총명으로도 인차 어두운 하늘이 무너지고 새 하늘이 열리리라는것쯤은 가히 짐작할게다. 길흥화복은 문이 따로없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무너지는 하늘밑에서 속절없이 스러지는가 아니면 새 하늘세상에서 영웅과 부귀를 같이 누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시각인데...》

입에는 애써 위협을 담았지만 눈에는 절로 간절한 욕구가 담겼다. 구중궁궐의 녀인도 어쨌든 사내를 섬기는 녀인에 불과하다. 오늘은 지금껏 눈요기만 해온 궁녀의 맛을 한껏 볼테다.

미녀는 분노와 수치, 항변과 반발이 담긴 땀뺀 눈길을 그에게 던진다. 하지만 박정승은 그 눈길을 능갈친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정복과 반항의 두 눈길이 불꽃을 튀기며 오래도록 허공에서 맞부딪쳤다. 마침내 반항의 눈길이 눈물을 흘리며 아래로 숙어지고 정복의 눈길에 희열이 찰랑거렸다.

박정승은 이날 온밤을 새웠다. 자기의 나이에 어디서 그런 힘이 용솟음치는지 스스로도 모를 일이었다. 사내를 섬기는 온갖 기량으로 자기를 홀리던 송도국의 명기 옥향이에게도 이런 힘을 발휘한적이 없었다. 사내의 손길이 한번도 닿지 않았던 미개척의 세계였지만 그를 무아경으로 끌어갔다.

《오늘은 영웅을 섬기지만 래일은 나라님을 시침하게 될게다.》

그는 미인의 꽃잎같은 귀에 대고 온밤 이 말을 열백번도 더 하였다. ...

박정승이 몸을 신자 사인교는 어둠속을 향해 출발하였다. 앞에서는 공꿀말을 탄 안사인이 길라잡이마냥 교군들을 인도하고 뒤에서는 바위같은 홍무관이 가라말을 타고 따르며 호위한다.

홍무관은 3년전 무과과거에 급제한 구척장신의 사내이다. 칼과 한생을 같이해온 박정승에게는 사실 호위무사가 따로 필요없었다. 그러나 민중이같은 문정승이 허씨 성을 가진 힘장사를 호위무사로 두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눈에 시여서 보란듯이 무과장원인 홍무관을 호위무사로 삼았다.

박정승은 교자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채 저 멀리 밤하늘에 떠있는 하얀 달을 바라보았다. 어둠속으로 전진하는 자기의 사인교처럼 달도 어두운 밤하늘을 헤가르며 떠가는것 같았다. 보름이 가까와서 달은 거의나 찬 둥근달이다. 왜서인지 어릴적의 일이 생각났다.

글공부를 시작한지 몇달 안되었을 때인데 하루는 날 일자와 달 월자를 잘 분간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회초리에 종아리를 얻어맞았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글자를 만들어낸 사람을 원망하였다. 어린 그에게는 하늘의 해와 달이 하나로 생각되었다. 하나의 둥근 물체가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이 되는데 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여 사람을 아리송하게 하는지 리해가 안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 절로 웃음이 나왔지만 왜서인지 오늘은 어릴적의 그 생각을 그대로 믿고싶었다. 밤하늘을 헤가르는 저 달은 지금의 나다. 이제 새벽이 되면 저 달이 해로 변하듯 나도 이 송도국의 왕이 될것이다. 믿고싶었다. 아니, 굳게 믿었다.

어린시절을 추억하느라니 자기가 택한 지금의 인생길이 백번 옳았다고 생각되었다.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오늘이 없었을것이다.

박씨가문은 대대로 아들이 귀하였다. 그의 5대조상인 현조가 왕

조를 바꾸는 반정에서 큰공을 세워 공신이 되고 가문을 남부럽지 않은 명문거족으로 일떠세우기는 하였지만 그때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여 박씨피줄이 끊길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 그 저주가 들리었는지 고조때도 증조때도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대에도 딸들은 두셋씩 태어났지만 아들은 겨우 하나씩밖에 보지 못했다. 그래서 박씨가문에서는 간신히 이어지는 피줄이 아예 끊길것 같아 아들이 태어나면 절대로 손에 칼을 쥐지 못하게 하였다.

허나 머리가 그리 신통치 못한 집안이라 무과와 리별하고 문과로 나가면서부터는 크게 출세를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겨우 종5품의 벼슬에 머무르고 아버지 박첨량은 벼슬 한자리 얻어보지 못했다.

《대대로 무를 멀리하고 문에 뜻을 두어 글공부에 힘쓰면서 자손들을 주색으로 방탕하지 않게 하면 조상에게 욕이 미치지 않을것이요, 계절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잘 지내면서 부부끼리 화목하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온 집안에 화기가 넘칠것이요, 집안이 화목하고 온갖 일이 뜻대로 풀리면 반드시 비범한 인물이 태어나 가문을 빛내일것이니라.》

이것이 박씨가문에서 세대에 세대를 이어 전해오고 지켜지는 신조였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이 신조를 배신하였다. 그 배신이 그의 가슴속에 처음으로 찾아든것은 9살나던 때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온 궁성이 불안과 공포로 떨었다. 정오에 저자한복판에서 역적들의 목을 친다는 포고가 나붙었던것이다. 사람들에게 형벌을 구경시키라는 조정의 령에 따라 병졸들이 집집마다 돌아치며 궁성안의 남녀로소를 거리로 끌어냈다.

정오가 되자 요란한 북소리를 앞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창검을 비껴든 금위군의 병졸대오가 줄지어 나라났다. 그뒤로 죄수들을 실은 함거들이 빼거리며 굴러왔다. 함거가 하나들 앞을 지날 때마다 구경꾼들이 죄수들을 가리키며 아는체를 하였다.

《맨앞의 사람이 부마야.》

《그뒤는 누군가?》

《잘 모르겠어.》

《모두 높은 벼슬을 했다는데 뭐가 모자라서 역적짓을 했을고.》

《사람의 욕심이라는게 끝이 있수.》

어린 그는 맨앞의 함거에 실려가는 부마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도 아버지랑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동냥해서 이번 역모의 내막을 대충 알고있었다. 지난해에 국왕이 병으로 죽고 어린 세자가 즉위하였는데 왕이 어려서 직접 정사를 보지 못하니 누군가 섭정을 하여야 하였다. 이 섭정권을 놓고 왕의 삼촌과 전 왕의 부마사이에 암투가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피비린내 풍기는 싸움까지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서 부마가 패했다. 권력싸움의 패자는 역적이 되는 법이라 부마도 역적으로 단두대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드디어 참형이 시작되었다.

《목을 쳐라!》

한 장수가 칼을 뽑아 높이 쳐들며 령을 내렸다. 형을 집행하는 관료가 부마의 이름이 적힌 패쪽에 먹을 묻힌 붓으로 금을 쪽 그어 형장을 향해 내던졌다.

병졸들이 부마를 끌어내어 꼼짝달싹 못하도록 형틀에 단단히 결박하였다. 힘줄이나 쓰게 생긴 회자수가 옆에서 받쳐주는 술 한사발을 단숨에 쪽 들이키고나서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커다란 도끼를 공중에서 휘휘 소리가 나게 휘둘러댔다. 시퍼런 도끼날이 햇빛을 정면으로 받을 때마다 발산하는 차디찬 흰빛이 아녀자들의 겁질린 비명소리를 자아냈다.

《야-앗!》

회자수가 힘을 모으며 도끼를 내리치는 순간 어린 그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두눈을 딱 감았다. 잠시후 다시 눈을 뜨니 부마의 머리가 땀뿍이에서 떨어져 저만치에서 뒹굴고 그 주변이 온통 피투성이였다.

그 끔찍한 광경을 더이상 볼수 없어 다시금 눈을 감았다.

이어 다른 죄수들이 차례로 끌려나와 목을 잘리웠으나 그는 계속 눈을 감고있었다. 회자수들이 지르는 고탍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 흠칫흠칫 놀랐다.

눈을 뜨나감으나 그 살풍경이 되살아나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회자수의 얼굴과 커다란 도끼가 계속 눈앞에 얼른거리고 회자

수가 지르던 《야—앗!》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귀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마다 그 모든 피비린 형벌의 시작을 알리던 칼이 눈앞에 언뜻거렸다. 참형의 시작을 알리며 한 장수가 뽑아들었던 칼, 그 칼이 부마를 목없는 귀신으로 만들었다.

그는 형장에서 부마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이전에는 부마를 볼래야 볼수가 없었다. 그만큼 부마는 딴 세상 사람이였다. 길가에서 부마의 행차를 만나면 서둘러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몰래 훑쳐봐도 안되였다. 그런데 것처럼 지체높은 부마도 그 칼앞에서는 공손히 목을 늘어야만 하였다.

칼, 그의 어린 가슴에는 그 칼이 거대한 권력의 상징으로 새겨졌다. 이때부터 그는 칼을 동경하였다. 정확히는 권력을 동경하였다. 베풀어주십사하고 늘이는 목이 아니라 베버리는 칼이 되여야 한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에 칼을 쥐였다. 온 가문이 반대하였지만 악심을 먹고 무예를 닦아 무과에 급제하였다.

당시는 주변나라들과의 영토분쟁이 잦은 때라 무인들이 출세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더우기 국왕이 《무예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를 좋아해서 무예만 뛰어나면 벼락출세를 할수 있었다. 그도 그렇게 출세하였다.

벼슬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소금물과 같아서 한계단 출세하면 그다음 계단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계단에 올라서면 또 다음 계단을 바라보게 된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그의 욕망도 끝없이 부풀었다. 인생의 목표였던 칼에 대한 견해도 바뀌어갔다. 칼날이 되는가, 칼자루가 되는가? 칼날은 칼자루가 시키는대로 고생만 하는 존재였다. 무지렁이 백성들은 칼날을 무서워하지만 칼날은 칼자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기를 쓰고 칼자루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길에는 말할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고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노력과 필사의 의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마침내 한사람에게만 복종하고 만사람에게 호령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정승벼슬까지 툴아올랐다.

정승벼슬을 하사받던 날 그는 임금의 은총에 눈물을 흘리며 백배 사패하였다. 신하로서는 더 바랄것이 없는 최상최고의 영광이고 행

운이라 왕은에 감격하여 진심의 눈물을 흘리었다. 시대의 총아로 내세워준 국왕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충신의 결의도 다졌다.

이때부터 그는 칼자루가 되어 칼날을 마음대로 부리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사시나무 썰듯 하는 부하들을 볼 때마다 권력의 쾌감으로 하여 마음이 흥그러워졌고 자기의 눈치를 보며 설설기는 고관대작들을 볼 때면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이 있는 기분이였다.

만족은 더 큰 만족을 바라는 법이다. 여복하면 넓은 바다는 메워 물으로 만들어도 사람의 욕심은 메우지 못한다고 했겠는가? 정승벼슬보다 더 높이 오르고싶었다. 그러나 그 우로는 벼슬이 없었다. 있다면 칼자루를 쥐는 손인 통상뿐이였다. 통상은 하늘이 점지해주는 것이여서 신하로서는 감히 넘볼수도 없고 넘봐서도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지위였다. 문무를 겸비한 국왕의 뛰어난 천품을 봐서도 통상은 평범한 인간이 영치를 들이밀 자리가 아니였다. 그래서 그는 국왕을 경모했다. 아니, 두려워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국왕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두려움이 점차 사그라져갔다. 두려움이 사그라지기 시작하자 꿈에 왕관과 통상이 얼른거리기 시작하였다.

정승이 아무리 만조백관의 령수라고 해도 어전앞에서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신하에 불과하였다. 어지를 받을 때도 무릎을 꿇어야 했고 어가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했다. 임금을 가리키는 《어》자가 들어간 모든것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꿈속에서 보이던 왕관과 통상이 점점 정으로 돌에 쪼아박듯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하늘이 국왕을 점지해준다면 임금은 하늘처럼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임금도 세월의 흐름속에 나이를 먹을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늙어 죽는다. 그러니 임금도 역시 사람이라는 소리다. 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것은 손만 뻗치면 《어》자가 내것으로도 될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부터 그는 《어》자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임금의 로환과 병환이 깊어질수록 그 손에 힘을 더 가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병

약해도 임금은 역시 임금이라 자연 두려움이 앞섰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졌다. 산 임금은 두려워도 죽은 임금은 두려울것이 전혀 없었다. 지금껏 뻗쳐오던 손으로 이제는 《어》자를 그리주기만 하면 되었다.

《왕궁에 당도했나이다.》

안사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서야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눈앞에 왕궁의 대문이 시꺼멓게 앞을 가로막고 서있었다. 아니, 어서 들어오라고 그를 부르며 열어주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다시금 밤하늘을 우러러 달을 바라보았다. 둥근달은 여전히 어둠을 헤가르며 새벽을 향해 가고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새벽이 멀었다.

4

왕궁안에 들어서자 당직을 서던 내시가 그를 대궐의 제일 바깥채인 외전으로 인도하였다.

박정승은 대궐문앞에 서서 주저하는 안사인과 홍무관에게 따라오라고 눈짓을 하였다. 여느때 같으면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갈수 없는 왕궁이었지만 오늘은 막아나서는 내시도, 궁중시위무사도 없었다.

긴 회랑을 따라 외전으로 가는 동안 황황히 오가는 내시와 궁녀들의 모습이 눈에 띄웠다. 그들의 얼굴마다에 비애의 당황함이 어려있는걸 보니 국왕이 승하한게 분명하였다. 하늘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구나. 마음속의 기쁨을 애써 억누르며 위엄있게 외전으로 들어서던 그는 가뜩이나 큰 종발눈이 아예 왕사발만 해졌다. 문정승이 벌써 와있었던것이다. 저 키다리놈이 어떻게? 역바리같은 최정승이 와있어도 이렇게까지는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아! 상감마마께서 별세하시다니… 망극하오이다.》

문정승은 외전의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앉아 침전쪽을 향하여 머

리를 조아렸다. 목소리는 자못 침통하게 갈리었으나 눈물은 한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문대감!》

박정승은 애써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문정승을 찾았다. 그제서야 그를 본 문정승은 흐느껴울기라도 하는것처럼 몸을 더 세차게 떨었다.

《아, 망극하오이다.》

박정승도 문정승곁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상감마마,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도 있나이까.》

그들은 겨끔내기로 바닥을 두드리며 곡을 하였다.

얼마후 박정승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문정승도 일어섰다.

《문대감은 어떻게 알고 오셨수?》

그는 처음부터 품고있었던 의문을 던지시 던지였다.

《난 운봉산성지에서 새 황금룡상이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받고 너무 기뻐 한달음에 대궐로 달려왔나이다. 대궐안에 까닭없이 일어난 불로 룡상이 타버린 그날부터 전하의 병세가 더 위독해지시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이 희소식을 알려드리면 상감마마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실것 같아 한밤중에 달려왔는데... 상감마마께서 가셨으니 이젠 누가 그 룡상에 앉아 이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요.》

문정승은 앞길이 막막하다는듯 자기 키처럼 삐죽한 턱을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제서야 박정승은 가슴속에 드리웠던 불안과 위구가 바람맞은 연기처럼 훌훌 날아가버렸다. 자기보다 먼저 왕궁에 와있는 문정승을 보는 첫순간 이 키다리가 어리숙한채 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위구가 찾아들었다.

지금껏 야심발발한 최정승은 경쟁의 적수로 생각했어도 문정승은 적수로 생각지 않은 그였다. 최정승은 권모술수에 능하니 자기처럼 궁중에 비밀히 박아넣은 심복을 가지고있을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정승한테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보다 한발 앞선 문정승을 보게 되자 혹시 이놈도 거적문에 들찌귀 달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하고 놀랐던것이다.

《상감마마께서 유서라도 남기셨는지 모르겠소? 유서를 안 남기셨

으면 뒤일을 처리하기가 복잡할텐데...》

박정승은 유서에 관심을 가지는 자기의 속심을 가리우려고 국사에 빙자하여 에둘러 물었다. 문정승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글쎄요. 도승지가 침전에 있다니 그가 나오면 자연 알게 되리다.》

그러니 문정승도 아직은 유서에 대해 모르고있다. 빨리 유서부터 손에 넣어야겠는데 이년은 내 말을 귀양보냈나, 왜 얼굴도 내밀지 않아? 박정승은 속으로 조상궁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이때 조상궁이 내전과 잇닿아있는 문을 통해 외전으로 들어왔다.

박정승은 문정승이 눈치 채지 못하게 뒤로 한발 물러서며 그의 어깨너머로 조상궁과 눈을 맞추었다. 그 눈길에 조상궁은 알릴듯말듯 고개를 젓는다.

이건 또 뭐야? 유서를 못 남겼다는거야 아니면 유서를 손에 못 넣었다는거야. 정확히 물어보고싶으나 곁에 문정승이 있는지라 그럴수도 없다. 그렇다고 한시가 급한데 그냥 이리고만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궁, 저희들을 상감마마의 령전으로 안내해주소이다.》

박정승은 조상궁을 향해 전에없이 깍듯이 례를 차렸다.

《아직은 들어가실 형편이 못되오이다.》

《그럼 침전에 들어가서 도승지에게 우리가 기다린다고 알려주소이다.》

말을 끝내며 이번 역시 문정승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서 들어가라고 종발눈을 끄뻑이며 고개짓을 했다.

《알겠소이다.》

조상궁은 즉시 그들을 등지고 돌아섰다.

조상궁이 나가자 문정승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다시 녀두리를 시작했다.

《박대감, 난 정말 슬픔을 이겨내기 힘드오이다.》

《어찌 문대감만 그러겠소. 나도 같은 심정이요.》

문정승은 그의 말에 도리머리질을 하였다.

《아니오이다. 아니오이다. 내 심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오이

다. 상감마마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이시었는데… 아, 가문의 혈통을 빛내주시던 상감마마께서 가시다니… 이 망극지통을 어이 달랜단 말이웁까.》

잘 논다. 또 그 잘난 족보타령이로군. 저러니 항간에서 《족보정승》이라고 부르지. 박정승은 쓰겁게 입을 다시며 눈살을 찌프렸다.

문정승이 하루아침에 정승감투를 뒤집어쓸수 있는것은 순수 족보 덕이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송도국에는 정승이 박정승과 최정승 두명뿐이었다. 박정승의 검은 손길이 닿아 왕실성원들과 공주들이련이어 죽어나고 나중에는 왕위를 이을 세자마저 불귀객이 되자 국왕은 우울한 심정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최정승이 어전회의에서 국왕에게 뜻밖의 말을 아뢰었다.

《상감마마, 지금 레부의 한 하급관료가 자기를 상감마마의 혈통이라고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 망발을 쳤치고있다 하나이다. 지엄한 왕실을 모독한 이놈을 형부에서 크게 다스릴가 하나이다.》

《뭐라구? 과인과 한혈통이라구?》

대노할줄 알았던 국왕이 뜻밖에도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그놈을 불러들여라. 과인이 직접 국문을 하겠다.》

다음날 대전에서 국왕의 참석하에 국문이 진행되었다. 문씨 성을 가진 키가 꺾두룩한 하급관료가 어전앞에 끌려나왔다. 그 관료가 바로 지금의 문정승이었다.

《네놈이 과인과 한혈통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나?》

《사실이나이다. 신은 상감마마의 피줄이나이다.》

키다리 문씨는 어마어마한 대전안의 분위기에 기가 질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어디 한번 설명해보아라.》

국왕의 말이 너무 뜻밖이어서 잘 믿어지지 않는지 키다리는 슬며시 머리를 쳐들었다. 허나 감히 룡상은 바라보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는 안타까운 눈길로 좌우의 관료들을 바라보았다. 관료들의 얼굴에 비낀 웃음과 국왕의 어조로 보아 죽을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인차 두툼한 족보책을 무려 두개씩이나 꺼내놓았다. 처음에는 관청에 온 촌담처럼 얼쳐서 혀가 굳어져 말이 딱딱 끊겼으나 차츰 긴장이 풀리며 흥타령을 하듯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송도국의 15대왕이었던 문종왕은 소신의 14대 할아버지의 조카와 이쪽 줄기로 쪽 이어져서 6촌형제간이 되고… 이 해보왕은 우리 고조할아버지의 외삼촌의 증조할아버지와 4촌형제간으로서 력대 왕족에 속하옵고…》

거의 한식경이나 계속되는 족보설명에 관료들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연방 터져나오는 고달픈 하품을 가까스로 참았지만 국왕은 인내성있게 마지막까지 귀담아들었다.

《그러니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빨래줄처럼 긴 설명이 끝나자 국왕이 물었다.

《문종왕은 소신과 이십팔촌이 돼옵고 해보왕은 삼십사촌이 돼옵니다.》

순간 관료들은 키득거리며 국왕의 태도를 결눈질하였다. 허나 국왕의 얼굴에는 웃음기란 그림자조차 없었다. 진지하면서도 심사숙고하는 사색만이 흘렀다.

누구라없이 흠칫하며 긴장해서 자라목을 하였다. 임금의 비위를 거슬리면 아무리 자라목을 해도 목건사를 할수 없다.

마침내 국왕의 입이 서서히 열리었다.

《경이 과인과 한혈통임에 분명하도다.》

《놈》자가 대번에 《경》자로 바뀌고 며칠후에는 정승으로 임명한다는 어지가 내렸다.

국왕은 문정승을 보기만 하면 《과인의 친족정승》이라고 부르며 각별히 총애하였다. 그때마다 박정승은 막 최정승의 족제비뺨을 철썩 후려갈기고싶었다. 생쥐같은 최정승이 왕실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보이려고 역빠른 피로 아침을 하려다가 국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정승이 한명 더 생기는 결과를 가져와서이다. 필경 국왕은 세자와 공주, 왕족들을 잃은 슬픔을 문정승에게서 잊고 또 자기 박정승과 최정승을 경계하느라고 먼 뼈다귀인 문씨를 정승자리에 앉힌게 분명하였다.

《아! 우리 가문의 자랑찬 혈통이 끊어져선 안되겠는데…》

계속되는 문정승의 녀두리에 박정승은 다시금 바짝 긴장되었다. 이 족보정승이 계속 족보타령만 하는걸 보니 정말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잠시후 도승지가 외전에 들어섰다. 승정원의 기본사명이 어지를 처리하는 일이니 유서는 필경 승정원의 책임자인 도승지가 받았을 게 분명하였다.

박정승은 만일을 생각하여 커다란 종발눈에 힘을 주며 도승지에게 물었다.

《도승지, 상감마마께서 유서를 남기셨는고?》

도승지는 그의 눈길에 위압되어 서둘러 허리를 굽혔다.

《상감마마께서는 유서를 남기지 못하셨나이다.》

행어나 했던 가슴속의 기대가 물먹은 담벽처럼 와르르 허물어졌으나 인차 그만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금의 유서는 곧 법이라 왕위계승자로 자기가 지정되어있으면 별일 없지만 다른 그 누군가의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야단도 큰 야단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유서가 없는 편이 나았다.

《아무 유연도 남기신것이 없는고?》

이번에는 문정승이 물었다.

《아퇴옵기 황송하오나 상감마마께옵선 세 정승중에 왕권을 넘겨 줄만 한 총신이 과연 어느 정승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며 새 임금을 점지할 무슨 말씀인가를 부원군님한테 남기셨나이다.》

《그럼 어서 부원군님을 만나야겠다.》

박정승은 등이 달아 헤덕뻐다.

《부원군님께서서는 최대감이 온 다음에 세 대감님을 함께 만나시겠다고 했나이다.》

《뭐라구? 최대감이 온 다음에 만나겠다구?》

그는 대뜸 눈살이 꺾뻐졌다.

(최정승이 온 다음에 만나겠단 말이지.)

왜서인지 박정승은 속이 깨름하였다. 혹시 국왕이 최정승을 왕위 계승자로 점지한건 아닐가? 십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국왕은 령토분쟁과 정복전쟁에 분투하던 젊은 시절에는 무를 중시하며 무인을 총애하였지만 말년에는 무인보다 문인을 더 중히 썼다.

《령토는 칼로 넓히지만 정사는 붓대로 하느니라.》

무인들이 문인들을 질투하여 칼자루에 손을 가져갈 때마다 국왕은 이런 말로 무인들을 놀려놓곤 하였다.

국왕은 병석에 누운 후로 박정승에게는 군사일만 맡기고 이어의 정사는 거의 모두 최정승에게 위임하였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고 문과에 장원급제한 최정승은 학식도 많았지만 천성적으로 교활하여 임금의 비위를 잘 발라맞추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박정승 자기는 피흘려 쌓은 공로덕에 국왕의 신임을 얻었다면 최정승은 아첨으로 그이상의 신임을 쟁취하였다.

불안하였다. 무거운 걱정으로 찌뿌둥한 가슴속이 통 개이질 않았고 최정승에게로 신경이 썩여질수록 국왕이 패썩하기만 하였다. 확실히 국왕은 사람을 잘못 봐, 공신과 충신들을 제껴놓고 아첨쟁이들만 좋아했거던. 박정승은 자기가 국왕을 배신하고 신성한 왕위를 넘겨보게 된것도 다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한 국왕의 잘못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였다.

박정승은 자기를 충신이라고 자부하였다. 최정승은 책에서 따로 외운 글로 국왕을 현혹시키고 갖은 아첨으로 총애를 얻었지만 자기는 목숨으로 총애를 쟁취하지 않았는가. 그의 눈앞으로는 국왕의 첫 신임을 받던 때의 일이 감회깊게 흘러갔다.

어느해인가 국왕이 백마국에 다녀온적 있었다. 겉으로는 백마국황

제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지만 내심은 백마국의 형편을 내탐하기 위해서였다. 백마국황제는 땅이 넓고 나라가 큰것을 턱대고 손아래별인 송도국을 삼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있었다.

당시 궁중시위무사였던 박정송도 국왕을 따라 백마국으로 갔다.

백마국황제는 생일연회가 끝난 다음날 두 나라 무사들간의 무술경기를 조직하였다. 대국인 자기 나라의 실력을 과시하여 야심발발한 송도국의 예기를 꺾어놓자는것이였다. 송도국왕은 백마국황제의 속심을 모르지 않았지만 주인의 청이라 손님으로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붕— 붕— 등등등—

길게 울리는 나팔소리와 요란한 북소리속에 두 나라 무사들이 시합장에 나섰다. 활쏘기에 각각 10명의 무사가 선출되고 창겨루기에도 각각 10명의 무사가 선정되였다. 그는 창겨루기에 나가게 되였다.

먼저 활쏘기시합이 시작되였다.

《오늘의 시합은 이름난 무사들의 겨루기이니 목표를 백보가 아니라 3백보밖에다 세워라.》

시합을 주관하는 백마국정승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송도국무사들은 대번에 얼굴빛이 흐려졌다. 3백보이상의 거리에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활쏘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재간겨루기가 아니라 활의 위력을 겨루는것이였다. 백마국의 속심은 불보듯 뻔하였다. 수공업이 발전하고 쟁인바치들의 기술이 뛰어난 백마국은 위력이 센 강궁을 가지고있었다. 백마국의 강궁은 이웃나라들이 모두 혀를 내두를만큼 소문난 활이였다. 허나 송도국에는 백마국의 강궁만큼 센 활이 없었다.

활쏘기시합은 시작하자마자 승부가 결정되였다. 백마국무사들의 강궁에서 날아간 화살은 어김없이 목표에 들어맞았지만 송도국무사들이 날린 화살은 목표근방에 간신히 날아갔다.

커다란 차일아래 앉아 궁녀들이 공작새깃부채로 슬슬 부쳐주는 바람을 맞으며 시합을 바라보는 백마국황제의 얼굴에는 흡족한 웃음이 피어올랐고 옆에 앉은 송도국왕은 수치와 모욕감으로 얼굴을 붉히였다.

《다음은 창겨루기 시합이다.》

백마국정승의 령에 따라 량편 무사들은 각각 좌우에 진을 치고 진 앞에 세워놓은 나무올타리에 자기의 방패를 내걸었다. 창겨루기시합은 첫 무사가 나와 상대편 진에 걸려있는 방패들중 한 방패를 창으로 건드리면 그 방패의 임자가 시합을 건 무사와 똑같은 창을 가지고나와서 겨루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백마국에서 먼저 첫 무사가 나왔다. 구척장신에 얼굴이 검고 두툼한 입술과 턱주위에 밤송이처럼 총이 센 수염이 한벌 뒤덮여 보기만 해도 위엄과 두려움을 자아냈다. 백마국무사는 놀랍게도 흰색, 밤색, 검은색, 회색의 털빛이 서로 다른 4필의 말을 나란히 끌고 시합장 한복판으로 나섰다.

《무슨 창으로 겨루겠는가?》

《나무창으로 겨루겠나이다.》

백마국무사는 옆에서 넘겨주는 나무창을 받아들고 말을 곧추 달려 송도국 진앞에 걸려있는 방패중 제일 첫번째 방패를 창끝으로 건드렸다.

방패임자인 송도국의 무사도 나무창을 쥐고 말우에 올랐다. 송도국에서는 창겨루기에서 손꼽히는 무사였다.

두 무사는 자기 진앞까지 물러갔다가 신호에 따라 나무창을 쏘아 들고 상대방을 향해 말을 때려몰았다. 상대방이 가까와오자 송도국 무사는 고탈음을 지르며 창을 힘껏 내질렀다. 순간 백마국무사는 몸을 훌쩍 날리며 옆말로 옮겨앉았다. 송도국무사가 말고삐를 잡아채며 재차 중심을 잡고 다시 창을 휘둘렀으나 백마국무사는 이번에도 몸을 날려 다른 말로 옮겨탔다. 백마국무사의 뛰어난 기마술에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감탄했다.

백마국무사는 말우에 앉아 옆말들의 고삐를 당겨 자기의 말들이 송도국무사의 말을 에워싸게 하였다. 네필의 말들에 둘러싸인 송도국무사의 말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 기회를 타서 백마국무사는 연방 말을 바꾸어타며 창끝으로 허둥대는 송도국무사의 빈틈을 기습하였다. 백마국무사는 고양이가 쥐를 데리고놀듯 송도국무사를 희롱하였고 송도국무사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창끝을 피

하느라 찢찢매였다. 백마국무사는 비웃음을 띄고 한창 장난질을 하다가 몽둥이로 후려갈기듯 창자루로 송도국무사의 잔등을 힘껏 내리쳤다. 한순간 비칠거리던 송도국무사는 강한 타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우에서 굴러떨어졌다.

《이겼다! 우리 백마국이 이겼다!》

백마국의 구경군들이 일제히 환호를 올렸다.

환호소리에 기고만장한 백마국무사는 다시 송도국 진으로 가서 두번째 방패를 건드렸다. 시합규정에 따라 한 무사가 두번까지는 겨루기를 할수 있었다.

송도국에서 두번째 무사가 출전하였으나 그의 운명도 첫번째 무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마가 깨어져 피를 쏟으며 땅에 코를 박은것이다.

《또 이겼다!》

백마국무사는 환호에 답례하며 의기양양해서 진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송도국에서 백마국에 도전을 걸 차례였다. 그러나 첫 순서로 나가게 되어있는 무사는 기가 질려 일어설념을 못했고 다른 무사들도 서로 눈치만 봤다. 송도국국왕의 얼굴색은 무사들의 얼굴색보다 더 퍽퍽하였다.

떡장구름이 드리운 국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정승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천성적으로 담이 큰 그는 겁을 먹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담력을 시위하여 국왕의 눈에 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말에 올라 시합장 한복판으로 나서며 재빨리 생각을 굴리었다. 시합도 진짜싸움처럼 담력으로 이겨야 한다. 재주는 절대 담력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창으로 하겠는가?》

《쇠창으로 하겠소이다.》

그의 대답에 백마국정승은 흠칫 놀랐다. 친선시합에서는 누구나 쇠창을 쓰기 저어하는게 관례였다.

《몽툭한 창으로 하겠는가, 뾰족한 창으로 하겠는가?》

《뾰족한 창으로 하겠나이다.》

순간 장내가 술렁이며 비명과 감탄이 터져나왔다. 뾰족한 창을 택한다는것은 결국 목숨을 걸겠다는것이다.

그는 섬겨주는 죄창을 받아들고 백마국 진을 향해 말을 달리었다. 그러면서도 국왕에게 눈길을 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국왕은 긴장파 기대가 한껏 어린 눈길로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국왕의 간절한 눈길이 자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그의 온몸을 달아오르게 하였다. 그는 상대편 진지에 가서 10개의 방패를 모두 건드렸다. 다시금 장내에 감탄이 터져나왔다.

모든것이 그의 예견대로 되었다. 단번에 10명에게 도전을 걸자 백마국무사들은 하나같이 긴장해서 재주를 변변히 발휘하지 못했고 처음에 나왔던 백마국의 첫째가는 무사도 저희편 무사들의 말이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 복새통이라 뛰어난 기마술을 변변히 발휘할수 없었다. 한명, 한명, 또 한명... 백마국무사들이 차례로 모두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창겨루기시합은 송도국의 승리로 끝났고 국왕의 얼굴에는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과 휘황한 출세를 담보해주는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그 시절을 회고하니 절로 감개무량해지고 그럴수록 최정승에 대한 증오가 갑절 더해진다.

박정승은 한옆에서 코를 끌며 쿵쿵 자는 문정승을 부럽게 바라보았다. 어리석은 문정승은 아무 야심도 없으니 썬평 좋게 자지만 그는 등이 달아 잠을 이룰수 없었다. 문정승은 남쪽변경에 가있는 최정승이 국왕의 별세소식을 받고 궁성까지 오자면 이틀후에야 당도할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심복들을 통해 최정승이 지금 남쪽변경이 아니라 동쪽의 해청도에 가있다는걸 알고있었던것이다. 최정승은 왕궁에 줄을 가지고있으니 파발이 가닿기 전에 심복들한테서 먼저 소식을 받고 떠날것이다. 그러니 틀림없이 새벽녘이나 오전중에는 당도할것이다.

역시 박정승의 짐작은 빗나가지 않았다. 최정승은 날이 밝은지 얼마 안되어 궁성에 당도하였다.

《아! 상감마마, 이게 꿈이오이까 생시오이까. 믿어지지 않소이다. 망극하오이다.》

최정승은 외전에 들어서자마자 말뚝같은 작은 몸통을 통채로 어푸러뜨리며 애통한 목소리로 곡을 하였다. 작은 뺨새눈에 무슨 물이 그리도 많은지 찰찰 흘러내리는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허, 저놈이 아침을 배우더니 우는데도 미립이 뒸는걸. 박정승은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꼴이 역겨워 보다 못해 한마디 던졌다.

《최대감, 그만 진정하오.》

허나 최정승은 계속 바닥을 두드리며 통곡했다.

《날 말리지 마시오이다. 그래도 두 대감은 상감마마의 림종을 지켜드렸지만 나야 멀리 남쪽변경에 가있다나니 상감마마께서 운명하시는걸 보지 못하지 않았소이까. 실컷 울기라도 하게 해주시오이다.》

《우리도 상감마마께서 운명하시는걸 보지 못했소이다.》

문정승의 말이다.

그러자 최정승은 지금껏 슬피 통곡하던 사람같지 않게 난딱 일어서며 양바탕한 목에 피대를 돌구었다.

《그게 사실이요? 머리큰 정승이 들썩이나 곁에 있으면서 상감마마의 림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니 그게 어디 신하된자의 도리요? 대감들이 늘 부르짖던 충의는 빈말이었구려. 아, 이 최정승이 궁성에 있었어야 하는건데… 날 막내자식처럼 여기서이며 늘 최정승, 최정승 하시던 상감마마이시었으니 내가 곁에 있었으면 마음놓고 눈을 감으셨겠는데…》

최정승은 원통하다는듯 가슴을 팡팡 두드렸다.

문정승은 할말을 찾지 못해 얼굴을 붉히며 어쩔바를 몰라했으나 박정승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테지. 네놈이 대결안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떠났구나. 그런데도 예까지 오면서 생각해냈다는 수가 그게 고작이냐? 박정승은 느물느물 웃으며 최정승에게 면박을 주었다.

《최대감, 대감이 있었다 해두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을거요. 나는 물론이고 평소에 친족정승이라고 부르던 이 문대감도 부르지 않았는데 최대감이 있었다 한들 상감마마께서 찾으셨을것 같소?》

부러 올리추며 꺼들자 문정승도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암, 그렇구말구요.》

최정승은 기색이 약간 달라지더니 말머리를 돌렸다.

《여봐라, 내가 가져온 왕새우를 상감마마의 제상에라도 놓아드리게 수라간에 가져가거라.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왕새우여서 그걸 잡수시면 병이 나오실것 같아 불원천리하고 달려왔는데 야속하게도 한발 늦었구나.》

《알겠소이다.》

최정승의 사타구니를 긁어주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심복 유검상이 즉시 밖으로 나갔다.

유검상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박정승은 오른손으로 량쪽 메주볼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최정승에게 눈길을 주었다.

《최대감, 대감은 전하의 령을 받고 남쪽변경에 가있었는데 동해의 특산인 왕새우는 어디서 구하셨수?》

슬쩍 날린 화살은 정통을 찔렀다. 막힐줄 모르던 최정승의 입이 빗장을 걸기라도 한것처럼 열리지 못하고 눈확에서 눈알만 뱅뱅 돌아갔다. 허나 그것도 순간일뿐 역시 뺨이머리는 뺨이머리였다.

《해청도에서 가져왔소이다. 백마국놈들이 변경에 많은 군사를 집결시켜놓는걸 보니 꼭 전쟁이 일어날것 같아 상감마마의 피난처를 정해드리려고 해청도에 갔댔지요.》

해청도에 갔다는걸 속이면 어명을 어긴 죄를 따지려 하였으나 국왕을 위해 갔댔다니 더 트집을 잡을수가 없었다.

이때 안사인이 그에게 다가와 귀속말로 알려주었다.

《부원군님이 오십니다. 지금은 그한테 잘 보이는게 상책이니다.》

옳다. 통상이 왔다갔다하는 운명적인 시각에 체면이나 체통을 생각하면 안된다. 지랄이 필요하면 지랄을 부리고 아양이 필요하면 아양을 떨어야 한다. 하되 저 생쥐놈보다 더 잘해야 한다.

박정승은 부원군이 걸어오고있는 회랑까지 들릴수 있도록 큰소리로 찌렁찌렁 울리게 말했다.

《대감들, 자고로 충신은 임금이 승하하면 뒤따라 순사하여 저세상에까지 가서 모셨다하거늘 우리도 그렇게 하여 지금껏 받아온 상감마마의 은총에 보답하고 만천하에 충신의 넋을 보여드리지요.》

《?!》

예측했던대로 두 얼굴과 눈들이 즉시 꼳꼳해진다. 별안간 청을 높은 목소리에 놀라고 순사하자는 말에 기겁한 모양이다.

《왜들 놀라시우? 목숨이 그렇게도 아깝소? 상감마마를 위해 살던 우리 목숨인데 상감마마가 없는 지금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필요하오. 자 문대감, 문대감이야 상감마마의 피출인데 뭘 망설이는 거요?》

그는 만만한 문정승을 다그어대며 손을 내밀었다. 문정승은 엉겁결에 그가 내민 손을 덥석 쥐었다.

《목… 목숨을 끊… 끊읍시다.》

이번에는 비장한 표정으로 최정승에게 눈길을 주었다.

《최공은 우리와 뜻이 다르오?》

그의 부름에 최정승도 서서히 손을 든다. 그런데 그들의 손을 잡는것이 아니라 두손을 얼굴앞에 모아잡았다.

《정말 대감들의 충의에 감복을 금할수 없나이다. 대감들같은 충신들이 있어 이 나라가 지금껏 존재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줄로 아오이다. 허나 나까지 가면 상감마마의 장례는 누가 주관하겠나이까? 내 상감마마의 장례를 잘 치르는것으로 신하된 본분을 마지막까지 다하고 뒤따라 가겠으니 두분께서는 마음놓고 가시오이다.》

기막힌 팽이머리, 막힘없이 립기응변하는 언변에 입이 딱 벌어졌

다. 정말 쥐창에도 걸리지 않을 기름쥐다.

문정승이 쥐고있던 그의 손을 슬며시 놓는다.

《박대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의 혼처를 정한 다음 인차 대감의 뒤를 따라가겠으니...》

문정승은 얼굴을 붉히며 어색해서 말도 변변히 못한다.

《그 집 아들이야 상감마마의 주선으로 우리 딸과 혼약을 맺지 않았소?》

《박대감네 딸이야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훨씬 우이고 또 궁합도 맞지 않는다는데...》

박정승은 쓰겁게 입을 다셨다.

《그렇게도 목숨들이 아깝소? 그리구도 충신인가 말이요. 좋소. 다들 싫다니 나 혼자라도 저승에 가서 상감마마를 모시겠소. 여봐라! 이 혈서를 부원군님에게 전해드리거라.》

그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품안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온 혈서를 꺼내 안사인에게 주었다. 혈서를 받아든 안사인도 자못 비통한 표정을 꾸뻘었다.

박정승은 마지막결심을 내린듯이 하늘을 우러러 두팔을 한껏 벌리며 외전이 드릉드릉 울릴 정도로 소리쳤다.

《상감마마, 송도국의 충신 박정승 상감마마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이어 당장 칼을 뽑아 자결할것처럼 오른손을 왼쪽옆구리로 척 가져가던 그는 아빨싸하며 자기의 이마를 찼다.

《대궐에 칼을 차고들어오면 안된다는 왕궁의 법도만 생각하다니 그만 칼을 못 가져왔구나. 아, 원통하구나! 칼이 없어서 상감마마의 뒤를 따르지 못하다니...》

《?!》

긴장해서 그의 행동을 지켜보던 최정승과 문정승은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렸다. 잠시후 최정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박정승에게 한발 다가섰다.

《대감, 칼이 없다고 그 장한 뜻을 쉬이 버려서야 되겠소이까? 칼이 없으면 저기 대돌에 이마를 쪼아서라도 상감마마를 따라가시오

이다.》

순간 박정승은 최정승을 향해 종발눈을 치켰다.

《여보 최대감, 그렇게 불품없이 죽어서야 저승에 가서 그 흉한 얼굴로 어떻게 상감마마를 모시겠소?》

그의 말에 문정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다.

《박대감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렇게 불품없이 죽어서야 안되지요.》

그런데 문정승의 다음말이 기막히다.

《여봐라, 밖에 시위무사 없느냐?》

호령소리를 듣고 문밖에서 외전을 지키고있던 한명의 시위무사가 들어왔다. 문정승은 무슨 령인가 하여 긴장해서 서있는 시위무사에게 박정승을 가리켜보였다.

《박대감께서 상감마마의 뒤를 따라 순사하시겠다고 하니 네 칼을 대감님께 드리거라.》

시위무사는 눈이 휘둥그래서 세 정승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그러는 시위무사에게 최정승이 발까지 탕 구르며 재촉했다.

《어서 빨리 드리지 못할고!》

시위무사는 흠칫 놀라며 서둘러 허리에 찌던 칼을 뽑아들었다. 최정승은 그 칼을 받아 박정승에게 내밀었다.

《박대감, 여기 칼이 있으니 어서 불품있게 순사하시오이다.》

박정승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이겨내느라 얼굴의 오관이 모두 이지러졌다. 허나 일단 입으로 뱉아놓은 말이고 또 시위무사까지 지켜보는 판이라 그 칼을 받아들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는 다른 구실이 더 없으니 어떻게든 부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러 젖은 목소리를 지어내며 두 정승에게 말했다.

《그럼 내 죽은 다음에 묘나 잘 써주오.》

《그런 걱정은 조금도 말고 어서 편안히 가시오.》

최정승의 이 말에 문정승도 한마디 보태었다.

《이렇게 먼저 가는 박대감을 보니 감동을 금할수 없소이다.》

박정승은 서서히 칼을 목에 가져갔다.

《아, 상감마마! 송도국의 유일한 총신 박정승 상감마마를 모시고져 따라가나이다.》

앗! 하며 힘을 주는 소리가 나자 모두가 손에 땀을 쥐었다. 허나 다음순간 박정승은 피 한방울 묻지 않은 칼을 목에서 내리웠다.

《아니로다! 내 생각이 짧았도다!》

《?!》

《백마국놈들이 쳐들어오고있는데 상감마마께서 부원군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도 모르고 나까지 죽으면 공들이 누구한테 의거해서 나라를 지켜내겠소?》

최정승과 문정승의 입에서 동시에 허- 하고 허거픈 웃음이 흘러 나왔다.

《힘들게 구실을 찾아내셨소이다.》

《수고하셨는데 어서 그 땀이나 씻으시오이다.》

그 찰나 도승지와 부원군이 외전에 들어섰다. 부원군이 조용히 오른손을 쳐들자 뒤를 따라오던 총관내시가 대전안의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상감마마의 유언이요!》

외전안이 순간에 물뿌린듯 조용해지고 너나없이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다. 박정승도 서둘러 무릎을 꿇었다. 학수고대하던 유언이라 가슴이 쿵쿵 방망이질을 해댔다.

체소하고 로약한 부원군의 가냘픈 목소리가 모기소리처럼 들려왔다.

《상감마마께옵서는 운명직전에 꿈을 꾸셨사운데 그 꿈에서 운봉도사님을 만나뵈우셨다고 하시였노라. 그러시면서 불원간 운봉산에서 수십년 도를 닦은 운봉도사가 나타나 새 룡상에 앉을 임금을 정해줄터이니 그 도사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였노라.》

《상감마마의 유언을 삼가 받들겠나이다.》

모두가 국왕의 령전이 있는 칩전쪽을 향해 세번 큰절을 하였다. 박정승은 누구도 모르게 혀를 깨물며 남들을 따라 절을 하였다.

박정승은 앙앙불락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동안 교자안에서 어찌나 태질을 했는지 풍랑만난 쪽배처럼 기우뚱거리는 가마를 바로 잡느라고 교군들이 진땀을 뻘었다.

그는 집에 당도하는 길로 장지문을 꼭 닫고 안방에 들어박혔다.

생각할수록 국왕의 장인인 부원군을 미리 해치우지 못한게 분했다. 왕실의 기둥뿌리를 빼려고 서캐잡이하듯 왕실성원들을 하나하나 골라가며 모조리 없애치웠으나 늑다리 부원군은 산 송장이나 다름없어 그냥 놔두었다. 그런데 귀신같지 않은게 사람을 잡는다고 그 산 송장이 화근으로 될줄이야. 그 두상만 없었다면 국왕은 꿈이요, 운봉도사요 하는 유언을 남기지 못했을것이다. 설사 남긴다 해도 도승지한테나 남겼을것이고 도승지는 내 눈치를 보며 유언을 전달하지 않았을것이다. 아니, 이 박정승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유언을 전달했을것이다. 너무 분해 신음소리를 내며 골통을 싸쥐었다. 피가 마르는것처럼 속이 타고 부아가 상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퇴기등에 머리를 짓조아야 직성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았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일광검이 눈에 띄우자 저도 모르게 이를 사려물었다. 백마국무술시합에서 세운 공을 표창하여 국왕이 하사한 보검이다. 일광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섬광처럼 눈부신 빛이 번쩍인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목을 베어도 칼날에 피가 묻지 않는 보검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집에 꽂혀있는 보검을 쭉 뽑아들었다. 순간 칼날에서 발산하는 싸늘한 흰빛이 눈을 쿡 찔렀다. 왼손을 들어 칼날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수많은 적수들을 목없는 귀신으로 만든 칼이건만 날은 조금도 무디지 않았다.

칼자루를 쥐니 본능적으로 온몸의 근육들이 푸들푸들 떨고 피가

와글와글 소리를 내며 뚫는다. 서서히 발을 벌려디디고 수평으로 높은 왼팔우에 칼을 수직으로 세우며 기본검술자세를 취했다.

얏! 하고 손에 힘을 주며 허공에 대고 칼을 한번 휘둘렀다. 획—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기분좋은 소리를 냈다. 귀에 익은 그 소리를 들으니 오래동안 말아보지 못한 피비린내를 맡고싶었다. 눈앞에 환영들이 떠올랐다. 부원군, 최정승, 문정승… 얏! 얏! 진짜 목을 베는 것처럼 힘을 주어가며 그 환영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칼을 휘두를수록 몸에 열이 났다. 이 길로 곧장 달려나가 그들의 목을 베버리고싶었다. 룡상으로 가는 길을 막아나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단칼에 요정내고싶었다.

《경의 담력에 이 보검이 짝을 이루면 천하에 맞설자가 없을것이다. 파인이 사랑하던 보검을 하사하거늘 파인이 팔다리처럼 믿는 고정지신이 되고 나라를 버티는 기둥인 동량지신이 될지어다.》

국왕이 보검을 하사하며 한 말이다. 국왕의 말이 옳았다. 박정승 자기의 담력에 이 보검을 드니 누구도 적수가 되지 못했다. 《아직 입에서 젖비린내나는 아이놈이 감히 이 송도국땅을 침범하느뇨. 빨리 나와 내 칼을 받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 말을 달리며 보검을 뽑아들면 외적의 머리가 추풍락엽처럼 땅에 떨어졌고 《이 알량한 선비나부랭이들아, 너희들 목에는 내 칼이 안들줄 아느냐!》 하고 눈을 부라리며 보검을 뽑아들면 조정안의 적수들이 어깨를 움츠리고 벌레처럼 그의 발밑에서 설설기였다.

지금껏 칼로 자기를 지켜왔으며 칼로 공을 세우고 칼로 적수들을 무찔러왔다. 그래서 문정승은 족보정승이라 하고 박정승 자기를 칼정승이라고 한다. 칼부림을 잘하고 칼부림밖에 모른다는 소리지만 그다지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부림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다, 나는 몸에 배이고 굳어진것이 칼부림이다, 칼로 정승이 된 것처럼 칼로 왕이 될테다, 온 궁성을 피바다에 잠그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룡상을 차지할테다,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왕관을 빼앗기지 않을테다!

결심이 굳어질수록 몸이 핫핫 달아올랐다. 드르릉 장지문을 열어 제끼고 마루에 나섰다. 시원한 밤공기가 목덜미와 팔소매로 스며들

며 달아오른 몸을 식혀준다. 허나 마음만은 식혀주지 못했다. 그는 손에 찬 칼을 부들부들 떨며 킁킁한 밤하늘을 우러러 고향을 질렀다.

《이놈들! 네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릴테다!》

난데없는 고향소리에 바깥채와 안채의 문들이 벌컥벌컥 열리며 손에 횃불을 추켜든 하인들과 하녀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쏟아나왔다.

《대감님, 무슨 일이오이까?》

안사인이 조심히 옆으로 다가왔다.

박정승은 말없이 고개를 흔들며 눈을 감았다. 저도 모르게 두볼로 찻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하들과 종놈들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허나 부끄럽지 않았다. 슬픔의 눈물,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맹세의 눈물이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대감님,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오이다. 우리가 먼저 운봉도사를 마중가면 모든 일이 얼음에 박밀듯 순조롭게 풀려나갈것이나이다.》

귀가 버쩍 튼 소리에 눈을 버쩍 떴다. 안사인이 이마의 지혜주머니를 슬슬 문지르며 히죽히 웃고있었다.

《래일 아침에 운봉산쪽으로 사람을 파하겠나이다.》

그렇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박정승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오늘 밤중으로 당장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른 놈을 보낼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가야겠다.》

그는 차비를 끝낸 안사인이 여러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대문을 나서는데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민천산은 음—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눈을 떴다.

《주인님, 정신을 차리셨군요.》

하녀 어평녀의 눈물젖은 얼굴이 희미하게 안겨온다. 차츰 정신이 들며 주근깨가 보송이처럼 박혀있는 어평녀의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툭툭히 보인다. 이년이 궁상맞게 눈물은 무슨 눈물이뇨?

몸을 일으키려고 움찔하는 순간 뼈마디가 쿡쿡 쭈셔나며 모진 아픔이 온몸을 엄습하였다. 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비명소리와 함께 맥을 잃고 철썩 뒤로 쓰러졌다. 불기와 두다리가 막대기처럼 뻗뻗하고 제 살갈지 앓다. 그제서야 곤장을 맞던 일이 생각키웠다.

《꼭 나홀만에 정신을 차리셨나이다.》

어평녀의 갈린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홀이라구? 그럼 내가 나홀동안이나 정신을 잃고있었던 말인가?

저러나는 아픔에 조용히 두눈을 감았다. 몸도 아팠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프다. 선비한테 매를 드는 그런 무지한 놈이 무슨 정승이란 말인가. 자기에겐 곤장을 내리고도 눈섭 하나 까딱 안하던 최정승의 족제비상이 환영으로 얼른거린다. 그 환영을 깨물어죽일듯이 부드득 갈았다.

최정승이 해청도에 내려왔다는 소문이 시골에서 사는 그의 귀에까지 들려온것은 닷새전이였다.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즉시 청려장을 짊고 백발을 날리며 초가집을 나서 최정승이 류숙하고있는 감영을 찾아갔다.

비록 갈건을 쓰고 베옷을 걸친 초라한 차림이였지만 위엄있게 백발수염을 내리쬐며 파수군들에게 조정에서 내려온 정승을 만나러 왔다고 선통했다. 허나 파수군들은 궁궐이 도는 시골선비의 행색에 눈살을 찌프리며 대문가까이로 범접도 못하게 하였다.

온갖 공상을 다하며 허위단심 달려온터라 절대로 그냥 물러설 수 없었다. 민천산은 배심있게 감영대문앞에 매달아놓은 북을 두드렸다. 그 북은 백성들이 관청에 억울함을 상소할 때 두드리는 북이라 즉시 형방비장과 병졸들이 나와 그를 관찰사앞으로 데리고 갔다.

관찰사는 자기앞에 끌려온 그를 보고 귀찮다는듯 손을 내저었다.

《망녕이 든 령감이로군. 또 벼슬을 달라는 청을 하러 왔느뇨?》

《아니올시다, 조정에서 내려온 정승어른을 뵈우려 왔나이다.》

관찰사의 얼굴빛이 약간 달라졌다.

《최대감과 안면이 있는가?》

《모르면 만나겠다고 하겠소이까?》

나중엔 어떻게 되든 우기고볼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정승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쫓겨갈수 있었다.

즉시 대접이 달라졌다. 아전을 시켜 그를 감영의 객실로 모시게 하고 관찰사 자신이 직접 최정승에게 알리러 갔다. 지금껏 그를 뺨대해온 관찰사라 최정승과 안면이 있다는 말에 뒤가 썩은 모양이었다.

얼마후 최정승이 작은 몸을 끌고 그가 있는 방에 들어섰다.

《누가 나를 찾아왔다구?》

민천산은 서둘러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코를 박았다.

《대감어른께 해청도의 로선비 민천산 삼가 인사를 올리나이다.》

《민천산?!》

최정승은 생각을 짜내는지 미간을 쪼프리며 고개를 기웃거린다.

《로생은 대감님께 죄를 청하나이다.》

《무슨 죄를 청한다는거냐?》

최정승은 점점 더 얼떨떨해하였다.

《로생은 대감님께 여쭙 말이 있어 대감님과 아는 사이라고 속였나이다.》

긴장해서 두사람을 지켜보던 관찰사가 그제서야 어이없어하며 최정승에게 다가가 무엇이라고 귀뜸을 하였다. 최정승은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객실에 놓여있는 의자에 작은 몸을 푹 묻고 코

를 세우며 눈을 내리깔았다.

《나한테 할 말이라는게 뭐냐?》

민천산은 품안에서 시 한수가 적혀있는 종이를 꺼내들었다.

《먼저 이 시를 보아주신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관찰사가 종이를 받아 최정승에게 넘겨주었다. 종이에 는 《로목》이라는 제목의 시가 적혀있었다.

해청도 초야의 한그루 늙은 나무
찬서리 눈보라에 애처로이 시달려도
언제면 봄 오려나 가슴을 태우며
저 멀리 궁성만 하염없이 바라보네

아름드리 줄기는 하늘을 버티고
무성한 잎새는 천하를 덮으련만
붉은 꽃 푸른 잎 세월에 휘말려
양상한 가지만 바람에 우누나

청산아 물어보자 고금일 네 알거늘
천하영웅 몇몇이나 속절없이 갔느뇨
따스한 봄바람 언뜻 스치면
백발의 로목도 어여쁜 꽃 피우리

최정승은 시를 건승 읽어보고 자못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주옥같은 시로다. 이만한 재간이면 얼마든지 급제를 했겠는데 어째서 지금껏 과거를 안 봤는고?》

《30년동안 계속 과거에 참가했는데 매번 초시때마다 락방을 했소이다.》

그를 대신하여 관찰사가 대답했다.

《매번 락방을 했단 말이지. 이런 재주를 초야에서 썩게 하는걸 보면 시험관들이 눈뜬 소경이야. 그런데 그대의 조상은 무슨 벼슬을 했는고?》

민천산은 이마로 흘러내리는 백발을 훑치며 애써 림림히 앉았다.

《로생의 조상들중에는 높은 벼슬을 지낸분이 없나이다. 로생은 문벌을 많이 따지는 지금의 시속때문에 나라의 인재를 바로 등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이다. 재주를 중시하지 않고 문벌을 위주로 등용한다면 머리에 든것이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공밥만 먹나이다.》

최정승의 입가에 의미를 알수 없는 미소가 그려졌다.

《론어에 〈부재기위면 불모기정〉이란 말이 있는데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 그 정사를 론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는 최정승의 말에 잠시 망설이었으나 인차 자기의 생각을 계속 피력하였다.

《이 세상에 존경할만 한것이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재주이고 다른 하나는 덕이나이다. 재주는 하늘이 준것이지만 덕은 사람이 가지는것이오이다. 덕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뜻이 너무 깊고 크며 그 체계가 지극히 중하여 한두마디로 다할수 없지만 명백한것은 지니고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닐수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이나이다. 어진 사람들만이 자기의 성품을 단정히 하면서 그 덕을 닦게 되나이다.》

《그대는 자기가 덕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오?》

최정승의 어조에 비양조가 흘렀다.

《로생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착한 일은 녀색을 좋아하는것처럼 즐겨 시행하고 악한것은 악취를 싫어하는것처럼 미워하였소이다.》

《하하하...》

최정승의 입에서 별안간 폭소가 터져나왔다. 눈물까지 찢끔 흘리며 기껏 웃어대다가 정색해서 소리쳤다.

《자고로 군자는 남의 덕에 대해서는 즐겨말하지만 자기 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법이나라. 자기에게 재주가 있고 덕이 있다고 말하는것은 곧 재주가 없고 덕이 없다는 소리다. 기껏 살았으면 판을 짜놓고 수의나 장만해놓을것이지 국록을 타먹겠다고 미친 지랄을 하느냐.》

민천산은 너무 격분해서 조정의 대신인 정승앞에 있다는것도 잊고 별떡 일어나 준렬히 꾸짖었다.

《선비를 욕되게 하는자는 천벌을 면치 못하나이다.》

최정승의 반질반질한 눈이 즉시 독기를 내뿜었다.

《관속에 들어가도 막말을 말라 했다. 누가 벌을 면하지 못하는가는 이제 알게 될게다. 여봐라! 저 로망한 늑다리를 끌어내다가 제 정신이 들 때까지 곤장을 안겨라.》

《예잇—!》

정승의 엄명이라 형리들은 사정을 보지 않고 매를 내렸다.

《한대요!》

철타—

《두대요!》

철타—

독한 매라 셈을 세는 아전이 열도 세기 전에 그는 정신을 잃었다. …

그때 내려지던 매를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난생처음 똥줄이 빠지게 맞아본 곤장이고 늙은 몸에 맞은 매라 생각할수록기가 막혔다. 청하는 벼슬은 주지 않고 청하지도 않은 매를 주다니. 정말 각박한 세상이고 몰인정한 관원들이다. 저런 놈들이 관직을 차지하고 인재를 배척하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 아닌가.

더우기 지금은 구름아래 발갈고 달빛아래 고기를 낚는 태평세월이 아니다. 변방이 소란하고 백성들은 입에 풀칠도 못하건만 벼슬아치들은 경치좋은 산천을 찾아다니며 똥땅거리고있다. 간악한 신하들이 개떼처럼 설치며 협박과 위협으로 착한 일을 하는듯이 꾸며대고있다.

(아, 불우한 민천산이여! 너는 왜 이토록 불우한 시절에 태어나 불우한 인생을 사는거냐.)

팔자좋은 놈들은 높은 벼슬에 앉아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부귀공명을 누리며 금의옥식에 싸여있건만 이 몸은 팔자가 어이 이리 곤궁한가. 지붕마루로 별이 보이는 퇴박만 한 오막살이에 한몸을 겨우 담그고산다. 문밖에서 가랑비내리면 방안에는 굵은 비요, 앞문은 살이 없고 뒤문은 형체만 남아 동지선달이면 눈바람이 화살처럼 비발치듯 날아든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개인의 부귀빈천도 물

레바퀴 돌듯 한다고 했건만 이 내 인생에는 어이하어 따스한 해별이 들지 않는다.

늙음과 고생으로 주름이 역세계 잡힌 두눈귀를 따라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9

민천산은 며칠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매를 맞은 여독도 여독이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빨리 추서지 못했다.

《주인님, 진지 드시와요.》

어평녀가 들어온 점심상을 보니 어디서 났는지 이빠진 밥그릇에 조밥이 덩실하니 솟아있다. 앓으면서도 계속 멀건 수수타개죽만 먹던 입이라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목구멍으로 침이 꿀꺽 넘어갔다. 허나 이 쌀을 얻으려고 샅품을 팔았을 어평녀의 고생을 생각하니 선뜻 상을 마주하게 안되었다. 어평녀는 말이 하녀이지 이 집안의 애육살이살림을 버티는 기둥이다.

민천산도 한때는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전답이 있어 유족하게 살았다. 허나 수십년동안 계속해온 과거놀음과 음풍영월 술놀이에 전답은 물론 덩실한 기와집까지도 하늘로 날려보내고 지금은 구차하기로 남부러운것 없는 살림이다.

안해라고 맞아들인년이라도 착실한 살림군이였다면 이 모양 요 꼴이 안되었으면만 사내녀석 게으르니 한저울에 달아도 기울지 않을 게으름뱅이녀편네가 태웠다. 가난도 암가난, 수가난이 있다 했는데 그의 집에는 두 가난이 다 들이닥친셈이다. 그 안해마저도 집안형편이 까먹은 닭알처럼 빈껍데기신세로 전락되자 속병을 만나 저세상사람이 되었다. 보기 싫은 처도 빈방보다 낫다더니 안해가 죽자 온 집안에 때국물이 진하게 흐르고 집기등은 점점 더 기울어져갔다.

가난이 슬며시 문안으로 들어오면 엉터리우정은 부랴부랴 창밖으

로 도망치는 법이다. 그의 술을 공으로 얻어먹을 때는 살점이라도 떼줄것처럼 살갑게 놀던 친지들이었던만 어려운 그의 형편에 도움은 커녕 동정도 주지 않았다. 언제 알았던가싶게 씻은듯이 발길을 끊고 등을 돌려뒀다. 배를 굶게 되자 굶석거리던 종놈들마저 보짐을 싸들고 쫓무니를 사렸다.

한생 땀뽕뽕 글만 외우며 붓대밖에 쥐어보지 못한 백면서생의 손으로 나무는 어이 하며 밥은 어이 하랴. 몸종은커녕 밥시중할 반빗아치도 들수 없는 처지라 길거리에서 빌어먹으며 방랑하던 철부지 어평녀를 종삼아 데려다 길렀는데 지금에 와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어평녀의 재촉으로 금시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생원님 계신가요?》

문을 열어보니 한때 그와 절친했던 리진사의 하인 망쇠이다.

《네가 어인 일로 여길 왔느냐?》

《우리 진사어른께서 망월루에 술좌석을 마련해놓고 생원님을 청해오라 했나이다.》

민천산은 눈이 머룩머룩해서 고개를 기웃했다. 기름독에 빠졌다 나온것처럼 반질반질한 리진사의 낯짝을 그려보느라니 땀물이 흘러든것처럼 입안이 쓰거워났다. 자기가 유족하게 살 때는 형님이라 개울리며 젖에 궁티가 든 망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살림이 어려워지자 선참으로 원고개를 틀며 흥을 본게 바로 리진사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놈이 날 다 찾노?)

발길을 끊은지 몇해 잘되는데 별안간 찾는다니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패썹한 생각을 하면 마주서고싶지 않지만 술좌석까지 마련해놓고 청한다니 속에서 움짖하는 주충이 한번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다. 가난하면 거지근성이 나타나는 법이다. 죄없는 자존심때문에 때오른 목이 간절히 바라는 술을 사양할손가. 무슨 속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기갈이나 면하고 오자.

그는 자리를 일어 망쇠의 뒤를 따라나섰다.

산과 강을 낀 곳에 세운 망월루는 해청도에서 명승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봄날의 꽃경치, 여름날의 물경치, 가을날의 단풍경치도 각각 이채롭지만 겨울날의 달구경이 하도 볼만 하여 망월루라 이름지었다.

그의 짐작대로 망월루에는 고을에서 제노라 하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 취흥을 돋우고있었다. 산해진미를 차려놓은 술상을 마주하고 질탕치듯 마셔대는 유생들의 사이로 분홍치마에 파랑저고리, 파랑치마에 분홍저고리로 단장한 예쁘장한 기생들이 나비처럼 날아다니며 술시중을 하였다.

《민생원님이 오셨나이다.》

망최의 선동에 좌석의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민생원, 어서 올라오게. 다들 기다렸소.》

예전에는 깍듯이 례를 차리며 손우사람대접을 하던 리진사가 반말로 좌석에 칭하였다. 다시금 속이 울컥했지만 얻어먹으러 온 처지라 꿈틀거리는 배알머리를 꼭 누잰했다.

루에 올라 자리를 정하고 앉으니 리진사의 눈짓을 받고 기생 하나가 사르륵사르륵 치마꼬리를 끌며 다가와 누런 돛잔에 술을 따랐다.

《오시느라 수고했는데 먼저 한잔 드오.》

그는 술을 권하는 리진사의 말에 사양도 없이 잔을 쥐었다. 어평너가 이따금 빛던 막걸리만 마셔왔는지라 향기로운 술내가 코를 찌르자 지나간 호시절에 대한 애절한 추억이 되살아났다. 눈을 감으며 잔을 쪽 비우니 술향기가 입에 가득하고 여러날 주렸던차라 독한 술기운이 찌르르 창자속으로 굽이굽이 배어들어가는게 직감적으로 알린다.

그가 잔을 놓기 바쁘게 리진사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건 민생원이 정승대감을 만나뵈왔다기에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요.》

순간 속으로 편히 젖어들던 술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네놈들이 날 놀리자고 찾았구나, 하긴 남의 말이라면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는 네

놈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지. 흰 장미가 수북한 눈이 서서히 쪼
프러지며 모가 서고 허연 수염이 바람에 날리듯 떨렸다.

허나 좌석의 유생들은 그의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리진사의 말
에 저마끔 등을 달았다.

《우리같은 시골선비들이야 정승대감의 얼굴을 구경이나 하나
요.》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영광이 아니지요.》

민천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반응도 안 보였다. 술냄새에 홀려
오지 말아야 할 곳에 괜히 왔다는 후회만이 뼈저리게 찾아들었다.
뒤늦은 후회이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선비의 존엄을
지켜야 하였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련꽃은 더러운 개천에 피여
도 꽃빛이 번치 않고 군자는 란리판을 만나도 굳은 절개를 지킨다
고 하지 않았는가.

묵묵부답의 태도에 재미가 덜한지 리진사가 꼬집어물었다.

《듣자니 정승대감께 벼슬을 청했다는데 벼슬을 받으셨수?》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니 한 유생이 제가 대신 대답한다.

《민생원이 벼슬을 받은걸 다들 모르시우? 무슨 벼슬을 받았는고
하니 곤장벼슬을 받았수다. 곤장벼슬에 넘치가 되었지요.》

《하하하...》

좌석에 폭소가 터졌다. 유생들의 미친듯 한 웃음소리에 기생들의
깔깔소리까지 합쳐져 망월루가 웃음소리에 통채로 흔들거렸다.

웃음이 끊기자 리진사가 계속 화제를 끌고나갔다.

《민생원이 정승대감께 〈로목〉이라는 시를 지어올렸다는데 우
리도 그 제목으로 시를 한수씩 짓는게 어쩡소? 그럼 내가 먼저 지
으리다.》

민망한 늙음에 정신이 홀리워
천하디 천한 청 조정에 아뵈더니
산천의 푸른 나무 창피를 못이겨
껍질을 벗고 곤장목이 되었네

다른 유생들도 뒤를 이었다.

민한 놈 날개 달고 하늘높이 날으려다
천벌에 다리 꺾여 걸음조차 못 옮기네
산송장과 다름없는 가련한 저 물골
력사책에 남기여 후세에 전하리

민심을 잃으면
천대를 받거늘
산정이 높은줄
매질에 깨달았네

민천산이라는 자기의 이름자를 따서 시아닌 시를 제껍제껍 읊조리는 꼴을 보니 흉측한 놈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둔 모양이다. 나 많은 사람을 놀려대는 네놈들도 먹물을 먹은 선비냐? 하는짓이 랑인배와 뭐가 다르냐. 더이상 참고 들을수가 없어 마침내 침묵을 켜다.

《고상한 선비들이 한시나 지을게지 평백성이 쓰는 언문으로 시를 지어서야 꼴이 되겠수?》

가시돋힌 그의 말에 리진사가 막힘없이 응대한다.

《랑반의 고상한 처신이면 고상한 한시에 담을터이지만 막놈의 상스러운짓을 어찌 한시에 담으리까. 언문시에 담음이 제격이리다.》

《하하하...》

다시금 폭소가 터졌다.

민천산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혼이 움직이고 시상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으나 숨소리가 거칠어 말이 잘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언문시에 정통한줄 내 여적 모르고있었소그려. 그럼 나도 언문시로 화답하리다.》

민간에 숨은 룡
천상에 오르면
산기슭의 망월루
눈물에 잠기리

우뢰를 터치듯 시를 쏟아놓고나니 한결 속이 후련해졌다. 팔소매를 떨치며 좌석을 떠나는 그의 등뒤로 유생들의 귀너머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군.》

《량반냄새도 안 나는 주제에 숨은 룡이라.》

《80살까지 살면 질긴 목숨덕에 로인직벼슬이나 받을거웨다.》

《하하하...》

그날 밤 민천산은 온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머리에 백발을 이고 한갓 선비파위들의 놀림가마리가 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오. 분을 삭이지 못해 모진 마음을 먹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덧없는 초로인생을 여기서 끝내자.

허나 오늘 당한 멸시와 모욕을 생각하면 그냥 죽고싶지 않았다. 아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수치를 씻고 내가 당했던것만큼 분풀이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하늘이 열쪼각나더라도 기어이 원님벼슬쯤은 따내야 한다. 그것도 이 고을의 원님이 되어야 한다.

머리속에 공상이 펼쳐지며 당장 원님이 된것 같은 기분이다. 이놈들, 이 민천산이 원님이 되어 내려올제 네놈들의 보잘것 없는 필부의 용맹이 얼마나 가나 보자. 네놈들이 보란듯이 망월루에서 곤장을 내릴테다. 아니, 한놈한놈 주리를 틀테다!

가자, 궁성으로 가자. 여기 시골구석에 엮드려있다가는 죽을 때까지 벼슬임명장을 구경도 못한다.

허나 궁성에 간다 해도 먹고살 일이 막막하였다. 제집이 있는 여기 해청도에서도 입에 겨우 풀칠을 하는 형편인데 수중에 돈 한푼 없는 신세라 백사지나 다름없는 궁성바닥에서 잠은 어디서 자고 먹는것은 어떤단 말인가?

이 궁리, 저 궁리 하는데 한순간 10여년전에 궁성에서부터 해청

도까지 자기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던 7촌조카사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살림에 보태라고 돈푼이나 쥐어줬으니 그녀석이 나를 박대하지는 못할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는 어평녀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고향을 떠나 궁성으로 향하였다.

10

박정승은 어제 밤도 침전에서 왕의 경구를 지켜 호상을 서며 꼬박 밤을 밝혔다. 벌써 며칠째 건밤을 새운다.

최정승과 문정승도 함께 호상을 서지만 그들은 이따금씩 몰래 집에 가서 한잠씩 자고 오곤 한다. 허나 그는 대궐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서지 않았다. 물론 저세상으로 간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나라 서사가 아니다. 운봉도사가 언제 어느 시각에 궁성으로 올지 모르니 한시라도 왕궁을 비워둘수 없기때문이다. 안사인을 운봉산으로 떠나 보낸지라 마음이 한결 가볍긴 하지만 혹시 안사인과 운봉도사의 길이 서로 어긋날수도 있었기에 천근만근으로 내리누르는 눈까풀을 억지로 버티고 견디어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그마한 실수라도 없게 하자면 만전지책을 강구하여야 하였다.

침전에서 나와 외전으로 오니 최정승은 그림자도 안 보이고 문정승만이 한구석에 쭈그리고앉아 끄덕끄덕 즐기고있었다.

《문대감!》

도적잡을 자던 문정승은 그의 부름에 후닥닥 놀라며 엉거주춤 일어났다.

《최대감은 어디 갔소?》

문정승은 피곤이 몰려 수수떡처럼 벌개진 눈을 비비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글쎄오이다? 새벽부터 안 보이던데...》

약바리같은 생쥐놈이 또 몸을 사렸군. 운봉도사가 언제 불쑥 나타날지 모르는지라 최정승이 계속 자리를 뜨면 여러모로 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만 죽도록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꽤 씹하기 그지없었다.

《천한 평백성들도 자기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착실히 령구를 지키는데 한 나라의 정승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이럴수 있소!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지각한지 정말 모르겠소.》

최정승에 대한 욕에 문정승까지 슬쩍 빗대놓고 건드렸다.

지은 죄가 있어 속이 썩기는지 문정승은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닌 보살하며 최정승을 걸고들었다.

《글썩말이웨다. 상감마마께서 생존해계실 때는 저 혼자 충의가 있는것처럼 통상주위에서 뱅뱅 돌아가더니...》

최정승이 나타난것은 그때로부터 한식경이 지나서였다.

《?!》

박정승은 눈부시게 하얀 상복을 입고 외전으로 들어서서 최정승의 모습을 보고 눈이 썩해졌다. 한참만에야 시까스르듯이 물었다.

《그건 도대체 뭐라는거요?》

최정승은 대답에 앞서 한숨부터 길게 내쉬었다.

《상감마마께서는 일점혈육도 없으시니 누가 상주노릇을 하겠나이까. 그래서 내라도 상주가 되어 상감마마의 령혼을 위로해드리자고 생각했소이다.》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라 억이 막혀 말문을 찾는데 문정승이 부들부들 떨며 대들다싶이 최정승에게 다가섰다.

《아니될 말씀이요. 처음 장의문제를 의논할 때 우리 정승들은 상복을 입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소? 더우기 문무백관들이 모두 상제가 되어 베로 만든 상복을 입었는데 어이하여 최대감만은 왕족만이 입을수 있는 상복을 감히 걸쳤소? 나라의 례법에 어긋나는 행실이요.》

여느때는 작은 키를 돌구며 발딱발딱 맞서던 최정승이였건만 이 시각에는 서글픈 표정만 돌구며 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라의 례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소이까.

중전마마도 안계시고 세자마마도 안계시는데 누가 왕실의 상복을 입으며 상주가 없이 어찌 장례를 치르겠소. 지금껏 나라의 대사를 주관해온 내라도 상주가 되어야지...》

문정승은 씩씩 숨을 토폴며 최정승의 말허리를 끊었다.

《천만부당한 말씀이요. 신하가 어찌 국왕의 상주노릇을 한단 말이요. 상주는 철저히 왕족이 되어야 하오.》

노는 꼴들을 지켜보자니 눈허리가 시다. 상복을 입은 놈도 상복을 입었다는 놈도 다 미웠다. 잘들 놀아댄다, 어디 실컷 싸워봐라. 박정승은 척 팔짱을 끼고 둘의 심경이질을 지켜보았다.

이때 내시들을 총괄하는 총관내시가 들어와 아뢰었다.

《백마국사신이 입결할것을 요청한다고 하옵니다.》

문정승이 총관내시에게 못마땅한 눈길을 주며 최정승에게 채 하지 못한 분풀이를 쏟아부었다.

《상감마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신은 무슨 사신인고. 썩 돌려보내라.》

총관내시는 망설이며 최정승쪽에 눈길을 주었다.

《백마국사신의 말이 최대감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이 있었다는데...》

순간 박정승은 눈살이 꼳꼳해졌다. 교활한 놈! 네놈이 백마국사신들앞에서 상주흉내를 내려고 이렇게 상복까지 걸치고 영너리를 치렀구나. 더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총관내시에게 일렀다.

《백마국사신을 여기 외전으로 들여보내거라!》

최정승이 난색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박대감, 어찌자는거요?》

그는 아닌보살하는 최정승에게 통발눈을 치똥다.

《최대감이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니 만나야 할게 아니요. 최정승이 혼자 만나는것보다 우리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데 더 좋을거요.》

문정승도 여전히 얼굴이 시퍼래서 툭 내쫓았다.

《상감마마께서 안계시는데 최대감이 무슨 명목으로 사신을 만나주겠다 말겠다 월권을 하시우?》

잠시후 공작새깃이 꽃힌 운두높은 모자를 쓴 백마국사신이 물독처럼 나온 배를 쭉 내밀고 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외전에 들어섰다. 사신은 백마국의 례법대로 오른손을 왼쪽가슴에 가져다대고 고개를 숙이었다.

《송도국왕께서 애석하게도 별세하셨다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바이나이다.》

이어 사신은 세 정승을 둘러보다가 상복을 입은 최정승에게 다가갔다.

《최대감께서 송도국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것 같은데 나는 백마국황제의 위임에 의하여...》

《가만!》

박정승은 오른손을 내흔들며 사신의 말허리를 끊었다. 밀도끝도 없이 말을 중단시키자 사신은 의아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박정승은 어깨를 쭉 펴고 배를 내미는것으로 사신의 눈길에 대답했다.

《할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시오.》

어리벉벉해서 상복을 걸친 최정승과 그를 번갈아보던 사신이 서서히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러자 최정승이 발짝 키를 돌구었다.

《박대감, 지금껏 외국사신은 내가 어명을 받고 만나곤 하였는데 왜 그러시우? 내가 처리하리다.》

얼토당토않은 말이라 막 우박을 퍼부으려는데 그가 미처 입을 열기도전에 문정승이 먼저 불부은 소리로 대꾸했다.

《최대감, 그때는 상감마마께서 살아계실 때이고 지금은 상감마마께서 안계시니 세 정승이 함께 처리해야 할게 아니요. 사신은 할말이 있으면 우리모두에게 하시오.》

박정승은 불편을 실룩거렸다. 꺾두룩하면 싱겁지 않은 놈 없다더니 네놈까지 끼여들겠다는거냐.

그들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사신의 얼굴에 로골적인 비웃음이 비끼였다.

《그렇다면 세분 대감께서 함께 들어주사이다. 나는 백마국황제의 위임에 의하여 송도국에 마지막으로 언명하오이다. 아시다싶이 송도

국이 우리 황제폐하의 노여움을 사서 지금 남쪽변경에 우리 백마국의 대군이 집결해있소이다. 송도국이 해마다 조공을 바치면 백마국의 대군은 곧 물러갈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십만대군의 말발굽이 여기 궁성에까지 닿을것이나이다.》

《뭘라구? 궁성에까지! 어림도 없다.》

박정승은 코바람을 헝 불었다.

《그럼 우리 백마국과 맞서싸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떨시하듯 뇌까리는 사신의 말에 뱀이 왈칫 솟아 큰소리를 치려는데 문정승과 최정승이 겁에 질려 떨며 뒤에서 슬그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허나 보란듯이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한발 나섰다.

《아무리 큰 나라의 사신이라고 해도 남의 궁성에 들어왔으면 손님의례를 지켜야지 이 무슨 해피망측한짓인고. 업신여겨도 분수가 있지 이 송도국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줄 아는가!》

들보가 쩡쩡 울리도록 내지르는 고향소리에 백마국의 사신과 무사들은 기가 눌리워 목을 움츠러뜨렸다. 사신이 인차 그의 비위를 맞추었다.

《저의 언행이 불손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시오이다. 박대감의 용맹에 대해서는 우리 백마국의 남녀로소모두가 잘 알고있나이다.》

등등 울리추어주는 말에 박정승은 어깨가 더 으쓱해졌다.

《난 원래 우리를 해치려는 놈들과는 조금도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는 송도국을 해치자는게 아니라 지켜주자는겁니다. 지금 서쪽의 술개국이 송도국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송도국의 혼자힘으로 술개국을 당하지 못할거야 불보듯 뻔하지 않소이까. 그래서 우리 백마국황제폐하께서는 송도국이 조공만 착실히 바치면 술개국의 침략으로부터 송도국을 지켜주시겠다는것이나이다.》

뭘, 조공을 바치라구? 이놈아, 그런 어림없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박정승은 사신앞에 배를 쭉 내밀었다.

《송도국은 우리 힘으로 지킬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사신의 어조가 다시 달라졌다.

《그렇다면 한번 두고볼가요?》

《두고보자는건 무섭지 않소.》

그의 뻗뻗한 기세로 보아 도무지 이가 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신은 타협조로 나왔다.

《정 그렇다면 전 물러가겠소이다. 궁성에 며칠 더 머무르면서 기다릴테니 세분께서 잘 의논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백마국사신은 처음 들어올 때처럼 깎듯이 례의를 차리고나서 돌아갔다. 백마국사신의 모습이 문밖으로 사라지기 바쁘게 최정승이 그한테 달려들었다.

《아니, 박대감이 뭐길래 증빨나게 혼자 나서서 그러시는거요?》

박정승은 최정승의 작은 키를 눈아래로 굽어보며 배심있게 마주섰다.

《일국의 정승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신에게 기가 눌리어 고양이앞의 쥐처럼 부들부들 떨며 잔뜩 주눅이 들었는데 내라도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나라의 체면을 지키겠소?》

《누군 뭐 큰소리 칠줄 몰라서 그러는줄 아시우? 외교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란 말이요.》

최정승은 어이없다는듯 고개를 흔들었다. 간에 붙었다 싶에 붙었다 하는 문정승이 이번에는 최정승의 편역을 듣다.

《최대감의 말처럼 이 문제는 큰소리를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백마국의 대군에 비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보잘것 있나이까? 백마국과 맞서 큰소리를 치자면 솔개국에 원병을 청해야 하나이다.》

비겁한 놈들! 국록을 타먹었으면 나라를 위해 한몸을 내대야지 놀란 자라새끼처럼 목을 움츠러뜨려. 하긴 하는 일없이 문벌이나 팔아 먹고 사는 문정승 네놈이나 공자왈, 맹자왈만 아는 최정승 네놈이나 그 손에 언제 칼이란걸 들어봤겠느냐. 박정승은 로골적인 비웃음을 지으며 시까슬렀다.

《자고로 군자는 불의와 위력앞에서 굴하지 않는다 했소. 학식이 많은 최공이 이 말을 모를리 없겠는데.》

언변좋은 최정승에게 말이 모자라랴. 즉시 대꾸질이다.

《누가 꿀한다는거요. 동서고금의 역사를 둘러봐도 그래 적아간의 강약이 부동일 때는 한발 물러서는데 상책이요. 그래서 난 아예 백마국군사를 멀리 피해 해청도로 이 대결을 옮겨다놓고 실력배양을 하자는거요.》

박정승은 그 말을 듣고 소리까지 내며 껄껄 웃었다.

《눈섭에 불이 달렸는데 언제 실력배양을 할새가 있소. 이제라도 우리 동남당에 최공네 북서당과 문공네 서남당의 군사까지 넘겨준다면 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켜내겠소.》

당장 내놓으라는듯 두손을 펼쳐드는 그의 행동에 둘다 난색을 짓는다. 네놈들도 수중에 군사가 없으면 끝장이라는걸 알긴 아는구나. 고금진퇴(북을 올리면 전진하고 징을 올리면 퇴각하는 초보적인 군사교련법)도 모르는 저런 놈들한테 군사를 나누어주었으니 나라꼴이 어찌 달리되겠는가.

생각할수록 군사의 통솔권을 분산시켜놓은 국왕의 처사가 원망스러웠다. 한때 그에게 병권을 주고 나라안의 모든 군사를 전적으로 맡겼던 국왕은 그의 권력이 나날이 커가는데 불안을 느끼고 최정승과 문정승에게도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였다. 아마 꼬리가 비뚤어지면 휘젓지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결과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견제하였지만 지금처럼 나라의 군사력은 약화되었다.

(확실히 국왕은 어리석었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했거든.)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저세상에 간 국왕을 끝없이 욕했다.

11

그날 밤 박정승은 누구도 모르게 조상궁이 거쳐하고있는 후궁으로 갔다.

《이밤중에 어인 일로 걸음을 하셨나이까?》

조상궁은 반가와하면서도 불안과 위구를 숨기지 않았다. 내시를 제외한 외간남자의 출입이 엄금되어있는 후궁이라 다른 눈에 띄우기만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릉지처참을 면치 못한다.

《네가 보고싶어서 왔다.》

그는 종발눈을 끄떡이며 조상궁의 예쁜 볼을 슬쩍 꼬집었다.

《점잖지 못하시게...》

조상궁은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는척 하며 허리를 꼬았다. 이제는 슯쳐녀가 아니라 남자맛을 아는 녀인이라 하나하나의 행동에 교태가 흐른다. 무르익은 과실처럼 성숙한 젊은 녀인의 육체에서 풍기는 살갗향기가 그를 견잡을길없이 흥분시켰다. 바싹 다가가서 버들같은 허리를 덥석 그러안고 발가우러한 녀인의 볼에 털부숭이볼을 마구 비벼댔다.

《이러지 마시오이다. 그러다 누가 보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를 밀어내지만 녀인의 나긋나긋한 팔은 그의 든든한 어깨를 바싹 끌어안았다.

《걱정말라구.》

그는 녀인을 안심시키며 눈짓으로 출입문쪽을 가리켜보였다. 문밖에서는 흥무관이 무사들을 거느리고 개미 한마리 얼씬 못하게 지키고있었다.

이성의 볼과 볼이 닿고 팔과 팔, 다리와 다리가 닿으니 며칠동안 호상을 서느라 여자결에 가지 못한 정욕이 불도가니처럼 끓으며 온몸을 확확 달게 하였다. 더 기다릴수 없어서 녀인을 넝큼 두팔에 들어안았다.

그의 팔에 몸을 푹 맡긴 조상궁은 웃음어린 입술로 커다란 그의 귀방울을 깨물며 속삭였다.

《약주는 안하시겠소이까?》

녀자와 잠자리를 같이할 때는 먼저 술을 몇잔 마셔 기분을 띄우는게 그의 굳어진 습관이다. 몇번 접촉을 못했지만 총명한 녀자라 그의 습관을 벌써 체득한 모양이다.

《상중인데 술을 마시면 되나. 얼굴이 붉어지면 남들이 흉을 봐.》

그는 너인을 안고 침실로 향하였다. 그의 말이 우스운지 조상궁은 팔에 안긴 허공에서 입을 감싸쥐고 키득거렸다.

《상중에 너자는 가까이 해도 일없소이까?》

시간이 바빠 언제 대답할 사이도 없었다. 당장 폭발할것 같은 정욕을 달랠 시간도 없었고 남들이 눈치를 못 채게 왔다가자니 시간이 없었다. …

그는 뚫어오르던 정욕을 짱그리 쏟아버리고 너인의 옆자리에 벌렁 드러누웠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하였다. 거칠게 오르내리는 그의 배를 비단처럼 부드럽고 매끈한 고운 손이 살살 문다지른다.

《소녀가 얼마나 보고싶어했는지 아시오이까?》

대답대신 숨을 튕는것처럼 길게 숨소리를 냈다. 대답을 하기가 싫었다.

《대감님께서 룡상에 오르실 날이 가까와지니 혹시 소녀를 버리지 않을가 하여 걱정스러웠나이다.》

너인의 손이 이번에는 그의 귀볼을 어루만진다.

《소녀는 이 세상에서 오직 대감님 한분만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소녀를 버리지 말아주사이다…》

애교어린 목소리가 계속 간지럽게 들려왔지만 그의 눈앞으로는 오늘 오후에 있는 일이 다시금 흘러갔다. …

삼일후면 국왕의 장례날이라 세 정승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장례의 식문제를 토의하였다. 국왕이 생존해있을 때 룡을 미리 건설하여서 크게 애로되는 문제가 없었다. 령구가 룡으로 나가는 수십리연도에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앉아 애도를 표시하게 하는 일도 빈틈없이 조직하였고 금은보석이며 왕이 애용하던 물건들을 비롯해서 룡에 국왕의 령구와 함께 물을 치레거리들도 다 선별해서 준비해놓았다.

령구의 출발로부터 룡에 안장하는 의식까지 모든 준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파하려는데 최정승이 불쑥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들고나왔다.

《상감마마를 룡에 안장할 때 홀로 보내겠나이까? 상감마마가 저 세상에 가서도 고독하시지 않도록 하는게 신하된자의 도리라고 생각하나이다.》

《그거야 더 이틀나위없는 말씀이지요. 후날에 먼저 돌아가신 중전마마의 령구를 왕릉에 합장합시다.》

문정승이 제격 찬성을 표시하였으나 최정승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내가 말하는건 그 소리가 아니오이다. 후날에 중전마마의 령구를 합장한다 해도 그때까지 상감마마를 누가 모시겠나이까.》

국왕이 죽으면 궁녀들을 순장하는게 예로부터 해오는 관례이라 박정승도 반대의향이 없었다. 그런데 최정승의 다음말이 아주 미묘했다.

《그래서 총관내시가 가져온 궁녀명부를 보았는데 박대감만 이의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조상궁을 보냈으면 하나이다.》

박정승은 저도 모르게 눈까풀이 파르르 떨렸다. 조상궁을 자기와 결부시키는걸 보면 최정승이 분명 무슨 눈치를 챈것 같았다. 며칠전 국왕이 죽은 날 밤에 꾸었던 꿈이 되살아났다. 최정승과 단물이 있는 자리라면 어물쩍해 넘기겠지만 문정승까지 함께 있는 좌석이라 그럴수도 없다. 일단 걸어온 도발이니 미욕한채 하고 받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궁녀들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런데 그 술한 궁녀들중에서 왜 하필이면 조상궁이요?》

최정승은 미리 대답을 생각해두었겠는지 제격 응수했다.

《총관내시에게 알아보니 상감마마께서 생전에 조상궁을 제일 사랑했다고 하나이다.》

뭐, 국왕이 조상궁을 제일 사랑했다구? 《허튼소리 말아라. 조상궁은 국왕을 한번도 시침해보지 못한 숫처녀다.》 하는 말이 입밖으로 나가는걸 간신히 억제했다. 박정승은 생각을 굴리다가 적당한 구실을 찾아내었다.

《난 최대감과 다르게 생각하오. 조상궁이 상감마마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상감마마를 따라보내는 궁녀는 왕궁에 제일 오래 있는 궁녀를 택해야 하오. 예로부터 웃은 새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지 않소, 문대감?》

그는 부러 문정승을 끌어들었다. 그의 예상대로 주대가 없는 문정

승은 그의 말을 즉석에서 긍정하였다.

《왕궁에 제일 오래 있는 궁녀를 따라보내자는 박대감의 말씀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나이다. 최대감은 요즘 젊은 소실을 두어서 재미가 좋으신 모양인데 젊은 녀인이 아무리 곱다 해도 한생을 같이 해온 본처만 못하지요.》

조롱기가 섞인 문정승의 말에 최정승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더 우기지 못하였다. ...

박정승은 최정승의 그때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느라니 통쾌하였다. 지금껏 최정승이 왕궁에 박아넣은 심복을 알지 못해 속을 앓았는데 오늘의 일을 통해 그 여마리군이 총관내시임을 알게 된 것도 기뻐다.

박정승은 그때도 그러했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귀여운 조상궁을 내놓고싶은 생각이 쥐뿔만큼도 없다. 지금껏 수많은 계집들을 대상해왔지만 이년처럼 마음에 흠뻑 들었던 계집은 없었다.

《소녀의 말은 듣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시오이까?》

조상궁이 반쯤 일어나았으며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듣지 않긴 왜 안 들겠느냐. 다 듣는다.》

그도 눈길을 들어 조상궁의 얼굴을 보았다. 깨물어먹고싶을만큼 예쁜 얼굴이다. 보면 볼수록 애간장이 슬슬 녹아내리는 계집이다.

박정승은 깜찍한 최정승이 왜 조상궁을 선택했는지 그 속심을 모르지 않았다. 순장대상으로 선정하면 조상궁이 울며불며 자기와의 관계를 루설할것이라고 타산했을것이다. 이 생쥐놈아, 어림도 없다. 아무렴 이 박대감이 자기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지킬줄 알았느냐.

《그럼 소녀에게 한 약속이 기억나시오이까?》

녀인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너를 빈으로 삼겠다고 한 약속말이나?》

조상궁은 부끄러운듯 얼굴을 붉히며 그의 가슴에 꼭 안겨든다. 박정승은 솔뚜껑같은 큼직한 손으로 녀인의 등을 어루쓸었다.

《난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 너를 빈이 아니라 귀비로 삼는다는 문서를 이미 작성해놓았다.》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오늘 그는 조상궁을 리용하려던 최정승의 수를 형체도 없이 파탄시켰을뿐아니라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먹었다. 왕궁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궁녀를 순장하기로 결정되자 그 궁녀를 귀비로 승격시키자고 제기하면서 국왕이 제일 총애한 조상궁도 함께 귀비로 승격시키자고 우기였다. 궁녀를 정1품의 빈이나 귀비로 승격시키는것은 국왕의 어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가 우겨서 관례를 깨뜨리는 조치가 취해졌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무엇이라도 한가지 더 해주고픈 사내썩 감정이 작용해서랄가.

《그게 사실이오이까?》

조상궁의 고운 눈에 기대와 희망, 행복감이 엇갈렸다.

《난 거짓말을 안한다. 아마 래일쯤엔 발표될게다.》

그렇다, 거짓말이 아니다. 래일이면 순장을 당하는 궁녀와 함께 조상궁이 귀비로 승격된다는 조정대신들의 령이 발표될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꺼입으며 말했다.

《귀비가 된걸 축하해서 한잔 해야지. 상을 차리느라 그러지 말고 술과 잔만 가져오너라.》

조상궁은 기쁨에 넘친 얼굴로 술과 술잔을 가져왔다. 술잔에 정히 술을 따라 그에게 섬겼다. 그리고는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큰절을 하였다.

《대감님의 은공을 죽어도 잊지 않겠소이다.》

그는 술을 짝 들이키고 빈잔에 다시 술을 따랐다.

《너를 축하하는 술이니 너도 마시거라.》

《알아모셨사이다.》

조상궁은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인 얼굴로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 옥으로 다듬은것 같은 고운 목젓이 몇번 오르내리며 술이 넘어갔다. 내 이제 룡상의 주인이 되면 너를 더 사랑해주마.

잠시후 박정승은 후궁에서 나와 깊이를 알수 없는 밤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국왕의 장례가 끝난 후 문정승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만에 들어왔다고 안해가 수선을 떨며 반가이 맞아주었으나 온종일 얼굴에 깃들었던 시무룩한 표정이 좀처럼 날아가주지 않았다.

《어디 몸이 편치 않으시오이까?》

우등통한 생김새처럼 똑한 안해건만 정이 똑똑 흐르게 묻는다. 하급벼슬아치질을 할 때는 사내꼬부랑이라는게 가장구실도 못한다고 하루가 멀다하게 양탈질로 남편의 속을 박박 긁었지만 일약 정승으로 벼락출세를 한 후로는 우리 남편이 제일이라며 남편공대를 나라님공대만큼이나 한다.

《몸이 아니라 심기가 불편해서 그러오. 가서 애녀석이나 좀 불러오우.》

안해가 아들을 데리러 가자 그는 의관도 벗지 않은채 팔베개를 하고 방바닥에 비스듬히 누웠다. 오늘일을 생각할수록 분을 삭이기 힘들었다. 네놈들이 나를 헌신짝만큼도 여기지 않는단 말이지. 좋다, 어디 두고보자!

오늘 거행된 국왕의 장례식은 박정승과 최정승 두 정승의 독판치기나 다름없었다. 교활한 최정승은 지금껏 나라의 의식을 자기가 모두 주관해왔다고 하면서 이번 장례식도 도맡아 주관하려 하였으며 미욕한 박정승은 독심을 부리며 최정승한테 지려 하지 않았다. 아무리 중한 군국대사라 해도 리해관계가 없을 때는 손발이 시려 내미락내미락하던 놈들이 오늘의 의식은 덮어놓고 모든걸 저들이 하겠다고 했다.

둘이 너무 승벽을 부려서 문정승은 아예 끼여들념도 못했다. 보다 패섬한것은 그놈들이 저들만 제노라며 문정승 자기를 정승으로조차 여기지 않는것이다. 정승은 둘째치고 자기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다고 코를 세우며 눈을 내리깔고있다.

오늘의 장례의식 전과정만 봐도 그렇다. 왕의 령구가 왕궁을 출발할 때 들어서 저마끔 장례행렬의 맨앞에 거룩히 서겠다고 신경이질을 하면서도 그가 맨뒤자리에 서는것은 의당사로 여겼다. 룡에 령구를 안장하고 술을 부을 때도 저들은 서로 먼저 붓겠다고 티각거리면서도 그는 맨마지막에 붓게 하였다. 그야말로 그를 헌정승으로 취급하고있다. 이놈들! 네놈들에게 무슨 공이 있다고 그렇듯 방자스럽게 다루느냐.

물론 이것이 하루이틀사이에 생긴 감정이 아니라 몇년세월 쌓이고 쌓인 감정이라는걸 그도 모르지 않는다.

그 모든 감정의 시작은 그가 벼락감투를 뒤집어쓴 때부터였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자신도 자기가 정승까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우연이면 우연이고 운명이면 운명이라고 할 벼락출세의 출발점은 족보였다.

문씨가문의 직계혈통인 그는 맏아들인것으로 하여 가문의 족보를 넘겨받았다. 방계혈통이든가 둘째아들이었다면 그 족보도 넘겨받지 못했을것이고 또 오늘의 정승자리도 차레지지 못했을것이다.

거지조상 안 가진 부자 없고 부자조상 안 가진 거지 없다고 족보에 자상히 기록되어있는것처럼 아득히 먼 몇십대이전의 조상들이 왕실과 친척이긴 하지만 세세년년 몰락의 길만 걸어온 문씨가문이라 아버지와 그의 대에 와서는 얼마 안되는 봉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계절마다 조상들에게 올리는 제마저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조상을 박대하는 불효자가 되었을것이다.

집안이 풍족하면 웃음꽃이 피고 살림이 쪼들리면 정도 쪼들린다는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니다. 안해는 드살기가 센 녀자다. 녀척치 못한 살림을 쪼개가며 가문의 모든 관혼상제를 도맡아하자니 안해의 얼굴에 웃음이 비길적 없었고 그때마다 그에게 내려지는 행패질과 야단독장은 즐소나기였다.

《사내ㅍ부랑이면 어떻게 해서든 집안을 일떠세울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만 살겠어요? 날마다 오늘은 어느 조상의 제요, 래일은 몇대 조상의 제요, 또 오늘은 누구의 환갑이요, 래일은 누구

의 돌이요, 결혼식이요 하는데 우리가 무슨 천석군부자예요 만석군부자예요?》

《내가 문씨가문의 직계자손이니 어찌겠소.》

《자꾸 문씨가문이 어떻소, 직계자손이 어떻소 하는 말만 하지 말고 그 잘난 가문을 팔아 품계라도 사든가 아니면 그 직계자손을 팔아 봉록이 많은 관직이라도 사란 말이예요.》

매일과 같이 오가는 이 말에 신물이 나고 언제한번 마음 편할새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물둑뒤에서 자랐다는 흥을 들을 정도로 살이 없이 키만 꺾두룩한데 안해의 드살에 얼마 안 붙어있던 살마저 빠져 달아나 제 보기에다 꼴이 지렁이갈비대같다.

이렇게 살바에는 콧 죽어버리고말자는 생각이 하루에도 열백번 들었다. 허나 생각처럼 쉽게 끊을수 있는 목숨이 아니다. 안해의 푸념과 타령을 들을 때마다 반발심도 없지 않았다. 사내로 태어나 이렇게만 살수 없지.

돈과 권세가 있어야 출세하는 세월이지만 그에게는 돈도 권세도 없었다. 그렇다고 좋은 머리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지도 못했다. 원래 무인의 기질은 없는것이고 머리가 그닥지 않아 겨우 레조의 말단 관원자리를 간신히 차지하였다. 가지고있는것이란 조상들로부터 넘겨받은 두툼한 족보뿐이다. 어느때부터였는지 안해의 말처럼 문벌을 팔아 신세를 바꾸어볼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속 밑바닥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 생각을 펴볼 용단을 내렸다. 원래 담이라고는 눈썹쟁이만큼도 없는 겁쟁이었지만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보았다. 물론 그 용기도 구체적인 타산에서 나온것이다.

왕실에 흥살이 비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몇년동안 왕비와 왕자, 공주들이 련이어 죽어나고 왕의 가까운 혈족들까지도 차례로 죽음을 맞이해서 왕의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는 국왕의 그 심기를 리용해보기로 작정하였다.

그의 타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국왕은 혈육을 모조리 잃은 슬픔을 떨고면 피줄인 그에게서나마 잊으려고 하였다. 참판이나 참의 벼슬은 너무 높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한림원의 학사만 제수하여

주어도 감지덕지하련만 올려다보기조차 아찔한 정1품 대광보국승록 대부의 품계와 정승벼슬이 하루아침에 차례졌다. 그야말로 꿈에서도 바라지 못하던 복가마에 올라탔다.

당상관의 으뜸인 아득히 높은 정승자리에서 볼 때 레부의 하급판료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나 다름없었다. 그러한 자기가 순간에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니 박정승과 최정승의 심사가 편할리 만무하였다. 그의 출세를 개대가리에 옥관자라고 비웃으며 그를 유명무실한 정승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국왕이 《친족정승》이라 부르며 각별히 총애하자 그들의 심사는 더 뒤틀리었다.

문정승도 결코 자기의 몸값을 모르지는 않았다. 하기에 두 정승과 엇서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다. 국왕의 총애를 받아 벼락대신이 된 자기와 달리 박정승과 최정승은 공적과 실력으로 벼슬을 떼뺏이 차지한 정승들이었다.

문정승은 국왕의 총애를 계속 쟁취하면서 두 정승앞에서는 어리숙한채 하였다. 주견이 없는 날바람등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두 정승의 양속관계를 리용하여 시세에 맞게 오늘은 이쪽, 래일은 저쪽 유리한쪽에 붙어 돌아갔다. 결과 사내의 자존심은 지키지 못해도 정승자리는 지킬수 있었다. 어리석은 놈이라고 누구도 경쟁적수로 생각지 않았으며 주대가 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놈이라고 서로 자기쪽에 쟁취하려고 애를 썼다. 그속에서 그는 자기의 세력을 점차 확장하며 지반을 착실히 닦았고 정승자리를 확고히 다지였다.

그러나 국왕의 죽음으로 그 확고한 지위가 흔들거리게 되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고 왕이 죽었으니 기대고 설 든든한 언덕이 없어진셈이었다. 오늘의 일이 말해주는것처럼 왕의 총애가 없으니 끈 떨어진 잣신세나 다름없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는걸 미리 예견하지 못한것은 아니다. 국왕이 앓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자기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음을 직감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국왕의 총애는 생명선이나 같았기에 국왕의 병간호를 극진히 하였고 국왕을 해치려는 박정승의 음모를 번마다 방지하였다. 국왕이 그렇게 오래 앓으면서도 지금까지 목숨을 연장할수 있는것은 순수 그의 공로였다. 물론 그 공

은 국왕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것이 아니다. 국왕의 총애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국왕이 앓기 시작한 다음부터 날이 다르게 기승을 부리는 박정승과 최정승의 꼴을 보느라니 국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여야겠다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승냥이와 이리같은 그들로부터 자기를 지키자면 국왕이 되어야 하였다.

제일 손쉽게 통상에 앉을수 있는 방도는 국왕의 총애를 리용하여 왕위를 넘겨받는것이였다.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앓는 국왕에게 세상에 없는 극진한 효자노릇을 하였으며 국왕의 림종때 제일먼저 왕궁으로 달려갔다. 국왕이 자기에 대한 총애를 유언으로라도 남겨주길 간절히 원했으나 그에 대한 국왕의 총애는 국왕의 죽음과 함께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멍하니 앉아만 있을수 없었다. 더는 기대할데가 없으니 자기 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왕위를 차지하여야 하였다. 지금까지는 어리숙한채 하며 자기를 로출시키지 않고 왕위쟁탈전에 참가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로골적으로 싸움에 머리를 들이밀어야 하였다.

자기네 서남당의 세력과 실력이 두 정승의 동남당과 북서당보다 못했지만 승산은 있었다. 이때까지 해온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박정승과 피방패를 내대는 최정승의 싸움을 계속 부채질하면서 어부지리를 얻어야 한다.

오늘의 장례의식 전과정이 말해주는것처럼 박정승과 최정승의 갈등은 지금 조금만 다치면 터질판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썩은 동아줄도 다쳐야 끊어진다고 터지기만 기다릴것이 아니라 손을 대야 한다. 이제부터 계속 수를 쓰자.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이놈들, 네놈들이 오늘은 나를 숙보며 하대했지만 래일은 이 문대감앞에서 아니, 문임금님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설 기게 될것이다.

그가 이를 갈며 앞으로의 계략을 무르익히는데 안해가 아들 담동을 데리고 들어왔다.

《담동이가 왔소이다.》

《아버님, 그동안 옥체무강하셨나이까? 소자 문안드리나이다.》

담동이 방안에 들어서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며칠만에 애비를 본다고 깍듯이례를 지키는 기특한 아들이다.

문정승은 아들을 볼 때마다 대견하고 흐뭇하였다. 자기를 닮아 키 꼴이 후리후리하고 안해를 닮아 몸도 건장하다. 생김새도 아버지와 어머니한테서 좋은것만 물려받아 친구들이 안방규수같다고 시기할만큼 곱살하다. 속이 깊고 공부도 많이 해서 앞날이 촉망된다.

그는 자리를 바로하고 안해에게 부러 엄엄한 눈길을 주었다.

《부인, 내 이 애와 심중히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좀 피해주오.》

안해가 못마땅해하며 금시 썰쭉해진다. 문정승은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안해를 부드럽게 얼렸다.

《사내들끼리 할 말이니 리해해주오.》

안해는 더 버티어야 소용없음을 알고 껍지 않게 눈을 흘기며 락태한 고양이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지문이 닫기고 방안에 부자간이 남게 되자 그는 하려던 말을 꺼냈다.

《담동아, 아버지가 너와 조용히 이야기하자는건 네 혼사문제다.》

그는 말을 떼놓고 아들의 표정을 슬며시 살폈다. 아버지의 어조로 보아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담동은 긴장해서 귀를 기울인다.

《아비도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5년전부터 혼사말이 난 박정승네와 사돈을 맺어야 할가부다.》

아버지란 아들앞에서 지엄한 권위를 가지는 존재이건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명령조가 아니라 의논조였다. 애지중지 귀중히

여기는 아들에게 이 말을 하자니 부성애가 허락치 않았다. 허나 지금의 형편에서는 딴 도리가 없었다.

그의 예상대로 아들은 대뜸 우거지상이 되더니 무릎을 꿇고 몸가짐을 바로하며 고개를 숙이었다.

《여쭙기 황송하오나 불초한 소자는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할가 하나이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안해는 평생의 지평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런 녀자를 배필로 삼겠소이까. 박색인 인물은 들째치고 나이도 소자의 숙모별이나 되는 그런 녀인을 어떻게 차마…》

담동은 목소리가 점점 코소리로 변하더니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목구멍이 짹 막혀버린다. 어느틈에 맺혔는지 속눈썹에 매달렸던 눈물 한방울이 반짝이며 방바닥에 툭 떨어졌다.

사내라는 자식이 못나게 그쫘한것에 울긴? 나무라우면서도 애뜻한 측은함이 앞선다. 그도 이것이 아비로서 아들에게 못할짓임을 번연히 알았다. 허나 이미 마음속에 결심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그 결심이 선것은 국왕의 장례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였다. 지금은 셋중에서 자기의 세력이 제일 약하니 왕위쟁탈전에서 승리자가 되자면 박정승과 최정승이 계속 맞붙어 피를 흘리게 한 다음 기운이 빠진 둘을 각개격파하여야 하였다. 최정승은 물도 씻어먹을 약은 놔이어서 그의 간계에 잘 넘어가지 않을게 분명하니 미욱하고 성급한 박정승을 리용하여 최정승을 없앤 다음 박정승을 없애면 통상은 절로 자기한테 차례질수 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을 굴리며 방도를 찾다가 떠오른것이 자기네 서남당의 군사와 최정승네 북서당군사만 주면 백마국의 침노를 막아내겠다던 박정승의 호언장담이었다.

그렇다. 우리 서남당의 군사를 주어 박정승이 궁성을 떠나 변경에 가서 백마국과 싸우게 하자. 그렇게 되면 첫째로 백마국의 침노를 막을수 있으니 좋고 둘째로 제일 세력이 강한 박정승이 궁성에 없으니 마음놓고 최정승과 겨룰수 있다. 박정승은 백마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기세로 최정승을 들이칠것이다. 설사 백마국과의 싸움에서 패한다 해도 죽을 때까지 최정승의 먹은 물고 놓아주지 않을것이다.

그동안 나는 운봉도사에게 족보를 보이고 왕위를 가로챌 것이며 그 방안이 실패하는 경우 솔개국에 원병을 청해서 맥이 빠진 박정승과 최정승을 동시에 제거해버릴 것이다.

방도는 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박정승을 얼려넘기는 것이었다. 갑자기 군사를 주겠다고 하면 아무리 욕심 많은 박정승이라 해도 꾀 많은 생각을 앞세우며 선뜻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승이 자기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계교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끝날 수 있다. 자기를 찌글사하게 보는 박정승의 눈에 박힌 미운털을 뽑아버리고 고운털을 박아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박정승이 아파하는 곳에 바람을 불어주어야 한다.

박정승이 제일 아파하는 곳은 파년한 딸자식을 로치녀로 늙히는 것이다. 딸 월단이 때문에 박정승은 가슴이 솟등걸로 되었다. 월단의 나이가 금년에 32살이니 로치녀가 아니라 로할미다. 여복했으면 박정승이 5년전에 자기 딸보다 11살이나 아래인 담동이와 혼사시켜줄 것을 국왕에게 청원하여 어명이 내리게 하였겠는가. 그때 국왕은 정승들이 화목하기 바라서 그 혼사를 승인하는 어지를 내렸고 그는 아들의 나이가 어린것을 구실로 가시아버지 제사날 미루듯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다.

지금의 형편이야말로 그것을 효과있게 써먹을 때이다. 머리우의 강권은 받아넘겨도 옆구리 인정은 물리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돈이라 부르며 찾아가면 박정승도 당장에 호물호물해질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아들녀석이 찌뿌둥해하니 그것이 난사였다. 달래서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의 강권으로라도 내려먹여야 한다.

《자고로 자식의 혼사는 부모가 주관하였거늘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따를 것이지 가당치 않게 무슨 말이 많느냐?》

이때 장지문이 드르릉 열리며 독이 올라 시퍼래진 안해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강박할 것이 따로 있지 죽기보다 싫다는 년에게 장가를 들라고 강박하니까? 절대로 아니되오이다.》

안해는 어제날의 드살을 용기백배 휘두르며 당장 그의 턱수염이라도 뿌리채 뽑아버릴 것처럼 대든다. 저 드살은 남편의 행복을 보

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드살이다. 허나 그도 그 드살을 당하기만 하던 어제날의 숙맥이 아니었다. 다 큰 아들이 보는 앞이라 더더욱 가풍을 세워야 하였다.

《정승댁 안방에서 이 무슨 해피한짓이요? 시녀들이나 종놈들이 들으면 당장 궁성바닥에 소문이 자자할거요.》

그의 날카로운 론조와 어조에 안해는 찢끔 놀라며 굳어진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다그쳤다.

《지체높은 대감부인이 문밖에서 말을 엿듣다니. 러염집아낙네도 그런 행실은 삼가하오. 정말 부끄럽소.》

안해는 한층 기가 죽었지만 물러설 잡도리는 아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나이까. 고이 길러온 자식을 하필이면 그런데...》

《됐소, 그만하고 잠자코 듣기나 하오.》

그는 안해의 말허리를 끊으며 손을 뻣뻣 내저었다.

《담동이 듣거라. 네 혼사는 누가 주관한 혼사냐?》

《돌아가신 국왕께서 주관하신 혼사이오이다.》

《옳다, 너의 혼사는 국왕의 어명으로 이루어진 혼사이다. 그런즉 그 혼사를 파하려면 어명으로 파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담동은 그의 물음에 눈이 켜해서 바라본다.

《물론 아버도 너의 행복만을 바란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도 이젠 철부지가 아니니 요즘 나라형편이 어떤지 잘 알게다. 상감마마께서 돌아가시고 룡상이 비였으니 네가 물리고싶어하는 그 혼사를 누가 물려주겠느냐. 박정승이나 최정승이 룡상에 앉으면 절대로 파할수 없는게고...》

여기서 말을 끊고 부러 아들에게 간절한 눈길을 주었다. 아들의 총명이면 이쯤만 말해도 뒤귀가 어둡지 않을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아들은 그 눈길이 안고있는 많은 의미를 제격 해득한 모양인지 서둘러 무릎을 꿇으며 공손히 고개를 숙이였다.

《아버님, 소자 아버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아들의 결심을 듣고 문정승은 입가에 미소를 그리는데 안해는 대

경실색이다.

《아니 애야, 어찌자고 그러느냐?》

그러는 안해에게 담동이 어른스럽게 대답한다.

《어머니, 소자는 아버님의 말을 따르는게 아니라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것이나다. 어머니도 장차 리해하시게 될 날이 있을줄 아오이다.》

문정승은 자기를 리해해주는 아들의 어른스러움에 눈등이 뜨거워났다. 애써 눈물을 감추며 안해에게 능을 부렸다.

《부인은 무슨 복으로 이런 아들을 낳았소? 이 애의 소견이 실로 누구도 미치지 못할만큼 범상치 않은바라 정말 기특함을 금할수 없소그려.》

안해는 무슨 영문인지 아직 깨도를 못한것 같지만 남편과 아들의 얼굴에 실린 웃음을 보고 저도 웃음을 짓는다.

《그게 어찌 첩의 복이겠나이까. 다 상공의 복이나다.》

《허허허... 부인이 그 말 한마디 정말 잘했소.》

문정승은 시름을 놓고 온몸을 들썩이며 통쾌하게 껄껄 웃었다.

14

박정승은 며칠째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사를 찾기 위해 운봉산으로 떠나보낸 안사인한테서는 전혀 소식이 없었다. 그 답답함으로 속이 짓눌려서인지 푹 자지 못하고 오늘도 이른아침에 눈을 떴다. 잠은 깬으나 일어나기 싫어 그냥 잠자리에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데 문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대감님, 아직 주무시오이까?》

홍무관의 목소리라 반갑게 장지문을 드르릉 열었다. 긴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안채에 머리를 들이밀지 않는 홍무관의 습성을 아는지라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한껏 기대가 어린 눈길을 주었다.

《무슨 일이냐?》

《최정승택에서 문안하님을 보내왔나이다.》

흥! 저도 모르게 코방귀가 나간다. 오라는 딸은 안 오고 오지 딸라는 며느리가 온다더니 학수고대하던 안사인의 기별이 아니라 생똥같은 최정승소리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문안하님은 무슨 문안하님이고?》

《대감님께서 어제 몸이 불편하다고 조정에 못 나오셨는데 차도가 계시냐고 문안을 보내면서 오늘도 조정에 못 나오시겠는지 알려달라고 했나이다.》

흥! 다시 한번 코바람이 나갔다. 고양이 쥐 생각이로군. 내가 엽병이라도 걸려 콧 죽었으면 하는 놈이 문병은 무슨 문병.

박정승은 그제 밤 기생 옥향을 불러들여 진탕치듯 마시고 놀아대며 밤을 꼬박 새웠다. 국왕이 주관하는 어전회의도 아니고 정승들끼리 밀린 국사를 처리하는 조회여서 하루쯤 번저도 무방하기에 어제 아침 몸이 불편하다는 전갈을 보내고 조회에 나가지 않았다.

어제 조정에서 최정승이 어떻게 놀아댔겠는지 보지 못했어도 눈앞에 선하다. 자기가 없는 틈을 타서 맹물단지같은 문정승을 얼리면서 그놈이 독판치기로 모든 정사를 처리했을것이다.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인 자기가 없었으니 아마 최정승한테는 사람사는 세상같았을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가 안 나오길 바라며 슬쩍 문안하님을 보낸게 분명하다.

이제는 나이가 퍼그나 있어서인지 몸상태가 전갈지 않다. 한창시절에는 계집을 끼고 장밤을 보내도 잠간 눈을 붙이면 몸이 거뜬했으나 지금은 그 어혈이 며칠씩이나 간다. 어제 하루동안 푹 쉬었는데도 아직 몸의 이 구석, 저 구석이 불편하다. 생각갈아서는 오늘 하루 더 쉬고싶지만 국사는 둘째치고 생쥐같은 최정승이 좋아할 꼴을 그려보니 절로 이를 사려물게 된다.

《오늘은 조회에 나간다고 일러라.》

《예잇!》

홍무관이 령을 받고 돌아섰다.

박정승은 문을 다시 닫으려다가 잠옷바람으로 마루에 나와 신발

을 찾아 꿰었다. 머리가 무거워서 아침공기를 마시며 산보를 하고 싶었다.

스적스적 걸음을 옮겨 후원으로 갔다. 여름아침의 싱그러운 냄새가 후원에 떠돈다. 지난해에 대공사를 벌려 면모를 일신시킨 후원은 말그대로 꽃동산이다. 여기저기서 갖가지 꽃들이 벌나비를 유혹하며 오염을 뿜내고 후원 한복판에서는 금빛물고기들이 뛰어노는 자그마한 호수가 제법 물을 출렁인다. 몇백리 지방에서 날라온 기암괴석들과 진귀한 나무들이 운치를 돋구며 숲속풍치를 자아내고 맴시나는 자그마한 다리와 이어져있는 호수 한가운데는 아담한 정각이 날아갈듯 추녀를 치켜들고 어여뻐 앉아있다.

그는 원래 사치를 즐기지 않는 무관이여서 후원을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꾸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최정승이 정승부에 후원을 동산처럼 꾸려놓고 흥청거리는게 배아파 보란듯이 더 요란하고 더 아름답게 꾸렸다.

시원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걸느라니 머리가 아침하늘처럼 맑아졌다. 상쾌해지는 기분에 몸을 맡기고 놀양으로 흔들흔들 걸음을 옮기던 그는 한순간 골살을 찌프렸다. 아버지가 어디서 저런 감투와 옷이 나서 걸쳤는고. 베감투를 쓰고 베두루마기를 걸친 아버지 박첨량이 갈고랑막대를 짚고 뒤대문쪽으로 비칠비칠 걸어가고있었다. 걸음을 재게 놀려 아버지의 길을 막아섰다.

《아버님, 아침부터 어디에 가시오이까?》

땅만 내려다보며 걸던 아버지가 불쾌한듯 눈을 치뜬다.

《내 묘자리를 돌아보러 간다.》

《이런 차림으로 나다니시면 남들이 로망을 한다고 흉을 보나이다. 어서 안에 들어가 누워계시오이다.》

그는 다짜고짜 갈고랑막대를 빼앗아들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박첨량은 그의 힘에 못이겨 따라오면서 방울단 황소처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걸 놓아라. 묘자리를 보러 가는데 이런 차림으로 가지 않으면 비단옷을 떨쳐입고 가겠느냐.》

잠자코 따라왔으면 좋으련만 끌려오면서도 계속 푸념질이다.

《이걸 놓지 못하겠느냐. 놓지 않으면 당장 죽고말겠다.》

박정승은 억지다짐으로 아버지를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눌러앉혔다.

《제발 좀 망신을 시키지 말고 집안에 꼭 앉아계시오이다.》

아버지는 손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영탄조로 소리를 내질렀다.

《아이구! 내가 이런 팔세를 받자고 이렇게도 질기게 산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팔세를 한다고 그러시오이까?》

《누군 누구야, 바로 네놈이지. 아비없는 후례자식같은 놈, 아이구!》

아버지는 다시금 방바닥을 두들겨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후례자식타령에 박정승은 쓰겁게 입을 다셨다. 이제는 너무 들어서 돌림병에 까마귀소리만치나 듣기 싫다. 아버지의 입에서 후례자식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가 무에 뜻은 둔 때부터였다.

《힘써 글을 배우고 일찍 등과하여 가문의 영화나 보일것이거늘 구태여 하지 말라는 말타기와 칼부림만 기를 쓰고 좋아하느냐. 이 후례자식같은 놈, 불효막심도 정도가 있지 아비의 말을 그렇게까지 귀등으로도 안 듣느냐.》

그가 무술타기에 전심할수록 아버지의 욕은 더 늘어갔다. 그전까지는 《우리 문호를 일으킬 사람은 이 아이로다.》 하며 그토록 그를 사랑하고 귀애하던 아버지였다. 허나 그가 가문의 전통을 배반하는 길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사랑도 그를 배반하였다.

장가를 들어 딸 월단을 낳았을 때 아버지의 욕은 분노로 바뀌었다.

《네놈이 끝내 박씨가문의 혈통을 끊어놓는구나. 귀신도 빌면 듣는다는데 네놈은 어떻게 된 후례자식이기에 아비의 말을 안 듣고 가문을 망치느냐.》

아버지의 이 말에 그는 배심있게 대꾸했었다.

《첫아이인데 뭘 그다지나 노여워하시나이까. 내 이제 아버님께 꼭 손주를 안겨드리겠나이다.》

《뭘, 네가 아들을 낳아? 조상을 박대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 네가 딸을 낳은건 하늘이 밋게 여김이라 어이 달리되겠느냐.》

정말 하늘이 밋게 여겼는지 아버지의 말대로 끝내 아들을 보지 못했다. 그 옛날에 박씨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는 저주가 자기 대에 들렸는지 아무리 술한 계집들과 모지름을 써봐도 아들은커녕 딸도 더이상 생기지 않았다.

이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후례자식타령은 어깨가 귀를 넘게 사는 오늘날까지도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다. 아버지한테 죄스러움과 민망함이 없지 않아 지극히 효도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건 후례자식 소리뿐이다. 효자노릇을 하려고 해도 부모가 받아줘야 한다더니 정말 옛말 그런데 없다.

아버지는 여전히 방바닥을 두드리며 타령을 했다.

《가문이 망하는 꼴을 보지 말고 인차 죽어야겠는데 왜 남의 나이까지 먹으며 이다지도 오래 사노, 아이구!》

늙은이의 한갓 녀두리이지만 불길한 생각이 들어 따져물었다.

《아버님, 가문이 망한다는건 무슨 말씀이오이까?》

《예로부터 일군을 박대하면 당일에 집안이 망하고 조상을 박대하면 삼년에 가문이 망한다고 했다. 네놈이 조상을 박대했는데 박씨가문이 안 망할수 있느냐? 이제 망해도 쫄딱 망할게다.》

가슴이 섬찍해서 다시 물었다.

《그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오이까?》

《네가 하는짓을 네가 몰라서 미주알고주알 캐묻는거냐? 네놈의 몸에서 지금 막 피비린내가 풍긴다. 이제 그 피비린내때문에 네놈이 삭탈관직당하는건 둘째치고 우리 박씨가문에 오라바람이 일어 누구 하나 살아남지 못할게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마음을 돌려먹어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왜 〈무양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줄 아느냐. 사람의 마음을 먹는 벌레가 양인데 그 양이 없는가고 물어보는 말이다. 네놈의 마음속엔 지금 그 양이 가득하니 이제라도 빨리 그 벌레를 내쫓아라.》

늙으면 반귀신이 된다더니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말에 더 할말이 없어 돌아서고말았다. 등뒤에서 아버지의 타령소리

가 계속 들려왔다.

《엄부시하에서 자란 아들만이 사람질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저놈을 후레자식으로 키웠으니 달리될수가 없지. 도적의 때는 벗어도 자식의 때는 벗지 못한다고 했거늘 내 이제 저승에 가서 무슨 낮으로 조상들을 만날고...》

15

월단은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며 부시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을 먹고 잠간 눈을 붙였는데 벌써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있다.

《애야, 꿀물을 좀 타오너라.》

문밖에 서있는 어린 시녀에게 분부했다. 시녀는 오침시간마다 문밖에 지키고 서있다가 그가 깨어나면 바삐 시중을 들군 한다.

월단은 몸만 쑥 빠져나온 이불우를 네발로 엉금엉금 지나 방안에 놓여있는 청동거울앞에 가서 마주앉았다. 그가 하는 일이란 하루세끼 밥을 먹고 오침을 하고 지금처럼 거울앞에 마주앉는것뿐이다.

오침을 너무 오래 해서 부어올랐는지 오늘은 별로 얼굴이 더 퉁퉁해보인다. 그의 마음속 고충인양 눈가의 여기저기에 가는 잔주름이 거미가 등지를 틀기라도 한것처럼 나날이 늘어간다. 손가락으로 주름이 생긴 부위를 꼭 누르며 애써 비벼보았지만 없어지는것은 그때뿐이지 다시 생겨난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새어나오곤 하는 한숨이 다시금 흘러나온다.

그의 나이 올해 서른둘이다. 녀자나이 서른둘이면 빨리 시집간 녀자들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할머니소리를 들을 때건만 그는 아직 머리에 비너조차 꽃아보지 못한 처녀이다. 다른 처녀들은 잘만 가는 시집을 자기는 왜 여적 못 가고있는지 스스로도 잘 리해가 되지 않는다. 처녀들뿐이 아니다. 아직 소녀티도 벗지 못한 어린것들이 결혼식가마에 올라앉아 달래각시가 된다.

요즘세월에는 남자들이 권세있고 돈많은 집의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데 그가 보기에는 그런것 같지 않다. 권세가 있다 하면 정승인 그의 아버지만큼 권세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다면 궁궐같은 정승부만큼 돈많은 집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의 집 대문앞에서는 총각집의 청혼을 안고 찾아오는 매파를 그림자조차 볼수 없다.

할아버지는 그의 얼굴이 너무 박색이여서 시집을 못 간다고 말끝마다 핀잔이지만 그 말도 역시 모를 말이다. 두눈이 비록 밤알처럼 크지 못하고 버들잎처럼 가늘긴 하지만 까만 눈동자에 기쁨기가 돌아 영민함과 슬기가 엇보인다. 얼굴도 사내들이 좋아한다는 가름한 닭알형이 못되고 호박처럼 둥글넙적하긴 하지만 분치장을 계속 해서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흰하다. 재잘거리며 방정을 떠는 입헤픈 아나네처럼 입술이 얇팍하지 않고 두툼해서 인품이 현숙해보이고 여기에다 엄지손가락의 손톱만큼한 버덩이 한개가 재롱스럽게 뽀족이 나와 있어 두툼한 입술사이로 남들이 부러워할 상아처럼 하얀 이발이 항상 드러나보인다. 억지로 흙이라고 한다면 손바닥 두개를 합친것만큼 큰 이마가 얼굴의 절반을 차지한것이지만 예로부터 이마가 넓으면 도량이 크고 마음이 너그럽다 했으니 남편공대는 물론 남편의 친우들도 섭섭치 않게 대해줄 착한 마음의 표시이다.

어디 그뿐인가. 아버지를 닮아 사내 못지 않게 키가 크고 가정의 무거운 부담을 넉넉히 견뎌질수 있게 두어깨가 실팍하다. 치마에 가리워 드러나보이지는 않지만 두다리가 절간의 아름다리기둥처럼 미출하고 어릴적부터 실한 엉치는 아이날이를 짱짱 잘할수 있다는걸 보여준다.

남편공대면 남편공대, 시부모공대면 시부모공대, 아이날이면 아이날이를 비롯해서 그 어떤 여자구실도 남들보다 기막히게 더 잘할수 있건만 동서남북 그 어느쪽에서도 청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혼사말이 영 없은것은 아니다. 27살나던 해에 국왕의 주선으로 문정승의 16살난 아들 담동과 혼사말이 있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올랐고 밤마다 설레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가. 하지만 매정한 도련님때문인지 아니면 야속한 문정승때문인지 혼사말은 온데간데없이 달아나고 아름다

운 꿈도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그의 머리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꿀물을 가져왔나이다.》

시녀의 부름에 월단은 상념에서 깨어나 거울앞에서 물러났다.

석빙고에 진사해두는 얼음을 조각내어 등등 띄워서 사발겉면까지 차갑다. 사발을 받아 단숨에 쪽 들이키니 답답하던 가슴이 한결 후련해지는것 같았다.

시녀가 물러가자 그는 이불짊에 깊숙이 간수해두었던 병서를 꺼내들었다. 아버지가 소중히 진사해오는 책인데 아버지의 주의가 미치지 않는 기회를 리용하여 몰래 훔쳐냈다. 근래에 와서는 이 병서를 꺼내들고 혼자서 병법을 익히면서 공상을 하는것이 하나의 새로운 일파로 되었다.

병서를 펼쳐드니 날마다 해오는 공상이 또다시 찾아들며 온몸을 무아경에로 이끌어간다. ...

변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백마국군사들이 끝내 송도국지경에 쳐들어와 궁성까지 파죽지세로 쳐들어온다. 당황망조한 국왕은 황황히 만조백관들을 궁궐로 부른다. 국왕이 죽은걸 모르지 않았지만 국왕이 등장해야 공상이 재미있어 아직까지 살아있는것으로 해두었다.

《아무래도 병법에 능하고 군사를 잘 쓰는 박정승밖에는 백마국의 침입을 막을 사람이 없을것 같소.》

국왕의 이 말에 문무백관모두가 《옳소이다. 박정승밖에는 인재가 없소이다.》 하며 아버지를 적극 천거한다.

아버지는 위엄을 뽐내며 통상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신은 기어이 백마국의 대군을 쓸어놓히고 승전고를 울려 상감마마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나이다.》

통봉투구에 통린갑을 입고 칠성검을 찬 아버지는 천하준마인 적토마에 림림히 올라 삼군을 거느리고 기세좋게 궁성을 떠난다.

그러나 며칠후 전장에서 송도국의 군사가 크게 패하고 그의 아버지도 백마국놈들한테 붙잡혔다는 급보가 올라온다.

패전보고를 받은 국왕은 대경실색한다.

《아, 박정승까지 패하였다니 이 송도국의 운명은 오늘로써 끝장이구나.》

그사이 백마국의 대군이 궁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매일같이 투항을 권고한다. 하는수없이 항복을 결심한 국왕은 스스로 자기를 포승으로 결박하고 신하들에게 옥새를 들리워 궁성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때 문정승이 험레벌떡 달려와 국왕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기 월단이가 변성명하여 올린 출사표를 드린다. 국왕은 씩씩한 용기와 슬기가 드러나보이는 출사표를 받아보고 무릎을 철썩 친다.

《하늘이 우리 송도국을 위하여 천하의 영웅을 내셨구나.》

즉시 그를 부르는 어명이 내리고 그는 왕궁으로 들어간다. 물론 남복을 하였다. 국왕은 그의 팔소매를 붙어잡고 그냥 울기만 한다.

《이 나라의 천리강토와 사직이 오직 경에게 달려있으니 경은 부디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오.》

《나라의 운명이 칼도마에 오른 이때 신하된자로 어찌 몸을 아끼오리까.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복을 올려 외적을 물리치고 천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나이다.》

그는 국왕이 하사한 백화단전포를 걸치고 철총마에 올라 얼마 안되는 군사와 함께 성문을 열고 적진을 향해 내달린다.

백마국진영에서도 복이 울리며 무예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적장이 말을 달려 마주 나온다. 하지만 째짤이 무예를 익히고 병법을 배워온 그에게는 상대도 안된다. 맞붙은지 몇합도 안되어 적장의 머리가 떨어지고 순간에 적진이 와해된다. 그 기세를 리용하여 적진을 어지러이 들이치는데 그의 칼날아래 달아난 목만도 수백급이나 된다.

마침내 싸움이 끝나고 그는 포로가 되었던 아버지를 모시고 궁성으로 개선한다. 송도국의 백성들이 모두 떨쳐나와 개선장군인 그를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국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성문밖까지 그를 마중한다.

《경은 정말 천하의 영웅이요. 파인은 그대를 대원수로 임명하고 파인의 부마로 삼을가 하오.》

더이상 신분을 감출수 없게 된 그는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왕도 아버지도 놀라움과 감격을 금치 못한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아녀자된 몸으로 이토록 출중한 공을 세운례는 없노라. 그래서 파인은 경이 비록 녀자의 몸이지만 나라의 병

권을 경에게 맡길가 하니 부디 사양말라.》

하지만 그는 국왕의 은총을 굳이 사양한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녀의 소원은 평범한 녀인으로 사는것이 니 내리신 벼슬을 거두어주시기 바라나이다.》

자기 아들과의 혼사를 미루어온것을 자책하며 후회의 빛을 띄우고 있던 문정승이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국왕한테 청을 드린다.

《신이 지금껏 눈이 어두워 온 세상을 뒤져도 찾을수 없는 현숙한 며느리감을 놓치고있었사오니 신의 죄를 아량있게 용서하시고 박정승과 혼사를 다시 맺도록 주선해주시기 바라오이다.》

《그대의 아들은 박정승의 딸과 대비하면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너무도 짝이 기우는데 박정승이 그 혼사를 쾌히 받아들여겠는지 모르겠노라.》

국왕의 이 말을 듣고 문정승은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건만 원래 무뚝뚝한 아버지는 그전날의 패썹한 감정을 앞세우며 결단코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 월단이 자기도 분함이 없지 않으나 예로부터 쫓겨난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한번 혼사말이 있는 담동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택할수 없어 아량있게 용서한다. 하여 왕의 주관하에 왕궁에서 그와 담동이의 결혼식이 국가의식으로 성대히 거행된다. ...

눈을 감고 황홀의 극치를 이룬 결혼식장면을 그려보던 월단은 자기를 찾는 부름소리에 눈을 버쩍 떴다.

《또 그 책을 꺼내들었느냐?》

언제 왔는지 어머니가 곁에 서서 질책어린 눈길로 내려다본다.

《아버지가 네 꼴을 봤단 그 성미에 당장 매를 드실게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으니 아버지눈에 띄지 않게 당장 책을 거두어라. 계집년이 할 지랄이 없어 병서공부냐. 처녀가 나이차면 번덕을 부린다고 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정말 옳긴 옳구나.》

월단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다는 말에 무서워서 얼른 책을 거두면서도 어머니의 말이 내려가지 않아 꿈알거렸다.

《미거한 소녀가 병서공부를 하는건 번덕이 아니라 위급한 때를

당하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나이다.》

아직도 꿈에 취해있는 그의 말에 어머니는 왈칵 성을 낸다.

《동정 못 다는 년 맹물발라 머리를 빗는다더니 계집년의 치마폭이 얼마나 커서 나라요 뭐요 하는거냐. 정말 나라를 구원해보겠으면 이제부터라도 활쏘기도 배우고 말타기도 부지런히 배우거라. 아마 온 궁성바닥이 허릴 부여안고 웃을게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돌아서서 나갔다.

월단은 그러는 어머니의 뒤모습을 야속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왜 이 딸의 깊은 속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시오이까.)

정말이지 활쏘기와 말타기까지 배워 어머니를 깜짝 놀래우고싶은 반발심이 불쑥 솟구쳤다. 하지만 평생 활을 다루어서 곰배팔이 된 아버지의 팔과 짧은 시절을 말우에서 보내다싶이 하여 물독처럼 휘어진 아버지의 두다리가 떠올라 인차 고개를 흔들었다. 순간의 분김으로 하여 언제인가는 지아비를 섬겨야 할 자기의 고운 몸매를 망칠수 없었다. 무예는 못 닦아도 병법만 잘 익히면 얼마든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할수 있었다.

어머니, 불초한 녀식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가슴에 재가 쌓였음을 소녀도 아나이다. 하지만 어머니도 언제인가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딸을 두었는가를 꼭 아시게 될 때가 있을거예요.

월단의 버들눈에는 원망의 눈물이 소리없이 맺혔다.

16

최정승은 비밀모의나 하는것처럼 일체 출입을 금지시킨 다음 밀실문을 꼭 닫고 누가 문틈으로 엿볼세라 병풍까지 빙 둘러쳤다. 무더운 여름날이라 병풍까지 둘러치니 바람 한점 통하지 않아 숨이 킁킁 막혔으나 머리의 관과 옷을 벗고 의원앞에 마주앉아 탈모증치료

를 받기 시작하였다.

국왕에게 진상하는 보약을 몰래 훔쳐먹은 때부터 이마가 벗어지기 시작한것이 이제는 정수리까지 머리카락 한오리 없이 홀렁 벗어져 중대가리처럼 반들반들하다. 판을 척 쓰고 나서면 대머리인줄 누구도 모르기때문에 지금껏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청도에서 소실로 맞아들인 금향이의 말을 듣고 이 지랄이다.

《대감님, 대감님처럼 체소한분이 머리까지 벗어지니 보기 흉하나이다. 머리카락이 있으면 한결 더 의젓해보이시겠는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새로 첩으로 삼은 젊은 금향이한테는 사족을 못쓰는 그다. 금향이의 요구라면 무엇이냐 다 들어주었고 무슨 말해도 다 따랐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 해도 따올판이다.

《내 나이 지금 선인데 이제 치료를 한다고 머리카락이 나올가?》

탈모증치료를 못해본것이 아니어서 머리를 기웃거렸다.

《왜 안 나온다고 그러시나이까. 첩이 용한 의원을 한사람 알고있는데 그 의원한테서 치료를 받으면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것이내이다. 머리카락이 다시 돋으면 한결 젊어보이실수 있내이다.》

젊어보일수 있다는 말에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매일같이 극성스레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나이 선살에 탈모증치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면 웃음거리가 될수 있어 지금처럼 치료를 극비에 붙이였다. 의원과 금향이한테 단단히 다짐을 두어서 그가 탈모증치료를 받는데 대해서는 집안의 종들은 물론 안해와 자식들도 모른다.

의원이 벗어진 머리에 자극을 주기 위해 솔잎뭉치로 정수리의 살갓을 찢러대고 불로 지지는것만큼이나 쓰러나는 물약을 바를 때마다 앙다문 입술사이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젊은 첩한테 젊게 보이고싶어 혀를 깨물며 참아냈다.

치료가 한창인데 밀실문앞에서 유검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감님, 유검상이올시다.》

알각 성이 나며 큰소리가 나갔다.

《내가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운봉산에 갔던 놈들이 돌아왔소이다.》

운봉산이라는 말을 듣고 대번에 목소리가 달라졌다.

《알겠다. 잠간 기다려라.》

그는 서둘러 머리에 바른 약물을 천으로 씻어내고 관을 쓰며 의원한테 옆방으로 피하라고 고개짓을 하였다. 의관을 수습하고 문을 열자 마마자국처럼 구멍이 승승한 유점상의 고석배기얼굴이 나타났다.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유점상의 얼굴표정을 보니 일이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아니나다를까 맥빠진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온다.

《운봉산을 참빚질하듯 살살이 훑었으나 운봉도사는 그림자도 없었다고 하오이다.》

결국 부하놈들이 기껏 다리뎀을 팔았다는게 개 바위돌에 갔다온 격이다. 운봉도사라는 인물이 정말 이 세상에 있긴 있는가 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다시 들었다. 하지만 인차 고개를 저었다. 신종한국왕이 나라의 운명을 존재도 하지 않는 허깨비한테 맡길리가 없었다. 운봉도사는 틀림없이 있다.

유점상이 그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조심히 여쭙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운봉산에서 안사인을 봤다고 하오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눈을 치떴다.

《그게 사실이나? 잘못 보지 않았더냐?》

《사실인것 같소이다. 아무렴 우리 애들이 안사인을 못 가려보겠나이까. 그리고 며칠째 박대감이 꿈무늬에 그림자처럼 달고다니던 그놈이 안 보이지 않았나이까.》

그렇다, 미처 주의를 못 돌렸었는데 그동안 안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건 사실이다. 하긴 미련한 박정승도 지금의 형편에서 운봉도사가 요진통임을 모르지는 않을것이다. 계집샘같은 야비한 감정이 속에 피어든다. 뛰는 놈우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자기가 편다고 미옥한 박정승도 제법 날아보려 한다.

《그런데 그놈들이 안사인의 눈에 안 띄웠더냐?》

《안사인을 보고 제격 몸을 피했다고 하나이다.》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던 최정승은 다음순간 오만상을 쯤

프렸다.

《그간 안사인놈이 무서워서 찾으라는 운봉도사도 못 찾고 줄행랑을 놓았다더냐? 밥병신같은 놈들! 그러다가 안사인이 운봉도사를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걱정마시오이다. 소인이 그래서 운봉산에서부터 궁성으로 들어오는 요처마다에 사람을 다시 파했나이다. 안사인이 운봉도사를 찾아가지고 나타나기만 하면 소인이 직접 가서 그놈을 죽이고 도사님을 모셔오겠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엽죽엽죽해서 감때사나와보이는 유검상의 고석배기얼굴에 살기가 진하게 내돋았다. 이게 이놈의 장점이지. 유검상을 자기의 심복부하로 둔것은 바로 특이하게 뛰어난 모진 살기가 마음에 흠뻑 들어서였다.

그가 유검상을 처음 알게 된것은 해청도관찰사를 할 때였다. 하루는 주막집에서 술을 먹고 싸움질을 하다가 칼로 단번에 여섯명의 사람을 란탕쳤다는 살인범이 관청에 붙들려왔다. 백주에 생사람을 그것도 단번에 여섯명씩이나 죽였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어 자기가 직접 문초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죄인을 끌어오라!》

령을 내리자 형방과 옥졸들이 목에 긴칼을 썩은 베잡뱅이사내를 끌어왔다. 그 사나이가 바로 유검상이였다. 사람을 여섯씩이나 죽였다고 해서 두억시니같은 힘쟁이일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키가 작고 다부진자다.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 얼굴이 고석배기여서 몰골이 흉측하였는데 긴칼을 쓰고 무릎을 꿇은 꼴이 마치 현 바자 구멍으로 개대가리가 나온것 같았다.

《저놈이 사람을 여섯씩이나 죽였단 말이냐?》

믿어지지 않아 형방에게 물었다.

《그렇소이다. 죽여도 너무 처참하게 죽었나이다.》

누구나 치를 떠는 악행이라 형방은 말하기조차 이가 시리는지 부르르 몸을 떨고나서 유검삼의 흉기를 두손으로 받쳐올렸다.

《이 칼로 여섯명을 모두 란탕쳐놓았나이다.》

반달모양의 칼인데 어떻게 다듬었는지 칼날이 툭날처럼 삐죽삐죽

하였다.

《모양을 보니 특별히 만든 칼 같구나.》

《웁소이다. 저놈이 자기절로 만든 흉기이나이다. 칼날이 승냥이의 이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랑치검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사람의 몸에 닿으면 맹수가 물어뜯는것처럼 살점이 뭉청뭉청 달아나오이다. 이 칼의 이름을 본따서 저놈의 별호도 랑치검인데 해칭도의 부랑자치고 랑치검이라고 하면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나이다.》

쪼꼬만 놈이 꽤 도담한걸. 극형에 처해야 할 중죄인이었지만 관헌으로서의 분노보다도 흥미가 더 동했다.

《어째서 사람을 죽였느냐?》

관찰사의 엄한 물음이었으나 죄인은 단마디 대답도 없이 고개를 외로 돌린다. 다른 죄수들 같으면 전전긍긍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하겠으나 이놈은 딱심 좋게 배짱을 부린다.

이번에도 형방이 대신 대답했다.

《죽은자들은 모두 저놈과 한패거리 부랑배들이나이다.》

《그럼 제 동료를 죽였다는거냐?》

그는 어이가 없어 되물었다.

《예, 함께 술을 처마시던 동료놈들이 술에 취해서 톱으로 고석배기인 저놈의 얼굴을 벌집같다고 놀려주었는데 저놈이 그걸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러댔나이다.》

《허허… 저놈의 성미가 되우 급한 모양이구나.》

그는 어이없어 웃는척 하였지만 말을 들을수록 죄인놈이 마음에 들어 은근히 두남을 두게 되었다. 지금껏 심복부하로 둘 맞춘한 놈을 고르지 못해서 눈을 밝혀오던차인데 유검상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놈이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 사람은 크게 두가지 부류다. 한 부류는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똑똑치 못한 사람이다. 무한정 착한 사람과 무한정 악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며 선과 악을 겸비하고있는 사람은 똑똑치 못한 사람이다. 그가 심복부하로 고르려는자는 무한정 악한자다. 유검상이 바로 그러하였다. 용모도 성격도 기질도 지어 흉기까지도 하나같이 랑치검이었다. 이 통일이 마

음에 들었다.

《저놈이 비록 살인은 했지만 법을 문란시키던 부랑배들을 죽여 관청의 화근을 덜어주었으니 형벌문제는 피해자가족들의 발판을 들어보고 다시 좀 생각해보아야겠다.》

마음먹고 어정쩡한 판결을 내렸다. 형방과 관청의 모든 관료들이 놀라움을 금치못해 하였으나 모르는쇠 하였다. 그에게도 타산이 있었다. 유검상이 죽인자들이 부랑자이니 피해자가족측이 두번다시 고소를 안할것이고 또 얼마 안있어 360일밖에 안되는 자기의 관찰사 임기가 인차 끝나니 궁성으로 올라갈 때 유검상을 데리고 가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수 있었다.

모든것이 그의 예견대로 되었다. 날이 흐를수록 형벌문제는 유아 무야 돼버렸고 유검상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에게 죽기로써 충성을 다하며 스스로 문서없는 종이 되었다.

이번 해청도결음에서 그 지방의 명기로 소문이 자자한 금향이를 소실로 맞을수 있는데도 유검상의 공로가 컸다.

금향은 해청도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만석군부자와 정을 나누며 다른 사내는 윈눈으로도 보지 않았다. 지어 관찰사까지도 기생인 금향이를 관청잔치에 청하자면 그 만석군부자한테 특별히 청을 드려야 하였다.

그가 해청도에 오자 관찰사는 잔치를 크게 차리고 명기 금향이를 청해왔는데 요염한 명기의 아릿다움은 순간에 그의 넋을 앗아갔다. 주인이 여자때문에 감질이 나서 끔끔 앓자 유검상은 한달음에 달려가 랑치검으로 만석군부자를 란탕쳐놓았고 질겁한 금향은 그날로 그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때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유검상의 랑치검에는 여전히 믿음이 간다.

《그럼 너를 믿겠으니 절대로 실수가 없도록 해라.》

《명심하겠소이다.》

유검상은 그에게 고개를 숙여 례를 표하고나서 조용히 물러갔다.

유겸상이 물러간 후에도 최정승은 인차 의원을 부르지 않고 한동안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였다.

선땀이 부스러진다고 흉상을 차지하자면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큰 실수를 하였다. 그것도 어제오늘에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범한 실수이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실수다.

그 실수란 박정승을 미욕한 놈이라 깔보며 한수 접고든것이다. 물론 박정승은 칼부림밖에 모르는 미욕쟁이다. 하지만 그놈결에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안사인이 있다는걸 잊고있었다. 운봉산에 가서 도사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계략도 필경 박정승의 머리가 아니라 안사인의 머리에서 흘러나왔을것이다. 경적필패라는 말을 절대로 잊어선 안된다.

습관적으로 손이 올라가며 오른쪽귀불을 어루만졌다. 좁은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부처의 귀불만큼 축 늘어졌다. 한미한 가문의 년소선비로 과거에 급제하여 풍파사나운 벼슬길을 한치한치 뚫아 정승자리에까지 오른 그여서 더이상 바랄것이 없고 부러울것이 없었다. 허나 이 귀불이 흉상에 대한 꿈을 안겨주었다.

그가 정승이 된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이었다.

조회를 마치고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가 그의 행차를 가로막았다. 정승의 행차면 서둘러 한옆에 비켜서서 읊을 하는게 상례인데 감히 막아서는걸 보니 로망한 늙은이 같았다.

《이놈의 두상, 썩 비키지 못하겠어!》

뒤에서 말을 타고 그의 평교자를 호위하던 유겸상이 앞으로 나서며 당장 잡아먹을듯이 눈알을 부라리였다. 허나 늙은이는 겁기가 전혀 없이 무작정 그가 탄 교자앞으로 다가왔다.

《대감님께 긴히 여쭙 말씀이 있어 감히 행차를 막아섰나이다.》
다른 벼슬을 할 때도 억울함을 청원하는 백성들을 종종 맞다들렸던지라 지레짐작하고 시끄러운 태도를 취했다.

《소청이 있으면 정승부로 찾아와라.》

《소청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예상밖이어서 늙은이를 유심히 보았다. 학발이 이마를 덮었으나 눈이 새별같고 기품이 현양한게 례사늙은이의 풍채가 아니다.

《할말이 대체 뭐냐?》

《소인은 이 처자거리에서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봐주는걸 업으로 삼는 관상쟁이오이다. 이번에 대감님께서 새로 정승이 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길로 오가시는 대감님의 관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나이다.》

금시 마음이 혹하며 흥미가 동했다.

《그래서?》

《소인이 본 대감님의 관상은 이 로상에서 할 말이 못되오이다.》

관상쟁이란 놈들이 거짓말을 밥먹듯 한다는걸 모르는바 아니었지만 청하지도 않았는데 제발로 찾아온 관상쟁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싶었다.

그는 늙은 관상쟁이를 정승부로 데리고 와서 조용한 방에 마주앉았다.

《그래, 내 관상이 어떻냐?》

《표일한 기상이 범인이 아니요 흉중에 천하영웅의 뜻을 품었고 미간에 강산조화가 서리였나이다.》

범상한 해석이 아니어서 뜻을 따져가며 물었다.

《강산조화라는데 무슨 의미냐?》

《그 심오함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마디로 천하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나이다.》

흠칫하며 낫색과 어조를 바꾸었다.

《너 이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함부로 천한 입을 놀리느냐?》

늙은 관상쟁이는 황황히 머리를 조아리었다.

《소인이 어찌 허튼소리로 감히 대감님을 기이겠나이까. 그 강산 조화로 하여 대감님께서 천하의 온갖 복과 부귀를 다 누리시게 되나이다. 대감님의 귀불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복과 부귀의 상징이 나이다.》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가차없이 역적으로 몰릴 무엄한 말이였지만 귀맛이 당기었다. 마음이 흡족해서 흡족한것만큼 듬뿍 상을 내렸다.

이 귀불이 앞으로 누리게 될 복과 부귀의 상징이란 말이지. 절로 손이 귀불에 올라갔다. 기분이 좋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귀불을 어루만졌고 인차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되었다.

이때부터 강산조화라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지금의 형편을 보면 가망이 없는 헛꿈같았다.

그런데 자기가 엄두도 못 내는 그 일에 감히 언손질을 하는 놈이 있었다. 다름아닌 박정승이었다. 미욱한 도깨비 부작을 모른다더니 박정승은 자기의 미욱함만 믿고 룡상을 향해 미욱하게 돌진하였다.

처음 박정승의 검은 속심을 낚새했을 때 국왕에게 고해바칠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정쟁의 기본적수인 박정승을 제거할수 있었고 국왕의 총애를 따낼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그더러 따내라고 운명의 나무에 계시해준 열매는 국왕의 총애가 아니라 바로 국왕의 지엄한 지위였다. 그 열매를 따자면 술한 품과 목숨까지 바쳐가며 룡상앞까지 한계단 또 한계단 높다란 층계를 쌓아야겠으나 지금의 그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너무도 아릅찬 과제였다.

그렇다, 그 모든 층계를 힘 좋은 박정승이 쌓게 한 다음 그 열매를 머리로 빼앗아내자. 머리싸움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심이 있었다.

그는 박정승이 룡상앞까지 층계를 빨리 쌓도록 기껏 부채질을 하였다. 부채질만 한것이 아니라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박정승이 국왕의 두 부마를 제거하지 못해 속상해할 때 부마들에게 미너를 한명씩 슬쩍 안겨주고 그년들이 부마들한테서 자기들을

소실로 받아들인다는 비밀증서를 받아내게 하였다. 그 비밀증서를 박정승의 손에 우연히 흘러들게 만들자 《부마는 랑치할수 없다.》는 지엄한 왕실법에 걸어 즉시 끝장을 내버렸다.

총명한 왕세자를 없애버릴 때는 정말 진땀이 났다.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 박정승에게 사냥터에서 짐승을 쏘는척 하며 원수를 갚았다는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냥까지 조직해주었다. 허나 박정승이 날린 화살이 어설피게 들어맞아 왕세자는 죽지 않고 정신만 잃었다. 왕세자가 정신을 차리면 모든것이 끝장날수 있는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유점상을 시켜 맹수가 물어뜯은것처럼 왕세자의 목에 랑치검을 박게 하였다.

그 모든 도움이 은을 내어 마침내 박정승이 룡상까지 가는 길을 원만하게 닦아놓았다. 이제는 남은것이 국왕 하나였지만 이번에는 최정승자신이 박정승의 마수로부터 국왕을 지켰다. 국왕의 손으로 박정승을 제거하자면 국왕의 생명을 연장시키는게 필요했다.

그는 기회만 생기면 박정승을 빗대놓고 국왕에게 험담을 늘어놓았다.

《지금 무관출신의 고관대작들을 둘러보면 용맹은 있으나 피가 없으며 외모는 진중해보이나 속은 경솔하나이다. 머리에 든것이 없어 벼슬자랑만 하며 아래사람들을 깔보는 그들의 본을 따서 문관출신들마저 어지러워지고있나이다. 자기의 장점은 자랑하면서 남의 장점은 가리우고 자기의 결함은 감추면서 남의 결함만 들추는 폐풍이 판료들속에 만연되고있는것도 다 무관출신의 고관대작들때문이다.》

그때마다 국왕은 웃으며 그를 타일렀다.

《과인도 그걸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사람이 땅우에 서자면 두다리가 있어야 하는것처럼 나라도 문과 무라는 두다리가 있어서 기울지 않고 서있는것이다. 문과 무 둘중에서 어느것 하나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느니라. 자고로 문관과 무관은 앙숙인데 나라가 편하자면 랑쪽이 서로 참고 리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인들이 참을 인자를 만사능통의 해결책으로 본것이니 경도 참을 인자를 삼가 지녀 모든 일을 그르치지 말지어다.》

어느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국왕의 우유부단으로 하여 끝내 박정승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전에는 박정승이 룡상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길뚝이군이였지만 국왕이 죽은 지금에 와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다.

그는 귀불을 슬슬 어루만지며 이를 갈았다.

(박정승 이놈! 염통머리없이 감히 이 최정승의 룡상을 탐내? 이제 운봉도사만 내 손에 들어오면 고추가 작아도 얼마나 매운가를 일생 잊지 않게 해주겠다. 그때는 룡상꿈을 꾸던 네놈이 지금 엉치로 깔고있는 그 정승자리는 들췌치고 곰같은 체통도 지켜내지 못할게다.)

18

박정승은 이날 자기 집 문객들이 무예를 닦고있는 정승부 뒤문앞의 무술교련장으로 나갔다.

그의 집에는 거의 2백명이나 되는 문객들이 있다. 문객들이란 출세의 꿈을 안고 권세가에 기신기신 찾아들어와 공밥이나 축내는 식객들이라는걸 모르는바 아니지만 고관대작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장신구나 같은 존재들이어서 처마밑에 받아들였다. 더우기 최정승과 문정승이 저마다 술한 문객들을 두고 마치나 저들의 명망에 끌려어진 인재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든듯이 떠들어대기에 그들 못지 않게 문객수를 늘이었다.

최정승과 문정승의 문객들이 대부분 글뒤후나 다름없는 알량한 선비출신이라면 그의 문객들은 거의가 무인출신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문객들의 머리수를 늘인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고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무예를 닦게 한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자칫하면 룡상으로 가는 길을 피로 개척해

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의 형편에서 그 문객들 한사람한사람이 열백 군사맞잡이로 큰 역할을 할수 있다.

그는 기분이 좋을 때마다 무술교련장에 나가 문객들의 무예겨루기를 구경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시합장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오늘도 기분이 좋아서 교련장으로 나간다. 안사인한테서 여적 기별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던 가슴속의 희뿌연 안개를 한편의 시가 말끔히 가셔주어서 기분 좋은 걸음을 했다.

그의 문객들중에도 식자를 사랑하는 선비출신이 몇명 있는데 그들중의 한 문객이 방금전에 이런 시를 지어바쳤다.

아직은 금빛가을 저 멀리서 잠 청하고
산에도 들에도 꽃계절 한창인데
하늘의 뜻인가 계절을 비웃으며
찬란한 금빛열매 희한히 달렸네

천궁의 밝은 태양 두둥실 내려왔나
정승부 지붕우에 금빛박 열렸네
산마다 우거진 푸르른 소나무
다투어 춤추며 반기여 설레네

의미심장한 시였다. 정승부에 열린 박이라는 구절에서 박자는 자기의 성씨를 나타내는 글자이니 금빛박은 곧 자기 박정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박을 천궁의 태양에 비긴것은 왕궁의 왕이 될것이라는 의미이다. 송도국이라는 나라이름은 예로부터 이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소나무림이 사철 푸르싱싱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들이 파도처럼 설레일뿐아니라 바람이 솔잎들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하도 듣기 좋아 소나무 송자에 물결 도자를 써서 지은것이다. 그러니 산마다 우거진 소나무들이 다투어 춤추며 반기여 설레인다는것은 자기의 즉위가 하늘의 뜻이어서 송도국의 민심이 기꺼이 따를것이라는 암시다.

《대감님 행차요!》

그의 뒤를 따르던 집사격의 우두머리하인이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창과 칼을 휘두르며 무술훈련에 여념이 없던 문객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절을 하였다.

함께 나온 하인들이 바빠 움직이며 따거운 해별을 가릴수 있게 차일을 설치하고 그안에 의자를 놓았다.

박정승은 몸에 배인 위엄있는 동작으로 의자에 몸을 실었다.

《일어들 서라!》

그의 령에 문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정자세를 취하며 다음분부를 기다렸다. 하나같이 종자말처럼 굽적굽적한게 보기만 해도 흐뭇하였다.

《지금까지는 구경삼아 그대들의 무술겨루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진짜실력을 한번 보고저 하니 있는 재주를 다 발휘하도록 하라.》

어마어마한 서두에 문객들모두가 하나같이 긴장한 빛을 띄웠다. 그에 개의치 않고 령을 내렸다.

《오늘은 과거시험처럼 재주를 겨루겠다. 아니, 과거시험이다. 급제하면 벼슬이 차례질것ियो 락제하면 불기가 차례질것이다.》

《예잇!》

그가 내린 분부대로 교련장을 무과시험장처럼 꾸렸다.

먼저 과거시험규정대로 80보, 130보, 240보씩 되는 거리에 활쏘기목표판을 하나씩 세웠다. 매 사람이 한 목표판에 각각 석대씩 활을 쏘아서 목표판마다 한대이상씩 화살이 맞아야 합격이다. 말을 타고 쏘는 목표판도 세웠다. 직경이 한자 되는 목표판인데 말을 타고 달리면서 35보 떨어진 거리에서 활을 쏘아맞히는 화살수로 등수를 가른다.

다음은 달리기를 위해서 물이 8되 들어가는 아구리가 좁은 구리병을 가져왔다. 달리기는 시작구령과 함께 구리병을 거꾸로 들어 물이 쏟아지게 하는데 그 물이 말끔히 쏟아지기 전까지 260보이상 달려야 합격이다.

마지막으로 힘내기를 할수 있는 50근짜리 돌 2개를 가져다놓았다. 돌마다 들수 있게 끈을 동여놓았는데 두손에 하나씩 갈라쥐고 휴식없이 130보이상 걸어야 합격이다.

《시작하라!》

령이 내리자 문객들이 조를 못고 나섰다. 주인의 눈에 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저마끔 승벽을 부리며 재주와 힘을 겨루었다. 모두가 다그치는 무인들이라 시합이 불만 하였다.

시합열기가 한창 고조에 올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데 홍무관이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아뢰었다.

《안사인이 돌아왔소이다.》

왕가물에 단비같은 소식이라 박정승은 떠들썩한 시합구경도 집어 치우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승부에 들어서는 길로 안사인을 불렀다.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운봉도사를 찾지 못했나이다.》

안사인은 죄송한듯 고개를 들지 못한다.

《찾지 못했다는건 무슨 소리냐?》

박정승은 안달이 나서 영치까지 들썩이며 다우쳐물었다.

《아무리 찾아보아야 운봉산에는 도사의 그림자조차 없었나이다. 그래서 주변인가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니 운봉도사가 운봉산에서 50리 떨어져있는 학반령의 학반도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길래 학반령까지 찾아갔됐나이다.》

《학반도사는 만났느냐?》

《예, 만났소이다. 그런데 학반도사도 3년째 운봉도사의 얼굴을 못 보았다고 했나이다.》

한껏 가졌던 기대가, 너무도 큰 기대가 물먹은 돌담처럼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자 맥이 탁 풀렸다.

《그럼 운봉도사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는거냐 아니면 살아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거냐?》

《그건 잘 모르겠나이다.》

팡! 소리가 나게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다.

《이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종적을 찾아냈어야지 모르겠다는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껏 네놈을 내밀에 거둔건 네놈의 목우에 붙어있는 그 잘난 대가리때문인데 네놈이 그렇게 자랑하는 대

가리를 이런 때 쓰지 않고 어느때 쓴다는거냐.》

박정승은 화가 상투끝까지 치밀어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가까이에 칼이 없는게 다행이지 칼만 있었으면 다짜고짜 안사인의 목을 베버렸을것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방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보기 싫다. 썩 사라져라!》

안사인은 물러갈념을 안하고 오히려 히죽이 웃으며 더 바짝 다가든다.

《대감님, 그래서 소인이 돌아오면서 수를 하나 생각해냈소이다.》

《운봉도사도 찾지 못했는데 수는 무슨 수냐?》

여전히 성이 풀리지 않아 씨근덕거리며 통을 먹였다. 허나 안사인은 습관대로 이마우의 사마귀를 슬슬 어루만지며 계속 입을 열었다.

《소인의 소견에는 그 운봉도사가 없는게 차라리 더 좋은것 같나이다. 설사 운봉도사가 있다 해도 대감님을 꼭 왕위계승자로 지정해줄수 있다고야 장담을 못하지 않소이까.》

일리가 있는 수작이어서 점점 안사인의 입쪽으로 귀가 기울어졌다.

《지금 운봉도사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조건에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가짜운봉도사를 만들어내자는것이나이다.》

듣자마자 후뜰 놀라며 눈이 휘둥그래졌다. 놀라도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다. 생각조차 못했던 너무도 기발한 꾀이다.

《가짜도사가 대감님을 왕위계승자로 지정만 해주면 모든 일이 얼음에 박힐듯 순조롭게 풀릴것이나이다. 진짜운봉도사가 죽었다면 가짜도사의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것이고 설사 살아있다 해도 대감님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나타나면 행차뒤 나발이니 그때는 이렇게...》

안사인은 사마귀를 어루쓸던 손으로 목 자르는 시늬를 해보였다. 그 바람에 지금껏 안사인의 손가락에 가리워있던 사마귀가 진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확실히 저건 보통사마귀가 아니라 이놈의 말대로 지혜주머니야.

《그런데 가짜운봉도사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혹시 그 학반도사를 녀두에 든건 아니냐?》

《아니올시다. 학반도사는 여간내기가 아닌 령감이여서 우리쪽으로 끌기가 힘들것 같소이다. 소인이 인차 맞춤형 놈을 물색하겠나이다.》

박정승은 그제야 숨이 나가 찬성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교활한 최정승까지 속여야 하니 자그마한 빈틈도 있어선 안된다.》

《알겠소이다.》

안사인이 물러가려고 절을 하며 일어서는데 문밖에서 우두머리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대감님께서 오셨나이다.》

《영?!》

뜻밖에 닥친 일이라 영문을 알수 없어 황황히 안사인에게 눈길을 주었다. 허나 안사인도 그의 눈길에 같은 눈길로 대답할뿐이다.

19

《무슨 바람이 불어서 문공이 우리 집에 다 걸음을 하셨소?》

박정승은 제법 소탈하게 웃으며 오늘따라 별로 기분이 좋아보이는 문정승을 맞아들였다.

《아, 내가 못 올 집에 왔는가? 불손한 손님대접을 봐선 이 맥의 문턱을 넘지 말아야 할것 같소이다. 그냥 돌아갈가요?》

문정승이 싱글거리며 짐짓 돌아갈양을 한다. 얼굴에 비낀 표정과 어조를 보고 룡임을 모르지 않았으나 팔소매를 붙잡는척 하였다.

《왜 이러시우? 당대 발길을 안하던 우리 집에 오셨기에 한번 툽으로 한 말인데 파히 섭섭해마오.》

《손님을 박대하면 굴러오던 복도 달아나오이다. 문전거절이나 갈

은 푸대접을 생각하면 당장 돌아가고싶지만 내가 가면 이 집에 굴러오던 복이 달아날것 같아 참고 눌러앉으니 어서 술상이나 차리시오이다.》

허허, 오늘은 이 심점등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뻘노? 흥이 날 일이 없겠는데, 가만, 혹시 이놈의 집에 운봉도사가 온게 아니야?

그는 바싹 긴장되었으나 궁금해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술상을 차려오게 하였다.

술상을 방 한복판에 놓고 둘이 마주앉았다. 주인의례를 차려 박정승이 먼저 문정승의 잔에 술을 따랐다.

《자, 어서 드시다.》

문정승은 사양없이 잔을 쪽 들이키고나서 기분 좋게 입주위의 수염을 살살 쓰다듬으며 치하를 했다.

《박대감택 술맛이 정말 좋소이다. 이 집 술이 이렇게 좋은줄 알았으면 계속 오는건데 미처 모르다나니 지금껏 맛좋은 술을 못 마셨나이다.》

여느때는 날피리같이 팔딱팔딱하던 놈이 오늘은 제법 진중한체 하며 계속 능청만 떠다.

《술을 마시러 자주 찾아와도 되겠소이까?》

찾아온 사연을 이내 꺼내지 않고 계속 번죽만 울리는 문정승의 꼴에 화가 났지만 꼭 참고 애써 웃었다.

《반갑게 맞겠으니 아무때든 오시우. 문공의 구미에 맞는다니 아예 우리 집 술독을 통채로 드리리다.》

문정승은 다시 따라준 술 한잔을 또다시 쪽 들이키고나서 말을 뽕뽕말뽕 갑자기 갑자기 두손을 머리앞에 모아잡으며 고개를 숙이였다.

《박대감, 내가 오늘 찾아온것은 대감께 죄를 청하기 위해서나이다.》

박정승은 뜻밖의 청죄에 얼떨떨해지며 삼시에 당황해났다.

《문대감, 갑자기 왜 이러시우?》

문정승은 여전히 엄숙한 표정을 짓고 코가 가슴에 닿도록 깊이 숙인 고개를 좀처럼 들지 않는다.

《무슨 연고인지 알고나 사죄를 받아도 받기우다.》

《박대감, 돌아가신 상감마마께서 우리 아들과 대감네 딸의 혼사를 주선해주셨는데 지금껏 내탓으로 혼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정말 대감의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소이다. 그래서 비록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대감께 사죄를 하고 서로 사돈을 맺자고 찾아왔소이다.》

너무도 놀랍고 기뻐 숨이 껍 막혔다. 잘못 듣지 않았나 해서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지만 문정승의 태도를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껏 아이들의 나이차이가 너무 심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다며 이 피탈, 저 피탈하던 문정승이 왜 갑자기 체편에서 먼저 혼사를 청하는지 리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반갑다 해도 무턱대고 덤석 받아들수 없다. 그의 이러한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문정승이 사연을 설명하였다.

《박대감도 아시다싶이 상감마마께서 생전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이까. 늘 우리 친족정승이라 부르며 순간도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소이까. 상감마마의 그 친어버이같은 사랑을 생각하면 매일과 같이 눈물이 흐르나이다.》

문정승은 눈물까지 글썽해서 쿨쩍거리며 여기서 말을 끊었다. 박정승도 걱정이 북받친듯이 갈린 목소리를 지어냈다.

《상감마마를 생각하면 내 마음도 문대감이나 꼭같소이다.》

문정승은 소매자락으로 눈굽을 닦으며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난 상감마마가 승하하신 다음 상감마마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일을 못해드린게 무엇인가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았나이다. 모든 일을 다 상감마마께서 바라시던대로 해드렸는데 유독 박대감과 사돈을 맺으라고 하신 어지만을 실현하지 못했소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결합시켜 상감마마의 어지를 어긴 불충죄를 씻자고 생각했나이다.》

박정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덤덤히 앉아있었다. 문정승의 그 말만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국왕이 살아있을 때도 반대하던 혼사이니 국왕이 죽은 지금에는 좋다 하고 두부모 배듯 싹 잘라버릴수 있지 않는가. 암만해도 리해가 되지 않는데 문정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박대감, 왜 말씀이 없으시우? 혹시 지금까지 아이들의 혼사를 반대해온 내 행동을 속에 품고 고깝게 생각하시는게 아니시우?》

박정승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정승 보기엔 내가 그렇게도 쪼물쪼한 위인으로 보이시우?》

《물론 나도 박대감을 그런 속된 위인으로 보지 않소이다. 더구나 이제 운봉도사가 오면 틀림없이 박대감을 통상에 앉힐터인데 이 나라 송도국을 다스려야 할 대감께서 속이 좁으면 아니될줄로 아오이다.》

문정승의 얼굴에 낮간지러운 미소가 어린다. 그 미소의 색깔이 박정승으로 하여금 그제서야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다. 음, 네가 그래서 찾아왔구나. 아무래도 내가 통상에 앉을것 같으니 그때 가서 정승자리를 보존하자는 속심이구나. 이 꺾다리가 앞날에 대한 위구심때문에 찾아온것이 분명하였다. 그 얇은 속심이 맑은 개울밑의 하얀 조약돌처럼 빠드름히 들여다보였지만 딸의 혼사문제가 해결되니 기쁘기만 하였다.

딸 월단은 애비의 속을 태우는 애물이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박정승은 딸을 무척 사랑하였다. 아들이 없는 외동딸이어서 그 사랑함이 남들의 아들사랑보다 더 지중하였다.

아버지 박첨량은 손녀를 볼 때마다 아이는 버리고 태만 키웠느냐 푸념질이고 월단을 낳은 친어머니인 류화까지도 딸이 못생겨서 평생 시집을 못 갈것이라고 칭송맞은 소리를 하였지만 그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애비가 정승인데 아무렴 사위감이 없을고. 아마 정승부대문이 미여지게 매파들이 줄을 설것이다. 허나 일은 그가 배를 내미는대로 되지 않았다. 지지리 못생긴 녀자도 한창시절에는 꽃처럼 핀다지만 월단은 그렇지 못했다. 딸의 꽃나이가 지나고 한해두해 나이를 계속 먹게 되자 그의 뜬뜬한 배심도 조바심으로 바뀌었다.

자식 파년하면 부모가 반중매쟁이 된다는데 월단의 나이는 파년정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렴치를 불구하고 애비가 아예 중매쟁이로 되어 국왕에게 《소신의 녀아 장성하여 비녀꽃기에 미쳤사오니 문

정승과 사돈을 맺도록 상감마마께서 주선하여주시오이다.》 하는 청까지 드렸다.

결국은 그때 말꼭지를 뺀 혼사가 5년만에 이루어지는셈이다.

《문공, 정말, 정말 고맙소이다.》

박정승은 두손을 머리높이 모아쥐고 가슴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인사를 하였다.

문정승은 그러는 그를 황황히 만류하였다.

《박대감, 사돈끼리 고맙다는게 할 소리웨까? 제발 이러지 마시오이다. 자, 사돈이 붓는 술이니 이 잔을 받으시오이다.》

이번에는 문정승이 술을 따르고 박정승은 달게 술을 들이켰다.

《매일 마시는 똑같은 술이지만 사돈이 붓는 술이니 꿀처럼 다오이다. 허허허...》

박정승은 자기의 기쁜 심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아무 가림새없이 양념까지 쳐가며 터놓았다. 문정승도 기쁜듯이 웃었다.

《나도 아들의 혼사가 결정되니 박대감 못지 않게 기쁘오이다. 내가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굳이 박대감을 찾아온것은 백마국놈들이 무주성까지 쳐들어왔다는 급보를 들어서이니이다.》

문정승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소이다.》

《박대감, 솔직히 말해서 병법에 능한 박대감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송도국을 지켜내겠소이까. 그래서 난 우리 서남당의 군사를 모두 박대감에게 맡기자고 결심했나이다.》

《서남당의 군사를 몽땅 넘겨주겠다는게 참말씀이요?》

《이젠 한집안이나 같은데 동남당이요 서남당이요 가릴 필요가 있겠소이까. 그러니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출전하여 백마국의 침노를 막아주시오이다. 그동안 난 여기서 애들의 잔치준비를 착실히 해놓고 박대감의 승전소식만 기다리겠나이다. 이제 대감께서 전장에 나가 큰 공을 세우시면 더 뻗뻗이 룡상에 앉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돈인 나에게도 영광이 아니겠소이까.》

문정승의 끝없이 울리추는 말에 그는 기분이 붕 떠서 흰소리를 쳤다.

《내가 출전하면 그간 백마국놈들이 다 무어겠소. 내 인차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리다.》

《정말이지 박대감이 아니면 이 송도국이 어찌 되겠소이까. 위태로운 국운을 한몸으로 막아나서는 대감께 절로 머리가 숙어지나이다, 사돈!》

문정승은 눈물까지 글썽해서 두손을 내밀었다. 박정승도 코마루가 시큰해움을 느끼며 걱정에 넘쳐 손을 마주 내밀어 문정승의 손을 꼭 쥐었다.

《사돈!》

20

월단은 홀로 후원을 거닐었다.

계절의 힘은 어쩔수 없는 법이라 온 후원을 수놓은 비단필마냥 울긋불긋 아름답게 장식하던 꽃들이 하나둘 스러져간다. 여기저기에 몇송이씩 어설피게 남아있는 꽃들도 래일이나 모레쯤이면 서서히 떨어질것이다. 진귀한 나무들과 풀들이 푸르싱싱함을 자랑하며 짙은록음을 펼쳤지만 아릿다운 꽃들이 없으니 왜서인지 후원이 어여쁨을 잃은것만 같다.

그는 못가에 이르자 자기가 즐겨찾는 다리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다른 꽃들은 모두 스러져가건만 다리아는 주먹만큼 큰 흰꽃을 활짝 피웠다. 앞으로 피어날 꽃망울들도 여러개나 된다.

이전에는 봄을 선참으로 알리며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을 좋아했지만 서른살이 지나면서부터는 다리아꽃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어찌 보면 다리아는 많은 점에서 자기 월단과 비슷하다. 다른 꽃들은 일찍 시집을 가는 처녀들처럼 봄날에 피어나지만 다리아는 아직도 처녀시절을 보내는 자기처럼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늦은 꽃을

피운다. 다른 꽃들은 교태로 사내를 홀리는 처녀들처럼 꽃향기로 벌나비를 유혹하지만 다리아는 행동거지가 진중한 자기처럼 향기가 없어 벌나비들이 날아들지 않는다.

그는 허리를 숙여 다리아꽃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역시 향기가 전혀 없다. 하지만 꽃송이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점도룩 바라보며 걸음을 못 옮기는데 등뒤에서 시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씨, 마님께서 부르시나이다.》

호— 하고 가는 한숨이 새어나온다. 근래에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주하기 싫다. 식구들과 마주서야 시집을 못 가고 처녀로 늙는다는 동정과 푸념뿐이어서 지금처럼 혼자 있고만 싶다.

《왜 부르신다더냐?》

《모르겠사와요. 그저 아씨를 빨리 찾아오라고 야단이세요.》

하는수없이 시녀의 뒤를 따라 어머니한테로 갔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쟁반처럼 큰 어머니의 얼굴이 멀리서부터 환하다.

《아이구, 속상해라. 빨리 오지 못하고 왜 그렇게 꾸물거리냐. 발을 좀 재게 놀리려무나.》

어머니는 마루에 서서 손짓까지 하며 안타깝게 발을 굴렀다. 무슨 일이지 저러실가? 마루앞까지 이르자 어머니는 무엇이 그리도 안타까운지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서며 무작정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어서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치장을 해라.》

《갑자기 왜 그러시오이까?》

영문을 몰라 어머니에게 의아한 눈길을 주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환한 얼굴로 수다를 떨었다.

《빨리 하라는대로 해라. 문대감댁 도령이 널 보러 찾아왔다.》

《뭐라구요? 이자 뭐라고 하셨어요?》

민어지지 않아 가는 눈을 버쩍 뜨며 물었다.

《이 안타깨비아, 문대감댁 도령이 왔다지 않느냐. 방금전에 아버님이 문대감과 함께 네 혼사를 락착지으셨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 눈물까지 흘렸다. 그 눈물을 보느라니 그도 왈칵 눈물이 솟구쳐서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아, 매정한 도련님! 이제야, 이제야 오셨나이까.

《됐다, 그만해라. 이 기쁜 날에 울기는 왜 우느냐. 어서 안에 들어가서 냉큼 치장을 하고 나와라.》

어머니는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훔치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허나 그는 두손으로 빨갛게 달아오르는 눈물젖은 뺨을 그냥 붙들고 서 있었다.

《이 답답한것아, 왜 그러고 서있느냐?》

《점직해서 어떻게...》

어머니의 손이 그의 뒤통수를 가볍게 내리쳤다.

《이년아, 태가락은 무슨 태가락이냐. 네 처지에 태가락이 엇가락처럼 단줄 아느냐. 빨리 썩 들어가거라!》

월단은 쫓기다싶이 뛰어 들어가 시녀의 도움을 받아가며 제일 고운 옷을 갈아입고 부리나케 치장을 했다.

《아직 멀었느냐? 좀 빨리 해라.》

치장을 하는 그 짧은 동안에도 어머니는 안타깝게 발을 구르며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하였다.

마침내 치장을 끝낸 그는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문에 주렴을 걸어 놓은 옆방에 가서 비단방석을 깔고 살며시 앉았다.

인차 어머니와 담동이 나타났다.

담동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이 꺾 막히며 가슴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하였다. 어찌면 저리도 림름하시고 의젓하실가. 지금껏 그가 그려본 담동은 혼사말이 있는 5년전에 상상해보았던 16살난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담동은 코흘리개소년이 아니라 키가 늘씬하고 수염터가 거뭇거뭇한 헌헌장부였다.

《자, 그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어머니 류화는 담동에게 방석을 권하고 자리를 피했다.

주렴발을 가운데 놓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월단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담동이 먼저 말을 떼기만 기다렸다. 침묵이 흐를수록 자기처럼 말이 헤프지 않고 점잖은 담동의 처신이 마음에 푹 들었지만 무슨 말이라도 빨리 떼주기를 간절히 빌었다.

어험— 하고 담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소서, 그동안 무고했소?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말에 다시금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그 눈물이 지금껏 가슴에 쌓이고 쌓였던 재를 말끔히 씻어내리며 행복감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의 흐느낌에 담동이 바빠하며 영치를 들썩거렸다.

《박소서, 갑자기 왜 그러는거요? 울지 마오.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요? 그렇다면...》

월단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이다, 아니오이다. 도련님이 싫어서 우는게 아니오이다. 그저 괜히 눈물이 나와서...》

저고리고름으로 연방 눈물을 훔쳐냈으나 눈물이 비오듯 한다. 첫대면에 눈물부터 보였으니 도련님이 속으로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남들이 보면 둘이 싸우는줄 알겠소. 제발 울음을 좀 그쳐주소.》

담동이 간절히 청원하듯 말했다.

월단은 애써 자신을 진정하며 절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련님, 눈물을 보여 정말 미안하오이다. 허나 도련님을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나이다. 자고로 렬너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하였기에 소녀는 도련님과 혼사말이 난 후로 절개를 송죽같이 지켰사옵더니 끝내 도련님께서 이렇게 소녀를 찾아오셨나이다.》

《미안하오. 내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박소저를 찾아오지 않았소.》

아, 랑군님! 랑군님의 그 목소리를 꿈결에도 듣고싶었나이다. 오매불망 그리던 랑군님이 끝끝내 소녀를 찾아오셨으니 이 세상에 더 바랄것이 없나이다. 이제는 소녀도 남들처럼 행복한 녀인이 되었나이다.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녀자가 되었나이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이야기나 나누지요. 박소저의 이야기도 좀 듣고싶으니 할말이 있으면 하오.》

담동이 그를 달래며 화제를 이끌어나갔다.

월단은 담동과의 첫대면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규중소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꺼냈다가 도련님을 실망시키고싶지 않았다. 이런 말, 저런 말을 생각해보며 갑자르다가 자기가 지금껏 해온 공상과 결부하여 말을 꺼냈다.

《저… 도련님, 도련님은 아직 과거를 안 보셨나이까?》

《금년과시에 참가하려고 하였는데 상감마마의 국상으로 과시가 폐지되었으니 내년엔 불가 하오.》

《문과시험을 치시려 하시나이까, 무과시험을 치시려 하시나이까?》

《문과에 응하려고 하오. 문과에 응시해야 높이 출세할수 있소.》

월단은 화제가 자기의 의도대로 흐르자 만족해서 속생각을 드러냈다.

《물론 문과에 응시하는것도 좋나이다. 하오나 남아로 태어났으면 응당 무예도 출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이다.》

《박소저는 아버님이 무관출신이여서 무인을 좋아하는 모양이구만.》

《그래서만이 아니오이다. 문무를 겸전하였다가 태평세월을 당하면 재상이 되어 만조백관을 호령하고 란시를 당하오면 흥당을 쓸어버리고 이름을 죽백에 올림이 사내장부의 할바라고 소녀는 생각하나이다. 도련님께서 아직 병서를 공부하지 못하신것 같사온데 너무 락심하지 마시오이다. 소녀가 째째이 병서를 공부했사오니 도련님을 일깨워드리겠나이다.》

《허허허…》

담동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흘러나온 쓰거운 웃음이였건만 월단은 랑군님이 한갓 아녀자인 자기의 소견이 하도 기특해서 터뜨리는 웃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박소저의 현숙한 생각을 듣고보니 생각이 많아지오. 내 앞으로 소저의 의향대로 무예도 닦고 병법도 익히겠소.》

담동이 점잖게 대답했다.

《도련님, 소저의 말을 탓하지 않고 따라주시니 정말 황공하옵니다.》

아, 얼마나 도량이 넓고 생각이 깊으신 랑군님인가. 월단은 지금껏 자기가 그려보던 공상속에 담동을 세워보았다. 잘나고 립립한 인품을 가진 담동이 병조판서에 대사마대원수라는 최고의 무관벼슬에 오른다. 대장인을 허리에 비껴차고 금빛찬란한 단우에 높이 앉아 기발을 둘러치고 나팔들을 불리며 긴칼을 빼어들고 삼군을 지휘하는 그 위엄에 세상이 진동한다.

랑군님, 소녀는 랑군님을 꼭 그렇게 출중한 인물로 내세우겠나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오로지 랑군님을 위하여 모든걸 다하겠나이다.

월단은 마음속으로 걱정에 넘친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21

조희가 끝난 후 최정승은 박정승과 문정승의 노는양을 눈이 켜해서 지켜보았다.

《문공, 오늘점심은 우리 집에 가서 하지요.》

《어떻게 계속 박대감택에만 폐를 끼치겠나йка. 그러지 말고 오늘점심은 우리 집에 가시오이다.》

저놈들이 언제 저렇게 가까와졌어? 서로 죽자살자하며 살점이라도 떼줄것처럼 살갑게 놀아대는 꼴을 보느라니 두눈에 쌍심지가 돋으며 강짜가 났다. 그는 뒤일을 마저 처리하는것처럼 주변에서 어스렁거리며 돌이 하는 말에 계속 귀를 도사렸다.

박정승이 문정승에게 아들칭찬을 한바탕 하였다.

《내 어제 문공의 아들을 만나보았는데 정말 립립하게 자랐더군. 준수한 인물이며 진중한 행동거지가 일대호걸이라 용렬한 우리 딸한테는 너무도 과남한 배필인가 하오.》

문정승도 박정승을 한껏 발라맞추었다.

《어찌 우리 아들만 귀하고 대감의 딸은 귀하지 않겠소이까. 더구

나 월단이야 대감댁의 외동딸이 아니오이까. 앞으로 애들이 결혼을 하면 친딸처럼 사랑하겠소이다.》

《문공, 정말 고맙소. 나도 아들이 없는 사람이라 문공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주겠소. 우리 손잡고 애들을 잘 키우지요.》

그러니 네놈들이 끝내 사돈을 맺었던 말이지. 최정승은 심사가 꺾여 생배를 앓으며 허를 깨물었다. 허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지금껏 마다해오던 혼사를 문정승이 왜 승낙했는지 리해가 안 간다. 혹시 저 꺾다리놈이 무슨 꿈꿉이를 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간에 박정승과 문정승의 결합은 그에게 커다란 불안과 위구를 가져다주었다. 박정승 하나만도 제압하기 힘든데 문정승까지 사돈이랍시고 합세하면 지금껏 술한 공을 들여온 거사가 크게 뒤흔들릴수 있었다.

그는 둘사이에 췌기처럼 끼여들며 말참네를 하였다.

《그러니 두 대감께서 확실하게 사돈을 맺으셨다는거웁니까?》

그의 물음에 박정승도 문정승도 웃음으로 대답한다. 흥, 아직은 웃기 이르다. 내 이제 그 웃음이 울음으로 되게 해주마.

《질질 끌던 혼사가 락착되었다니 나도 기쁘오이다. 내 두 대감의 경사를 축하해서 사냥을 조직하겠소이다. 상감마마의 국상을 치르느라 그동안 한번도 마음편히 놀아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실컷 놀아봅시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박정승은 기꺼이 응했으나 문정승은 미타해하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지금 백마국군사가 무주성까지 쳐들어왔는데 사냥놀이를 벌리면 백성들의 욕을 면하지 못할것이나이다. 그리고 사냥장소도 문제오이다. 국왕께서 안계시는 지금의 형편에서 궁성을 비워두고 며칠 동안 외지에 나가있을수도 없지 않소이까.》

최정승은 문정승의 말이 띠끔 속을 찢렸다. 자칫하면 때아닌 때에 사냥타령을 한다는 시비를 들을수 있는지라 서둘러 적당한 론거를 내놓았다.

《문정승은 안할 걱정을 하시우다. 사냥은 단순한 놀음이 아니라 무예를 련마하는 과정이요. 백마국놈들이 쳐들어온 이때 사냥을 크게 조직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것도 나쁠건 없다고 보오이다.》

사냥이라는 말에 무인의 피가 끓어올랐는지 박정승도 즉시 맞장구를 쳤다.

《옳은 말씀이요. 이런 때 사냥을 하면 군사들의 사기도 높일수 있을뿐아니라 조정의 여유작작한 태도를 보이는것으로 되니 백마국놈들도 아마 기가 질릴거요. 사냥장소는 어림원으로 합시다.》

어림원이라는 말에 최정승은 물론이고 문정승도 눈이 굳어졌다. 어림원은 궁성가까이에 특별히 꾸려놓은 국왕의 전용사냥터다. 일반 평백성은 어림원에 한발자국도 들어갈수 없으며 고관대작들은 물론 왕족들까지도 국왕의 사냥에 수행성원으로 따라갈 때만 그안에 들어갈수 있다. 어명이 없이 어림원의 나무 한그루, 짐승 한마리라도 다치면 리유를 불문하고 대역죄로 참형을 당한다.

《왜들 그렇게 불에 덴 황소처럼 푸들쩍 놀라시우. 국왕이 안계시니 그 어림원도 지금은 주인이 없는 숲인데 정승들인 우리가 좀 놀면 안된다우? 앞으로 이 일로 말썽이 생기면 이 박정승이 책임지리다. 장차 통상에 앉게 될 국왕도 너그러이 용서할거요.》

박정승은 마치 국왕이 다되기라도 한것처럼 탕탕 흰소리를 쳤다.

의논끝에 어림원에서 사냥을 하기로 락착을 보았다.

다음날 아침 최정승은 부하들을 시켜 어림원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유겸상이 정승부에서 제일 좋은 말을 골라 대문앞에 매놓았다.

《이 말은 뭐냐?》

그는 유겸상을 돌아보며 물었다.

《대감님께서 사냥을 하시며 타실 말이오이다.》

유겸상의 대답에 그는 쓰겁게 입을 다셨다.

《난 말이 필요없다.》

《그럼 사냥복도 안 입으시겠소이까?》

《사냥복도 필요없다. 내가 오늘 사냥하자는건 노루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이 아니라 커도 이만저만 크지 않은 놈이다.》

이어 그는 유점상을 가까이 불러다놓고 귀속말로 이리이리 하라고 밤새 머리속에서 짜낸 계책을 알려주었다.

잠시후 그는 조정에 출입할 때 타는 평교자에 올라 100여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어림원으로 향하였다.

어림원앞에 이르니 문정승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박정승은 벌써 와있다. 사냥복에 활과 전통까지 척 메고 눈처럼 흰 백마우에 앉아 있었다. 박정승의 주위에 부하가 10여명밖에 안되는걸 보고 최정승은 속으로 패재를 올렸다.

박정승이 말우에서 거드름을 부리며 그의 차림새를 놓고 이죽거렸다.

《최대감은 사냥을 한다면 왜 그런 차림이시우? 판복차림에 교자를 타고 짐승들의 뒤를 쫓자는거요? 허허허...》

《나야 손에 활을 한번도 쥐여본적이 없는 문관인데 사냥을 한다면도 어찌 백전로장인 박대감과 겨루어내겠나이까. 그저 구경이나 하다가 대감이 잡은 고기를 맛있게 먹어주겠소이다.》

《하긴 구경도 팬찮지. 그런데 부하들은 왜 이렇게 많이 끌고왔소?》

그의 뒤에 늘어선 부하들을 바라보는 박정승의 눈에 경계감이 없지 않았다. 최정승은 의심을 풀어주려고 노죽을 부리며 설명하였다.

《오늘 사냥을 조직한 사람이야 내가 아니웨까. 그래서 박대감이랑 문대감이랑 사냥을 재미나게 할수 있도록 물이군들을 데려왔나이다.》

그제서야 박정승은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박정승과 함께 문정승이 오기를 기다리던 최정승은 한순간 눈동자가 확 커졌다. 박정승이 탄 백마가 너무도 낮이 익었다. 틀림없이 국왕이 사냥을 할 때마다 타던 말이다. 박정승이 오늘 사냥에서 위세를 부리려고 부하들을 시켜 왕궁에서 저 백마를 몰래 빼내오도록 한게 분명하였다. 네놈이 통상에 다 앉은것처럼 마구 놀아대는데 어디 보자.

잠시후 풀색사냥복을 떨쳐입은 문정승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도착해서 모두가 어림원안으로 들어갔다.

뚜— 뚜—

사냥시작을 알리는 빨나팔소리가 울리자 사전에 위치를 차지했던 물이군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빙 둘러서서 고향을 지르고 징을 치며 산짐승들을 숲속 한복판에 있는 넓다란 공지쪽으로 몰아댔다. 삼시에 지진이 일어나기라도 한것처럼 어림원이 통채로 흔들거렸다. 못짐승들이 땅을 차며 갈팡질팡 내달리는 소리가 하늘땅을 진동하고 수백수천을 헤아리는 산새들이 놀란 비명을 지르며 하늘을 메울듯 까맣게 떼를 지어 날아올랐다. 산새들이 공중에서 퍼덕이는 나래질에 폭풍이 지나가는것처럼 숲속의 나무들이 썩썩 설레였다. 일부러 많은 산짐승들을 놓아기르는 어림원이라 사슴, 노루, 너구리, 오소리, 토끼를 비롯한 온갖 산짐승들이 줄을 지어 공지쪽으로 내려왔다.

《자, 시작해보자! 이라!》

박정승이 활을 벗겨들고 제일선참으로 짐승들을 맞받아 말을 때려몰자 사냥에 참가한 무사들이 그뒤를 따라 내달렸다.

문정승도 박정승의 뒤를 따르려고 말고삐를 든든히 틀어쥐며 막박차를 가하려고 하였다. 최정승은 그러는 문정승을 불려세웠다.

《문공, 저 복새통에 뛰어들지 말고 나처럼 여기서 구경이나 하시우다.》

《사냥터에 와서 사냥을 안하고 구경이나 하겠수?》

문정승이 그에게 피끗 얼굴을 주고 그냥 말을 때려몰려고 하자 최정승은 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문공, 내 말대로 가지 않는게 좋을거워다. 내 문공에게 심중히 할 말이 있소.》

문정승은 그의 심각한 얼굴표정을 보고 말우에서 내려 곁으로 다가왔다.

《심중히 할 말이라는데 대체 무엇이우?》

최정승은 자기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느라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는듯이 부러 주변을 둘러보았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공이 왜 저 박대감과 사돈을 맺었는지 리해가 안되오이다.》

문정승은 어이없다는듯 찌글서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심중히 할 말이라는데 그것이였수?》

그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이었다.

《상감마마께서 생전에 주선해주신 혼사인데 거기에 뭘 리해가 안갈게 있소? 예로부터 혼사는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했는데 최대감은 그저 앉아있기만 하다가 잔치술이나 자시우다.》

최정승은 아니라는듯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러는건 남의 일같지 않아서 그러는거웨다. 내 말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사실 난 박대감결에 내 사람을 하나 박아넣고있소이다.》

그의 예상대로 문정승의 두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그러면 그럴겠지, 너무도 엄청난 비밀을 로출시키는척 하는데 네놈이 안 놀랄리 있느냐.

《그가 어제 와서 하는 말이 박대감이 오늘사냥에서 나와 문공을 없애버릴 꿩꿩이를 했다고 하오이다.》

문정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었다.

《설마 박대감이?》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니 믿어지지 않을수 있나이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오이다.》

《나야 저와 사돈인데 아무렴 나까지...》

《문공은 정말 천진하오이다. 몇해전에 세자마마께서 사냥을 하시다 목숨을 잃은게 뭐 맹수가 한짓인줄 아나이가. 맹수보다 더 악착한 저 박대감의 소행이었나이다.》

문정승은 눈이 휘둥그래지다못해 입까지 하 벌렸다.

《세자도 단숨에 해치우는 저 박대감은 나나 문대감의 목숨 같은 건 파리목숨처럼 생각할거우다. 아마 사냥을 하다가 오가는 화살에 우연히 맞아죽은것처럼 세상눈을 가리울것이나이다. 오죽하면 내가 이 좋은 날에 사냥복도 못 입고 이렇게 관복차림으로 술한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왔겠소이까.》

마침내 문정승의 얼굴에서 증오와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최정승은 때를 놓치지 않고 슬쩍 구미를 든구었다.

《오늘 활탄 가지고 왔더라면 저 악착한 놈에게 남잡이가 제잡이라는걸 보여주겠는데...》

순간 문정승의 두눈에서 이상야릇한 광채가 내뿜었다.

최정승은 더이상 말을 얹고 슬그머니 문정승곁에서 물러났다.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있던 문정승이 세워놓은 말쪽으로 스틱스틱 걸음을 옮기더니 별안간 날랜 동작으로 말우에 날아올랐다.

최정승은 말을 때려모는 문정승의 뒤모습을 흐뭇한 눈길로 지켜보며 손짓으로 유검상을 불렀다.

《이제 저 문정승이 박정승에게 활을 쏠게다. 제대로 숨줄을 끊어놓으면 좋고 그렇게 못하면 전번에 세자를 처리한것처럼 네가 손을 써라. 그다음에는 내가 머저리같은 문정승에게 살인죄로 오라를 지우겠다.》

《알겠소이다.》

유검상이 령을 받고 물러가자 그는 신이 나서 두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코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이 최대감은 확실히 머리가 뱅글뱅글 돌거던,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뼈를 부신다는게 바로 이런걸 녀두에 둔 소리다, 돌 하나를 던져 단번에 새 두마리를 잡는 일석이조라, 정말 멋있어!

그러나 사냥이 끝나고 잡은 짐승을 굶기 위해 지퍼놓은 모닥불가로 사냥꾼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기다리던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그는 맨 마지막일행에 끼워 돌아온 유검상에게 물었다.

《문정승이 계속 박정승주위에서 뱅뱅 맴돌기는 했으나 끝내 활은 쏘지 못했나이다.》

겉쟁이같은 놈! 그 키폴이 아깝다!

최정승은 문정승의 뒤통수를 향해 속으로 줄욕을 퍼부었다.

그날 밤 문정승은 한잠도 자지 못하고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사냥이 시작되었을 때 최정승한테서 박정승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후두둑 떨리었다. 교활한 최정승의 말이여서 믿음이 잘 가지 않았으나 사냥터에 관복을 입고 교자까지 타고 온걸 보면 신빙성이 없지 않았다.

심장이 활랑거리고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으나 점차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며 모진 분노가 솟구쳤다. 박정승, 이 고약한 놈! 누데기로 총각도 넘보지 않는 네놈의 딸년에게 내 귀한 아들까지 주며 사돈을 맺었는데 날 죽이려고 해?

정말이지 박정승은 은혜를 원썬로 갚는 악독한 놈이다. 예로부터 심보가 고와야 청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심보가 사나우니 아들이 태울리 없다. 지금껏 그는 박정승이나 최정승과 왕위를 다툰 생각은 했어도 죽일 맘까지 먹은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상대가 일단 죽음의 칼을 내댄 이상 같이 칼을 빼드는 수밖에 없었다.

격한김에 활을 벗겨들고 사냥터에 뛰어들어 박정승의 주위를 빙빙 돌며 기회를 엿보았다. 허나 사납게 날뛰며 짐승들을 살륙하는 박정승의 포악한 기상을 보니 속이 떨려 끝내 화살을 날리지 못했다. 화살이 빗맞으면 무지막지한 박정승의 칼이 순간에 자기를 란탕칠 수 있었다. 더구나 최정승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정승한테서 임무를 받은 자객이 지금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를 감시할 것이며 자기가 박정승에게 화살을 날릴 기미만 보이면 그 자객이 날린 화살이 먼저 자기의 목을 꿰뚫수 있었다. 그래서 복수를 단념하고 부하들을 불러 자기를 철저히 호위하게 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결심을 정확히 내리고 처신을 옳게 하였다. 분김에 망동을 부렸더라면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갔을것이다.

어느모로 보나 아직은 박정승과 정면으로 충돌할만큼 그의 힘이 준비되어있지 못하다. 현상태에서는 처음 세웠던 계획대로 박정승을 얼려서 궁성을 떠나게 하는것이 상책이다. 분하더라도 꼭 참고 얼리는게 제일 좋았다.

다음날 아침 조회에 참가한 그는 의제를 박정승의 출전문제로 몰아갈 기회만 엿보았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하늘의 도움이 내렸다.

《무주성에서 파발이 왔나이다.》

《들어보내라!》

얼굴이 팍파 먼지로 범벅된 파발은 가쁜숨을 태우며 대전안으로 험레벌떡 달려들어오더니 군사를 말아보는 박정승앞으로 곧장 다가가 한쪽무릎을 꿇으며 큰소리로 아뢰었다.

《정승님께 아뢰오. 무주성이 함락되었나이다.》

《뭐라구? 그게 사실이나?》

박정승은 자리에서 훌쩍 뛰어일어났다. 다른 고관대작들도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주성을 지키던 어모장군은 어찌 되었느냐?》

박정승이 파발에게 물었다.

《어모장군께서는 성이 함락되자 성과 운명을 같이하시겠다며 칼로 목을 찢러 자결하셨나이다.》

파발의 목소리가 울리자 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관료들이 서로 무언의 눈길만 주고받을뿐 박정승의 눈치를 보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문정승은 이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섰다.

《남쪽변경에서 제일 견고하던 무주성까지 함락되었으니 정말 큰일이오이다. 백마국의 예기를 꺾자면 아무래도 박대감께서 정예병을 거느리고 출전해야 할것 같소이다.》

최정승이 제격 그의 말을 받았다.

《문대감의 의견이 옳소이다. 무주성을 타고앉은 백마국은 기세등등해서 파죽지세로 공격해올것이나이다. 이제 마지막지탱점인 유주성까지 잃게 되면 백마국의 수십만대군이 단숨에 궁성문앞까지 몰

려오게 될것인즉 아무래도 병법에 능한 박대감이 출전을 해야 송도국의 안위를 담보할것 같나이다.》

박정승은 아무말없이 생각에 잠겨 대전안을 거닐었다. 군사는 박정승의 소임이라 문정승과 최정승은 건의는 할수 있어도 결론은 내릴수 없었다.

마침내 박정승이 큰소리로 령을 내렸다.

《절충장군은 령을 받으라!》

《예잇!》

무관반렬에 서있던 절충장군이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다.

《현재 유주성에 3만의 군사가 있고 그 주변성들에 있는 2만의 군사까지 합하면 도합 5만의 군사가 된다. 그대에게 5만군사의 통솔권을 주니 궁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유주성을 죽기로써 지켜내라. 유주성을 지켜내면 이번 백마국과의 싸움에서 1등공은 절충장군이 세우는것으로 될것이다.》

가만히 기미를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정승은 귀맛좋은 소리로 박정승을 올리추며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박대감, 내 생각에는 지금 무주성이 함락되어 군사들의 사기가 저락되었으니 대감께서 직접 출전하셔야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싸움에서 이길수 있을것 같나이다. 천하무적의 장수인 박대감을 내놓고는 누구도 백마국군사를 막아내지 못하오이다.》

최정승도 맞장구를 쳤다.

《그렇소이다. 싸움의 기본은 장수라 하였거늘 박대감이 직접 출전해야 불리한 전국이 수습될수 있나이다.》

박정승은 따뜩지 않은지 골살을 쪼프리며 대답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요. 나도 생각갈아서는 후방에 있는 정예군을 거느리고 당장 출전하고싶지만 며칠째 고삿을 앓아 몸이 편치 않아서 그러오. 내가 이 몸을 끌고 출전했다가 혹시 병이 도지기라도 하면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적들의 기세만 올려주게 될거요. 그래서 몸조리를 좀 하고나서 인차 출전할 생각이요. 유주성은 하늘이 송도국에 하사한 천험의 요새여서 백마국놈들이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니 마음을 푹 놓소.》

이어 박정승은 절충장군에게 눈길을 주었다.

《절충장군, 내가 인차 정예병을 거느리고 출전할것인즉 그때까지 유주성을 철통같이 지켜내라.》

《알겠소이다.》

조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문정승은 일을 뜻대로 성사시키지 못해 속을 태웠다.

박정승을 전장으로 등떠밀기 위해 기껏 얼리고 한껏 올리추었으나 미욱하게 나오니 자기의 알량한 수로는 어쩔수 없었다. 정말이지 박정승은 미욱하기가 꿈과 사둔할 놈이다. 나라의 운명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증병도 아닌 하찮은 고삿을 코에 걸고 철면피하게 몸을 사리는걸 보면 그저 미욱하다고만 할수 없었다. 통상에 눈이 벌개서 나라의 운명 같은건 생각지도 않는 놈이다. 저런 놈을 충신으로 믿고 정승자리까지 준 국왕이 정말 가소롭다.

속으로 박정승에게 별의별 욕을 다 쏟는데 허장사가 방에 들어왔다.

《분부대로 도승지어른을 모셔왔나이다.》

즉시 앙앙불락해하던 얼굴을 태평하게 수습하고 도승지를 맞았다. 도승지는 방에 들어서며 꺼꺼부정한 어깨를 숙여 례를 차렸다.

문정승이 도승지를 심복으로 손에 넣은것은 정승이 된지 몇달 안되어서이다. 정확히는 쟁취한것이 아니라 도승지가 심복이 되기를 자청하며 제발로 그의 품에 굴러들어왔다.

그가 갓 정승자리에 올랐을 때 조정은 온통 박정승과 최정승의 세상이었다. 두 정승이 자기들의 정승부가 위치하고있는 방향을 이룸따서 각각 동남당과 북서당이라는 당파를 뚝고 세력다툼을 일삼고있어서 조정안의 관료들도 거의나 두파로 나뉘다싶이하였다.

그러나 박정승과 최정승을 미워하는 관료들도 있었다. 국왕의 자문기관으로 왕실통치를 보좌하는 승문원과 사간원, 사헌부의 관료들이 더욱 그러했다. 그들은 정승들에게 속하지 않고 국왕의 직속관청에 배속되어있는것으로 하여 두 정승들의 눈밖에 났다. 특히 국왕의 어지를 직접 받는 승정원은 박정승과 최정승으로부터 눈에 든 가시처럼 취급을 당했다. 조정에 자기의 지반이 하나도 없는 문정승으

로서는 이들을 쟁취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박정승과 최정승에게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있는 도승지가 스스로 그를 먼저 찾아왔다. 그는 도승지의 책략대로 《친족정승》이라 부르는 국왕의 남다른 총애를 리용하여 그 관료들을 하나하나 쟁취하였으며 마침내는 조정에서 무시할수 없는 세력인 서남당을 탄생시켰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이까?》

도승지는 구부정한 어깨를 더 낮추며 문정승의 분부를 기다렸다. 국왕의 어지를 받으며 어깨를 구부리던 버릇이 몸에 완전히 배여서 그런지 어깨가 류별나게 꺾여부정하다.

《술개국쪽에 련계를 취했느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술개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기어이 왕위를 차지하자는데 그의 결심이다. 도승지는 사신으로 술개국에 수차 다녀와서 그 나라 황실과 깊은 연줄이 있었다.

《예. 그런데 술개국에서 요구조건을 제기해왔소이다. 송도국의 옥새를 보내여 속국이 되기를 맹약하여야 출병하여 대감님을 왕위에 앉혀드리겠다고 했나이다.》

한순간 망설이였다. 옥새를 보내는건 심중한 문제다. 왕권의 상징이고 국왕의 존엄이나 같은 옥새를 다른 나라에 보낸다는것은 결국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는것이나 같은 역적짓이다. 더우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박정승이나 최정승이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술개국에서는 옥새를 바치면 자기네가 새 옥새를 만들어보내겠다고 약속했소이다.》

도승지가 보태는 말이다.

그러니 결국 술개국은 송도국왕을 자기네가 만들어준 옥새를 쓰는 허수아비왕으로 만들겠다는것이다. 자존심이 불끈했으나 그것은 한순간뿐이였다. 죽는것보다 까무라치는게 낫다고 박정승과 최정승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남자면 허수아비왕이라도 되어야 한다.

《옥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승정원에 보관하고있소이다. 상감께서 운명하시던 날 대감께서 저더러 유서에 올라있는 왕위계승자의 이름이 대감님의 이름이 아니면 옥새를 찍지 말고 유서를 없애버리라고 분부하시지 않았소이

까. 그때부터 내가 옥새를 건사해두고있는데 지금껏 옥새를 쓸일이 없어 찾지 않고있으니 누구도 그걸 모르고있소이다.》

문정승은 만족해서 고개를 끄덕이였다. 도승지가 아니었다면 솔개국의 요구를 들어줄래야 들어줄수도 없었을것이 아닌가.

《좋다. 그 옥새를 오늘 밤중으로 비밀히 솔개국쪽에 보내라. 그리고 래일 아침에는 옥새가 없어졌다고 소동을 피워라.》

도승지는 당장 덴겁을 하였다.

《어찌시자고...》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써먹을 때가 있어. 아마 누구도 우리가 옥새를 없앴다고는 생각 안할거다. 우리쪽으로는 불찌가 튀지 않고 서로 싸우며 죽일내기를 하는 놈들이 있을게다.》

문정승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눈앞에 그려보며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23

박정승은 궁중으로 보낸 안사인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놈이 왜 이렇게 늦어?)

안사인을 궁중으로 보낸것은 조회를 끝내고 정승부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던 때였다. 어디서 듣고왔는지 홍무관이 헐레벌떡 달려와 옥새가 없어져서 지금 왕궁안이 쭈셔놓은 벌집처럼 복작소동이라고 하였다.

박정승의 머리속으로는 첫순간에 최정승의 엉큼한 뱀새눈이 떠올랐다. 틀림없이 그놈의 작간이였다. 문정승은 대궐에 비밀히 가지고 있는 줄이 없고 자기는 청렴결백하니 옥새를 도적질할 놈은 그 생쥐밖에 없었다. 하긴 도적질은 생쥐의 업이다.

급살을 맞아 뒤흔 놈, 쪼꼬만 놈이 계엄을 부러도 정도가 있지 감

히 옥새까지 훑쳐내! 좋은 기회로 생각되어 손에 들고있던 수저를 내던지고 옥해서 일어서는데 안사인이 만류했다.

《대감님, 좋은 기회라 해도 용의주도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도리어 역습을 당할수 있나이다. 최정승의 작간이라고 짐작만 할뿐 확실한 물증이 없지 않소이까.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고 이런 때일수록 상대가 꼼짝달싹 못하게 그물을 쳐야 하나이다. 소인이 몰래 궁중에 들어가서 사연을 알아보겠나이다. 대감님의 말씀대로 절호의 기회이니 설사 물증이 없다 해도 최대감쪽으로 혐의가 씌워지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안사인을 궁중으로 보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안사인이 돌아온것은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였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옥새때문인지 오늘따라 대궐경비가 특별히 삼엄해서 겨우 들어갔다 나왔소이다.》

안사인이 히죽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반질반질한 얼굴에 웃음기가 도는걸 보니 일이 잘된 모양이다.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대궐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놓은 놈들을 모두 만나보았는데 똑똑히 아는 놈이 하나도 없었소이다. 그래서 왕실무당을 만나서…》

안사인은 그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박정승은 안사인의 말을 다 듣고 흡족해서 배를 쓸었다.

《좋다. 당장 최정승과 문정승의 부에 사람을 보내 빨리 입궐하란다고 이르도록 해라.》

잠시후 박정승은 집에 들어와서 벗어놓았던 의관을 다시 차리고 교자에 올라 대궐로 향하였다.

그가 입궐한지 얼마 안되어 최정승과 문정승도 당도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기에 갑작스레 입궐하라 했소이까? 혹시 백마국 놈들이 유주성을 넘어선게 아니오이까?》

문정승이 긴장한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그런게 아니요. 대감들을 부른건 그보다 더 큰 변이 났기때문 이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두 정승의 표정을 슬쩍 살핀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대궐에 있던 상감마마의 옥새가 없어졌소.》

《뭘라구요? 옥새가… 옥새가 없어지다니…》

문정승은 듣다 처음인듯 입을 딱 벌리며 말도 제대로 못했다. 반면에 최정승은 모든걸 알고있은듯이 태연하다. 내 짐작이 틀림없지. 네놈이 아니면야 누가 옥새를 훔치겠느냐. 박정승은 최정승에게 눈길을 주었다.

《최대감은 옥새가 없어진걸 알고계셨소?》

왜서인지 최정승의 뺨새눈에 비웃음이 흘렀다.

《알고있었소이다. 감히 왕실의 옥새를 훔쳐낸걸 보면 어벌특지가 여간만 큰 놈의 소행이 아니오이다.》

발칙한 놈! 네놈이 아무리 시치미를 뚝다 해도 이번에는 내 손에서 빠지지 못한다, 그런 어림없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이 박정승의 아귀가 그렇게 무른줄 아느냐. 박정승은 어성을 높여 말했다.

《왕실의 옥새를 훔쳐낸것은 신하된자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대역부도죄요. 그러니 아무리 상감마마가 안계신다고 해도 그 도적놈을 꼭 잡아내야 하오!》

《응당 잡아내야지요.》

최정승이 빈정대는투로 말했다.

《그런데 누구인줄 모르고 어떻게 잡아내나이까?》

문정승이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박정승은 인차 대답을 안하고 잠자코 있었다. 미리 생각해두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말을 꺼내면 계획적인 행동이라는것이 드러날수 있었다. 그래서 생각을 짜내는듯이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침묵을 깨며 문정승이 먼저 자기 생각을 꺼냈다.

《이제라도 대궐안을 살살이 뒤지는게 어떻소이까? 옥새를 훔쳐냈다 해도 아직 빼돌리지 못했으면 대궐안에 있을게 아니오이까.》

최정승이 그 말을 듣고 단번에 면박을 준다.

《문대감도 참 고지식하오. 옥새가 아직도 대궐에 그냥 남아있을

게 뭐요. 흠친 놈이 대궐안에 감춰두자고 흠쳤겠소. 아마 지금쯤은 대궐밖에 있을거요. 옥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확신있게 단언할 수 없으나 틀림없이 궁성안에 있을거요.》

《옥새가 아직 궁성안에 있을까요?》

문정승이 묻는다.

이때라고 생각한 박정승은 드디어 나섰다.

《최대감의 말이 옳소. 옥새는 틀림없이 궁성안에 있소. 궁성밖에 있으면 찾기 어려워도 궁성안에 있으면 찾기 쉽지.》

최정승이 이번에는 그의 말에 통을 먹이는데 말에 가시가 돋혀 있다.

《궁성안에 있으면 어떻게 찾기 쉽다는거요? 도적놈이 스스로 내놓는다면 몰라도...》

박정승도 서리찬 목소리로 최정승을 향해 응대했다.

《도적놈이 스스로 안 내놓아도 찾을 방도가 있소. 대궐안에 령험 있는 왕실무당이 있지 않소. 무당에게 옥새가 어디 있는지 점을 쳐 달라고 합시다.》

그의 제안에 최정승도 문정승도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그 꼴을 보고 더 승이 나서 냅다 우기였다.

《왜들 이렇게 놀라는거요? 자기만 청렴하면 뭐가 무서울게 있소.》

그 말에 최정승이 발딱 목대를 세운다.

《누가 무서워한다는거요. 지금껏 그 무당이 령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한번 얼마나 령험한지 봅시다.》

최정승과 달리 문정승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간 무당이 뭘 령험하겠다고...》

일이 뜻대로 번져지자 박정승은 속으로 패재를 올리며 문정승을 나무라는척 하였다.

《문대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무당은 정말 령험이 있소. 오죽하면 상감마마께서 모든 국사를 그 무당에게 문의하시곤 하셨겠소. 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여봐라, 어서 가서 왕실무당을 대전앞으로 모셔오거라.》

모두가 대전 앞마당으로 나와 기다리는데 잠시후 울긋불긋한 옷을 떨쳐입고 온갖 잡동사니치레거리들로 요란하게 장식을 한 너무당이 총관내시의 안내를 받으며 멀리서 걸어왔다. 굵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러한것처럼 무엇을 췌발랐는지 얼굴을 숫처럼 까맣게 색칠해서 입을 벌리고 눈알을 굴릴 때마다 흰 이발과 흰 눈동자가 검은색과 대조되며 사람의 가슴을 섬쩍섬쩍하게 한다.

국왕은 자기의 피를 이은 세자와 공주들이 죽고 피를 나는 가까운 혈육들마저 차례차례 죽어나자 하늘의 별이 내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송도국적으로 령험이 있다고 소문난 이 너무당을 대궐안에 불러들이고 액땀과 굵을 하군 하였다. 말년에는 한발자국을 걸어 도 무당에게 길흉을 물어보고서야 움직였고 나중에는 군국대사까지도 무당의 의견을 받아 어지를 내렸다.

그 덕에 너무당은 팔자를 고쳤다. 비빈들에게 차례지는 후궁에서 살며 금의옥식속에 호강하였다. 그래서 너무당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대궐에서 쫓겨나 이전처럼 떠돌이생활을 하는것이였다.

박정승은 이 약점을 리용하여 너무당을 쟁취해야 한다는 안사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왕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왕궁에서 살게 해준다는 조건부로 오래전에 너무당을 자기의 수족으로 만들었다.

무당이 대전 앞마당에 이르자 박정승은 모두를 대변해서 앞으로 나섰다.

《그대를 부른건 대궐안에서 까닭없이 옥새가 없어지는 변이 났기 때문이요. 그러니 옥새가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주어서 송도국과 왕실을 구원하도록 힘써주길 바라오.》

《알겠소이다.》

너무당은 공손히 령을 받고 인차 굵을 시작했다.

《오, 신령님이시여!》

너무당은 연방 신령님을 불러대며 대전 앞마당이 좁다하게 이리 울리뛰고 저리 울리뛰었다. 한참이나 푸닥거리로 복새통을 피우던 무당이 별안간 급살을 맞기라도 한것처럼 푹 굳어지더니 거품을 물고 한옆으로 픽 쓰러졌다.

《무당에게 신령이 내렸소.》

너무당의 곳을 몇차례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수군거렸다.

죽은것처럼 쓰러져있던 무당이 잠시후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 정승들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뢰었다.

《신령님께서 강림하시어 옥새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셨나이다.》

《옥새가 어디 있느냐?》

최정승과 문정승은 동시에 물으며 긴장해서 무당의 입을 지켜보았으나 박정승만은 그들의 뒤쪽에서 먼산만 바라보며 뜬뜬해있었다.

《옥새는 지금 궁성의 북서쪽에 있나이다.》

이번에는 박정승이 부러 꼬집어물었다.

《정확히 북서쪽 어드메냐?》

《북서쪽에 있는 제일 큰집이나이다.》

무당의 대답에 최정승의 얼굴색이 삽시에 하얗게 질렸으나 박정승은 못 본척 하며 문정승과 이야기를 하는것처럼 하였다.

《북서쪽의 제일 큰집이라. 북서쪽에 있는 제일 큰집이라면 최대감네 정승부인데 설마하니...》

슬쩍 눈길을 주는데 최정승이 독이 올라 자그마한 몸을 공중으로 길길이 솟구쳐 뛰었다.

《도적질은 누가 하고 감히 나한테 루명을 씌우는거요?》

박정승도 지지 않고 사나운 눈길로 쏘아보았다.

《그건 대체 무슨 말씀이요?》

《그걸 몰라서 묻소? 자기한테서 구린내가 나면 남한테서도 구린내가 난다고 생각한다는거요.》

최정승은 열이 올라 고래고래 소래기를 질렀지만 박정승은 살기편 눈초리로 이죽거렸다.

《누구한테서 구린내가 나는가 하는건 이제 알게 될거요. 여봐라, 포도대장을 불러 당장 최대감의 정승부를 뒤지게 해라!》

《뭐라구? 박대감이 뭐길래 감히 내 집을 뒤지라는 령을 내리는거요!》

《내 령이 아니라 도적을 잡으라는 신령님의 령이요.》

《그럼 내가 도적이라는거요?》

최정승이 대들다싶이하자 문정승이 가운데 끼어들며 말렸다.

《아, 최대감! 진정하시우다. 술한 궁녀들과 아래놈들이 지켜보는데 머리 큰 대감님들이 이러시면 비웃음을 사나이다. 이러지 마시고 속시원히 뒤져보게 하시면 청렴결백함이 자연히 밝혀질게 아니오이까.》

허나 최정승은 자기의 팔소매를 붙잡은 문정승의 손을 뿌리쳤다.

《왜 우리 집만 뒤지겠다는거요? 저 박대감의 집도 뒤져야 하오!》

박정승은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최정승을 시까슬렀다.

《최대감,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북서쪽이 아니라 동남쪽이요.》

《동남쪽이라도 뒤져야 하오. 대감네 집을 뒤지지 않으면 우리 집도 절대로 뒤지지 못하오.》

《정 그렇다면 힘을 사용할수밖에 없구려.》

《박대감만 힘이 있고 누군 뭐 힘이 없는줄 아시우.》

《어랍쇼, 나와 맞서시겠단 말이지. 여봐라, 왕실의 옥새를 훔친 저 최대감에게 당장 오라를 지워라!》

《예잇!》

그의 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홍무관과 무사들이 최정승쪽으로 다가가는데 유검상이 재빨리 그들앞을 막아섰다.

《한발자국만 더 움직이는 놈은 이 랑치검으로 육장을 널테다.》

유검상이 살기를 띠며 허리춤에서 랑치검을 뽑아들자 최정승의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다. 홍무관과 박정승의 무사들도 칼을 뽑아들었다.

아차하면 당장 비릿한 피로 대결뜰을 적시며 죽일내기를 할판인데 총관내시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부원군님께서 나오시나이다!》

방금전까지 여기에 있던 총관내시가 어느새 뛰어갔겠는지 비칠거리며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부원군을 부축하여 대전 앞마당으로 왔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부원군은 석침한 목소리로 누구라없이 모두를 힐책했다.

《상감마마께서 승하하신지 얼마나 된다고 왕궁뜰을 칼부림장으로

만드는거요. 당장 칼들을 거두시오.》

상대방을 노려보며 씩씩거리던 무사들이 각기 제 주인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다가 하나둘 칼을 내리워 칼집에 꽂았다.

박정승은 서둘러 부원군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숙였다.

《부원군님, 왕실의 옥새가 없어졌소이다.》

《나도 알고있소. 하늘이 우리 송도국을 망하게 하려는가 보오. 빨리 운봉도사가 와야겠는데…》

부원군은 운봉도사가 오는쪽을 바라보기라도 하는듯 흐리멍덩한 눈길로 먼산을 바라보았다. 박정승은 부원군의 기색을 살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부원군님, 온 궁성을 발각 뒤져서라도 옥새를 찾아야 하오이다.》

부원군은 가당치 않다는듯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운봉도사가 오면 옥새도 자연스럽게 나질터이니 괜히 소동을 부리지 말고 다들 물러가요.》

부원군은 잔기침을 쿨럭거리며 총관내시의 부축을 받아 온 길을 비칠비칠 되돌아갔다.

망할놈의 두상! 짐질기게 살면서 남의 일을 훼방만 노는군. 산송장같은 저 두상만 아니면 최정승을 아예 없애버리는건데…

박정승은 부원군의 등을 뚫어지게 쏘아보며 이를 부르드득 갈았다.

24

민천산은 간난신고를 겪으며 며칠만에야 궁성문앞에 당도하였다. 참나무로 든든하게 만든 아슬히 높은 성문을 바라보느라니 절로 눈물이 쑥 솟구쳤다.

드디어 궁성까지 왔구나! 예까지 오느라고 로상에서 겪은 고생이 눈아프게 되살아났다. 동전 한알없이 떠난 길이라 술한 비럭질을 했

고 번마다 수모를 받았다.

밤마다 로상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찬이슬을 맞을 때면 자기의 인생이 너무도 구슬퍼 탄식을 끊지 못했다. 망할놈의 가난아, 너는 왜 이 민천산만 따라다니며 못살게 구느냐. 내 얼굴색이 초췌하고 옷주제가 람루하여 이런 수모를 받는건 다 너의 탓이고 주린 배속에서 남 듣기 흉한 우뢰소리가 길게 울리는것도 다 너때문이니라.

어떤 날에는 벼슬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고향 해청도로 되돌아갈 생각까지 나군 하였다. 허나 그때마다 애써 자신을 이겨내군 했다. 나이 60이 되도록 국록 한번 타먹어보지 못하고 계속 제집 곡식만 허비하면 평생을 헛되이 보내는것으로 될것이다.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면 우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거느리며 제한몸 수양하여 이름을 날리라 하였거늘 세가지는 다 못해도 결단코 벼슬을 따내어 이름이라도 남기리라.

나약하게 물러지는 마음을 굳세게 버리며 허위단심 달려온 보람이 있어 마침내 궁성문을 바라보게 되었다. 가난하면 꿈부자라고 매일 밤 억지꿈을 꾸었지만 어제 밤에는 해묵은 매화나무에 꽃이 활짝 피는 진짜꿈을 꾸었다. 틀림없이 만사가 제대로 될 징조였다.

파수군들이 지키는 성문을 지나 궁성안으로 들어서니 첫눈에 안겨오는 풍경이 지방과는 영 판판이다. 백마국의 칩노로 지방의 곳곳에서는 누구라없이 살길을 찾아 떠난다. 농부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서 벌은 목고 군사들이 진을 떠나서 변경은 무인지경처럼 텅 비었으며 녀인들이 길쌈을 놓고 살림을 떠나서 아이들은 울고 로인들은 쓰러져있다.

그런데 궁성은 태평세월이다. 한가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한발만 잘못 짚어도 사람경난을 치를것 같다. 예로부터 길가에서 사나이는 원컨으로 다니고 녀인은 오른컨으로 피한다 하였건만 여기는 그 례법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살던 해청도의 시골에서는 한갓 아전나부랭이들의 모습조차도 기껏해서 며칠에 한번 보나마나 하는데 여기는 무슨 판료들이 그리도 많은지 교자와 수레행렬이 구름처럼 밀려다닌다. 자기는 먼길을 걸어오느라 바닥에 구멍이 숭숭 난 미투리를 끌고도 흙땅을 걷는

데 저 벼슬아치들은 신우에 덧신을 꺼신고도 오히려 흙이 묻을가 조심하며 덩실한 교자우에 몸을 신고 다닌다. 신바닥도 저렇게 아끼지를 하물며 제물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란시를 당한다 해도 충성이요 의리요 하는것은 가난하고 천한것들이 할노릇이지 부자나 귀인들에게는 말도 건네볼것이 못된다고 하는것이다.

그렇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가 되어 존대를 받고 돈이 없으면 선비도 하대를 받는 세월이다. 그러니 기를 쓰고 벼슬을 따내여 거지문사노릇을 끝장내야 한다.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다지며 시골에서부터 끌고온 청려장에 몸을 의지하여 썩썩하게 걸음을 옮겼으나 한발자국도 못 가고 멈춰섰다. 궁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7촌조카사위녀석을 어디 가서 찾노? 주소도 딱히 모르니 넓은 바다에 던져진 좁쌀알 찾기다.

한자리에 서서 뱅뱅 돌며 기억을 짜내느라니 어렵듯이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렇지, 그녀석의 이름이 박택수였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억하는것은 해청도에 찾아왔을 때 제 이름 석자가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는 조카사위에게 글자를 알려준 덕이리라...

《네 이름이 박택수란 말이지. 성자는 박씨들이 쓰는 박자일게구 택자와 수자는 무슨 글자를 쓰느냐?》

민천산은 택수에게 유식을 뿜내며 물었다.

그 물음에 7촌조카사위는 혜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집안이 빈한하여 서당공부도 못한 제가 어찌 알겠소이까.》

《이놈아, 그래도 조상들이 선비였는데 제 이름자도 모른단 말이야. 남부끄럽게 다른데 가서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민천산은 짐짓 택수를 나무라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흥얼거렸다.

《네 부모들이 택수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뜻이 있어 그렇게 지었을게다. 음— 그렇지, 택수라고 지은것은 나무를 잘 택해야 운이 트인다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을게다. 그러니 네 이름자는 택할 택자에 나무 수자를 쓰느니라.》

운이 트인다는 말에 귀가 버쩍 티였는지 택수는 그의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이름자는 그렇다 하고 무슨 나무를 택해야 운이 트이나이까?》
《그거야 간단하지. 4군자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느니라. 예로부터 선비들은 매화와 란초, 국화와 참대가 군자의 녀을 지녔다고 해서 이것들을 합쳐 4군자라 부르며 어여뻐 사랑했노라. 시를 지어도 4군자에 대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도 4군자를 즐겨 그리지. 내 생각에는 그중에서 참대가 네게 제일 어울릴것 같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면 마당에 참대를 심어라. 그러면 아마 네 운이 확 트일게다.》

《큰아버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어 정말 고맙소이다.》

택수는 연방 머리를 조아리며 사의를 표시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집마당에 꼭 참대를 심어가꾸겠다고 약속했다. …

그렇다. 참대가 있는 집을 찾아보자. 그리고 택수가 자기 집은 궁성의 동남쪽에 있다고 하던 말도 생각났다. 동남쪽으로 가면서 참대가 있는 집을 찾으면 틀림없이 택수를 만날수 있다.

민천산은 청려장을 짊고 동남쪽으로 길을 잡았다.

걸고 또 걸었지만 술한 인가들이 있어도 마당에 참대가 있는 집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갈수록 맥이 진해 걸음을 멈추고 한숨 돌리던 그는 눈길이 한곳에 못박혔다.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성벽처럼 높은 담장너머로 참대숲이 우거져있었다. 흐리터분한 눈을 씻고 몇번이나 찬찬히 보았는데 틀림없이 참대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이 민천산이 누구라구 그간 집 하나야 못 찾겠는고. 자기의 총명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허나 가까이 갈수록 그 집이 자기가 찾는 집이 아닌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담장높이도 굉장하고 담장안의 집들도 굉장하고 솟을대문도 굉장하다.

택수 그녀석이 이런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리는 만무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리해가 되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렸으나 동남쪽에 참대가 자라는 집은 이 집밖에 없었다.

관청대문을 지키듯이 솟을대문앞에 창자루를 든 병졸들이 서있는 걸 보니 큰 벼슬을 하는 관료의 집이 분명하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긴 창자루에 갈비뼈가 휘도록 얻어맞을것 같아 다가가지 못하

고 망설이였으나 주린 창자에서 나는 쪼르륵소리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혹시 택수 그녀석이 내가 가르쳐준대로 참대를 심은 덕에 운이 터져 이처럼 됐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그야말로 택수가 머리 카락으로 신을 삼아바쳐도 다 갚지 못할 대은혜를 베푼 은인이 아닌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문앞의 병졸들한테로 다가가서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저… 이택 주인의 성씨가 혹시 박씨가 아니우?》

두 병졸중 감때사나와보이는 털보병졸은 들은척도 안하는데 마음씨 착해보이는 똥보병졸이 어이없다는듯 웃으면서도 대답을 해주었다.

《박씨가 맞는데 왜 그러는가?》

후— 하고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맞구나, 예가 택수의 집이 맞구나. 너무 반가와 눈물까지 찼끔 나왔다.

처음부터 그의 행색을 따르지 않게 바라보던 털보병졸이 긴창자루로 그의 등을 툭툭 쳤다.

《궁상맞게 여기에 앉아있지 말고 냉큼 물러가라!》

뭐 궁상맞다구? 그는 울퉁 솟구치는 벨과 함께 벌떡 일어나 가슴을 짝 펴며 호령을 했다.

《난 이 집주인의 7촌벌 되는 어른이다. 썩 문을 열지 못할 고!》

그의 입에서 쏟아져나온 말과 그의 기상이 너무 뜻밖인지 두 병졸은 눈이 켜해서 저들의 얼굴만 서로 바라보았다.

《지금껏 편편하더니 고마니귀신이 붙었느냐. 왜 빨리 문을 열지 못하고 머룩머룩해서 서있느냐.》

그는 얼떨떨해있는 병졸들에게 다시금 호기있게 소리쳤다.

마음씨 착해보이는 똥보병졸이 털보병졸에게 말했다.

《대감님이야 몇대로 외독자이신데 종씨 친척이 있을게 뭐가.》

털보병졸이 그제야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옳네. 하마트면 이 두상한테 깜빡 속을번 했는걸. 이놈의 두상,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뭐 대감님의 7촌별되는 어른이라구. 맞아죽지 않겠으면 썩 물러가!》

털보병졸이 분해하며 당장 찌를듯이 창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마음씨 착해보이는 풍보병졸도 덩달아 창을 내흔들었다.

《이놈들아! 난 정말 이 집주인과 친척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당장 주인을 불러내거라.》

민천산은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며 대들었다.

한쪽에서는 들어가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 육박하고 다른쪽에서는 못 들어간다고 붙잡아 내동댕이치며 한창 싱갱이질을 하는데 별안간 께 하는 고함소리가 귀청따갑게 들렸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눈을 들어보니 비단옷을 쪽 걸치고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한 젊은 녀석이 서있는데 7촌조카사위 택수는 아니다. 펌령리하게 생겼으나 이마에 큰 사마귀가 있어 어딘가 모르게 불쾌감을 주었다.

병졸들이 그 젊은이에게 굽신거리며 보고하였다.

《안사인어른, 이 두상이 대감님을 자기의 7촌조카사위라고 하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생야단을 하나이다.》

안사인이라고 불리우는 젊은이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우리 대감님과 친척이라는게 사실인가?》

민천산은 병졸들과 힘내기를 하느라 가빠진 숨을 헐떡거리며 대꾸했다.

《이 집주인이 그새 대감이 되였는지 뭐가 되였는지는 모르지만 내 7촌조카사위인건 틀림없다.》

안사인이 다시 물었다.

《7촌조카사위의 이름이 뭐요?》

《성자는 박자이고 이름자는 택자, 수자다.》

《뭐, 박택수? 하하하...》

안사인이란 녀석은 뭐가 그리 우스운지 고개까지 뒤로 젖히며 꺾꺾 웃는다. 이녀석이 왜 이래, 웃는 지랄이 왔는가?

그런데 안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다음말이 곱지 않다.

《어디서 이런 얼뜨기같은 고라리생원이 굴러왔어?》

민천산은 너무 분해서 턱수염을 덜덜 떨며 안사인에게 샷대질을 하였다.

《뭐… 뭐라구? 얼뜨기라구. 예끼, 이 량반도 몰라보는 청맹과니 같은 놈! 이래봐도 30년동안 글공부를 해서 해청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고명한 선비님이시다. 내 지금껏 속세가 싫어 벼슬을 안했지만 이제 과거급제만 하면 고을원님 한자린 능히 할 어른이시다.》

《하하하. …》

안사인은 재미나다는듯 다시금 통쾌하게 웃고나서 병졸들에게 분부했다.

《여봐라, 이 정신나간 두상을 그림자도 안 보이게 멀리 내쫓아라!》

《예잇!》

두 병졸이 한꺼번에 와락 달려들어 그의 량팔을 하나씩 붙잡더니 멀리로 질질 끌고간다. 민천산은 끌려가면서도 안사인쪽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이놈아, 나를 천대하면 네 주인한테 경을 칠게다. 후회하지 말고 어서 주인을 데려내와라!》

안사인은 그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대문안으로 들어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병졸들에게 소리쳤다.

《그 두상을 이리로 데려오라.》

병졸들이 다시 그를 질질 끌고가서 안사인앞에 세웠다. 안사인은 무슨 영문인지 그의 얼굴을 한참이나 자세히 뜯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똥보병졸의 귀에 대고 뭐라고 귀속말을 하였다.

《알았소이다.》

안사인은 인차 대문안으로 사라지고 령을 받은 똥보병졸이 그의 팔소매를 잡아끌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렇겠지, 네놈들이 나를 박대했다가야 우리 택수한테 단

단히 경을 치지. 민천산은 으쓱해서 잡아끄는대로 따라갔다. 그런데 똥보병졸은 대문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기다란 담장을 돌고돌아 뒤문으로 그를 끌고들어갔다.

병졸의 뒤를 따라 뒤문안으로 들어서던 민천산은 방금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한것처럼 두눈을 몇번이나 깜빡거렸다. 밖에서 담장안의 모습을 상상해보긴 하였으나 정작 들어와보니 그의 어림짐작과 대비도 안되게 희한하다.

넓다란 마당안에 아담한 산도 있고 물이 출렁이는 못도 있을뿐 아니라 못 한복판에는 해청도의 망월루에 대비도 안되는 훌륭한 정각까지 있다.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고래등같이 덩실한 수십간짜리 기와집도 한두채정도가 아니다. 단청을 곱게 입힌 건물마다 구슬장식을 한 란간이 있고 기둥과 들보는 달속의 계수나무요, 문은 물론 문틀까지도 하나같이 귀한 오동나무로 만들었다. 들보에는 룡과 봉황 새장식이 새겨져있고 란간마다 구슬발같은 주렴이요 처마밑에서는 줄지어 매달린 풍경들이 산들바람에도 귀맛좋은 맑은 소리를 가볍게 쟁쟁 낸다.

병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안도 황홀경이다. 창문마다 비단휘장이 펄펄이 드리웠고 채색을 입힌 벽에는 그림과 서예품이 가득 걸려있다. 방안도 바깥도 말그대로 신선의 세계이다.

잠시후 관찰사나 군수의 부인 못지 않게 잘 차려입은 곱게 생긴 하녀가 자그마한 음식상을 들고와 상냥스레 음식을 권하였다.

《많이 드시오이다.》

택수 이녀석이 이제야 제대로 대접을 하는군, 하긴 옛정을 잊으면 야 사람이 아니지. 럽치와 담을 쌓은지 오랜지라 하녀가 나가기 바쁘게 음식상에 마주앉았다. 이 집의 기름진 고간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수수한 음식상이였지만 그에게는 상음식이였다.

거지의 미덕은 인내라더니 인내성있게 버티지 않았더라면 이 음식상도 못 받았을것이다. 며칠째 낯알구경을 못해서 결신이 들었는지라 달면 어쩡고 쓰면 어떡하랴. 입에 들어가는 족족 맛도 음미해볼 사이가 없이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겼다.

주렸던 배를 기껏 채우니 온몸이 노곤해졌다. 엉금엉금 네발걸음

으로 한쪽구석에 가서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조카사위어르신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자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다지며 내려감기는 눈을 억지로 부릅떴으나 저도 모르게 인차 드르릉드르릉 코를 골았다.

25

《대감님, 찾았소이다.》

안사인이 방안으로 뛰어들다싶이하며 당장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듯 기뻐하였다.

옥새사건으로 최정승을 결단내지 못한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기분이 울적하던 박정승은 히죽거리며 너스레를 떠는 안사인의 꼴을 못마땅해서 바라보다가 통명스레 내쏘았다.

《뭘 찾았다는거냐?》

《가짜도사감을 찾았소이다.》

안사인은 그의 기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싱글거린다. 박정승은 기분이 내키지 않았으나 가짜도사감이라는 말에 귀가 벱룩해져서 안사인앞으로 바짝 나앉았다.

《그게 사실이냐?》

《예, 골라도 정말 멋진 놈을 골랐소이다. 머리는 검은 머리카락이 한오리도 없는 학발이고 하얀 수염발은 불만 달면 세상을 통채로 태워버릴만큼 길고 수북하오이다. 그뿐이 아니라 눈섭은 비자루같고 코는 주먹같은 복코인데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 뒤져도 그런 인물은 쉽게 구하지 못하오이다.》

《어디서 뭘 하는 놈이냐?》

안사인은 방금전에 대문밖에서 민천산을 만난 이야기를 자상히 하였다. 박정승은 이야기를 다 듣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보아하니 벼슬에 환장을 한 놈이구나. 그렇게 어리석은 놈이 도사노릇을 꽤 해낼것 같으냐?》

《우리가 시키는대로 도사노릇을 하게 하자면 똑똑한 놈보다 조금 어리숙한 놈이 차라리 낫소이다. 소인이 지금껏 찾아보았으나 그놈만큼 도사의 풍채를 갖춘 놈이 없나이다.》

박정승은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다시 안사인에게 눈길을 주었다.

《글쎄 그놈을 가짜도사로 쓴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껏 나타나지 않던 운봉도사가 때아닌 때에 갑자기 불쑥 나타났다고 하면 꾀바리 같은 최정승이 믿을것 같으냐? 아마 어리숙한 문정승도 믿지 않을게다.》

안사인은 별걱정을 다한다는듯 히죽이 웃으며 습관대로 이마위의 사마귀를 살살 어루쓸었다.

《소인이 이미 다 생각을 하고있었나이다. 운봉도사의 얼굴을 알고있는것은 학반도사와 부원군 두사람뿐이 나이다.》

박정승은 소스라치듯 깜짝 놀랐다.

《뭐라구? 부원군도 운봉도사를 알고있단 말이냐?》

《그렇소이다. 소인도 이번에 왕실무당을 만나서야 알았소이다. 요즘 부원군이 몸이 불편해서 날마다 무당을 불러 점을 치고 곳을 하는데 운봉도사의 얼굴을 아는 자기가 죽지 말아야 국왕의 유언을 지킬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나이다.》

박정승은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불끈 틀어쥐었다. 망할 놈의 두상! 운봉도사를 알고있으면서도 지금껏 전혀 모르는것처럼 아닌보살을 해왔구나. 산송장같은 늑다리가 정말 두꺼비처럼 의뭉스러운걸. 왕족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 미리 손을 써서 부원군을 일찌감치 해치우지 못한 후회가 이 시각 다시금 가슴속에 찾아들었다.

《아마 문정승은 몰라도 최정승만은 부원군이 운봉도사의 얼굴을 알고있다는걸 모르지 않을게다.》

《웁소이다. 최정승은 틀림없이 그 내막을 알고있소이다. 그래서 지금껏 속이 뜬뜬해서 운봉도사를 기다리고있었을것이 나이다. 소인은 바로 그걸 리용하자는것이오이다.》

도대체 어떻게 리용한다는건가? 자기 머리로는 신통한 수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 박정승은 안사인의 지혜주머니만 쳐다보았다.

《부원군을 조용히 없애버리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나이다. 부

원군이 날마다 무당을 불러 점을 치고 굿을 하니 하루이틀내로 무당을 시켜 슬쩍 해치우면…》

그가 손을 내젓는 바람에 안사인은 말을 채 하지 못하였다.

《이 어리석은 놈아, 운봉도사의 얼굴을 아는 부원군을 죽이면 더 의심을 받을게 아니냐? 네놈이 생각해냈다는 수가 고작 그거냐. 그런 수로는 칠부지아이들도 속이지 못해.》

안사인은 히죽이 웃으며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소인의 말을 다 들어보시지 않고 왜 그렇게 성급해하시나이까. 부원군을 죽인 다음에 운봉도사가 부원군의 부고를 알고 조상을 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 약아빠진 최정승도 어쩔수없이 믿을게 아니나이까?》

박정승은 안사인의 꾀가 너무도 신통해서 손바닥으로 자기의 이마를 칠씩 소리가 나게 쳤다. 확실히 이놈은 쓸모가 있는 놈이야. 나 같애도 부원군과 절친한 운봉도사가 조상을 왔다고 하면 터럭만큼도의심을 안할것이다. 그런데 미타한 점이 하나 있어서 다시 물었다.

《그 수가 괜찮을것 같은데 운봉도사가 부원군의 부고를 어떻게 알고 왔는가 하는게 문제다.》

《참, 대감님도 안하실 걱정을 다 하시오이다. 운봉도사야 운봉산에서 백년동안 도를 닦아서 속세의 일은 물론 천기까지도 손금보듯 환히 꿰뚫는 인물인데 아무리 궁성에서 몇백리, 몇천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한들 어찌 부원군의 생사여부를 모르겠나이까.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최정승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의심조차 안 가질것이나이다.》

그렇듯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웃음을 짓자 안사인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올랐다. 이어 안사인이 계속 화제를 끌고나갔다.

《소인이 얼마전에 사람을 보내 학반도사를 미리 없애치웠으니 이제 부원군만 죽이면 운봉도사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명도 없게 되나이다. 그러니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될것이나이다.》

《학반도사를 없애치웠다는게 사실이나?》

《예. 소인이 오늘일을 내다보고 미리 손을 썼나이다. 대감님께 사전에 아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나이다.》

안사인은 비록 죄를 청하는듯이 납작 엎드렸으나 주인의 칭찬을

바라며 꼬리를 흔드는 삼살개마냥 간절한 눈길로 그의 입만 지켜보았다.

《아니다. 정말 잘했다.》

박정승은 자기 무릎앞에 엎드린 안사인의 잔등을 툭툭 두드려주었다. 막 끌어안아주고싶을만큼 기특했다.

《그러니 이제 남은건 가짜도사뿐이로구나. 부원군을 죽이는건 내가 다른 놈을 시켜 인차 손을 쓰겠으니 어서 네가 골랐다는 그 두상을 한번 보자.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뒤채의 조용한 방으로 끌고가서 밥부터 먹이게 했소이다. 굶주리고 다니는 놈이니 잘만 먹이면 집없는 강아지처럼 말을 잘 따를 것이나이다.》

박정승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안사인이 인도하는 뒤채로 갔다.

방안에 들어서니 민천산이라는 령감이 한쪽 구석벽에 기대앉아 세상 모르게 쿨쿨 자고있었다. 안사인이 깨우려는것을 손을 들어 제지시키고 바투 다가가서 령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안사인의 말대로 갓끈 떨어진 시골량반치고는 관상이 특이했다. 초라한 두루마기만 벗기고 도사들이 입는 도포만 입히면 정말이지 진짜도사도 왔다가 울고갈것 같았다.

안사인이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저놈에게 색다른 도포를 입히고 관이나 하나 척 씌워놓으면 모두가 감쪽같이 속을것이나이다.》

안사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박정승은 언제인가 아버지가 묘자리를 보러 간다고 하면서 입었던 베로 만든 도포가 불쑥 생각키웠다.

《그런게 마침 우리 집에 있다. 옷과 관은 내가 준비해놓겠으니 넌 이놈만 잘 준비시켜라.》

안사인이 령감의 다리를 발로 직신직신 건드렸다.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

민천산은 화탁탁 놀라 깨여났으나 잠을 채 못 깬는지 흐리터분한 눈을 연방 비벼대며 자기앞의 두사람과 방안을 계속 휘휘 둘러보았다.

안사인이 그러는 령감에게 눈알을 부라리었다.

《어서 대감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려라.》

허나 민천산은 일어설념을 안하고 머뭇머뭇해서 그를 바라보기만 한다.

《이 사람은 우리 택수가 아닌데...》

안사인은 다짜고짜 민천산의 목덜미를 와락 움켜쥐여 박정승의 발치앞에 질질 끌어다 눌러앉혔다.

《네앞에 있는분은 정승어른이시다.》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는지 민천산은 황황히 고개를 숙이었다.

《대감님께 해청도의 로생 민천산 문안드리나이다.》

박정승은 시무룩이 웃으며 제법 상냥하게 물었다.

《네가 7촌조카사위를 찾아 멀리 해청도에서 왔다는데 그게 사실이나?》

《그렇소이다. 그럼 이 집은 우리 택수의 집이 아닌가. ...》

민천산은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념불외우듯 중얼거렸다.

《7촌조카사위는 왜 찾아왔느냐?》

《조카사위네 집에 얹혀있다가 과거를 보려고 하나이다.》

《과거? 하하하...》

박정승은 기가 막혀 큰소리로 웃었다. 그 나이에 과거를 본단 말이지, 머리가 돌아도 여간만 돈 놈이 아니로군. 아직도 과거볼 생각을 한걸 보면 글공부깨나 한 놈이겠는걸.

《그러니 7촌조카사위를 내놓고는 이 궁성바닥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렷다?》

《그렇소이다. 그런데 그녀석마저 찾지 못했으니...》

《네 정말 과거를 하면 급제할 자신이 있느냐?》

지금껏 바닥에 붙어있다싶이 었드려있던 민천산이 그 물음에 버쩍 고개를 들며 간절한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래봐도 로생은 30년동안이나 글을 읽었나이다. 과거날까지 이 몸을 건사할 곳만 있으면 기어이 급제를 하겠소이다.》

허, 정말 미친 두상이군. 하지만 괜찮아. 생김새도 그렇고 알짜 무식쟁이 평백성놈도 아니니 얼마든지 도사노릇을 해내겠군. 박정승

은 부러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령감의 구미가 동할 말을 꺼냈다.

《과거를 안 보고 벼슬을 할 생각은 없느냐?》

민천산은 목대뼈가 들썩하도록 닭알침을 꿀꺽 삼켰다.

《그렇게도 할수 있소이까?》

비굴함과 애절함이 가득어린 그 눈길을 보니 발바닥을 핏으라 해도 당장 핏을 자세다. 허나 좀더 속이 달게 해야 한다.

《일국의 정승인 내가 그쯤한것도 못하겠느냐? 그래 네가 원하는게 무슨 벼슬이냐?》

《그저 대감님께서 눈을 꼭 감고 원님자리만 하나 주사이다. 그럼 이 로쟁의 목숨은 대감님의것이옵고 목숨뿐아니라 로쟁의 모든것을 대감님께...》

박정승은 손을 들어 령감의 말을 끊었다. 이쯤하면 다 먹어놓은 떡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닥달질만 잘해서 내놓으면 된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안사인에게 눈길을 주었다.

《이놈의 정체를 우리 둘을 내놓고는 그 누구도 모르게 해야 한다. 비밀이 새면 네 목부터 자르겠으니 단단히 정신을 차려라. 며칠 동안 후원에 있는 별당에 가두어넣고 훈련을 주어라. 단단히 준비시키지 않으면 교활한 최정승을 업어넘기지 못해. 잘 입혀서 시골때도 벗기고 잘 먹이면서 거적문 드나들던 버릇도 똑 떼주어야 한다.》

《알겠소이다.》

박정승은 안사인을 남겨두고 돌아서서 홀로 방을 나섰다. 그런데 등뒤에서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령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대감님, 그냥 가시오이까? 주시겠다던 원님자리는...》

《이놈의 두상이 귀가 먹었어? 방금 대감님께서 벼슬을 주겠다고 하시는걸 듣지 못했는가. 그러니 시키는대로만 해.》

안사인이 령감을 욕질한다.

《예, 알겠소이다. 무엇이든지 시키는대로 다 하겠으니 그저 원님자리만 하나 주시오이다.》

박정승은 설설 기다싶이하는 령감의 비굴한 목소리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담동을 만난 그날부터 월단은 매일같이 기분이 붕 떠있었다.

오늘도 행복감으로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후원을 거닐었다. 이전에는 한숨속에 서글픔과 시름만 더해주던 후원이었건만 지금은 그 후원이 끝없는 희열과 공상을 안겨준다.

어제날의 공상은 이루지 못할 한갓 꿈에 불과하였지만 오늘날의 공상은 인차 이루어질 현실이다. 이 시각에도 며칠동안 계속해온 그 공상의 세계에 다시 잠겼다.

...먼저 납채를 하는 과정부터 눈앞에 그려보았다. 담동도련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글귀를 고르고 골라 장문으로 지은 불같은 청혼서를 드디어 그의 집에 보내여온다. 아버지는 청혼서에 담긴 그에 대한 도련님의 절절한 사랑에 가슴이 몽클하여 그 즉시 청혼을 허락하는 허혼서를 보낸다.

허혼서를 받은 문씨가문에서는 귀한 며느리를 한시바삐 맞아들일 생각으로 다음날 도련님의 사주를 적은 비단필을 보내오고 아버지는 점쟁이를 불러 도련님의 사주와 그의 사주를 맞춰보고 길한 날을 혼례식날로 정하여 도련님댁에 통지한다.

혼례식날자가 정해지자 두 집안이 혼례식준비로 바빠 설레인다.

문씨댁에서는 그에게 수많은례장을 보내온다. 아름다운 비단옷감들과 금은보석으로 만든 각양각색의 치레거리들은 물론이고 행복을 상징하는 난알과 장수를 상징하는 달비도 잊지 않고 보내온다. 아들을 많이 낳아주기를 바라며 목화씨도 함께 넣어 보낸다.

신랑집의 호화로운 납폐를 받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남자쪽에 위촉될세라 몇십대의 수레에 싣고도 남을만큼 수많은 자장을 준비한다. 새 옷가지들과 살림도구들은 물론이고 시부모와 친척들에게 줄 선물도 일일이 다 셀수 없을 정도로 마련한다.

드디어 길한 날로 택한 혼례식날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신선처럼 사모관대를 한 도련님이 하늘소를 타고 그의 집 대문앞에 이르렀다. 도련님은 먼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가시어 어머니에게 드리는 전안례를 한다. 한번 짝을 잃으면 평생 두번다시 짝을 얻지 않는 기러기는 신의와 화목정절의 상징이다.

전안례가 끝난 후 교배례가 진행된다. 칠보단장을 하여 천공의 선녀같은 그는 녀인들의 손에 떠밀리워 수집음을 안고 도련님과 마주선다. 그와 도련님이 청실홍실을 늘인 조롱박잔에 술을 부어 서로 마시며 맞절을 한다.

교배례가 끝난 후 도련님은 대청에 나가 큰상을 받고 저녁이 되자 신방에 든다. 동방화축의 그밤 한쌍의 원앙새와 복자가 수놓아진 금이불속에서 그는 32년동안 대쪽같이 굳게 지켜온 정조를 마침내 도련님에게 허락한다. ...

상상만 해도 짜릿해지는 흥분에 몸을 맡기고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사뿐사뿐 걸음을 옮기던 그는 한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텅 비어있는 후원의 별당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던것이다.

(별당안에 누가 있을까?)

다른 처녀들 같으면 겁에 질려 시녀나 하인부터 불렀겠건만 아버지를 닮아 천성적으로 겁이 없는 그는 대담하게 별당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머리카락도 수염도 눈썹도 하나같이 하얗게 센 풍수쟁이같은 낫선 늙은이가 제집처럼 틀고앉아 표지가 누런 두툼한 책을 펼쳐놓고있었다.

《뉘신데 여기에 계시오이까?》

고요를 깨뜨리는 그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며 책에서 눈길을 떼 늙은이는 그를 보자 얼굴에 사람좋은 미소를 지었다.

《넌 누구냐?》

집주인에게 누구인가고 묻는걸 보니 정말 이상한 늙은이이다. 더우기 고관대작들도 허리굽혀 인사하는 정승의 딸에게 처음부터 반말을 하는걸 보니 껄뻘한 생각이 들며 방금전까지 흥겨웠던 기분이 싹 없어졌다.

《난 이 집 소저인데 로인님은 누구시오이까?》

그의 야멸찬 대답을 듣고서야 로인은 황황히 자세를 수습하였다.

《대감댁아씨를 몰라봐서 안됐소이다. 빈도는 운봉산에서 백년동 안 도를 닦은 운봉도사올시다.》

도사로인은 수복한 수염을 내리쫓으며 자기 소개를 하였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시던 운봉도사님이시오 이까?》

월단은 대뜸 반색을 하였다. 어머니한테서 아버지가 송도국의 왕위계승자를 점지해줄 운봉도사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말을 몇번이나 들었던것이다. 오늘 령험있는 운봉도사를 만나려고 어제 밤 신선으로부터 명주머니와 복주머니, 자손주머니를 받는 꿈을 꾸 모양이다.

《그렇소이다.》

도사는 위엄있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신비한 도술을 쓴다는 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는 많이 들어왔지만 눈으로 직접 보기는 처음인지라 호기심에 끌려 별당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점도록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자 도사는 어색해하였다.

《아씨, 왜 그렇게 찬찬히 보시오이까?》

월단은 큰 입을 실그러뜨리며 씩 웃었다.

《도사님들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생긴줄 알았는데 눈도 코도 입도 모두 보통사람들과 같게 생겼나이다.》

그의 말에 도사도 껄껄 웃었다.

《도사도 사람인데 어찌 다르게 생기겠소이까?》

피차에 처음보는 낮이여서 데면데면하던 분위기였건만 이 한바탕의 웃음으로 하여 거북함이 훌훌 날아가버리고 자연스러움이 깃들었다.

월단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도사에게 청을 드렸다.

《도사님은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겠사오니 수고스러운대로 소저의 앞날을 헤아려보시고 밝게 가르쳐주시오이다.》

도사는 그의 청을 수월히 받아주었다.

《운봉산에서 백년세월이나 도를 닦아서 이제는 나라와 왕실의 운명은 물론 천기까지도 환히 내다보는 몸인데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

는것쯤이야 무슨 수고이겠소이까?)》

도사는 자기 자랑을 한바탕 하고나서 그더러 얼굴을 들게 한 다음 한참이나 그의 얼굴을 뜯어보고나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씨는 참 귀한 상이오이다. 둥근 얼굴은 오가는 복이 모두 아씨께 찾아온다는 표시인데 비유하면 작은 눈덩이를 눈우에 굴리면 눈이 달라붙어서 눈덩이가 점점 둥글게 커지는것이나 같소이다. 여기 정승부의 마당처럼 넓은 이마는 아씨의 앞날이 확 트이였다는걸 보여주는데 비유하면 얼음판에서 박을 밀듯 거칠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나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사랑스러운 이발을 하나 더 가지고있는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부귀를 누린다는 표시오이다. 정말 보기 드물게 희귀한 상이오이다.》

월단은 도사의 귀맛좋은 칭찬에 귀뿌리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도사의 관상풀이가 지금껏 해오던 자기의 생각과 꼭 들어맞아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백년동안 도를 닦았다더니 확실히 보는 눈이 남들과 다르다. 설레는 가슴을 겨우 진정하며 짐작해하는 목소리로 다시 청을 드렸다.

《소저의 랑군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오이다.》

《아씨의 랑군될 사람의 성이 문씨지요?》

도사가 수염을 내리쫓으며 웃음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 물음에 월단은 저도 모르게 얼마나 소리를 내질렀다.

《도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시나이까?》

《빈도가 어찌 그걸 모르겠소이까. 도에 통하면 신선이 되는것이요, 도에 어두우면 범인이 되는 법이라 척 보면 삼천리울시다.》

도사노릇을 하는 민천산이 안사인을 통해 세 정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있다는것을 꿈에도 생각 못한 월단은 감탄과 존경이 어린 신비의 눈길로 도사를 바라보았다.

《문도령은 뛰어난 인물이 분명하오이다. 아마 나이는 스물한살쯤 되었을것이고 준수한 용모에 재덕을 겸비하였나이다. 마음이 정직하고 뜻이 굳어 인간세상에서 자기 몸을 굽힐줄 모르는 사람이니 참으로 뛰어난 군자라 하리오이다. 그러나 자기 뜻을 세상에 한번도 펴보지 못할 운명이니 그야말로 향산백옥이 티끌속에 묻히고 야광명

월주가 깊은 물속에 잠긴 격이웨다.》

귀가 솔깃해서 듣던 월단은 도사의 마지막말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도련님께서 그렇게 박복하나이까?》

도사는 히죽이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초년운수는 박복하오나 덕이 있는 아씨를 만나 아씨의 복과 부귀를 함께 누리게 되나이다. 아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문도령의 재능이 한번 반짝이고 없어지는 불꽃처럼 흩어질번 하였으나 아씨를 만났으니 봉황이 나래를 펼친 격이고 룡이 물을 만난셈이오이다. 문도령이 지금껏 과거를 보지 못한것도 다 운수가 박약해서이나이다. 이제 아씨와 성례만 치르면 문도령이 인차 급제하고 나날이 벼슬이 높아져 나가면 삼군의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백관의 어른이 되어 그 명망이 조정의 으뜸이 될것이나이다.》

월단은 도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이 헤벌쭉해졌다. 그런데 별안간 도사가 무릎을 철썩 치며 환성을 지르다싶이하였다.

《아씨의 상이 왜 그렇게 귀한 상인가 했더니 이제야 알만 하오이다. 아씨, 이제 문도령은 부마가 될것이오이다.》

월단은 가는 버들눈을 울롱히 뜨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게 사실이오이까?》

《틀림없소이다. 아씨께서 공주님이 되시겠는데 어찌 문도령이 부마가 되지 않으리까. 앞으로 아씨께서 공주의 위에 오르실 때 빈도는 고을원님쯤 할터이니 그때 가서 모른다 하시지 말고 잘 돌봐주시기 바라오이다.》

월단은 기뻐하면서도 고개를 기웃거렸다.

《도사님은 속세를 떠난분이신데도 벼슬을 하시나이까?》

《아씨의 말씀이 옳소이다. 벼슬에 전혀 뜻이 없건만 박대감께서 빈도의 재능이 아깝다시며 계속 벼슬을 권하시기에 하는수없이 허락했나이다.》

월단은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의를 표시했다.

《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밝게 가르쳐주셨사운데 어찌 그 은혜를 잊겠소이까. 소저 앞으로 도사님의 이 은혜를 꼭

갈겠소이다.》

월단은 기쁜 마음으로 별당을 나섰다.

나는 공주가 되고 우리 랑군님은 부마가 된단 말이지. 생각만 해도 미칠듯 한 기쁨으로 가슴이 뻐근해났다. 이 기쁨을 랑군님과 함께 나누고싶었다. 아니, 초년운수가 불길한 랑군님이 자기를 만나 인생의 온갖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것을 알려주고싶었다.

허나 랑군님을 어떻게 만날까? 아직 성혼도 하지 않은 랑반댁구수가 사내를 부른다는건 안방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실이다. 하지만 한시라도 랑군님을 빨리 만나 자기의 기쁨을 터놓고 랑군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우린 혼례식만 안했을뿐 정식부부나 같으니 랑군님을 만나도 일없을거야.

그는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며 시녀를 문정승의 부로 보내고 랑군님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27

문정승은 부원군의 장례를 주관하다가 지친 몸으로 교자에 올랐다.

꼬박 이틀동안 잠도 못 자고 편히 앉아있지도 못했다. 비틀비틀하던 부원군이 그제밤 로환으로 끝내 세상을 하직하였다. 국왕때는 저마끔 장례의식을 주관하겠다고 앞자리를 다투던 박정승과 최정승이 이번에는 첫날에 와서 조의만 표시하고 간다온다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꼬리를 사렸다.

원래 왕족들의 장례는 왕실관계의 관청인 종친부와 돈녕부가 함께 주관하였으나 지금은 왕실의 씨가 말라서 이 관청들이 이름만 존재하다싶이한다. 그래서 레조가 부원군의 장례를 도맡아안았으나 그시그시 제기되는 문제를 일일이 결론할 정승이 있어야 하기에 그가 팔을 부르길고 나섰다. 비록 왕실과 먼 혈족이긴 하지만 부원군의

장례를 주관하는것으로써 왕실을 위해 충의를 다하는 진정한 왕족임을 만조백관들에게 보여줄 심산이었다.

욕심같아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고싶지 않건만 아들 담동으로부터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들어와주십사하는 전갈을 받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이다.

교자가 대문앞에 이르니 문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던 담동이 서둘러 그를 맞는다. 항상 여유작작하던 아들이건만 오늘은 여느때없이 긴장해보였다.

《무슨 급한 일이기에 사람을 보냈느냐?》

담동은 가까이 다가와서 조용히 귀속말을 하였다.

《밖에서는 할 이야기가 못되오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오이다.》

대문을 지나고 중문을 지나 안채의 조용한 방에서 아들과 마주앉았다. 무슨 일인가고 묻기도 전에 담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큰일났소이다. 운봉도사가 박정승택에 왔소이다.》

《그... 그게 사실이냐?》

아들의 긴장한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것은 예감했지만 너무도 예상밖의 말이라 놀라서 혀가 제대로 돌지 않았다.

《사실이오이다. 평소에도 아버님을 기이지 않는 소자가 어찌 이런 말을 지어내리까.》

담동은 그에게 자상한 이야기를 하였다. 오늘 오후에 월단이 별안간 시녀를 시켜 집으로 와달라는 통지를 보내왔다. 밭다면 깨꼬한다고 허나새나 명색이 정승택 따님이라는 년이 레법도 모르고 치마자락을 휘둘러대는 꼴이 어이없어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월단이 재차 시녀를 보내서 중대한 일을 알려줄것이 있다고 간절히 청하기에 할수없이 박정승부로 갔다. 시쁘둥해서 꼴보기 싫은 월단과 마주했는데 그년의 입에서 운봉도사가 자기네 집에 와있다는 말이 흘러나와 깜짝 놀랐다. 월단은 운봉도사가 운봉산에서 백년동안 도를 닦은 신통력있는 도사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구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도사에게 자기들의 앞날을 점쳐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공주가 되고 그는 부마가 되며 자기가 복이 있어 그가 부귀를 누리

게 될것이라 했다고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황황히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연락을 띄웠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난 문정승은 지금껏 지친 몸을 간신히 버티고있던 기운이 순간에 빠져달아나며 맥이 탁 풀렸다. 그렇게도 기다리고기다리던 운봉도사가 박정승네 집으로 찾아왔단 말인가. 아, 하늘도 무심쿠나. 하늘이시여, 이 문정승이 그토록 간절히 빌었는데 어이하여 도사를 박정승에게 보내시었나이까.

한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운봉도사는 왕위계승자를 점지해 줄 도사이니 궁성에 왔으면 의례히 왕궁을 먼저 찾아오는데 마땅하지 않는가. 필경 박정승이 로상에 부하들을 대기시켜놓았다가 궁성에 나타난 운봉도사를 자기 집으로 끌고간게 분명하다. 미욕한 놈이니 미욕한 수를 쓸수밖에 없지.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담동에게 물었다.

《운봉도사가 박정승네 집에 제발로 나타났다면, 아니면 누가 데리고왔다더냐?》

《그건 미처 알아보지 못했소이다.》

담동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하긴 그게 중요치 않다. 운봉도사가 박정승의 집에 와있다고 해서 반드시 박정승을 왕위계승자로 점지하리라는 담보는 없다. 지금은 누가 빨리 도사를 쟁취하는가 하는데 승패가 결정된다. 한시바삐 도사를 만나야 한다. 도사를 만나 족보를 보여주고 내가 왕실후손임을 인식시키면 이전에 국왕이 나를 정승으로 임명했던것처럼 도사도 나를 왕위계승자로 점지할수 있다. 그렇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정적으로 운봉도사를 만나야 한다.

한참이나 눈을 감고 생각을 굴리던 문정승은 좋은 수가 떠올라 눈을 버쩍 뜨며 무릎을 철썩 쳤다. 세상은 공평해서 죽으라는 법이 없다.

《애 담동아, 아버지가 오늘 밤중으로 그 운봉도사를 꼭 만나야겠다. 그러니 네가 다시 월단이를 만나야겠다.》

총명한 아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든것을 알아차렸는지 다른 말을 더 하지 않고 즉시 박정승네 집으로 떠나갔다.

아들이 떠나간 후 문정승은 자개박이함에 정히 간수해놓은 족보책을 꺼냈다. 처음에는 문씨가문의 족보책도 다른 집의 족보책처럼 종이로 만든 것이었으나 지금은 종이대신 고급비단으로 책을 묶었고 겉표지에는 금실로 《문씨족보》라는 글을 수놓았다. 문씨가문을 일으켜세운 공많은 족보책이어서 정성을 기울여 다시 만들었다. 이제 이 족보책덕으로 국왕이 되면 《문씨족보》를 금판에 새길 결심이다.

한동안 족보책을 어루쓸던 그는 하인을 시켜 허장사를 부르게 하였다.

그가 비단보자기로 족보책을 정히 싸고있는데 허장사의 우람찬 허우대가 문가에 나타났다.

《대감님, 부르셨나이까?》

자기처럼 믿는 허장사라 비단보자기를 가리키며 분부했다.

《이제 우리 담동이한테서 연락이 오면 이걸 가지고 나와 함께 갔다올데가 있네. 나도 평복차림을 하겠으니 자네도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수수한 옷을 갈아입게.》

허장사는 우람찬 체대처럼 행동이 진중하고 과묵한 형이다. 남들의 곱절만큼이나 두터운 입술을 놀리기 싫어서 말을 안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언제나 입을 꼭 다물고있다. 허나 이 시각에는 두툼한 입술사이로 누런 이를 보이며 히죽이 웃었다.

《이 밤중에 평복을 하고 어디로 행차하시려고 하나이까. 혹시 야경별이라도 떠나자는게 아니오이까?》

늘 병어리처럼 말없는 놈이 말재간도 부릴줄 안다. 항간에서는 도적들이 야경군들이 돌아다니는 깊은 밤중에 싸다닌다고 해서 도적질을 야경별이라고 하였다. 하긴 일국의 당당한 정승이 야밤에 평복차림으로 인적없는 행길에 나서야 하고 여차하면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야 할지도 모르니 틀림없는 야경별이군의 행색이다.

문정승은 우울한 가슴을 달래려고 부러 웃으며 통을 했다.

《요즘 심심하던차인데 너와 함께 야경별이라도 한번 해보자꾸나.》

이윽하여 기다리던 담동이 돌아왔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월단이를 만나서 약조를 해놓았나이다. 밤 이경에 자기가 직접 후원의 뒤문을 열고 아버님을 운봉도사가 있는 별당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소이다.》

바위같은 근심에 짓눌린것처럼 답답하기만 하던 가슴에서 후— 하고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박정승의 집 담장이라도 뛰어넘을 각오를 하고있었는데 열려진 문을 통해 선선히 걸어들어갈수 있게 되었으니 신선놀음이다.

《월단이가 제 예비 편역을 들겠는데 네 말에 순순히 응하더냐?》

《처음에는 좀 이상한 눈치를 보이며 응하려 하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난 부마가 되는것보다 왕자가 되었다가 후날 왕으로 되고싶다, 그러면 월단이기도 공주가 아니라 세자비가 되었다가 왕후로 될수 있다, 그러니 월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난 왕자가 되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갔던 장도칼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했더니 덴갑을 하며 살아도 죽어도 소자의 의향을 따르겠노라고 하늘을 우러러 맹세했나이다.》

다른 총각들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멋적어하거나 어색해하겠으나 담동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태연해서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를 단속할만치 단단한 의지의 인간으로 자라난 아들이 못내 대견하다.

이경이 가까와오자 문정승은 아들과 허장사를 데리고 정승부를 나섰다.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게 조심하며 박정승의 집 뒤문에 이르니 약속대로 월단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아버님, 그새 무양하셨소이까?》

월단이 며느리가 다 되기라도 한것처럼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그래도 계집이라고 교태를 잡아가며 다소곳이 절을 하였다. 달빛에 미운 녀자는 정말 미운 녀자라더니 월단이 바로 그러했다. 허나 오늘날일은 전적으로 월단의 공로라 어깨를 다독이며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문씨가문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고맙다. 하긴 너도 이제 문씨가문에 발을 들여놓은것이나 같지 않느냐. 그런데 운봉도사님께

서 혹시 주무시지 않느냐?》

《소저가 방금전에 도사님께 아버님이 찾아올것이라고 알려드려서 지금 기다리고계시오이다.》

월단의 안내를 받아가며 별당앞에 이른 문정승은 허장사한테서 족보책을 받아든 다음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도사품체의 늙은이가 방 한복판에 위엄있게 올방자를 틀고 앉아있었다. 문정승은 체면이고 뭐고 다 췌버리고 운봉도사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가 늘씬하도록 큰절을 올렸다.

《송도국의 문정승 운봉도사님께 삼가 큰절을 올리나이다.》

허나 운봉도사는 아무 반응도 없이 거연히 앉아 수염만 내리쉴며 할말이 있으면 하라는듯 턱짓을 한다.

그는 즉시 족보책을 펼쳐보이며 문씨가문의 래력을 장황히 풀어나갔다. 족보를 설명하는 긴 시간동안에도 도사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였다.

《…이처럼 문종왕은 소신과 이십팔촌이웁고 해보왕은 삼십사촌간이 돼웁니다. 현재 소신은 이 송도국에 유일하게 남은 왕족이나다. 대는 대끝에서 나고 룡은 룡소에서 난다고 응당 소신이 옥좌에 올라야 할줄로 아오이다.》

마침내 그가 설명을 끝내자 운봉도사는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물러가라는 손시늬를 하였다.

《알겠소이다. 그럼 소신은 도사님만 믿고 물러가겠소이다.》

문정승은 들어올 때처럼 다시금 큰절을 올리고 조용히 별당에서 물러나왔다. 비록 도사에게서 속 시원한 말 한마디 못 들었지만 마음이 개운하였다. 도사의 엄엄한 행동거지를 보니 아무리 박정승네 집에 거처하고있다 해도 박정승의 편역을 들지 않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것 같은 믿음이 갔다.

(도사님이 틀림없이 왕족인 나를 룡상에 앉혀주실게다.)

문정승은 족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알만 하다고 끄덕이던 도사의 고개짓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며 발걸음도 가벼이 집으로 돌아갔다.

조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점심을 끝낸 최정승은 안해의 방으로 향하였다. 안해가 하녀를 보내 앓고있다는 말을 전해왔는데 문병이라도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불벼락이 내릴지 몰랐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안해를 싫어하였다. 아니, 무서워하였다. 안해는 체대가 거의 그의 곱이나 될뿐아니라 드살기가 그 커다란 몸집을 가득 채우고 남을 정도이다. 리조판서를 하던 장인의 눈에 들려고 부부간이 된 첫날부터 굽신거리며 안해의 비위를 맞추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해의 드세찬 성미를 더 부채질해주는 격으로 되었다.

그는 두팔을 한껏 벌려도 껴안지 못하는 우람찬 안해에게서 너자의 살뜰한 맛을 느끼지 못해 신혼생활때부터 다른 계집들의 꿈무니를 따라다니었다. 기생이면 기생, 하녀이면 하녀 그저 치마두른 뻔뻔한 계집만 보면 코를 벌름거렸다.

이러한 그의 계집난봉으로 안해의 성격은 더한층 이지러졌다. 안해는 그의 몸에서 계집냄새가 나는것만 같으면 고양이처럼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었고 그때마다 그는 겁질린 쥐처럼 찢찢매였다. 솔직한 말로 일찍 대머리가 된데는 결핍하면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강짜를 부린 안해의 양탈도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

그후 장인이 죽고 그가 정승벼슬에 오른 다음에는 안해의 성질도 퍼그나 누그러졌으나 이번에 해청도에서 금향이를 첩으로 데려온 후로는 본성이 다시 드러났다.

침방에 들어가니 안해는 끈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이불속에 누워있었다. 병색이 그닥 돌지는 않았으나 얼굴은 꺼칠하였다. 방안에 들어서서 그를 곱지 않은 눈길로 맞는걸 보면 또 속이 앙앙불락한 모양이다.

아니나다를가 안해는 말을 떼기 전에 눈물부터 쏟았다. 젊었을 때

는 팔소매를 걷어붙이는것이 싸움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면 중년에 들어서서는 전술을 바꾸어 폭풍직전의 소나기로 눈물을 흘린다.

최정승은 안해의 머리맡에 엉겨주춤 앉아 상냥스레 달래었다.

《부인, 왜 눈물까지 흘리는거요? 몹시 아프오?》

안해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하기라도 한것처럼 그냥 서럽게 운다. 이런 때는 자칫 잘못된 실언으로 안해의 부아를 더 돌굴수 있기때문에 침묵을 지키는것이 상책이다. 참을성있게 기다리고기다리느라니 클쩍거리던 안해가 드디어 싸움의 첫 포성을 울리었다.

《상공, 아무래도 첩은 인차 죽을것 같소이다.》

《허허, 그건 갑자기 무슨 실없는 소리요?》

부러 나오지 않는 웃음을 웃으며 안해를 눈썹히려고 애썼다.

《실없는 소리가 아니오이다. 누가 지금 계속 첩이 죽기를 귀신에게 간절히 빌고있나이다.》

안해가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지 대뜸 짐작이 갔다. 또 억지로 금향을 절고들 심산이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애매한 사람에게 루가 미치지 않도록 하오.》

그러자 안해는 이불속에서 손을 부시럭거리더니 작은 인형을 하나 꺼내어 그의 눈앞에 대고 내흔들었다.

《이래도 증거가 없소이까?》

인형을 받아보니 누구의것인지 알수 없는 글씨로 인형의 몸에 안해의 사주팔자가 적혀있다.

《몸이 까닭없이 아파나서 오늘 아침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점을 쳤는데 글씨 첩의 침방마루밑에 이 요사한 물건이 묻혀있었나이다. 분명 어떤 년이 첩을 죽이고 정실부인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악독한 흉계를 꾸몄나이다.》

믿어지지 않았다. 자고로 녀자는 인물값을 한다 하였거늘 선녀처럼 고운 금향이 차마 이런짓을 하겠는가. 최정승은 속으로 도리머리질을 하였다. 성미 사나운 안해한테 죽도록 때를 맞은 하인이나 종년들이 한짓이 아니면 안해가 꾸며낸것일수 있었다.

《설마...》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오이다.》

안해는 그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열변을 토했다.

《그년이 아니면 이 지붕아래서 누가 나를 원썬처럼 미워하겠나이까. 정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나가서 지계문 왼쪽길을 잘 살펴보시오이다. 거기에 독벌레들이 득실거리나이다. 무당의 말이 그계 〈방문좌도〉라는 술법인데 그 장소에다 몰래 독벌레들을 공양하면 저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워진다고 했소이다. 첩이 근래에 계속 정신이 흐리터분해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까닭없이 앓는게 다 그년의 원한을 사서였나이다.》

들을수록 험악한 소리라 안해의 말을 밀막았다.

《그렇다고 정승부의 안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남부끄럽게 소문을 낼수야 없지 않소. 내 조용히 알아보겠으니 부인은 과도히 마음을 쓰지 말고 진정하오.》

《증거가 확실한데 뭘 더 알아보고말고 할게 있소이까. 좋소이다. 상공이 요녀에게 현혹되어 첩을 헌 짚신짜같이 여기시니 내 차라리 섬뜩에 짓쫓아 머리를 부시여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년에게 굴복하여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리 아시오이다.》

안해는 진짜 죽기라도 할것처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최정승은 황황히 안해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부인, 진정하오. 현숙한 부인이 좀 진정하오. 내 정확히 알아보고 엄히 처리하리다.》

안해는 못이기는척 하며 이불속에 다시 누웠으나 계속 푸념이다.

《상공은 지체가 하늘처럼 높으시여서 량반가문의 규수들도 소실이 되기를 자청하운데 어이하어 존귀함을 버리시고 향간의 경술한 사내처럼 부디부디 경박하고 의리를 모르는 천한 계집을 골라 소실로 두시오이까. ...》

최정승은 안해의 성미를 잘 아는지라 길디긴 그 푸념을 인내성있게 끝까지 다 들어주며 얼리고 또 얼리였다.

《부인의 말이 백번 지당하오. 내가 그만 한때의 흥분으로 실수를 한것 같소. 그렇다고 한번 엇지른 물을 다시 주어담을수야 없지 않소. 그리고 내 정은 부인에게만 가있으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마오.

아무렴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당신에게 정이 더 있지 얻어온지 며칠 밖에 안되는 금향이년한테 정이 더 있겠소. 내 이제 당장 가서 그년을 신칙하겠으니 진정하오.》

그는 다시 한번 안해에게 다짐을 두고 침방을 나와 맞은편채에 있는 금향의 처소로 향하였다. 정말 금향이 그런짓을 했을가? 믿어지지 않는으나 어쨌든 이번 기회에 단단히 오금을 박아서 이 처마아래서는 남부끄러운 시앗싸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하였다.

《안에 있느냐?》

금향의 방문앞에 이른 최정승은 부러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쯤 안해가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 자기의 행동을 빤히 지켜보고있을게 분명해서였다. 안해가 보란듯이 문을 활짝 잡아당기고 방안으로 들어서며 광소리가 나게 요란히 닫았다.

《대감님, 왜 그러시오이까?》

금향이 그의 거친 행동에 놀라서 고운 눈을 휘둥그렇게 폈다.

처음에는 안해가 들을수 있게 얼마간 큰소리라도 칠 생각이었으나 굳게 다졌던 그 결심은 금향의 예쁘장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물먹은 소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보면 볼수록 어여쁜 금향이다. 맑은 눈동자는 금시 떠오르는 밝은 달같고 웃는 태도는 늙가운데 반쯤 핀련꽃같고 가는 허리는 봄바람에 춤추는 버들가지같이 사람의 정신을 황홀케 한다.

《대감님, 소첩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이까?》

금향이 애수에 찬 눈길로 물었다. 그 눈길에 애간장이 슬슬 녹아 엄하게 지었던 얼굴표정을 삼시에 풀며 어색하게 히죽이 웃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왜 방금전에 그렇게 성을 내셨소이까?》

《성을 낸게 아니다. 너와 한번 놀아보려고 우정 그래본거다.》

허나 금향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앞으로 다가와 심중한 기색으로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대감님, 소첩을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해주시오이다.》

아, 이런 매혹적인 눈길앞에서야 어찌 거짓말을 하랴. 그는 방금전에 침방에서 안해와 나눈 말을 토한자 빼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

실직고하였다.

그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번에는 금향이 아미를 숙이고 콧
짜거리며 하소연을 하였다.

《대감님, 소첩은 대부인의 등쌀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소
이다. 정말이지 소첩을 끄찍이 위해주시는 대감님만 아니면 살고픈
생각이 없나이다. 아무래도 대감님을 위해서 소첩이 이 집을 나가
야할것 같나이다.》

최정승은 바빠맞아서 금향을 꼭 껴안았다.

《제발 울지 말거라. 네가 울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것처럼 아프
니라. 그리고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해도 다시는 날 버리고 가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거라. 네가 가면 난 죽고만다. 나에겐 이 세상
에 오직 너 하나뿐이다. ... 내가 있는 한 그년이 너를 감히 어찌지
는 못한다.》

그는 금향을 꼭 껴안고 눈물을 닦아준다,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하며 달콤한 속삭임과 애무로 달래었다. 그제서야 금향이 울음을 멈
추고 얼굴에 해사한 미소를 지었다.

둘이 꼭 붙어앉아 최정승은 금향을 무릎방아 태우고 금향이는
그의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한창 장난을 치는데 문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감님, 박정승택에서 사람이 찾아왔소이다.》

《알겠다.》

금향의 방에서 나와 본채로 나가니 뜻밖에도 박정승의 심복 안사
인이 와있다. 안사인이 공경스레 절을 하고나서 아뢰었다.

《대감님, 운봉도사님이 왔소이다.》

최정승은 순간적으로 눈이 똑 굳어졌다. 눈뿐아니라 온 얼굴과
온몸이 굳어졌다. 허나 인차 자신을 다잡고 천연스러운 웃음을 지
었다.

《그게 사실이나? 언제 오셨느냐?》

《오늘 아침에 오셨나이다. 부원군님께서 돌아가신걸 알고 찾아오
셨는데 지금 우리 정승부에서...》

안사인이 뭐라고 계속 설명했으나 그 말이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속으로 유겸상한테 개욕만 퍼부었다. 망할 놈! 그만큼 신칙했는데 눈을 편히 뜨고 운봉도사를 놓치다니.

《도사님께서서는 래일 세 정승님을 모두 만나시겠다고 했나이 다.》

《알겠다.》

안사인이 돌아가기 바쁘게 그는 유겸상을 불렀다.

《너 이놈! 어떤 일이 있어도 운봉도사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도사가 박정승의 집으로 가게 해? 이놈아, 네놈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그는 열이 올라 암내난 수토끼 뒷발을 구르듯 발을 쿵쿵 구르며 기염을 토했다. 죽을 죄를 졌는지라 짝소리도 못하고 쏟아지는 욕을 먹기만 하던 유겸상이 두손을 머리앞에 모아잡으며 간절히 청을 드렸다.

《대감님, 소인이 일을 그르쳤으니 소인이 바로잡겠소이다. 오늘 밤만 시간을 주사이다. 그 다음에도 일을 수습하지 못하면 랑치점으로 소인이 직접 소인의 목을 베겠나이다.》

《도대체 어찌겠다는거냐?》

《박대감의 집에 있는 운봉도사를 대감님앞에 데려오든가 아니면 아예 죽여버리고말겠소이다.》

《네 하찮은 재간으로 도술을 쓰는 도사를 당해낼것 같으냐?》

《아무리 도술을 쓰는 도사라 해도 살을 가진 생명체이면 소인의 랑치점에는 못 견디나이다.》

유겸상의 고석배기얼굴이 살기로 사납게 이그러졌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최정승은 찬성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때늦은감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유겸상의 살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저녁밥을 푸짐히 먹고난 민천산은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다.

래일이면 드디어 기다리고기다리던 날이 된다. 《송도국의 룡상에 앉을 사람은 박정승이다!》라는 한마디 말만 하면 그토록 바라던 원님벼슬이 차례진다. 말 한마디로 원님벼슬을 벌었다고 하면 누구도 믿지 않을것이다.

리진사를 비롯해서 그를 놀려대던 해청도의 선비들은 그가 원님으로 부임해오면 아마 눈이 휘짝 뒤집혀질것이다. 눈이 뒤집혀지다 못해 틀림없이 까무라칠것이다. 한생 착하게 살아오고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자고 결심했지만 해청도의 선비놈들하고는 좀 계산을 해야겠다. 죽일 놈은 죽이고 주리를 틀 놈은 주리를 틀겠다.

그가 고을관청에 올방자를 틀고앉은 원님이 된 자기의 모습을 흐뭇하게 그려보고있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소리가 났다.

《누구요?》

그의 물음에 석침한 늙은이의 목소리가 대답한다.

《도사님을 만나러 왔수다.》

자리에서 일어나 눈길을 주니 오늘 아침에 월단이와 함께 자기를 찾아왔던 박정승의 아버지 박침량이 비칠거리며 방안으로 들어서기에 서둘러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다.

《이밤중에 무슨 일로 예까지 걸음을 하셨소이까?》

《아까는 손녀년이 있어서 도사님께 말씀할 못 드렸는데 청이 하나 있으니 수고스러운대로 좀 들어주사이다.》

《무슨 청인지 어서 말씀하시오이다. 로인장의 청은 내 기꺼이 들어올리겠소이다.》

민천산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쾌히 응했다.

《다른게 아니라 내 묘자리를 하나 골라놓았는데 신통한 자리가 되는지 한번 좀 봐주시오이다.》

무슨 말이 나올가하고 귀를 바짝 강구었던 그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입을 하 벌렸다. 방정맞게 한밤중에 묘자리소리를 들으니 머리칼이 으시시 일어선다. 이 령감의 머리가 좀 잘못된게 아닌가? 박첨량의 눈동자며 얼굴표정을 자세히 뜯어보았으나 모든게 멀쩡하다.

《자제분이 일국의 정승이어서 로인장의 말년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겠는데 왜 벌써부터 묘자리를 정하시오이까?》

그의 물음에 박첨량은 구들장이 꺼지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행복하다는게 다 뭐웨까. 그 후례자식때문에 죽어서도 조상들을 뵈올 면목이 없소이다.》

박첨량은 민천산에게 자기의 마음속 고충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박씨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저주를 받고 대대로 무를 멀리해온 가문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며 아들이 무인의 길을 걷는통에 끝내 대가 끊어지게 된 이야기며 멀지 않아 아들이 술한 사람을 죽이고 박씨가문을 송두리채 망쳐놓게 될것이라는 자기의 예감까지 다 터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박첨량의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여올랐다.

《그 후례자식이 손톱 굵는건 알아도 염통 굵는건 모르지요. 내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에 죽자는건데 목숨은 왜 이렇게 질기겠수. 내 나이 지금 여든이니 이젠 다 살고도 남았지요. 성 쌓고 남은 돌이나 같지만 죽어서 문힐 묘자리라도 잘 골라서 가문에 미치는 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게 이 늙은것의 마지막소원이야이다. 그러니 수고스러운대로 도사님이 내 묘자리를 좀 봐주시고 신통한 자리가 못되면 복록이 련면무궁할 자리를 하나 좀 골라주시오이다.》

《알겠소이다.》

민천산은 듣기 좋은 말로 박첨량을 위로해서 돌려보냈다.

박첨량이 왔다간 후 그의 가슴속에서는 즐겁던 기분이 싹 깨지고 이름할수 없는 불안과 위구가 서서히 찾아들었다. 늙으면 반귀신이

된다고 박첨량의 예감이 맞아떨어지면 그에게도 좋을것이 없다. 하늘처럼 믿고있는 박정승이 망하면 그의 꿈도 물거품이 된다.

아니, 아니야. 그는 지꼴게 갈마드는 불안한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더 생각지 말자. 래일이면 원님벼슬이 생길터인데 아무렴 하루밤사이에 박정승이 망하겠는가. 박정승이 후날 망하더라도 난 래일 원님벼슬만 받으면 된다. 래일이면 래일이면... 그는 래일이라는 말을 수십번 곱씹어 외우다가 저도 모르게 슬코이 잠들었다.

꿈나라를 헤매던 민천산은 가슴을 지리누르는 답답함에 버둥거리며 잠에서 깨어나 눈을 버쩍 떴다. 아직도 한밤중이어서 방이 어두운데 시꺼먼 사람의 형체가 그의 가슴팍을 무릎으로 짓누르고있었다.

《쫓! 조용해!》

《누구...》

입을 벌려 소리치려고 하였으나 억센 손이 입을 틀어막더니 말을 못하게 커다란 형겅이 입에 자갈처럼 물리워졌다. 자세히 보니 검은 형체는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다. 검은 형체들은 얼마나 동작이 빠르지 순간에 그의 몸을 바줄로 칭칭 결박하고 커다란 자루안에 통채로 잡아넣었다. 어찌나 든든하게 묶었는지 발버둥도 칠수가 없다.

이어 자기가 들어있는 자루를 들어 어깨에 메였는지 몸이 허공에 데롱데롱 매달리고 온기가 있는 넓다란 사람의 잔등이 느껴진다. 자루속이 숨막힐것처럼 답답하였으나 밖으로 나왔는지 찬기운이 느껴지며 숨쉬기가 한결 편해진다. 그를 업은 사람들은 발자국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발을 부지런히 재게 놀렸다.

이놈들은 대체 누굴까? 도적일까? 아니, 도적은 아니다. 도적이면 정승부에 있는 술한 재물을 놔두고 사람을 훔쳐가겠는가. 돈을 받고 사람을 훔쳐가는 도적도 있긴 하지만 사람도적의 대상은 처녀나 파부들이다. 나같은 늙은이는 누가 훔쳐갈 생각도 하지 않을것이다. 그럼 이놈들이 혹시 박정승의 딸 월단이를 훔쳐가려다가 나와 삭갈렸는가. 그런것 같지도 않다. 월단이같은 박색은 훔쳐갈리만무하고 아무리 방안이 어둡다해도 도적들이 남자와 녀자를 분간

못할수는 없다.

어쨌든 도적은 아니다. 줌도적들은 감히 사람도적질을 못하고 담이 큰 도적이라 하여도 대가집담장은 넘보지 못한다. 그런데 경비가 궁궐못지 않게 삼엄한 정승부에 감히 뛰어든걸 보면 보통놈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놈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날 어디로 데리고 갈가? 민천산은 불안한 가슴을 안고 운명에 자기를 맡길수밖에 없었다.

30

민천산은 자기를 등에 업은 놈들이 걸음을 멈추자 정신을 바싹 차렸다. 목적지에 다 온 모양이었다.

《대감님, 도사를 붙잡아왔소이다.》

세놈중의 한놈이 누군가에게 아뢰인다. 그러자 대감님이라고 불리우는 상전이 성난듯 한 목소리로 그놈을 꾸짖었다.

《이 불한당같은 놈들! 도사님께 청을 드려 편히 모셔오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자루속에 넣으라고 했느냐. 빨리 도사님을 풀어드리지 않고 뭘 멍청히 서있느냐.》

성난 호령소리에 세놈이 서둘러 자루를 조심히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결박을 푸느라 짹짹댄다.

민천산은 대감님이라는자의 목소리가 못내 귀에 익어서 자루속에서 놓여나오자 그자의 얼굴부터 바라보았다. 순간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꿈속에서도 잊을수 없는 악독한 최정승이었다.

다음순간 자기가 왜 여기에 붙잡혀왔는지 대뜸 리해가 갔다. 박정승과 문정승, 최정승이 룡상을 놓고 서로 다툰다고 하더니 필경 왕위문제때문에 자기를 이밤중에 몰래 업어온게 분명하였다.

최정승을 보는 첫순간에 생겼던 공포감은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위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놈이 나를 알아보면 큰일이다. 가

짜도사라는것이 드러나면 박정승이 룡상에 못 앉는건 둘째치고 나에게 차례질 원님벼슬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 끝까지 내 정체를 숨겨야 한다.

《도사님, 이놈들이 원래 무지막지한 놈들이어서 례절을 몰라 도사님께 죄를 지었으니 제가 대신 사죄하오이다. 네놈들은 썩 사라져라.》

최정승의 불호령에 얼굴이 고석배기인 놈이 나머지 두놈을 데리고 방에서 물러갔다.

《도사님, 어서 여기에 편히 앉으시오이다.》

최정승이 자그마한 몸을 갑삭거리며 그에게 비단보료틀 깐 자리를 권했다. 가만히 눈치를 살피니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진짜도사답게 비단보료우에 사양없이 앉아 부러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일국의 정승이라는 사람이 손님을 맞겠으면 례절을 차려야지 이 무슨 불손한 행동이요.》

그의 말에 최정승의 눈이 휘둥그래진다.

《도사님은 내가 정승이라는걸 어떻게 아시나이까?》

민천산은 한순간 당황했으나 인차 자기를 수습하였다.

《운봉산에서 백년동안 도를 닦아서 저 하늘의 천기까지도 내다보는 내가 아무렴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소.》

최정승은 황공한듯 두손을 머리우에 잡아쥐며 고개를 숙이었다.

《정말 고명하신 도사님이시나이다.》

최정승이 옆방과 통한 휘장너머로 손짓을 하자 시녀들이 성의껏 주안상을 차리고 이어 곱게 단장한 젊은 녀인이 치마자락을 살살 끌며 앞으로 다가와 나부시 절을 올렸다.

최정승은 그에게 녀인을 소개하였다.

《도사님, 이 사람은 저의 소실이온데 도사님께서 불편해하지시 않도록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할가 하나이다.》

민천산은 례사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시중까지야 뭐. 허나 술상에 녀인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그의 말에 최정승은 자못 감탄의 눈길을 보내었다.

《웁소이다. 정말 도사님은 호인이시나이다.》

금향이 옥돌로 만든 술잔에 정히 술을 따라 그에게 권했다.

《도사님, 어서 드시오이다.》

민천산은 술잔을 받아 호기있게 쪽 들이켰다. 금향이 그의 곁에 곱게 앉아 련이어 술도 따라주고 부채질도 살살 해주며 온갖 교태를 다 부렸다.

《도사님, 저의 주인은 도사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셨나이다.》

민천산은 술이 몇잔 들어가자 애초의 겁기는 싹 없어지고 한결 도담해져서 제법 통까지 했다.

《그러니 지금은 물본 기러기, 꽃본 나비갈겠구나.》

《웁소이다. 도사님께서서는 정말 말씀도 재미나게 하시오이다.》

금향은 입을 싸쥐고 호호 웃음을 터뜨렸다.

민천산은 최정승과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계속 금향 이와 떠 이야기만 하였다.

최정승은 그들의 이야기에 끼여들기도 하고 그들이 웃으면 같이 웃기도 하였으나 조급해하는 눈치를 숨기지 못했다.

마침내 최정승이 이야기를 슬쩍 기본화제로 끌고갔다.

《도사님, 먼길을 수고로이 오신 도사님을 박정승이 잘 대접했소이까?》

《박정승 그 량반이 덩치가 커서인지 속통도 크더군.》

《하지만 박정승은 원래 곰처럼 둔해서 칼부림밖에 모르오이다.》

최정승은 로골적으로 박정승을 헐뜯었다. 민천산은 얼굴에 태연한 웃음을 지었으나 속으로는 자기가 이제 최정승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겠는가에 대해 재빨리 생각을 굴렸다. 문정승때는 부러 입을 꼭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것으로 딱한 고비를 침착하고 여유있게 넘길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때와 환경이 판판 다르다. 그때는 박정승의 집이 여서 도적고양이처럼 찾아온 문정승을 쉽게 주무를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정승의 집이고 술상까지 마주했으니 그때처럼 침묵을 지킬수

없다. 더우기 최정승이 자기를 알아보는 날에는 모든것이 끝장이어서 말 한마디를 하여도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물론 박정승이 무인출신이어서 칼부림밖에 모르는건 사실이요. 허나 백마국이 우리 송도국의 지정안으로 쳐들어온 지금같은 란시에는 박정승같은 무인만이 나라를 구원할수 있소.》

그의 대답에 최정승은 즉시 사색이 되었다.

《도사님, 예로부터 인재의 기본징표는 학식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소신은 일찍부터 4서5경을 통달하였고 이 세상의 책이란 책은 다 읽었소이다. 칼부림으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오이다. 옛책에도 <나라를 다스리는자가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하면 안된다. 백성들이 비록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따르는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항심을 품고있나니 그것이 쌓이고쌓이면 필경에는 터질것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민천산은 옛책의 글줄을 뜯금으로 외우는 최정승의 총명한 머리에 진심으로 감탄하였다.

《말을 들어보니 나도 옛날에 어느 책에서인가 그런 글줄을 본것 같은데 이젠 세월이 하도 오래서 어느 책의 어느 대목이었던지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런데 최정승은 한번 본 책을 다 외우는 모양이구만.》

《예, 소신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남달리 비상해서 젊은 나이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소이다.》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걸 다 기억하노?》

그의 물음에 최정승은 제껴 관모를 벗어보였다. 정수리까지 머리카락 한오리없는 완전한 대머리다.

《허, 거 정말 머리를 쓰게 생겼구만. 옆머리카락과 뒤머리카락만 없으면 꼭 우리 해청도에 있는 중인줄 알겠네.》

아무 생각도 없이 꺽꺽 웃으며 말하던 그는 최정승의 눈에 어리는 의혹의 빛을 보고 속으로 혀를 깨물었다. 아이쿠! 실수했구나. 요즘의 혀바닥은 술만 들어가면 제 마음대로 놀아댄다니까.

최정승이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도사님의 년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소이까?》

《예순둘이네.》

《?!》

이번에도 최정승의 눈에 의혹이 짙게 깔렸다.

《도사님께서는 운봉산에서 백년동안 도를 닦으셨다고 했는데 년세가 겨우 그렇게밖에 안되시나이까?》

민천산은 속이 덜컹하였다. 실수를 안한다고 했는데 또 실수를 한 셈이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굳어지는 얼굴을 애써 수습하며 천연스러운 웃음을 지으려 하였으나 그 웃음이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난 나이를 세기가 불편해서 늘 백자는 떼버리고 말하네. 정확한 나이는 백예순두살일세.》

최정승은 아니라는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민천산은 가슴이 활랑거렸다. 이놈이 날 알아보면 안되겠는데.

《왜 그렇게 찬찬히 보나? 얼굴에 구멍이 뚫리지겠네.》

《왜서인지 도사님의 얼굴을 어디선가 꼭 한번 본것같나이다.》

민천산은 서둘러 고개를 황황히 저었다.

《무슨 당치않은 소릴 하는거요. 최정승은 여기 궁성에서 살았고 나는 한뼘 해청도에서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궁성에 올라왔는데...》

자기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급급히 변명을 하던 그는 흠칫 놀라며 오른손으로 자기 입을 탁 틀어막았다. 허나 이미 때늦은 뒤였다.

《하하하...》

최정승이 작은 몸을 들썩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뱀새 눈을 가늘게 쪼프리며 빈정대었다.

《글쎄 내 어디서 봤다 했더니 해청도의 그 로망한 선비였구나. 못 입어 잘난 놈 없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더니 그렇게 차려입어서 영 판 사람같은걸. 도사님, 얼마전에 내가 해청도에 내려갔을 때 허튼 시를 한수 지어가지고 와서 벼슬자리를 달라고 조르다가 곤장을 맞지 않았소이까? 그 시의 제목이 뭐더라? 그렇지 〈로목〉이지.》

《도사님이 곤장을 맞다니? 그 무슨 해괴한 소리요. …》

최정승이 마침내 자기를 알아보았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뺨쳤다.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모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루의 희망이며 인생의 전부인 원님자리에 영원히 앉아보지 못할수 있었다.

《아직도 도사님이라, 여봐라!》

최정승이 소리치자 고석배기가 들어왔다.

《대감님, 부르셨소이까?》

최정승이 고석배기에게 히죽이 웃으며 령을 내렸다.

《유검상, 저 도사님의 아래도리를 벗겨라.》

고석배기가 별쪽 웃으며 그에게로 다가왔다. 민천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최정승, 참자참자하니까 이 무슨 괴이한 망동인가. 감히 도사님의 아래도리를 벗기다니. 난 돌아가겠다.》

허나 최정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귀불을 슬슬 어루만지며 빈정댄다.

《네놈이 아직도 내앞에서 감히 반말질이나. 아래도리를 벗겨서 곤장을 맞은 허물자리가 있으면 넌 해청도의 로망한 선비이고 허물자리가 없으면 도사가 맞다. 하지만 아무리 도사라고 해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절대로 살아서는 못 돌아간다.》

최정승이 눈짓을 하자 유검상이 사납게 달려들어 그의 아래도리를 쭉 잡아벗겼다.

《대감님, 얼마전에 불기를 맞은 허물자리가 있소이다.》

유검상이 여쭙자 최정승은 깨고소한 웃음을 지었다.

《그럼 그럴테지. 이놈! 귀신은 속여도 이 최정승은 못 속인다. 아직도 바른대로 토설하지 못하겠는가.》

민천산은 이 시각까지도 아니라고 뻔뻔 생각이였다. 허나 유검상이 툭날처럼 생긴 반달모양의 칼을 목에 쑥 가져다대는 바람에 질겁해서 부들부들 떨었다. 원님자리고 뭐고 목숨부터 살려야 했다.

《예… 대감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 박정승이 고을원님벼슬을 주겠다고 하길래…》

최정승이 손짓을 하자 유검상이 그의 목에 대였던 칼을 내리

왔다.

《박정승이 고을원님벼슬을 주겠다고 했던 말이지. 그 미옥한 놈이 제법 수를 쓰는걸.》

유점상이 그러는 최정승에게 여쭙었다.

《대감님, 가짜도사를 만들어낸 박정승의 비렬한짓을 만천하에 까밝혀서 아예 머릴 쳐들지 못하게 하소이다.》

허나 최정승은 뱀새눈에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렇게 한다고 그놈이 얼굴 한번 붉힐것 같으나, 천만에. 오히려 우리가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 그런 수를 꾸몄다고 구정물을 우리한테 들썩울게다. 불은 불로 끄랬다고 박정승이 꾸민 수를 역이용해야 한다.》

이어 최정승은 그에게 눈길을 주었다.

《민생원, 벼슬을 하는게 소원이지?》

민천산은 황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올시다. 그저 살려만 주시오이다. 그럼 오늘밤중으로 당장 해청도로 내려가겠나이다.》

최정승은 그러는 그를 향해 히죽이 웃었다.

《난 민생원을 죽일 생각이 꼬물만치도 없네. 그리고 벼슬을 바라고 평생 처음으로 되는 궁성행을 했는데 맨손으로 내려가면 안되지. 내가 고을원님보다 더 높은 판서벼슬을 주겠는데 생각이 없나?》

민천산은 눈이 썩해졌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말에 놀랐고 꿈도 꺾보지 못한 판서벼슬을 주겠다는 말에 더더욱 놀랐다. 다시금 벼슬에 대한 의욕이 북받쳐올라 믿어지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사실이오이까?》

최정승은 아까와 달리 살갑게 웃었다.

《난 거짓말을 할줄 몰라. 여봐라, 가서 임명장을 가져와라.》

유점상이 잠시 나갔다가 임명장과 함께 벼루와 먹, 붓을 가지고 들어왔다. 최정승은 임명장을 앞에 놓고 손에 붓을 들었다.

《민생원의 실력으로는 리조나 호조, 례조, 병조, 형조의 판서노릇은 하기 힘드니 제일 쉬운 공조판서가 맞을것 같군.》

최정승은 임명장에 민천산을 공조판서로 임명한다는 글을 써서 그에게 내보였다.

《자, 보라구. 민생원을 공조판서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일세.》

민천산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최정승의 발밑에 엎드렸다.

《대감님,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방바닥에 코를 박다싶이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머리우에서 최정승의 말이 계속 울렸다.

《하지만 아직은 이 임명장이 효력을 발생 못해. 민생원도 알지만 5품이하 관리들의 임명장에는 리조에서 도장을 찍으면 그만이지만 그이상의 관료들에 대한 임명장에는 국왕의 옥새가 찍혀야 한단 말이야.》

민천산은 고개를 들어 최정승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다보았다. 최정승은 그의 눈길에 달콤한 미소를 보였다.

《민생원, 이 임명장에 국왕의 옥새가 찍히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

《로생은 그저 대감님이 시키는것이라면 무엇이냐 다 하겠소이다. 대감님의 요구라면 꿇는 물과 불속에 뛰어들라 해도 사양하지 않겠소이다.》

민천산은 최정승을 향해 연방 머리를 조아렸다.

《그렇게까지 힘들건 없어. 그저 이름만 바꾸면 돼.》

《?!》

민천산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조아리던 머리를 들고 최정승을 바라보았다.

《뭘 모를게 있나? 박정승이 시키는대로 계속 가짜도사노릇을 하되 박정승의 이름대신 내 이름을 바꾸란 말이야.》

민천산은 그제야 깨도가 되어 이마를 쳤다.

《알겠소이다. 그러니 〈송도국의 룡상에 앉을 사람은 박정승이다!〉 대신에 〈송도국의 룡상에 앉을 사람은 최정승이다!〉 고 말하라는것이니까.》

최정승은 흐뭇해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만보니 민생원은 생각했던것보다 더 총명해. 그 총명이면 공

조판서벼슬은 꽤 감당해내겠군.》

《꼭 그렇게 할터이니 약속하신 벼슬을 주셔야 하오이다.》

민천산은 최정승에게 굳게 맹세하며 다짐을 두었다.

잠시후 그는 최정승의 집을 나와 박정승의 집으로 향하였다. 갈 때도 유검상과 무사들이 동행했다. 올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를 죄인처럼 결박해서 자루속에 처넣어가지고 왔던 유검상과 무사들이 이번에는 터럭 하나 다칠세라 신주모시듯 하며 호위하는것이다.

(오늘 밤은 계속 꿈속에서 해매인것 같은걸!)

무사히 별당에 돌아와 이부자리속으로 들어간 민천산은 짧은 밤시간동안에 겪은 모든 일들이 돌이켜볼수록 믿어지지 않아 슬그머니 자기의 팔을 꼬집어보았다.

31

박정승은 이른아침부터 부하들과 종들을 들볶아댔다. 소원성취를 하는 오늘의 경사에 부정이 탈세라 하인들과 하녀들을 총동원하여 대사가 거행될 후원의 정각은 물론 집안팎 여기저기를 말끔히 쓸어내게 하였다. 부엌에서는 술한 반빛아치들이 오늘 쓸 음식들을 만드느라 바빠 돌아쳤다. 박정승은 부하들이나 우두머리하인을 시켜도 될 일들이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총찰하였다.

그는 어제 밤 잠을 거의나 자지 못하였다. 잠자리에 눕기는 하였으나 래일이면 통상에 앉는다는 가슴설레는 흥분으로 하여 종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아침일찍 일어나 팔소매를 부르걸고 나섰다. 허나 피곤한줄 몰랐다. 어제와 같은 환희의 밤이라면 열밤, 백밤을 새워도 힘들것 같지 않다.

마당 한복판에 서서 자기의 령을 받고 바빠 돌아치는 종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후원별당에 민천산을 만나러갔던 안사인이 돌아

왔다.

《그래 그 옷이 맞더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나이다.》

안사인의 얼굴에 활짝 핀 웃음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옮겨앉았다. 그는 안사인을 시켜 아버지 박첨량이 수의로 장만해놓고 있는 베도포를 몰래 훔쳐내어 민천산한테 입히게 하였다. 옷이 날개라고 진짜 도사노릇을 하자면 도사냄새가 나는 옷을 입혀야 하였다.

민천산에게 베도포까지 입혔으니 이제는 오늘의 대사준비가 나무랄데없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 미타한 점이 있다면 최정승과 문정승이 민천산을 진짜운봉도사로 믿겠는가 하는것이다. 그것때문에 어제 밤에도 안사인과 신중히 토의를 했다. 안사인은 두 정승이 의심을 하면 민천산이 성을 내며 입바람을 불게 하고 그때 몰래 숨어있던 사람이 바줄로 매놓은 나무가지들 흔들어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지게 하자고 하였다. 기발한 수여서 어제 밤에는 쌍수를 들었으나 아침이면 현명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곰곰히 다시 생각해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설핀감이 없지 않았다.

박정승은 안사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였다. 안사인이 다가와 허리를 굽히며 그의 입가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이들장난같은 그 방법 하나만으로는 최정승이나 문정승이 그놈을 진짜도사라고 잘 믿을것 같지 않은데 무슨 수를 더 생각해내야겠다.》

안사인이 히죽이 웃으며 이마우의 사마귀를 슬슬 문질렀다.

《소인도 이자 오면서 그 생각을 했소이다. 거짓말을 하려면 엄청난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이 믿는다고 눈속임을 쓸바에는 한번 기막히게 써보자는 생각이나이다.》

호기심이 동해 귀가 벅룩해서 다우쳐물었다.

《그래 무슨 수를 생각해냈느냐?》

안사인은 그에게 정승부뒤문과 마주하고있는 뒤산을 가리켜보였다.

《미리 사람을 보내여 저 산꼭대기에 염초를 비롯해서 불이 잘 당기는 물건들을 한가득 쌓아놓았다가 도사령감이 기합을 쓰는 흥내를

내면 불을 확 지피자는것이나다. 아무리 교활한 최정승이라 하여도 도술로 불을 일으키는 그 신통함에는 속아넘어가지 않고 못 견딜것이나다.》

《하하하...》

박정승은 너무 신통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며 속이 후련하게 너털웃음을 쳤다. 확실히 안사인은 머리가 비상히 뛰어난 놈이다. 늘 머리자랑을 하는 최정승도 안사인한테는 상대가 안될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주 좋은 수다. 그런데 준비를 한곳에만 하지 말고 만약을 생각해서 여러곳에 만들어놓았다가 이쪽에서 신호를 하면 제격제격 불을 지피게 해라.》

《알겠소이다.》

안사인은 령을 받고 즉시 물러갔다.

얼마후 대문가에서 문지기들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최대감님 행차요-》

《문대감님 행차요-》

박정승은 성수가 나서 중문까지 나가 두 정승을 마중하였다. 그런데 문정승은 관복차림이였으나 최정승은 때아닌 상복차림이였다. 최정승의 속심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우정 중떠보았다.

《최공은 어째서 상복을 입고 오셨수?》

최정승은 자못 서글픈 어조로 대답했다.

《오늘 도사님이 국왕을 점지해준다고 하니 별로 상감마마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서 아침일찍 상복을 입고 왕릉에 갔다오는 길이나이다.》

박정승은 겉으로 귀담아듣는척 하였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다. 생쥐같은 놈! 운봉도사가 진짜인가 해서 잘 보이려고 이런 오그랑수를 쓴다는걸 내 모르는줄 아느냐. 하지만 오늘은 네놈이 그 어떤 지랄을 한다 해도 전혀 소용이 없을게다. 그는 짐짓 최정승을 올리추었다.

《확실히 최공은 충의가 남다른 사람이요. 문공, 그렇지 않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왁새처럼 목을 빼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던 문정승은 자기를 꺼드는 그의 말을 얼결에 듣고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대답했다.

《웁소이다. 최대감의 총의에 대해서야 모르는 사람이 있소이까.》

최정승은 그의 말에 숨어있는 비양조를 느꼈는지 한쪽입귀를 실룩거리다가 넌지시 말을 걸어왔다.

《박대감, 근래에 고뿔을 앓아 전장에도 출전을 못하시는데 지금은 몸이 어떠하시오?》

불의의 역습이라 박정승은 서둘러 얼굴색을 달리하였다.

《좀벌레가 퇴기등을 쓰러뜨린다고 별치 않게 여긴 고뿔이 사람을 망치려 드는구려. 아직 완전히 낫지는 못했지만 인차 나올거요.》

그러자 최정승이 기다렸다는듯 말했다.

《박대감의 칼부림으로도 그 고뿔을 못 뎀다니 리해가 안되오이다.》

《?!》

《박대감의 칼부림으로야 못하는 일이 있소이까. 미련한 송아지 백정을 몰라본다고 그 고뿔이 박대감을 무서워 안하는 모양이오이다.》

그제서야 최정승이 무슨 말을 하자는것인지 깨도가 되며 순간적으로 뺨이 울컥하였지만 애써 태연하게 웃었다. 오늘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그런 하찮은 일로 기분을 깨고싶지 않았다.

《최공은 별 룡담을 다 하는구려. 자, 그럼 다같이 도사님이 계시는 후원으로 갑시다.》

후원에 오니 도사역을 맡은 민천산이 못 한가운데 있는 정자안에 거룩하게 앉아있었다. 며칠동안 잘 먹어서인지 얼굴에 홍조가 어리고 배도포까지 척 걸치고있는 근엄한 모습은 여불없는 도사다.

정자에 이르자 박정승은 두 정승에게 도사를 소개하였다.

《돌아가신 상감마마의 유언대로 이 나라의 국운을 바로잡아주시려고 운봉산성지에서 내리신 도사님이시오.》

최정승과 문정승은 무릎을 꿇으며 정중히 절을 하였다.

《도사님께 문안드리나이다.》

민천산이 거룩하게 앉아 일어나라고 손짓을 하자 두 정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정승은 민천산이 처음부터 도사역을 원만하게 하는 바람에 마음이 흡족하였다. 그는 도사에게 두 정승을 소개하는 척 하였다.

《여기 이 대감은 최대감이고 이 대감은 문대감…》

민천산이 손짓으로 그의 말을 막았다.

《운봉산에서 백년동안 도를 닦은 내가 아무렴 앞에 서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것도 모르겠느냐.》

《예, 예. 도사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박정승은 부러 찢찢매는체 하며 허리를 굽석거렸다. 그런데 민천산이 불쑥 오른손을 높이 쳐들며 입바람을 후- 내불었다. 이것은 안산인과 약속한 나무잎을 떨어뜨릴 때 하기로 한 동작이었다.

박정승은 억이 막혀 입을 딱 벌렸다. 망할놈의 두상, 시킬 때 하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하면 어찌자는거야? 약속된 동작이라 못가에 서있는 백양나무가 태풍이 지나가는것처럼 와슬렁거리고 나무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문정승이 깜짝 놀라며 백양나무쪽을 바라보았다.

《박대감, 바람 한점 없는데 저 나무가 왜 저러나이까?》

때이른감이 있지만 이미 시작한 춤이라 장단을 맞출수밖에 없었다. 박정승은 최정승을 슬쩍 결눈질하며 겁질린 소리로 문정승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도사님께서 도술을 쓰시는것이나다. 대감들이 오기 전에도 이런 도술을 한번 썼나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천산이 두팔을 머리높이 쳐들었다가 서서히 내리며 기합을 쓰는 동작을 하였다. 이것은 앞산에 불을 지피기로 한 동작이다. 이놈의 령감이 머리가 돌지 않았어? 단번에 다 써먹으면 어떻게 하자는거야.

이번에도 약속대로 뒤산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확 솟구쳤다.

《영? 저 불은…》

문정승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불길을 가리켜보였다. 하는수없이

박정승은 이번에도 민천산의 동작에 양념을 쳤다.

《저 불도 도사님이 도술로 지핀 불이요.》

문정승은 즉시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도사님의 신비한 도술을 보니 황공무지로소이다.》

뒤따라 최정승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우직한 민천산이 일을 망치는줄 알았는데 최정승까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자 박정승은 만족해서 입을 헤벌리며 자기도 무릎을 꿇는척 하였다.

《도사님, 황공무지로소이다!》

이어 박정승은 최정승과 문정승이 다 들을수 있게 큰소리로 청을 드렸다.

《도사님, 자고로 새 임금을 정할 땐 촉판이랑 크게 별리는것이 하나의례식이라 소신이 미리 가무와 주연상을 준비했으니 모두가 함께 즐길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라나이다.》

민천산이 들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하도록 해라!》

박정승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정자안에 주연상을 차리게 하고 정자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맞은편 못가에서 기생들이 가무를 하게 하였다.

세 정승이 도사를 옷자리에 모시고 앉아 술잔을 들자 기생들이 칼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첫 술잔을 비우고난 민천산이 불쑥 최정승에게 말을 붙였다.

《아까부터 물으려고 했는데 최정승은 옷주제가 왜 그런고?》

최정승이 제법 처량한 목소리를 쥐어짜며 대답했다.

《충과 효는 인류의 근본이라 했거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돌아가신 상감마마가 생각나서 상복을 입고 왕릉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군 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민천산이 수염을 내리췄었다.

《최정승은 듣던바 그대로 충신이로다.》

박정승은 똥판지같은 화제를 꺼내는 민천산을 불만의 눈길로 바

라보았다. 영문을 모르는 문정승이 머리를 숙이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박공, 저 생쥐같은 놈이 도사한테서 점수를 단단히 판것 같나이다.》

박정승은 문정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척 하였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코방귀를 끼었다.

그들의 속삭임에 신경이 쓰여지는지 최정승이 넌지시 말을 던졌다.

《대감들은 가무를 구경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들을 하시오. 그런데 박대감은 춤도 칼춤을 좋아하시오이까?》

박정승은 입귀를 실룩거렸다. 이놈아, 도사에게 내가 칼부림밖에 모르는 무인이라는걸 강조시키자고 그러느냐. 어디 그러겠으면 실컷 그래라. 아마 도사가 가짜라는걸 알면 네놈이 기절초풍할게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속생각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대답했다.

《나야 천성적인 무인이니 어찌겠소.》

잠시후 이번에는 최정승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었다.

《박대감, 이제 도사님께서 새 임금을 점지해주시면 절대로 다른 잡소리를 해선 안되겠지요?》

허, 이놈 보라. 도사가 한번 칭찬을 해주니 오히려 제편에서 다짐을 둔다. 좋다, 네놈이 다른 잡소리를 못하게 내가 단단히 다짐을 두겠다.

《응당 그래야지요. 하늘의 뜻인데 절대로 잡소리를 하면 안되오이다.》

취흥이 오르기 시작하자 박정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사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이었다.

《도사님, 이젠 시간도 퍼그나 흘렀으니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송도국의 새 임금을 점지해주시오이다.》

최정승과 문정승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의 말을 받았다.

《점지해주시오이다.》

민천산이 비칠거리며 취한 몸을 가까스로 일으키더니 옆에 세워두

있던 청려장을 찾아주고 거기에 몸을 의지해 바로섰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미물인 벌도 왕벌이 있고 기러기때도 맨앞에 길잡이가 있거늘 한 나라에 왕이 없어서는 안되느니라. 나라의 왕은 병법에도 능하고 가문도 좋아야 할뿐만아니라 학문에서도 만민의 스승이어야 하거늘 하늘의 뜻도 그렇고 또 내 뜻도 그렇고… 세정승중에서 새 통상에 앓을 인재가 누군고 하니…》

이때 바싹 긴장이 되어서인지 최정승이 《에헴.》하고 잔기침을 짓었다. 박정승은 그러는 최정승에게 불만어린 눈길을 흘렸다. 망할놈! 중대한 시각에 빙충맞게 기침은 무슨 기침이노.

민천산이 최정승쪽으로 피끗 눈길을 주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송도국의 통상에 앓을 사람은 최정승이로다!》

박정승은 생각지도 않았던 최정승의 이름이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벼락소리를 듣기라도 한것처럼 와뜰 놀랐다. 내가 잘못 들었는가? 믿어지지 않아 눈을 슴벅이며 민천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최정승이 너무 기빠 춤추듯 날뛰는 꼴을 보니 잘못 들은것 같지 않았다.

박정승은 눈도 굳어지고 혀도 굳어지고 심장도 푹 멎는것 같았다.

32

《이놈!》

박정승은 최정승과 문정승이 돌아가기 바쁘게 성이 똑같이 나서 길길이 뛰었다. 육중한 몸을 구를 때마다 못속의 정자가 지진을 만나기라도 한것처럼 드르릉 떨며 수면우에 동그란 파문을 그렸다.

《이놈아, 그렇게 훈련을 주었는데도 이름 석자를 삭갈리느냐? 오늘 아침에 까마귀고기를 먹었느냐?》

그가 어찌나 사납게 소리를 질렀는지 못가에 서서 상이 내리기를 기다리던 기생들이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줄행랑을 놓았다.

《이놈! 당장 쳐죽여도 시원치 않겠다.》

게저품을 물고 고아대며 두손을 부들부들 떨던 그는 한순간 민천산이 왕위계승자를 지정하려는 순간에 잔기침을 낚던 최정승의 모습이 피땀 떠올랐다. 그때는 무심히 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서로 기미를 통하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럼 이 늙다리가 최정승이 내 가슴에 박아넣은 비수였던 말인가?

그는 눈에서 시퍼런 불을 펄펄 내뿜으며 한걸음두걸음 다가가 와락 민천산의 턱수염을 한손에 거머쥐었다.

《바른대로 토설해라. 네놈은 원래부터 최정승의 패당이지?》

그의 우악스러운 손에 수염발이 통채로 붙잡힌 민천산은 목매달린 개새끼처럼 버둥거렸다.

《아니올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소이다.》

박정승은 손을 더 세판게 그러쥐며 따지고들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저… 최정승이 고을원님보다 더 높은 판서벼슬을 주겠다고 할래…》

뭐라구? 최정승이? 놀라서 눈이 굳어졌다.

《언제 최정승을 만났느냐?》

《어제 밤에… 최정승의 부하들이 로생을 붙들어갔잖나이다. …》

박정승은 너무 기가 막혀 민천산을 한옆으로 확 밀쳐버리고 이를 뿌드득 갈았다. 그러니 그 생쥐놈이 선손을 썼구나. 어제 밤에 있었을 일들이 눈앞으로 환영처럼 흘러갔다.

아! 그는 꼴이 빠개지는것 같이 쭈셔나서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약삭바른 생쥐놈이 그런 수를 꾸민걸 모르고 이 우둔한 놈은 온밤 잠도 못 자면서 부질없는 공상만 했구나.

《네놈이 가짜도사라는걸 최정승이 아느냐?》

《예, 알고있나이다.》

부들부들 떠는 민천산은 목소리까지 덜덜 떨었다.

박정승은 가슴속 밀바닥에서부터 길디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저런 얼뜨기같은 평감태기한테 기대를 걸고 왕위를 바란 내가 잘못이지. 하면서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속을 박박 긁어댔다.

《이놈아, 내가 시킨대로 했으면 난 판서보다도 더 높은 정승벼슬을 주겠는데 그놈한테 얼리운단 말이냐?》

고양이앞의 쥐처럼 겁에 질려 덜덜 떨던 민천산은 정승벼슬이라는 말을 듣자 흐리터분하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령감은 체면도 없이 그의 앞으로 벌렁벌렁 다가왔다. 그 모양이 정말 개질량이다.

《정승벼슬을 주겠다는게 사실이나이까? 그럼 로생이 다시 한번 말해보겠소이다.》

《뭐라구?》

박정승은 너무도 어이가 없고 억이 막혀 아연한 눈길로 민천산을 내려다보았다.

《로생이 다시 고쳐서 말하겠나이다.》

민천산은 벌떡 일어나더니 온 후원을 빙 둘러보며 큰소리로 고아대기 시작하였다.

《다들 들으시오. 아까는 내가 틀리게 말했는데 송도국의 룡상에 앉을 사람은 박정승이로다!— 잘 들으시오. 송도국의 룡상에 앉을 사람은 박정승이로다!—》

박정승은 령감의 목덜미를 붙잡아 땅바닥에 꼭 눌러앉혔다.

《야 이놈아, 이제 와서 백번 소리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서인지 어깨가 처지며 실성한 사람처럼 입에서 허거픈 탄식이 흘러나왔다. 울음과 웃음이 반반씩 섞인 탄식이다.

《대감님, 진정하십시오.》

홍무관이 다가와 그를 위로하였다. 하지만 귀찮다는듯 손을 내저으며 분부를 내렸다.

《저 령감을 별당에 가두어넣어라!》

《예잇!》

홍무관이 민천산을 끌고간 후 박정승은 사랑채까지 터벌터벌 걸어왔다.

한참이나 방안에 들어앉아 찢어지는것 같은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는데 문이 슬며시 열리며 안사인의 반질반질한 얼굴이 나타났다. 상전이 성이 난걸 보고 벼락을 맞을가봐 어디론가 몸을 사렸다가 다시 얼굴을 들이미는 모양이다.

안사인은 조심조심 박정승의 앞으로 다가왔다.

《대감님, 이제라도 그놈을 다시 내세워서 사태를 바로잡으면...》

《닥쳐라!》

박정승은 대번에 천둥소리를 내며 안사인의 말허리를 끊었다. 허나 안사인은 혜식은 미소를 지으며 진드기처럼 달라붙었다.

《괜히 성을 내서야 몸만 상하시니 진정하시오이다.》

《이놈아, 일이 망쳐졌는데 진정하게 됐느냐?》

《소인에게 이 일을 수습할 수가 있사오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이다.》

뭐라구? 수가 있다구? 썩물이 흘러든것처럼 입이 쓰겁다. 내가 이놈이 내놓는 알량한 수에 귀가 베풀었던게 잘못이다. 세치밖에 안되는 저놈의 혀바닥에 놀아난게 잘못이다.

《다 깨진 사발인데 바로잡긴 뭘 바로잡아! 네놈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일을 망쳤다!》

《대감님, 소인을 믿으시오이다. 소인이 이제...》

《듣기 싫다!》

뭐 네놈을 믿으라구? 천만에, 다시는 네놈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난 원래부터 말공부쟁이들을 좋아 안한다. 잘 짓는다고 좋은 개가 아니고 말 잘한다고 현인이 아니라 했다.

이전같으면 안사인도 그의 심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물러갔겠지만 지금은 주인의 총애를 잃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대감님, 소인의 말을 좀 들어보시오이다.》

절절히 청을 드리는 안사인의 비굴한 태도가 그의 비위를 더 거슬리게 하였다. 망할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방안을 휩 둘러보던 그의 눈에 벽에 걸려있는 일광검이 띄웠다. 그는 별떡 일어나 다짜고짜 칼집에서 보검을 쑥 뽑아들었다.

《이놈! 내 오늘은 네놈을 죽여버리고말테다.》

《대감님, 왜... 왜 이러시나이까?》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던 안사인은 획 몸을 돌리며 문밖으로 바람처럼 사라졌다. 죽여주십사 하고 가만있었으면 혹

용서 해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쫓무니를 빼니 더 부아통이 터졌다.

《이놈, 게 서지 못할고!》

목에 피대를 세우고 울부짖듯 웨치며 칼을 들고 안사인의 뒤를 쫓아 밖으로 달려나갔다. 마루까지 달려나왔으나 어느새 내뺏는지 안사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박정승은 가슴속에 쌓이고 쌓였던 울화를 터뜨리며 온 정승부가 떠나가게 고향을 내질렀다.

《안사인 이놈, 어디 숨었느냐. 당장 죽어버릴테니 냉큼 나와라!》

고래고래 소리를 기껏 지르고나니 가슴이 조금 후련하였다. 손에 쥔 일광검이 해빛을 받아 번쩍이며 아프게 눈을 찔렀다. 그 아픔이 가슴을 더 못 견디게 허비였다. 아, 한생 이 칼만 믿어온 내가 무슨 망녕이 들어 칼을 믿지 않고 저놈의 말에 귀가 솔깃했던 말인가.

이 시각 그의 가슴속에서는 칼에 대한 믿음이 더 깊이 자리잡았다. 그렇다. 칼이 곧 힘이고 정의이다. 정의란 강자의 리익에 지나지 않는다. 자그마한 실패앞에 맥을 놓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약한자의 장애물은 강자의 디딤돌이라 했거늘 이 실패를 디디고 올라서야 한다. 이 칼이 그것을 해줄것이다!

그는 칼을 마루바닥에 곧추 세워박고 칼자루에 두손을 얹었다. 전장에서 령을 내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취하던 동작이라 금시 몸에 힘이 뻗친다.

《여봐라! 홍무관을 불러라!》

즉시 홍무관이 나타났다.

《소인 대령했소이다.》

《오늘일이 지금쯤은 온 궁성에 알려졌을게다. 하지만 그건 두려울것이 없다. 지금 당장 중요한건 그 소문이 궁성밖까지 퍼지지 않게 하는것이다. 궁성밖으로 퍼지면 고을들에 있는 우리 동남당패의 사기가 저락될수 있고 최정승의 북서당패가 승이 나서 지방의 모든 세력을 장악할수 있다. 그러니 동문, 북문, 남문 삼문의 경비를 철통같이 해서 궁성밖으로 개미 한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동문은 우리 동남당이 맡았으니 별일없지만 최정승이 관할하는 북문

과 문정승이 관할하는 남문이 문제다.》

《북문과 남문에 우리 군사를 파하겠소이다.》

홍무관이 결패있게 대답했으나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다. 벌써부터 군사를 움직이면 상대가 눈치를 채고 방비를 갖추어 있다. 거사를 할 때까지는 절대로 군사를 움직이면 안된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박정승은 즉시 령을 내렸다.

《우리 정승부의 문객들을 북문과 남문에 각각 백명씩 파하도록 해라. 이제는 그들을 써먹을 때가 되었다. 당장 떠나보내되 최정승과 문정승이 눈치채지 못하게 궁성밖 멀리에 진을 치고 궁성안에서 나오는 놈을 한놈도 놓치지 말라고 이르거라. 령을 소홀히 대하는 놈은 가차없이 목을 치겠다.》

《알겠소이다.》

홍무관이 령을 받고 물러가자 그는 다시 칼을 뽑아들고 손가락으로 칼날을 어루쓸었다. 예리한 칼날이 선뜩한 느낌을 온몸에 휘몰아왔다.

(이놈들! 진짜싸움은 이제부터다.)

33

박정승의 집을 나와 교자에 몸을 실은 문정승의 머리는 착잡하였다.

운봉도사가 왕위계승자로 지명하자 어쩔바를 몰라하며 미친듯이 기뻐 날뛰던 최정승의 꼴이 계속 눈앞에 얼른거리고 천만락심해서 우거지상을 하던 박정승의 모습도 얼핏얼핏 끼여든다. 운봉도사의 입에서 《송도국의 통상에 앓을 사람은 최정승이로다.》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물론 문정승 자기도 락심하였다. 허나 박정승처럼 우거지상까지는 하지 않았다.

비록 행어나 하는 기대를 안고 도적고양이처럼 야밤삼경에 운봉

도사를 찾아가 소청을 드리긴 하였으나 만약의 경우도 많이 생각해진 그였다. 드디어 그 만약의 경우가 도래한셈이다. 마지막판가리이니 술개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정승에게 차려진 통상을 강압적으로 빼앗아야 한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차폐차폐 무르익어갔다.

우선 박정승이 군사를 일으켜 최정승을 들이치게 해야 한다. 심술사나운 박정승이 통상을 빼앗기고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그 성미에 틀림없이 굵주린 승냥이처럼 최정승한테 달려들것이다. 둘이 맥이진할 때까지 서로 먹줄을 물고 싸우면서 힘을 깡그리 빼게 한 다음 술개국의 원병을 불러 동시에 둘을 먹어치워야 한다.

그러자면 박정승이 신속히 손을 쓰도록 영치를 쭈셔놓아야 한다. 필경 박정승은 당장이라도 최정승을 들이치고싶을테지만 병졸들의 머리수때문에 골머리를 앓을것이다. 병서에 이르기를 공격을 하자면 적어도 병력수가 상대방의 곱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궁성안에 있는 박정승의 군사와 최정승의 군사는 머리수가 어슷비슷하다. 지방에 있는 군사까지 불러오면 병력수에서 박정승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나 그 군사들은 유주성에서 백마국군사와 싸우고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내 수하의 군사를 박정승한테 넘겨줄것인가?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우리 서남당의 군사를 넘겨주면 박정승이 오늘 밤이라도 최정승에게 달려들건 분명하지만 술개국의 원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조건에서 지금 당장 수하의 군사를 깡그리 내주면 나와 우리 서남당을 지킬수 없다.

다른 방도는 없을까?

그는 흔들거리는 교자에 몸을 맡기고 계속 생각을 굴리었다. 한순간 묘한 생각이 떠올라 무릎을 철썩 쳤다.

바로 그거다. 박정승한테 군사를 넘겨주겠다고 빈약속을 하자. 아니, 박정승이 최정승을 치면 호응하겠다고 하자. 그럼 박정승은 나를 믿고 틀림없이 군사를 일으킬것이다. 이게 제일 좋은 수다. 이제책에서 중요한것은 박정승이 나를 철석같이 믿게 하는것이다. 그건 어려울게 없다. 서로 사돈간이여서 사돈이 왕위에 오르길 바란

다고 하면 터럭만큼도 의심을 하지 않을것이다. 그렇다. 당장 박정승한테 레장을 보내자.

그는 집에 당도하기 바쁘게 아들 담동을 불렀다.

《내 지금 박대감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방금전에 그곳에서 운봉도사가 최정승을 왕위계승자로 점지했다.》

그의 짐작대로 담동의 얼굴에 대뜸 어두운 그늘이 비꼈다. 아들의 그 심정이 리해된다. 애비가 왕위에 오르길 바라서 박정승의 못난 딸 월단이와의 혼사까지 혼연히 받아들였던 아들이 아닌가. 저 애를 위해서라도 기어이, 기어이 룡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는 부러 힘을 주어가며 신심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고 락심까지 할건 없다. 도사가 아니라 도사의 하내비가 점지해주었다 하더라도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따로 있느니라. 넌 그저 아비가 시키는대로만 해라.》

《무슨 분부이든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담동의 얼굴에 비장한 각오가 어렸다. 비록 아들이지만 어려울 때 자기를 알아주고 리해해주니 고맙고 대견하고 기특하였다.

《오늘 당장 준비해서 래일중으로 박정승의 집에 레장을 보내거라. 그럼 차후일은 아비가 다 처리하겠다.》

담동이 잠시 주땃거렸다.

《오늘중으로 어떻게 그 많은 레장을 다 준비하겠소이까?》

《요즘세월에는 돈만 많이 주면 무엇이든 다 구할수 있느니라. 내가 어머니한테 이르겠으니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간 돈을 이런 때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느냐.》

《알겠소이다.》

담동은 두말하지 않고 즉시 물러갔다.

이어 문정승은 하인을 시켜 허장사를 불러오게 하였다.

《대감님, 분부대로 대령하였소이다.》

허장사가 방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바위처럼 우람차서 바위처럼 든든하고 믿음직한 허장사다.

《내가 이제 밀서를 주겠으니 즉시 술개국으로 떠나거라. 네가 언제 돌아오는가에 따라 이번일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이어 그는 오늘의 일을 예견하여 술개국황제앞으로 미리 써놓았던 밀서를 허장사에게 주고 대문밖까지 따라나가 배웅하였다.

《천만번 조심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허장사는 말에 올라 박차를 가하며 살처럼 내달렸다. 문정승은 허장사까지 떠나보내고서야 한결 마음을 놓았다.

다음날 이른새벽 문정승은 침실문밖에서 울리는 우두머리하인의 목소리에 잠을 깨었다.

《대감님, 박정승택에서 사람이 찾아왔소이다.》

눈을 비비며 창문을 바라보니 창호지가 희읍스름한게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다. 무슨 일이기에 박정승이 새벽부터 사람을 보냈을까?

《어서 들여보내라.》

우두머리하인에게 분부를 내리고 침방하녀를 불러 잠자리주변에 빙 둘러쳐던 병풍을 걷게 하였다.

잠시후 우두머리하인의 안내를 받으며 이마우의 사마귀가 유표한 박정승의 심복 안사인이 들어섰다.

《대감님, 쉬시는데 방해를 해서 정말 황공하오이다.》

안사인이 절을 하며 례를 차렸다.

《무슨 일이 생겼기에 박정승이 이른새벽부터 자넬 보냈나?》

《박대감이 보낸게 아니라 소인이 스스로 찾아왔나이다.》

그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안사인의 눈이 기름 도적해먹은 개눈처럼 헤번쩍인다. 왜서인지 불안감이 찾아들었으나 내색을 하지 않고 태연한 태도를 취했다.

《무슨 일이기에 찾아왔는고?》

그의 물음에 안사인은 대답대신 저고리앞섶을 끄르고 부스럭거리며 품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순간 눈이 쾅해진 문정승은 너무 놀라서 하마트면 비명을 지를번 하였다. 불안한 예감이 꼭 들어맞았다. 안사인이 꺼내든것은 어제 그가 허장사한테 준 밀서였다. 봉투와 봉인을 보니 틀림없이 그 밀서다.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리었다. 이 밀서가 어떻게 저놈의 손에 들어갔을까? 저놈의 손에 들어갔으면 틀림없이 박정승도 알고있을것이다. 박정승이 무슨 흥계를 꾸민게 분명하건만 아직은 알수 없어 수염을 뺏 씻으며 모르는죄를 하였다.

《그건 도대체 뭐가?》

안사인이 히죽이 웃으며 이마우의 사마귀를 슬슬 문다질렀다.

《대감님이 술개국황제한테 보낸 밀서이냐이다.》

《밀서라니? 난 그런걸 본적이 없네.》

그는 천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아닌보살을 하였다. 허나 안사인의 다음말에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대감님이 아무리 시치미를 떼시어도 지금 허장사가 박대감택 비밀 땅굴에 갇혀있으니 인차 토설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딜것이나이다.》

안사인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 밀서가 소인의 손에 있으니 마음을 놓으셔도 되오이다. 설사 허장사가 자초지종을 토설한다 해도 박대감의 손에 물증이 없으니 대감님께서서는 모른다고 우기시면 되나이다.》

이건 또 무슨 도깨비감투끈인가? 그는 안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그 눈길의 의미를 알고 안사인이 대답했다.

《대감님께서 소인을 믿지 못하실것이라는걸 모르는바가 아니오이다. 허지만 소인을 믿으시오이다.》

허나 문정승은 계속 고개를 기웃거렸다.

《내가 널 어떻게 믿으라는거냐?》

안사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으로 바짝 나앉았다.

《대감님께서 모르시고계시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나이다. 어제 최정승을 왕위계승자로 점지한 운봉도사는 가짜였나이다.》

《뭐라구?》

안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점점 더 놀랍고 기막힌 소리라 아연함을 감추지 않았다. 안사인은 자기가 어떻게 되어 민천산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후 가짜도사로 혼란을 준 과정과 어제 박정승이 민천산에게 한 행푼이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려주었다.

문정승은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박정승 이놈, 시퍼런 하늘이 내려다보는 대낮에 감히 그런 흉계까지 꾸며. 똘, 더럽다!

운봉도사가 가짜도사라니 몇십년 묵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개운하다. 그러니 최정승은 합법적인 왕위계승자가 아니다. 암, 그렇구 말구. 공평한 하늘이 있는데 일이 그렇게 될수 있겠는가. 비록 왕실과 먼 혈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실의 피를 이은 이 문정승이 바로 당당한 왕위계승자다.

그는 한결 마음이 개운해졌으나 여전히 미타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자기의 심중을 로골적으로 내비치였다.

《그런데 지금껏 박정승을 섬기다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안사인은 비장한 표정을 띄우며 대답했다.

《소인은 결코 저자거리의 장사아치들처럼 리속을 바라며 바람따라 돛을 다는 속물이 아니오이다. 아직 나라를 위해 이렇다하게 한 일도 없고 또 똑똑한 벼슬자리도 없사오나 한생 송도국의 충실한 신하로 살고저 하는것이 소인의 뜻이나이다. 소인은 통상에 눈이 벌개서 가짜도사를 만들어낸 박정승도 그리고 가짜도사가 왕으로 점지해준 최정승도 송도국의 참된 국왕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나이다. 명실공히 송도국의 진짜국왕이 되실분은 왕실가문의 혈통을 이으신 대감님뿐이나이다. 그래서 진짜국왕을 받드는 진짜충신이 되고저 이 길을 택했나이다.》

안사인의 말재간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귀맛좋은 칭찬에 문정승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분명 안사인은 모진 놈옆에 있으면 벼락을 맞는다는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랐을것이다. 하긴 박정승같은 놈한테 붙어있다가는 그놈이 맞는 천벌을 함께 당하지.

문정승은 지금껏 자신을 덕있는 사람으로 자부해왔는데 이 시각 그 자부가 과신에 가깝게 찾아들었다. 하늘이 나를 돕는다. 그렇지 않으면 안사인같은 총명한 인재가 위급한 고비에 제발로 찾아들겠는가. 인재를 얻는자는 흥하고 인재를 잃는자는 망한다 하였거늘 아, 하늘이시여 정말 고맙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늘을 향해 큰 절을 드렸다.

안사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청을 올렸다.

《소인도 술개국과 화친을 맺으시려는 대감님의 뜻이 지금의 형편에서는 제일 좋은 방도라고 생각하나다. 지금 허장사가 붙잡혔으니 소인을 술개국에 밀사로 보내주시오이다. 대감님께서 믿어주시면 그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소이다.》

술개국에 다시 밀사를 파견하려 해도 맞춤형 놈이 없었는데 안사인이 스스로 청하니 흠족해서 절로 입이 벅글서해졌다. 안사인의 총명이면 밀사노릇을 얼마든지 감당할수 있었다.

《난 그대를 믿는다. 그대도 알다싶이 지금은 시간이 긴박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짜왕인 최정승이 즉위식을 하기 전에 술개국의 군사가 당도해야 송도국의 룡상을 지켜낼수 있다. 이번 중임만 실수 없이 수행하면 난 그대를 정승으로 임명하겠다.》

안사인은 연방 머리를 조아렸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소인은 대감님의 믿음에 죽기로써 보답하겠나이다.》

문정승은 만족한 눈길로 안사인을 굽어보며 몇오리밖에 안되는 염소수염을 몇번이고 흐뭇하게 내리쓸었다.

34

민천산은 별당에 갇힌 어제 오전부터 이 시각까지 밥은커녕 물 한 모금조차 얻어먹지 못했다. 위가 쓰러나다못해 배가죽이 등에 가서 찔씩 달라붙은건 둘째치고 찌물쿠는 복골이라 목이 타는듯 한 갈증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가 살아있는지 궁금해서라도 별당안을 들여다보겠건만 기웃거리는 기척조차 없다. 끼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오던 하녀들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박정승이 아예 나를 굶겨죽일 잡도리를 하는구나. 아이쿠, 내가 머저리지, 머저리야.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신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

박정승이 주겠다면 원님벼슬에 만족했으면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었을것이다. 아마 지금쯤은 임명장을 받아쥐고 부임지로 떠났을 지도 모른다. 모든게 다 그 얄미운 최정승때문이다. 그놈이 판서벼슬을 준다고 유혹만 하지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것이다.

생각할수록 최정승의 족제비상판을 손톱으로 갈기갈기 할키고싶다. 그놈한테 턱없이 곤장을 맞은것만도 분한데 이번에는 아예 자기를 죽을 고비에 떠밀어넣었다. 그 심보사나운 놈의 말을 곧이 들은 내가 머저리지. 곤장을 안긴 놈한테서 벼슬을 바랐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박복한 놈 무대기복이 태우면 복에 치여 죽는다더니 꼭 지금의 자기를 두고 한 말 같다. 비록 며칠동안이긴 하지만 그는 난생처음으로 호의호식을 해보았다. 배잡뱅이도 없어서 헐헐하던 몸에 비단옷을 걸치고 하루세끼 풀죽만 들어가던 배에 기름진 음식이 들어갔으며 일생을 바쳐서도 얻지 못한 벼슬이 말 한마디로 차례질 번 하였다.

그렇다. 그것으로 만족했어야 하였다. 허나 말타면 견마잡히고싶다고 박복한 인생에 차례진 원님벼슬을 과남하게 생각지 않고 분수에 없는 판서벼슬을 넘보니 운명의 신이 벌칙 화를 내었다.

그는 자기 몸을 뱀처럼 칭칭 감은 오라를 서글픈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박정승은 그를 별당안에 가두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지 오라를 지우고 소리를 치지 못하게 형겁으로 자갈까지 물려놓았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꼭 묶이여 내쳐 말뚝처럼 있자니 온몸이 쭈서난다. 그러나 그건 참을수 있다. 참기 어려운것은 자갈을 물려놓아서 숨이 막히는것이다. 막 미칠것만 같다.

말 한마디를 잘못 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박대하다니. 레의도 모르고 인정도 없는 저런 놈이 정승노릇을 하니 나라꼴이 이 모양일수밖에 없다. 최정승도 그래, 박정승도 그래 정승이란 놈들은 하나같이 악착한 놈들이다. 그런 악한들한테 기대를 걸었던 내가 머저리다.

돌이켜볼수록 이번 궁성행은 하지 말았어야 할 걸음이었다. 량반 유생들한테 당한 수모를 참지 못해 고향땅을 떠난것이 잘못이었다. 아니, 잘못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다. 무법천지인 이놈의 세상에서 알량한 벼슬을 바란것 자체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는 지금껏 30여년세월 부지런히 과거시험을 쳤지만 왜 벼슬 한 자리 얻지 못했는지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되었다. 통상을 놓고 다루는 세 정승의 꼴이 보여주는것처럼 지금의 세월에서는 벼슬을 하자면 사기와 협잡, 처세술에 뛰어나야만 한다. 일국의 정승이라는자들이 이 모양이니 그밑의 관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망한 놈의 세상이야!

그렇다. 망한 세상이다. 백마국이 지경안에 쳐들어왔는데 정승이라는자들이 외적을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고 통상에 눈이 벌개 당과 싸움만 일삼으니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것이라는건 불보듯 명백하였다.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송도국이 송두리채 망할것이다.

백마국의 군사가 궁성에 들이닥쳐 죽이고 불사르고 빼앗는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기가 막혔다. 그때면 내 일생의 꿈인 벼슬을 줄 나라도 없어질것이 아닌가. 아, 송도국도 불쌍하고 이 민천산이도 불쌍쿠나!

그가 후회와 자책, 서글픔속에 통탄하고있는데 별안간 문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도사님이 어딜 갔노?》

목소리를 들으니 박정승의 아버지 박첨량이다. 반가와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으나 형걸을 물린 입이라 짐승의 울음소리같은 피이한 소리가 나간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

박첨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는 귀가 어두운 박첨량이 들을수 있게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자기가 듣기에도 형걸짚으로 새어나가는 소리가 처음보다 큰것 같았다. 몸부림을 치며 계속 애라게 소리를 질렀다.

저 령감이 내가 지르는 고향소리를 듣지 못하고 돌아가면 끝장이야. 령감님, 제발 귀를 좀 강구어주사이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박첨량이 마침내 그의 고향소리를 알아들었다.

《에쿠! 분명 안에 사람이 있군. 그런데 왜 문에다 빗장을 질렀노?》

빗장을 여는지 문쪽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박첨량이 고개를 기웃하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너무 기쁘고 반가와 눈물이 콧속구쳤다.

《로인장, 나웨다. 좀 살려주사이다.》

그는 박첨량이 자기를 알아볼수 있게 하느라고 결박당한 몸을 벌레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꿈지럭대며 소리쳤다. 허나 이번에도 입에서 새어나가는 소리는 괴상한 신음소리뿐이다.

드디어 박첨량이 그를 알아보고 황황히 달려왔다.

《아니, 도사님, 이게 어찌된 일이지우?》

민천산은 자라처럼 목을 쭉 빼들고 머리를 흔들며 허리를 뿔아달라고 안타깝게 시늉했다. 박첨량이 그의 시늉을 알아차리고 입에 한가득 물었던 허리를 쭉 뿔어주었다. 순간 후— 하고 막혔던 숨길이 활짝 열리며 해청도 산골의 청신한 아침공기를 마실 때처럼 금시 가슴이 시원해진다.

《도사님, 대체 무슨 일이지우?》

박첨량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다시 물었다.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니 이 령감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하긴 박정승이 의가 나쁜 아버지한테 자기 신상의 이야기를 일일이 알려줄리 만무하다.

민천산은 재빨리 생각을 굴리었다.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구나. 분명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여 이 령감을 구원의 바줄로 내려보내주시었다. 그러니 이 마지막바줄을 놓쳐선 안된다.

그는 걱정어린 눈길로 문어구를 바라보며 다급히 말했다.

《사연은 천천히 말할테니 먼저 이걸 좀 풀어주시우다.》

《알겠수다.》

홍무관이 얼마나 쫄쫄 동여매놓았는지 결박을 푸느라 박첨량은 끙끙거리며 한참이나 신고하였다. 그동안 민천산은 박첨량에게 할말을 생각하였다.

바줄을 푼 박첨량이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씻으며 물었다.

《헌데 대체 무슨 일이지?》

민천산은 박첨량의 동정을 자아내려고 감정까지 잡아가며 자못 서글픈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세상에 이런 고약한짓이 어데 있겠소이까? 최정승이 도술을 배워달라고 하길래 속세의 사람들은 도술을 배우면 안된다고 했더니 부하놈들을 보내어 이런짓을 했소이다.》

박첨량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지 혀를 쫓쫓 찼다.

《그놈은 원체 그렇게 못된 놈이웨다. 글 한자를 배워줘도 일생스승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도술을 배우겠다는 놈이 도사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내 우리 아들놈도 욕질은 하지만 그놈은 우리 아들놈보다 더한 놈이우다.》

자기가 당한 일처럼 거품을 물고 최정승을 욕질하던 박첨량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문득 말을 멈추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도사님, 이걸 내 옷인데요?》

민천산은 그제서야 자기가 입고있는 옷에 눈길을 돌렸다. 도사노릇을 할 때 입으라고 박정승이 어제 아침에 안사인을 시켜 보내온 옷이다.

《이게 로인장의 옷이웨까. 난 박대감이 입으라고 해서 입었소이다.》

《후레자식같은 놈! 옷이 없어서 도사님한테 이런 옷을 입혔노. 도사님, 사실 이 옷은 내가 조상들을 만나러갈 때 입자고 장만해놓은 수의이나이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짹 끼치고 이들이 기여다니기라도 한것처럼 여기저기가 서물서물하다. 튀! 그러니 이 옷에 죽을 귀신이 붙어있었구나.

민천산은 서둘러 베도포를 벗어던지고 방에 벗어놓았던 자기의 옷을 찾아입었다.

박첨량이 그가 옷을 다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

《도사님,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건 전번에 한 약속대로 내 묘자리를 좀 봐달라고 해서우다.》

민천산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겠는가 하고
골머리를 앓던차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도 로인장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있었나이다. 그럼 내 이
제 당장 가보겠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어서 같이 가시오이다.》

박첨량은 그의 속내도 모르고 제 먼저 앞장선다.

이거 난사인걸. 비칠거리며 걸음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이 령감
을 달고가면 담밖을 나서보지도 못하고 다시 붙들리고말텐데. 그는
서둘러 박첨량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나 혼자 갔다오겠으니 로인장은 여기서 날 기다리시우다.》

그의 말에 박첨량은 눈이 쾅해서 바라보았다.

《내가 고른 장소를 도사님은 모르시겠는데...》

《백년동안 도를 닦은 내가 로인장이 어디에 묘자리를 골랐는가
하는걸 모르겠소이까. 내 제격 가서 보고 그 자리가 합당치 않으면
더 좋은 자리를 고르겠으니 그다음에 함께 가서 보시오이다.》

《도사님, 이거 정말 고맙소이다. 나때문에 괜한 수고를 하시
니...》

《별말씀을 하시오이다. 도술을 쓰는 나한테는 산발을 타는게 식
은죽 먹기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이다. 그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길 떠나지 말고 편히 앉아서 꼭 기다리시오이다.》

민천산은 박첨량에게 별당을 떠나지 말라고 재삼 당부한 다음 밖
으로 나와 문에 조심히 빗장을 질렀다. 령감님, 미안하우다. 하지
만 내가 그 집 아들한테서 받은 대접에 비하면 신선놀음이니 날 원
망하지 마시우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발자국소리까지 죽여가며 도적고양
이걸음으로 후원을 지나 뒤담장에 이르렀다. 앞문에도 뒤문에도 파
수군들이 있으니 도망치자면 담을 넘는 수밖에 없었다. 허나 정작
담을 마주하니 두길이나 되는 높이어서 그의 재간으로는 어렵도 없
었다.

아이쿠! 이거 야단났구나. 속이 상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선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저만치에서 부스럭소리가 났다.

날 잡으러 오는 놈들이구나. 이젠 꼼짝 못하고 영낙없이 죽었구나. 등골에 식은땀이 쭉 내뿜었다.

허나 소리나는쪽으로 눈길을 주던 그는 너무 기빠 막 환성을 지를 번 하였다. 커다란 누렁개 한마리가 두귀를 쫓깃거리며 긴장해서 그를 지켜보고 그옆 담장밑에 도랑과 이어진 개구멍이 웅하니 뚫려져 있다. 방금전에 난 소리는 누렁개가 개구멍을 지나며 낸 소리였다.

개를 쫓아버리고 서둘러 개구멍앞으로 다가갔다. 개처럼 네발걸음을 하면 얼마든지 몸이 빠져나갈것 같았다. 그는 옷이 더러워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금영금 배밀이로 개구멍을 지났다.

살았구나, 살았어!

그는 개구멍을 빠져나오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산천도망은 해도 팔자도망은 못한다더니 옛말 그르데 없다. 어떻게 해서든 벼슬자리를 따보려고 했으나 팔자에 없는 벼슬이라 팔자도망을 못했다. 허나 쉽게 죽을 팔자는 아니여서 지금 이렇게 산천도망은 한다.

살았다고 생각하니 몇끼씩이나 굶은 몸이라 배가 고팠다. 박정승네 집에서 먹던 진수성찬이 눈에 삼삼하였으나 인차 고개를 저었다.

민천산 이놈! 네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무당의 서방처럼 공것만 바라다가 염라대왕한테 머리를 잘라 바칠번 했는데도 또 공것을 생각하느냐! 그렇다. 공짜란 금시는 입에 달지만 후날에는 몸을 망치게 하는 독약이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걸 누가 원하지 않으련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것이 아니여서 애초에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어평너가 토장을 넣고 풀여주던 시래기국이 생각났다. 김이 문문 나는 국사발을 그려보느라니 코가 별름거리고 막 구수한 냄새가 안겨드는것만 같다.

그래, 남의것만 못해도 그저 제것이 제일이다. 어평너야, 네가 풀여주는 시래기국이 천하제일미다. 내 그 시래기국을 먹으러 인춤 가마.

민천산은 자기가 침을 뱉고 떠났던 정다운 고향 해청도를 향해 힘있게 발을 내짚었다.

《그게 적실하냐?》

홍무관의 말을 들은 박정승은 놀라서 종발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사실이오이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행적을 알수 없어서 안사인의 집에까지 찾아갔었는데 처자들도 어디로 갔는지 없었나이다. 노복들의 말이 오늘 아침 안사인이 집안의 귀중품을 모두 걸어가치고 나갔다 하오이다.》

홍무관이 그에게 안사인을 찾던 자세한 경위를 이야기하였다.

망할놈! 화김에 좀 성을 냈는데 사내라는 놈이 그게 무섭다고 요긴한 대목에 달아나다니. 박정승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홍무관이 그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대감님의 령대로 성밖에 진을 치고있던 우리 문객들이 어제 밤에 허장사를 붙들었나이다.》

《허장사라니? 문정승의 심복 말이냐?》

《그렇소이다. 허장사가 남문을 나와 어디론가 가려고 하기에 붙들었다고 하오이다. 그놈이 얼마나 힘쟁이인지 난다킨다하던 문객들이 네명씩이나 죽으면서 겨우 붙잡았다고 하나이다.》

박정승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잉어를 바라며 던진 낚시에 송사리가 걸려든다더니 기껏 쳐놓은 그물에 최정승의 심복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문정승의 부하가 뛰어들었다. 비록 예상밖의 수확이긴 하지만 허장사가 문객들까지 죽이며 달아나려 했다니 어딘가 수상쩍다.

《그놈이 어디로 가됐다더냐?》

그의 물음에 홍무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소이다. 지금 비밀땅굴에서 문초를 하고있는데 얼마나 질긴 놈인지 아직까지 토설을 안했소이다. 그놈을 붙잡았을 때 품안에

무슨 문서가 있었다고 하오이다.》

박정승은 흠칫 놀랐다. 문서라니? 지금같은 때에 문서까지 가지고 길을 떠났다니 한층더 의심이 간다.

《그 문서가 어디 있느냐?》

왜서인지 홍무관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문객들이 허장사한테서 빼앗은 문서를 안사인에게 바쳤는데 안사인이 그 문서까지 가지고 사라졌나이다.》

《뭐라구?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느냐?》

그는 성이 나서 주먹으로 방바닥을 탕 내리쳤다. 홍무관이 푸들쩍 놀라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급급히 변명했다.

《안사인을 찾은 다음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심상치 않은 일이다. 허장사가 문서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면 분명 문정승이 시킨 노릇일것이다. 예상치 않았던 문정승쪽에서 까닭없이 불씨가 튀니 깨름직하다. 허장사가 그 문서를 죽기로써 지키려 하였다니 틀림없이 우리 동남당이 알면 안되는 비밀문서이다. 더구나 안사인이 그 문서를 손에 쥐자마자 사라지지 않았는가. 내가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 문서와 안사인을 괜히 억지로 련결시키는 게 아닐가. 어쨌든 안사인의 행처와 그 문서의 내막을 알아내기 전에는 깨름한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다.

홍무관이 그의 심기를 눅갯히려고 애를 썼다.

《대감님, 너무 걱정마십시오. 꼭 안사인을 찾아내서 문서를 되찾고 대감님의 은총을 저버린 그 개같은 놈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박정승은 쓰겁게 입을 다시며 코바람을 내불었다. 안사인은 개대접도 못받을 놈이다.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고 했는데 지금껏 먹여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주인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놈을 어찌 개값에 치겠는가.

《그놈은 개보다도 못한 놈이다.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이니라. 내가 그놈의 속을 일찍 알지 못한게 한스러울뿐이다. 그깟놈은 내버려두고 빨리 허장사의 토설을

받아내라. 토설만 받아내면 모든게 일목요연해질게다.》

《알겠소이다.》

홍무관이 대답을 하고나서 절을 하며 물러가려고 하는것을 손짓으로 저지시켰다. 그리고는 신중한 기색으로 조용히 물었다.

《문객들중에 자객노릇을 할만 한 놈이 없느냐?》

뜻밖의 물음인지 홍무관은 어리벙벙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홍무관의 그 눈길에 미묘한 웃음으로 대답하였다.

《한놈이 있긴 있소이다. 거마리라는 별명을 가진 놈인데 비수를 귀신같이 쓰나이다. 천성적으로 피비린내를 좋아하는 놈이어서 일단 비수를 손에 들면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나이다.》

《그 별명이 마음에 든다. 그놈을 나한테 데려오라.》

잠시후 홍무관이 거마리라고 불리우는 문객을 데리고왔다. 문객은 척 보기에다 날렵하게 생겼다.

박정승은 위엄을 차리며 물었다.

《네 비수 쓰는 재간이 뛰어나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의 물음에 문객은 허리를 굽석이며 아침기가 진하게 흐르는 얼굴표정과 목소리로 아뢰었다.

《다른 재간은 신통치 못하오나 비수 쓰는 재간은 소인을 당할자가 세상에 없는줄로 아나이다.》

쫄꼬마한 놈이 흰소리는 젠장! 여느때 같으면 버릇을 가르쳐주었겠건만 지금은 그 용기가 마음에 든다. 이놈처럼 자고자대하는 놈들은 추어주면 죽을등살등 모르는 법이다. 그는 부러 소리까지 내며 꺾꺾 웃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어디 한번 네 재간을 보자. 네 재간이 신통하면 상으로 네가 원하는 벼슬자리를 주겠다.》

문객은 황송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감님, 무슨 분부이든 내리시기만 하시오이다. 소인의 비수로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소이다.》

박정승은 손짓으로 문객을 가까이 불렀다. 문객이 주인의 칭찬을 바라는 삼살개처럼 네발걸음으로 앞에 다가왔다.

《오늘밤중으로 최정승의 목을 따와라. 최정승의 목만 따오면 너

를 어모장군으로 봉하겠다.》

이것은 박정승이 어제 밤부터 생각해온것이였다. 군사를 일으키자니 궁성안에 있는 자기의 병력과 최정승의 병력이 어슷비슷해서 싸움이 치렬할수 있었다. 물론 승패는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전장에서 한생을 보내온 자기를 글뒤주인 최정승이 어이 당해내겠는가.

허나 걱정스러운건 민심이 소란해질수 있다는것이다. 교활한 최정승이 부하놈들을 시켜 그 즉시로 소문을 내는통에 《도사가 최정승을 국왕으로 점지했다.》는 소문이 지금 온 궁성바닥에 짹 퍼졌다. 민천산이 가짜도사인줄 모르는 백성들은 그 말을 곧이 듣고 최정승이 왕이 되는줄로 알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역적루명을 벗지 못하며 설사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흉흉한 민심을 복종시킬수 없다. 그러니 자객을 보내 최정승을 조용히 없애버리는게 상책이다.

문객은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대감님의 령을 삼가 받들겠나이다.》

박정승은 만족한 눈길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오늘 밤 거사가 성공할수 있게 너한테 날랜 놈들을 붙여주겠다. 몇명이 필요한지 말해라. 네가 요구하는것만큼 주겠다.》

문객은 고개를 살피살피 저으며 히죽이 웃었다.

《아퇴웁기 황송하오나 도움은 필요없소이다. 자객질의 기본이 최대의 은밀성이니 한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오이다. 소인이 혼자서 감당하겠사오니 소인의 청만 들어주시오이다.》

허, 정말 도담한 놈인걸. 괜찮아.

《무슨 청이든 다 들어주겠으니 어서 말해라.》

《거사를 하기 전에 제물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나이다.》

《제물이라니?》

《소인은 피범새를 말아야 비수를 쥐는 이 손이 실수를 안하오이다. 제물을 잡아 피범새도 말고 신에게 제물을 바쳐 거사의 성공을 빌겠소이다.》

피를 즐기는 거마리라더니 생각하는 품도 거마리속성이다. 정승부에 없는것이 없는데 희생물을 달라는 그간 청이야 왜 못들어줄고.

《알겠다. 말이면 말,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네 마음에 드는걸 잡을만치 잡아라.》

문객의 칭을 혼연히 수락하던 그는 한가지 생각이 머리를 피긋스치고 지나갔다.

《사람의 피면 더 좋지 않느냐?》

그의 말에 문객의 눈이 금시 생기를 뿜었다.

《그야 더 이룰나위 있겠소이까. 허나 어디서...》

《제물로 바칠 놈이 하나 있다.》

박정승은 민천산을 녀두에 두고 제껴 대답했다.

민천산때문에 눈을 편히 뜨고 통상을 떼운걸 생각하면 꿈속에서도 이가 갈린다. 그렇지 않아도 후날의 뒤흘한 소문을 막기 위해 조용히 없애치울 생각이었으나 큰일을 앞두고 재수없는 놈의 피를 묻히는게 꺼려서 그냥 내쳐두고있었다. 이번 거사는 그놈이 죽을 쓰는통에 벌려놓는 일이니 그놈을 제물로 쓰면 더 효험이 있을것이다. 그야말로 꺾먹고 알먹고 등지털어 불때는 격이다.

《후원 별당에 죽여도 씨원치 않을 놈이 하나 있다. 그놈을 잡아서 제물로 쓰거라. 그런데 죽이기 전에 내앞에 데려오라. 그놈이 저승에 가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게 왜 죽이는지 알려주고 행플이도 좀 해야겠다.》

《알겠소이다.》

얼마후 문객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서 메고온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대감님, 데려왔소이다.》

비록 자루안에 들어가있어서 얼굴은 볼수 없으나 자기에게 골탕을 먹인 민천산의 흉물스러운 모습을 그려보니 다시금 분이 왈각 치밀어올랐다.

박정승은 있는 힘을 다해 억센 발로 자루를 걷어찼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것 같았다.

《이 망할놈의 두상! 내 손에 네놈의 더러운 피를 묻히지는 않겠다만 오늘로 네놈의 목숨이 끝장인줄 알아라.》

자루안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그런데 왜서인지 그 신음소리가 너

무도 귀에 익었다. 이상한 예감과 불안감이 찾아들었다. 자세히 보니 자루속에 든 사람이 민천산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것 같다.

박정승은 고개를 돌려 문객에게 눈길을 주었다.

《자루안에 있는게 별당에 있던 두상이 옳으냐?》

《옳소이다. 정신없이 자고있는걸 자루에 잡아넣었소이다.》

확인을 했으나 이상한 예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문객을 시켜 자루를 풀게 하였다. 자루가 풀리고 아구리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박정승은 저도 모르게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민천산이 아니라 아버지 박침량이였다.

아버지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한동안 두눈만 데룩데룩하다가 자루에서 엉금엉금 기여나와 덮어놓고 그의 귀뺨을 갈긴다.

《이 후례자식같은 놈! 에미 배속에 있을 때부터 주먹질이더니 나중엔 제 애비까지 죽이려들어?》

박정승은 벌개진 뺨을 싸쥐고 얼이 나가서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급히 물었다.

《도사는 어디 가고 아버님이 이 안에 들어가셨나이까?》

아버지는 성이 나서 씩씩거리며 그에게 그냥 욕질을 해댔다.

《이놈! 네놈이 부하놈을 시켜 나를 자루안에 넣고도 도리어 나한테 왜 자루안에 들어갔는가고 묻느냐. 아무렴 내가 로망을 했다고 스스로 자루안에 들어갔겠느냐. 네놈이 도사가 내 묘자릴 보러 간줄 알고 날 빨리 죽이자고 작정을 했구나. 이놈아, 내 아무리 빨리 죽기로 결심을 했어도 네놈 손에는 안 죽을테다. 이 후례자식같은놈!》

박정승은 아버지의 욕을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보냈지만 도사가 묘자리를 보러 갔다는 말만은 놓치지 않고 들었다.

아이쿠! 그놈이 달아났구나.

무슨 생각이 들어서 자객더러 민천산을 예까지 데려오라고 했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러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지금쯤 저세상으로 갔을것이고 자기는 아버를 죽인 죄아들놈으로 세상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것이다.

아버지의 입에서 후례자식소리가 연방 터져나왔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데 가있었다. 민천산이 달아나고 아버지가 그놈 대신에 죽을번

했으니 불길한 징조다. 왜서인지 앞으로의 일이 순탄치 못하고 배배 꼬일것만 같은 예감이 지긋게 갈마들었다.

36

최정승은 국왕으로 점지된 기쁜 소식을 조상들에게 아뢰기 위하
온 가족을 거느리고 조상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갔다. 그는 기
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항상 조상들의 사당부터 먼저 찾
군 하였다.

남녀종들이 분주히 오가며 신주앞에 큰 제상을 놓고 그우에 향이
피어오르는 향로와 갖가지 제물을 정성껏 차려놓았다.

제가 시작되자 최정승은 의관을 바로하고 제상앞에 나아가 두손을
모아잡고 정중히 절을 하였다.

《조상들의 굽어보살핌이 있어 오늘 최씨가문의 이 자손이 송도국
의 왕으로 점지되었나이다. 자손들이 립신양명하고 최씨문호가 오
늘과 같은 영화를 입을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상들의 덕이나이다.
조상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삼가 제를 올리나니 앞으로도 최씨문호가
계속 찬란히 빛나도록 보살펴주시오이다.》

그의 뒤를 이어 가족들도 차례로 절을 올렸다.

제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유점상이 그에게 여쭙었다.

《대감님, 오늘의 경사를 축하하여 잔치를 크게 차리고 즐기는것
이 마땅한줄로 아오이다.》

그가 찬성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데 원래부터 속이 크지 못한
안해는 근심스러운 빛을 띠운다.

《별치 않게 차리자 해도 수천금을 써야겠는데...》

그는 안해의 공연한 걱정을 웃음으로 타일렸다.

《부인은 너무 걱정마오. 오늘같은 기쁜 날에 재물을 아껴 즐기
지 아니하면 오히려 뒤따르는 근심이 있을수 있소. 재물을 아끼여 자

식을 넘려함은 부모로서의 살뜰한 마음이긴 하지만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일천이랑의 전답을 자손에게 전함은 한가지 재주를 가르침만 못하고 수만금의 재물을 자손에게 전함은 한권의 책을 전함만 못하다〉 고 했소.》

돈과 재물을 모아두었다가 이런 때 쓰지 않으면 언제 쓰며 이런 경사를 축하하지 않으면 언제 잔치를 차리랴. 술이 강처럼 흐르고 고기를 산처럼 쌓는다 해도 아깝지 않다. 아까와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국고가 곧 내 금고이고 송도국의 모든것이 내 소유이다. 이 나라 땅에서 자라는 풀 한포기, 기여다니는 개미 한마리조차도 모두 내것이다.

최정승은 즉시 부하들을 불러 잔치준비를 일일이 시켰다. 글씨를 잘 쓰는 문객을 시켜 청첩장을 만들어 북서당의 관료들을 잔치에 청하게 하고 꼼꼼하고 찬찬한 두 문객을 택하여 잔치를 주관하는 비장으로 삼아 크고작은 범절을 한결같이 지키게 하였다.

저녁녘에 잔치가 시작되었다. 술향기와 갖가지 산해진미의 향기로운 냄새가 온 정승부에 진동하였다.

최정승은 관료들과 심복들, 문객들을 거느리고 본채에 차린 큰상에 앉았다. 안채에서는 안해가 관료들과 친척친우들의 부인들을 대접하고 바깥채들에서는 아들들이 친척들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지화자 지화자 지화지화 지화자...》

끔계 화장하고 푸른 치마와 빨간 저고리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릿다운 기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에게 술을 권한다. 심복들이 어디서 저렇게 많은 기생들을 끌어왔는지 궁성안의 기생이 모두 모인것 같다.

서로서로 권커니 작커니하며 취흥이 도도한 가운데 유겸상이 선참으로 앵무배에 장생주를 부어들고 최정승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두손으로 술잔을 받쳐올리었다.

《옛날 어느 한 임금이 즉위하였을 때 하늘의 선녀가 술을 올리면서 천세를 축수하여 그 임금은 만복을 누릴수 있었다 하옵니다. 소신도 그 본을 따서 오늘의 이 성대한 잔치를 기회로 한잔 장생주를

상감마마께 삼가 올리옵나니 변화한 강산도 백년이오나 이 술 한잔
잡수시고 만년장수하옵소서. 천세 천세 천천세!》

유검상의 환호에 호응하여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 북서당의 심복
들이 무릎을 꿇으며 천세삼창을 하였다.

《상감마마, 만년장수하시오이다. 천세 천세 천천세!》

최정승은 상감마마라는 부름에 흥이 도도해져 권하는 술을 단숨
에 쭉 들이켰다. 이어 다른 심복들도 유검상의 본을 따 줄을 지어
그에게 축하의 술을 올렸다. 그는 번마다 들리는 《상감마마》 소
리와 《천세!》 소리에 마음이 흥떠서 권하는 술을 하나도 사양하
지 않았다.

그의 옆에 앉아서 부채질을 살살 해주며 시중을 들던 금향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만류하였다.

《상감마마, 옥체를 돌보시오이다.》

최정승은 술에 풀려 게슴츠레해진 눈에 애뜻한 정을 실으며 금향
의 손목을 찾아 살살 쓰다듬었다.

《걱정말아라. 파인은 이깁 술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약속대
로 파인을 시침하는 첫 영광을 너에게 주고 널 귀비로 봉하겠다.》

그의 말에 금향은 얼굴을 살짝 붉혔다.

《상감마마, 남들이 듣는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부끄럽소이
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냐. 난… 아니 파인은 이제부터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본다. 오늘 밤 너의 방에 가겠으니 파인을 시침해라.》

최정승은 기고만장해서 모두가 듣게 고함을 질렀다.

허나 그 기고만장은 얼마 못 가서 술기운에 지고말았다. 심복들이
런이어 권하는 술에 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그는 유검상의 등에 업
혀 자기의 침방으로 실려갔으며 금향이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유검상이 세차게 흔들어깨워서야 간신히 눈을
떴다.

《상감마마, 일이 생겼소이다.》

그는 자리에 누운채 흐리멍텅한 눈길로 유검상의 고석배기얼굴
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지 유검상은 당황한 얼굴로 어쩔바를 몰

라한다.

《아침부터 왜 그러느냐?》

《둘째마님이 그만...》

유검상은 얼굴이 킁킁해서 말을 끝맺지 못했다.

《금향이 어찌되었다는거냐?》

《둘째마님이 죽었소이다.》

뭐라구? 금향이 죽다니? 정신이 버쩍 들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자기곁에 앉아 고운 얼굴에 교태를 담고 술시중을 들던 금향이 왜 죽는단 말인가.

《그게... 사... 사실이냐?》

《사실이나이다. 어제 밤에 누군가가 비수로 마님의 목을 잘랐소이다.》

심장이 덜컥 멎는것만 같다. 어느놈이 죽였을가? 시앗싸움인가? 아니, 시앗싸움은 아니다. 그는 안해를 잘 안다. 비록 사내처럼 드세차긴 하지만 모질지도 못하며 더구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악하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놈의 소행인가?

《가보자!》

최정승은 잠옷바람으로 침방을 나섰다. 유검상이 뒤를 따라왔다.

금향의 방 문앞에 안해와 하녀들이 겁질린 표정으로 서있다. 망할년들! 무슨 구경거리라고 모여있어. 성이 나서 먼발치에서부터 고함을 질렀다.

《다들 썩 헤어지지 못하고!》

그의 고함소리에 하녀들은 꿈지가 뺏뺏해서 달아나고 안해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문앞에 이르니 피비린내가 확 풍겼다. 정말 죽었구나. 금향의 방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기연가미연가 하였는데 피비린내가 사실임을 증명해주었다.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했는지 금향은 이불우에 누워있고 주변이 온통 피로 질백하다. 죽을 때 못내 고통스러웠는지 곱던 얼굴이 무섭게 이지러졌다.

그는 처참한 광경을 보기가 끔찍해 눈을 감고 돌아섰다.

어느놈일까? 왜 죽였을까?

런이여 떠오르는 의문을 놓고 생각에 잠겼던 그는 한순간 소름이

오싹 끼치며 가슴이 싸늘해났다. 그렇다. 살인자는 금향이를 노린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노렸다. 금향이 같은 한갓 아녀자를 죽이겠다고 정승부의 소슬히 높은 담장을 뛰어넘으면서까지 모험을 할 우둔도깨비는 세상에 없다. 두말할것없이 나를 노린 자객질이다.

최정승의 눈앞으로는 박정승의 심술궂은 얼굴이 서서히 떠올랐다.

틀림없이 그놈의 소행이다. 왕위를 빼앗긴 분풀이로 날 죽이자는 거다. 아니, 왕위를 빼앗자는 거다. 그놈이 아니고는 왕위계승자로 점지된 나를, 미래의 왕을 죽이려고 덤벼들 미웁한 놈이 없다. 어리무리한 문정승은 감히 이런짓을 못한다.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밤에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금향의 방에 가지 않았길래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금향의 신세로 될번 하였다. 이상하다. 내가 어제 밤 금향의 방에 가려고 한걸 자객놈이 어떻게 알았을가?

어제 술좌석에서 자기가 금향이한테 희뻘게 웨쳐댄 말이 생각났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냐. 난... 아니, 파인은 이제부터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본다. 오늘 밤 너의 방에 가겠으니 파인을 시침해라.》

분명 누군가 이 말을 박정승에게 고해바쳤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박정승의 눈이 박혀있다는게 아닌가? 다시금 소름이 오싹 끼쳤다. 박정승의 여마리군이 도대체 누구일가? 그놈을 잡아내지 못하면 항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것이다. 허나 아무러한 단서도 없으니 당장 잡아내기는 곤난하다.

최정승은 대궐을 해청도로 옮기려던 초지를 더 굳게 다졌다. 박정승이 있는 한 궁성안은 물론이고 대궐도 위험하다. 이제 박정승이 어느 시각에 또 무슨 우둔한짓을 할지 모르며 자칫하다가는 왕위에 올라도 못 보고 지옥사자밥이 될수 있다. 당장 해청도로 궁궐을 옮기고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자.

해청도에 가면 우선 백마국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있어 좋고 둘째로 박정승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있어서 좋으며 셋째로 궁성과 대궐의 기반을 새로 다질수 있으니 좋다. 그의 몸가까이에 숨어있는 박

정승의 여마리군도 해청도에서는 서빨리 움직이지 못할것이다. 해청도에 가서 즉위식을 한 다음 인차 어지를 내려 박정승의 병권을 빼앗고 천천히 제거해버리자.

결심이 서자 그는 손짓으로 유겸상을 불렀다.

《장례는 후날 하기로 하고 금향이의 시신을 빨리 물어버리게 해라. 오늘 밤중으로 여길 떠나 해청도로 가야겠다.》

《?!》

유겸상은 영문을 몰라 눈알을 데룩거렸다.

《대궐을 해청도로 옮기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긴 불안하다.》

그제서야 유겸상은 말귀를 알아차리고 즉시 행동에 착수하였다.

최정승은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더 방안을 들여다보며 금향에게 눈길을 주었다. 정을 나눈 시일은 짧았지만 자기의 정을 깡그리 기울였던 녀인이다.

금향아, 내 해청도에 간 다음 너의 묘를 옮겨다 장례를 잘 지내주마. 그리고 사내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데 너의 원수를 기어이 갚아주마!

37

《뭐, 실패했다구? 망할 놈!》

박정승은 홍무관한테서 최정승을 죽이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오만상을 찌프렸다. 거마리라는 문객놈은 확실히 재수덩어리다. 민천산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박첨량을 메여오는가 하면 죽이라는 최정승은 못 죽이고 그놈의 소실을 죽였다.

《최정승을 못 죽였으면 그냥 돌아올게지 계집은 왜 죽였다더냐?》

《그놈은 일단 비수를 들면 피비린내를 맡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소인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소이까.》

입이 쓰거워났다. 차라리 그냥 돌아왔으면 다음번이라도 다시 기회를 노릴수 있으련만 계집을 죽였으니 교활한 최정승이 분명 눈치를 챘을것이다. 민천산이 도망쳤을 때부터 일이 꼬일것 같은 생각이 들더니 확실히 언제보나 자기의 예감이 정확하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 홍무관에게 무엇인가 더 할 말이 있는것 같은데 자기의 비위를 거슬릴가 저어하며 말을 못하는 모양이다. 박정승은 애써 레사로운 태도를 취하며 말을 돌렸다.

《다른 일은 더 없느냐?》

홍무관은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안사인의 행처를 알아냈소이다.》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문정승한테 가서 붙었다고 하오이다.》

저도 모르게 코바람이 나갔다. 안사인은 원래 눈치가 종자닭 잡아먹을 놈이라 이북아비 떡치는데는 가도 친아비 나무패는데는 안 갈 놈이다. 허나 국왕으로 점지된 최정승한테 갔다면 리해가 되겠건만 먹을알도 없는 어리숙한 문정승을 찾아갔다니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홍무관의 다음말이 더 기막히다.

《문정승은 안사인을 술개국황제한테 밀사로 파견하여 송도국왕의 인장을 받아오게 하였다고 하나이다. 아마 허장사한테서 빼앗았던 문서도 술개국황제한테 보내는 밀서였을것이나다.》

박정승은 너무 놀라서 눈을 휘둥그래 뜨고 입을 딱 벌렸다. 도저히 갈피를 잡을수 없게 머리가 멍해졌다.

그는 한참이나 얼빠진 사람처럼 천정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수 있단 말인가. 그럼 문정승이 지금껏 나를 속여왔단 말인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어서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게 적실한 소리냐?》

《문정승한테 박아넣은 저의 심복이 안사인을 직접 보았다고 하나이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내가 문정승 같은 허재비한테까지 속히울수는 없어. 그는 착잡한 생각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듯 머리를 세차

게 흔들며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당장 알아보지 않으면 한시도 못 견딜것 같았다.

《허장사가 아직 토설을 안했느냐?》

《예. 어찌나 지독한지 여적...》

홍무관은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변변히 대답도 못한다.

《그놈한테 가자. 내가 직접 문초하겠다.》

박정승은 홍무관을 데리고 즉시 뒤채로 향하였다. 뒤채에 비밀땅굴을 만들어놓은것은 정승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다. 파란만장의 벼슬세계에서 정승자리를 지키자니 치렬한 당쟁을 벌려야 하였고 적수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껏 수백명이나 되는 관료들과 벼슬아치족속들이 목숨이 붙어있는채로 이 비밀땅굴에 끌려들어갔지만 살아서 제발로 걸어 나온 놈은 단 한명도 없다.

뒤채에 있는 밀실에 들어서니 몸집이 우람차고 소도적처럼 생긴 심복이 허리를 굽적이며 절을 하였다. 밀실과 땅굴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심복이다. 붙잡혀온자를 땅굴이나 밀실에 가두고 감시하는 옥졸노릇도 하고 고문을 들이대는 형리노릇도 한다. 홍무관이 눈짓하자 심복은 누구도 밀실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안으로 문을 닫아 걸었다.

이어 심복이 벽장문을 열쇠로 열자 동굴마냥 시꺼먼 입을 썩 벌린 땅굴입구가 나졌다. 심복이 문옆에 놓여있는 화불에 불을 달았다. 화불이 활활 타오르며 땅속으로 향한 나무층계를 밝혔다.

《대감님, 조심하시오이다.》

화불을 든 심복이 앞장서서 층계를 내리고 박정승은 홍무관과 함께 그뒤를 따랐다.

어름이어서 한계단 한계단 층계를 내릴수록 곰팡내와 썩은 내가 섞인 습한 공기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좁은 통로를 지나니 넓다란 공간이 나졌다. 그 공간의 절반은 쇠살창으로 둘러막은 감방이고 다른 절반은 형틀과 형구들이 갖추어져 있는 고문장이다. 심복이 손에 든 화불로 고문장의 벽마다 걸어놓은 불뿔치에 불을 달자 즉시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지며 쇠살창너머 감

방안에 사슬로 묶여있는 허장사가 보였다.

그가 눈짓하자 홍무관은 심복에게 령을 내렸다.

《대감님께서 문초하시겠으니 저놈을 끌어내라.》

심복이 허장사를 끌어내어 형틀에 비끄러매놓자 홍무관은 그가 앉을수 있게 형틀앞에 의자를 가져다놓았다.

박정승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허장사에게 눈길을 주었다. 어찌나 얼어맞았는지 얼굴의 여기저기가 험상궂게 찌지고 꺼멓게 죽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찬찬히 뜯어보았으나 눈앞에 있는 이놈이 정말 허장사가 옳긴 옳은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 매를 맞아서 입고있는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으니 연약한 살은 더 말해 무엇하랴. 너털너털해진 옷처럼 몸도 너털너털하다. 매를 맞은 곳은 터져서 피가 꺼멓게 말라붙고 별로 지저댄 곳들은 뼈가 들여다보일것처럼 구멍이 숭숭하다.

박정승은 부러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하는척 하였다.

《미옥한 놈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허장사, 우리 애들이 너무 지나치게 대해준것 같은데 리해하게.》

허장사는 고개를 외로 돌리고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박정승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에 위협을 섞어갔다.

《허나 계속 뺨대면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할걸세. 내 미리 말해두는데 아직 이 땅굴에서 그냥 살아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네. 자네보다 힘이 몇갑절 더 센 천하장사들도 여기에선 무릎을 꿇지 않고 못 견디었지.》

그러나 허장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목대를 뺨뺨이 세웠다. 흥! 그래도 사내놈이라고 뼈대를 세우는데 네가 아직 이 박정승을 잘 모르는구나.

《여봐라! 이 허장사어른의 손톱을 좀 다듬어올려라.》

《예잇!》

심복이 집계를 찾아들고 허장사앞에 다가섰다. 허장사가 고리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노려보았으나 죄인들의 분노와 절규에 익숙될대로 익숙된 심복은 히죽이 웃으며 침착하게 제할바를 하였다.

《아!-》

심복이 집게로 손톱을 하나 뽑았는지 꼭 다물려있던 허장사의 입에서 모진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정승은 허장사가 듣게끔 심복에게 혼시를 하였다.

《너무 빨리 뽑지 말고 천천히 잡아당기며 뽑아라. 그래야 허장사 어른이 더 시원해서 더 크게 소리를 칠게다.》

《알았소이다.》

심복은 그가 시킨대로 단숨에 손톱을 뽑지 않고 집게에 물린 손톱을 천천히 당기었다. 그때마다 손톱이 살점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천을 찢는 소리처럼 으쓱하게 들려왔다.

《아!— 아!—》

허장사는 손톱을 뽑을 때마다 아픔을 견디기 힘든지 눈을 꼭 감고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사납게 몸부림쳤다. 허나 사슬로 든든히 결박당한 몸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고 사슬소리만 절거덕거렸다.

마침내 심복이 허장사의 솔뚜껑같은 손에서 손톱을 모조리 뽑아내었다.

박정승은 피로 물든 허장사의 두손을 건너다보며 다시 물었다.

《아직도 말을 안할테냐?》

허장사가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제 우리 문대감님께서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게다!》

《하하하. …》

박정승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땅굴이 떠나갈듯 큰소리로 웃어댔다.

《문정승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지. 그거 정말 듣기 좋구나. 문정승이 감히 나를 어쩔것 같으냐? 어리석은 놈! 네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제 발톱까지 뽑아버리겠으니 어디 더 견디어봐라. 너도 손톱을 뽑아버리면 물건을 칠 때마다 손끝이 아프고 저려서 손으로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발톱을 뽑아버리면 발끝이 아프고 저려서 걸어다니지 못한다는걸 알게다. 그렇게 될 네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라. 손발을 쓰지 못해서 벌레새끼처럼 기여다닐게다. 여봐라,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깎은 손톱을 좀 다스려 올리고 그다음 발톱까지 마저 뽑아라!》

심복이 듯바늘만 한 참대꼬챙이들을 찾아쥐고 손톱을 뽑은 자리마다 참대꼬챙이들을 하나씩 쿡쿡 박기 시작하였다.

《아!—》

허장사는 손톱을 뽑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며 상처입은 맹수처럼 울부짖었다.

박정승은 심복이 허장사의 오른손 다섯손가락에 참대꼬챙이를 다 박고 왼손에까지 박으려 할 때 손짓으로 잠간 멈춰세웠다.

《허장사, 계속 뵈대야 소용이 없어. 네가 문정승의 밀서를 가지고 술개국황제를 찾아가겠다는걸 내가 몰라서 이러는게 아니야. 너에게 귀한 목숨을 살릴 기회를 주자는거다.》

밀서이야기를 꺼내자 허장사의 눈에 순간적으로 절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을 놓치지 않고 계속 낭떠러지로 몰아세웠다.

《그래 네가 이 땅굴에서 비밀을 지키고 죽었다는걸 문정승이 알아줄것 같으나? 천만에, 문정승은 네가 여기에 갇혀있다는것도 모르고있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네가 토설을 안했다고는 믿지 않을게다. 공연히 개죽음을 당하지 말고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먹어라. 너도 알다싶이 난 인재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마음을 돌리면 내 너를 중히 써주겠다. 새도 나무가지를 보고 깃을 들이는데 섬길 주인이 없어서 문정승 같은 위인을 섬기는 네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궁지에 몰아넣고 부른 장훈이라 통장훈이었다. 허장사는 끝끝내 맥없이 고개를 푹 떨구었다.

《대감님, 다 말하겠으니 살려주시겠다는걸 약속하시오이다.》

《난 무관이야. 문정승 같은 서생처럼 한입으로 두말 할줄 몰라. 여봐라, 허장사를 풀어줘라!》

심복이 허장사의 몸에서 사슬을 벗기고 의자를 가져다주었다. 허장사는 의자우에 쓰러지다싶이 주저앉아 토설을 시작하였다.

《대감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소인은 문정승의 밀서를 가지고 술개국황제한테 가던 길이었소이다. 전번에 송도국의 옥새를 술개국황제한테 보내면서 이번에 새 옥새를 받기로 약조가 되어있었나이다.》

박정승은 너무도 억이 막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니 문정승 그놈

이 오래전부터 통상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있었다는것이 아닌가. 옥새가 없어진것도 그놈의짓인줄 모르고 괜히 최정승과만 다투었다.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니 모든게 새롭게 다시 안겨왔다.

확실히 자기의 예감이 정확하다. 국왕이 운명하던 날 제일 선참으로 궁궐에 나타난 문정승을 보았을 때 혹시나 하는 예감이 찾아들었다. 그때 그 예감을 믿었어야 했다. 지금껏 문정승이 왜 어리숙한체 하였는지 리해가 갔다. 어리숙한체 하며 자기와 최정승이 싸우게 하고 그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였다. 아니, 어부지리를 얻었다. 자기와 최정승사이의 세력다툼을 리용하여 정승이 된지 얼마안되는 기간에 지반을 닦고 서남당까지 내왔다. 그뿐아니라 이제는 어벌뜩지가 크게 통상까지 넘보게 되었다.

《역적같은 놈! 앞에서는 사돈이요, 뒤요 하면서 아부재기를 치고 뒤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을 꿈꿈이를 꾸미고있었구나.》

그가 참지 못하고 문정승을 욕질하자 허장사는 묻지도 않은 말까지 설명하였다.

《문정승이 대감님과 사돈을 맺으려고 한것도 다 계책이였나이다. 대감님을 열려서 전장으로 떠나보내고 그동안에 통상을 타고앉자는 타산으로 제편에서 먼저 혼사말을 꺼냈소이다.》

박정승 속으로 가슴을 두드려대며 통탄하였다. 아, 내가 눈이 멀었겠구나. 옛 원쑤를 갚으려는데 새 원쑤가 생긴셈이다. 아니, 새 원쑤가 아니라 숨어있는 원쑤였다. 눈에 보이는 원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쑤가 더 무섭다는 말이 백번 옳다. 이 키다리 문정승 놈아! 어디 두고보자.

박정승은 분을 삭일길없어 자리를 차고일어나 땅굴을 나왔다.

홍무관이 밀실에 따라나와 조용히 물었다.

《저놈을 어떻게 처리하라나이까?》

박정승은 그 물음에 입귀를 썰룩거렸다.

《난 한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다. 내 입으로 안 죽이겠다고 했는데 내 손으로야 못죽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놈이 죽어서도 나를 원망할게다.》

이어 그는 홍무관의 귀에 대고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를 내린 다

음 혼자서 밀실을 떠났다.

얼마후 홍무관이 나타나 결과를 보고했다.

《대감님의 분부대로 거마리를 문정승이 파견한 자객으로 가장시켜 먼저 허장사를 죽이게 한다음 거마리에게 독주를 상으로 하사했나이다. 그런데 거마리는 왜 죽이라고 하셨소이까?》

《그 단순한 리치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뒤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후날 영치가 끄는 법이다.》

박정승의 두눈에서는 여느때없이 살기가 번쩍거렸다. 그는 확고한 결심이 어린 눈빛으로 홍무관에게 지시하였다.

《고을원으로 파견하기로 한 무관들을 모두 불러라. 그리고 훈련 원도감과 군영장도 함께 불러라!》

38

홍무관이 령을 받고 물러간 다음 박정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복을 벗고 붉은 전복을 갈아입었다. 오래간만에 입어보는 전복이다. 몸이 나서 전복이 터질듯 팽팽하게 맞는다.

그동안 내가 편안하긴 편안했구나. 말안장을 내릴새없이 전장을 뛰어다닐 때는 허벅지가 소힘살처럼 탄탄하였으나 지금은 유들유들 군살이 쪼고 칼자루를 놓을줄 몰라 장알이 박혔던 손바닥도 이제는 아녀자의 손처럼 부드럽고 매끈하다.

허나 전복을 입으니 옛시절의 용맹과 힘이 되살아나고 온몸에서 무인의 피가 왁왁 끓어올랐다.

그는 벽으로 다가가 칼집채로 걸려있는 일광검을 벗겨 허리에 찼다. 이어 칼자루를 쥐고 검을 쪽 뽑았다. 보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눈을 찌를듯 한 서슬푸른 흰빛을 뿌린다. 칼을 손에 쥐니 억척성벽에 몸을 기댄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는 칼날을 어루쓸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일광검아, 아무래도 네 신세를 좀 저야 할가부다.》

홍무관한테서 무관들이 모두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자 그는 동남당의 집합장소로 쓰는 별당으로 갔다. 그가 별당안에 들어서자 무관들이 일제히 한쪽무릎을 꿇으며 군례를 올렸다.

《다들 일어서라!》

박정승은 믿음이 어린 눈길로 무관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무관들이 전장에 출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전복을 떨쳐입고 허리에 칼을 찼다.

《홍무관! 임명장을 가져오라.》

《예잇!》

홍무관이 임명장을 가져오자 그는 차례차례 이름을 부르며 무관들에게 고을원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시각부터 너희들은 내가 임명한 고을원들이다. 지체 말고 각기 부임지로 떠나서 최정승의 북서당과 문정승의 서남당에 속한 고을원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고 세력을 넓히면서 다음령을 기다려라. 내가 원래부터 상벌이 명백하다는건 너희들도 잘 알고있을게다. 군령은 자비가 없다. 실수하는 놈은 목을 자르고 성공하는자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겠다.》

《삼가 령을 받들겠소이다!》

무관들이 떠나가자 별당에는 홍무관과 훈련원도감, 동남당군영의 군영장만이 남았다. 박정승은 훈련원도감과 군영장을 가까이 불러놓고 허리춤에서 룡대가리장식을 한 단도를 꺼내보이었다.

《이 단도를 신호로 삼겠으니 머리속에 잘 새겨두거라. 내가 전달병을 시켜 이 단도를 보내면 너희들은 즉시 훈련원과 군영의 군사를 출동시켜 문정승과 최정승을 치도록 해라! 궁성안의 싸움은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알겠소이다.》

훈련원도감과 군영장도 령을 받고 물러갔다.

홍무관이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여쭙었다.

《대감님, 우리 군사만으로는 문정승과 최정승을 동시에 치기가 힘드오이다. 만약 두 정승이 합세하여 힘을 합치는 날에는...》

박정승은 손을 들어 홍무관의 말을 밀막아버렸다.

《내게 생각이 다 있다. 지금 백마국사신이 어데 있느냐?》

《대감님의 령대로 전번에 백마국군사가 무주성을 함락시켰을 때 인질로 잡아가두었소이다.》

《당장 가서 백마국사신을 데려오라.》

《설마...》

홍무관이 눈이 켜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홍무관의 눈길에 쓰겨운 웃음으로 대답했다.

《어떤 놈은 목숨까지 걸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문정승이 청한 솔개국의 원병을 막자고 해도 백마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홍무관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전번에 대감님이 백마국사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시였고 또 인질로 가두게 한것도 대감님이시라는걸 사신이 다 아는데 일없겠소이까?》

《걱정말아라. 때에 따라서 벗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벗이 될수도 있는 법이나라.》

얼마후 박정승은 홍무관이 데리고온 백마국사신과 마주앉았다. 그동안 연금생활을 해서인지 사신의 물독갈던 배가 퍼그나 훌쩍해지고 불의 살이 축 꺼져 동그랗던 얼굴이 길쭉해보인다.

《그동안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오.》

그가 주인답게 먼저 아량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신은 마뜩지 않은 눈길로 대답하였다.

《례의도 모르는 대감어른과는 마주서고싶지 않으니 빨리 나를 돌려보내시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백마국군사가 당장 이 송도국의 궁성을 천군만마로 짓밟겠것이나이다.》

사신은 연금생활을 하면서도 전장의 소식을 들었는지 배포유하게 나왔다.

돼먹지 않은 놈! 내가 물보가지같은 네놈한테 머리를 숙이고싶어서 숙이는줄 아느냐. 룡상만 아니면 너희 백마국놈들이 통채로 쳐들어온다 해도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할 이 박정승이다. 속에서 뱀이

울컥했으나 큰일을 생각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허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뜻대로 곱게 되지 않았다.

《사신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것 같소. 비록 백마국군사가 무주성을 함락시키고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긴 하였지만 지금 유주성에서 우리 송도국의 절충장군한테 단단히 혼썰나고있소. 며칠전에도 백마국의 수만군사가 말가죽신세를 졌다는걸 모르는것 같구려.》

유목민족인 백마국은 송도국의 풍습과 달리 전장에서 죽은 병졸들의 시체를 말가죽에 싸서 묻는다. 그가 방금전에 한 말은 백마국의 이 풍습을 넘두에 두고 한 말이였다. 사신의 얼굴색이 즉시 달라졌다.

《그게 사실이오이까?》

박정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사신도 알다싶이 난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성미요. 내가 있는 한 송도국땅에 발을 들여놓은 백마국군사는 모조리 말가죽신세를 면치 못할거요.》

사신이 한결 풀이 죽은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 왜 나를 만나자고 했소이까?》

그러면 그럴테지. 나한테는 그렇게 나와야 해! 박정승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흥정의 첫시작을 땀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송도국은 집안형편이 어수선해서 밖의 일까지 신경을 쓸 형편이 못되오. 그래서 백마국과 타협을 하자는거요. 사신도 백마국황제한테서 우리 송도국과 평화협상을 달성하라는 임무를 받고 왔는데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두 나라가 계속 싸우게 되면 돌아가서도 그 목을 보존치 못할게요.》

그가 론리있게 사리를 따지자 사신의 얼굴이 밝아졌다.

《대감님의 의향은 무엇이나이까?》

《지금 문정승이 룡상을 탐내며 솔개국에 원병을 청했소. 백마국이 처음 내걸었던 조건대로 군사를 돌려 솔개국의 원병을 막아주길 바라오.》

사신은 즉석에서 쾌히 대답했다.

《그건 넘려하지 마시오이다. 우리 백마국황제께서는 처음부터 솔

개국의 침략으로부터 송도국을 보호해주시겠다고 했나이다.》

《다른 조건도 또 있소. 지금 솔개국은 문정승의 서남당을 송도국의 주인으로 인정해주고있는데 백마국이 송도국의 왕권을 우리 동남당이 취도록 도와주고 정식으로 인정해달라는거요.》

두번째 조건을 듣는 사신의 두눈에 교활한 미소가 어리였다.

《물론 그 두번째 조건도 우리 백마국한테는 힘든 조건부가 아니 오이다. 그런데 두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우리 백마국한테도 차례지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이까?》

박정승은 즉석에서 대답했다.

《난 결코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백마국황제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소.》

사신은 너무 좋아 입이 귀밑까지 쭉 찢어졌다.

《그렇다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이다. 박대감님의 의향을 즉시 황제폐하에게 전하여드리겠나이다. 황제폐하께서도 틀림없이 기뻐하실것이나이다. 그런데 우리 군사가 솔개국의 원병을 치자면 유주성을 지나야겠는데…》

사신이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정승은 그 자리에서 즉시 홍무관에게 령을 내렸다.

《당장 절충장군에게 과발을 띄워라. 백마국군사가 통과하도록 유주성을 내주고 절충장군은 신속히 군사를 궁성으로 회군시키라는 령을 내려라.》

《알겠소이다.》

홍무관이 령을 받고 물러가자 사신은 백마국의 례법대로 오른손을 왼쪽가슴에 얹으며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었다.

《과시 대감어른은 결패가 있는 장수이시나이다.》

《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यो. 그럼 후날 궁궐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오.》

박정승은 위엄있게 가슴을 쭉 내밀며 백마국사신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백마국사신이 돌아가자 박정승은 부하들에게 싸움준비를 갖추라는 령을 내렸다. 정승부를 지키는 파수병들은 물론 문객들과 하인들까지도 창과 칼을 찾아들고 날을 버리었다.

이제 절충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하면 즉시 최정승과 문정승을 들이치고 룡상에 앉을테다!

박정승은 밤을 꼬박 새우며 홍무관과 함께 구체적인 작전을 토의하였다. 홍무관은 군영장과 함께 동남당군영의 군사를 거느리고 문정승을 치며 자기 박정승은 문객들과 훈련원의 군사를 거느리고 최정승을 친다, 그들이 문정승과 최정승의 정승부에 불을 지르면 그것을 신호로 궁성밖에 대기하던 절충장군이 군사를 둘로 나누어 남문과 북문으로 짓쳐들어오면서 문정승과 최정승의 배후를 타격한다, 문정승과 최정승을 진압하는 즉시 자기는 대궐을 타고있으며 홍무관은 궁성수비를 강화하면서 잔여세력들을 숙청하고 절충장군은 백마국군사와 합세하여 솔개국군사를 지경밖으로 내쫓는다.

날이 밝자 박정승은 아침을 먹고 홍무관을 보내어 최정승과 문정승의 동태를 알아보게 하였다.

그가 방안에 홀로 앉아 유주성의 파발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안해 류화가 웃으며 들어왔다.

《대감, 문정승이 담동이한테 레장바릴 보내왔소이다.》

《그게 사실이요?》

박정승은 사납게 눈을 치떴다. 이제는 문정승의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 이놈이 내가 제 꿈꾸이를 모르는줄 알고 아직도 장난을 치누나. 레장이요, 혼사요 하면서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네놈의 속통머리를 내 모를줄 아느냐.

그의 속내를 알리 없는 안해가 바투 다가있으며 계속 말했다.

《글쎄 잔치할 경황은 못되지만 최정승놈을 깔고앉기 위해서라도 빨리 잔치를 해서 문정승이라도 바싹 끌어당겨야 하지 않소이까. 그럼 대감한테도 유리하고 우리 월단이도 살리고…》

《그만 닥치지 못하겠소!》

박정승이 껌하고 소리를 지르자 안해는 푸들쩍 놀라며 눈이 쾅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문정승놈하구는 죽어도 사돈을 맺지 않을테니 다시는 내앞에서 그놈 말을 꺼내지 마오.》

남편의 성미를 잘 아는 안해라 말대답은 못하고 혼자말을 중얼거리듯 하며 불편한 심사를 재잘거린다.

《나야 대감과 월단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역증은 왜 내시우? 언제는 둘이 술상앞에 붙어앉아서 사돈이요 뭐요 하면서 살점을 때 줄것처럼 그러시더니 갑자기 왜…》

《아직도 그냥 입을 놀리겠어!》

박정승은 다시한번 껌 고아됐다. 그제서야 안해는 짹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에는 원망의 빛이 가득하다. 하긴 저것한테야 잘못이 없지. 모든게 내탓이다. 그는 안해에게 모든 사연을 이야기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부인은 그 문정승놈이 왜 갑자기 혼사말을 꺼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놀라서 뒤로 나가넘어질거요.》

이어 그는 문정승이 자기를 전장으로 내보내기 위해 혼사말을 꺼낸 이야기며 솔개국에 안사인을 밀사로 파견한 이야기까지 자상히 해주었다.

안해는 너무 놀라와서 입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별일도 다 있소이다. 그러니 지금껏 문정승이 어리숙한 체 했다는 말씀이시웁까?》

《그렇소. 그놈은 최정승보다 더 교활한 놈이요.》

박정승은 문정승이 눈앞에 있으면 당장 쳐죽일듯이 두주먹을 짹 그러쥐었다.

《그런데 문정승의 아들놈이 저렇게 찾아왔는데 어쩌면 좋소이까?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겠지…》

《내가 처리하겠으니 부인은 상관마오.》

박정승은 일어나서 본채 마당으로 나갔다.

담동이 그를 보고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다가왔다. 전번에 만났을 때는 장차 한집안식구가 된다는 생각으로 담동이 무척 대견해보이며 정이 폭폭 들었지만 지금은 꼴보기조차 싫다. 담동의 얼굴에 지어낸 억지웃음이 막 역스럽다. 씨도적은 못한다더니 제 애비를 닮아 저놈도 여간 흉물스럽지 않군.

《장인님, 안녕하시오이까!》

담동이 꾸벅 절을 하였다.

뭐, 장인이라구? 뭇다면 께꼬한다더니 네놈이 마음먹고 간살을 떠는구나. 대번에 열기가 짝 올라 왈칫 소리를 치려는데 월단이 쪼르르 달려와 그의 팔에 매달리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한다.

《아버님, 도련님께서 례장을 가져왔소이다. 비단, 공단이 서른 필에 자개박이농 짝이 열두 짝이나 되고 금비녀, 금귀고리, 금가락지랑 없는게 없사오이다.》

담동이 웃으며 그의 앞에 자그마한 함 한개를 받쳐올렸다.

《우리 아버님이 장인님께 드리라고 금대통을 보냈소이다.》

《문정승이 나한테 금대통을?》

《예, 우리 아버님께서서는 최정승이 비록 왕으로 점지되긴 하였으나 하늘의 뜻이 어떻게 될줄 모른다고 하면서 사돈끼리 손을 잡고 힘을 합치자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나이다.》

흥! 하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문정승 이놈아, 네놈이 왕으로 되는게 하늘의 뜻이나. 천만에, 그거야말로 미꾸라지 룡될 꿈이다.

담동이 히죽거리는 꼴을 지켜보자니 눈에서 불이 일어 더는 참지 못하고 천둥소리를 냈다.

《네놈도 네 애비도 꼴보기 싫으니 례장인지, 뭇지 하는 물건 짝들을 도로 걸어실고 냉큼 사라져라!》

천만뜻밖인지 담동은 일어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장인님,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시나이까?》

《그걸 몰라서 내게 묻느냐?》

담동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여러가지 색깔로 변한다. 허나 인차 어색하게 웃으며 여전히 진드기처럼 달라붙으려 한다.

《장인님, 다른 처가집들에서는 사위가 찾아오면 닭모가지부터 비튼다는데…》

이놈이 정말 제 애비를 꼭 먹고 게웠구나. 낮가죽이 두터워도 정도가 있지 아직도 독트의 용수를 바라느냐!

《닭모가지가 아니라 너의 문가네 모가지를 비틀테다!》

그제야 담동의 눈이 콧꿍해진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오이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파혼이다, 파혼!》

담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데 그보다 더 하얗게 질리는건 딸 월단이다.

《아버지, 파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이까? 아니되오이다, 아니되오이다. 이제 파혼하면 난 못사나이다…》

월단이 울면서 그의 팔을 붙잡았으나 힘껏 뿌리쳤다. 망할년! 지금은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다.

한참이나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담동이 마침내 결심을 내렸는지 결쾌있게 행동한다.

《정 그렇다면 알겠소이다. 나도 이 집의 사위가 되겠다고 억지로 빌붙을 생각은 없소이다.》

담동이 단호하게 꺾 돌아서는데 월단이 뛰어가 도포자락을 부여잡으며 안타깝게 발을 굴렀다.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시오이다. 이렇게 가시면 소녀는 어찌 하나이까. 우리 아버님이 무엇인가 노여워서 하신 말씀인데 도련님께서 소녀의 얼굴을 보고 참으시오이다.》

《흥! 박소저의 얼굴을 봐서도 못 참겠소.》

담동은 울며 하소하는 월단에게 비양조로 이죽거리고나서 손으로 도포자락을 와락 나꾸어쳤다. 그 서슬에 월단이 저만치 나가 어푸러졌으나 담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씩씩 걸어나갔다.

《도련님, 제발… 제발 가지 마시오이다!》

땅에 어푸러져서도 안타깝게 한손을 앞으로 내밀며 애타게 부르짖

던 월단은 담동의 모습이 사라지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정승은 딸의 정상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어 담동이 사라진쪽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문씨종자들아! 내 네놈들을 가만두지 않을테다!》

안해가 바삐 달려나와 월단을 부축하였다.

《애 월단아! 월단아!》

아무리 잡아흔들어도 월단은 정신을 못 차렸다. 안해는 어쩔줄 몰라하며 서둘러 시너를 불러대고 령감도 부른다.

《빨리 물을 떠오너라! 대감은 뭇 하구 서있으시우.》

시너가 물을 떠오자 안해는 손에 물을 적서 월단의 얼굴에 뿌렸다.

《월단아, 제발 정신차려라... 제발 정신차려라.》

《사발을 이리 내라구.》

박정승은 안해의 손에서 사발을 빼앗아 월단의 얼굴에 물을 통채로 쏟아부었다. 그제야 월단이 후- 하고 막혔던 숨을 길게 내쉬며 푸시시 눈을 떴다.

《월단아, 정신이 좀 드느냐?》

그는 자애넘치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딸은 그를 보는지 마는지 눈의 초점이 흐려있다.

《호호호... 도련님!》

비칠거리며 일어난 월단이 그의 손에 있는 사발을 빼앗아들더니 별안간 쑥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그의 앞으로 한발자국 다가선다.

《도련님, 꿀물이와요. 어서 드시오이다.》

박정승은 너무 기가 막혀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정상이 아니었다.

《도련님! 우리 아버지가 원래 미웁한데 도련님이 리해하세요.》

《애, 월단아!》

박정승은 다시금 딸의 이름을 불렀다. 허나 딸은 종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뒤로 물러설 때마다 한발자국씩 따라온다.

《도련님! 왜 자꾸 피하시나이까. 소녀가 싫소이까?》

월단은 그를 담동으로 알고 다가서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는다. 아

니, 실성했다. 박정승은 안해에게 소리쳤다.

《뭘 멍청히 보고만 있어? 빨리 애를 안에 데려다 놓히라구!》

안해가 시녀와 함께 월단을 붙들어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허나 월단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그가 있는쪽을 향해 소리쳤다.

《도련님, 왜 소녀를 피하시나이까?》

아이쿠! 박정승은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미친 꼴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다. 한생 피비린 전장에서 단련되어온 무쇠심장이건만 눈물이 흘러나왔다. 슬한 죽음앞에서도, 강물처럼 흐르는 피를 보면서도 나약해지지 않던 무쇠심장이건만 자식앞에서는 그 무쇠심장도 떡반죽처럼 물러진다.

모든게 혼사를 고소한 미끼로 내건 문정승의 낯시를 덮어놓고 넓적 받아문 내 어리석음때문이다.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통탄하였다. 모진 분노가 회오리바람처럼 온몸을 휘감으며 세차게 솟구쳤다.

문정승 이놈!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가 흐르는 법이다!

그가 칼자루를 움켜쥐고 피의 맹세를 다지고있을 때 유주성의 파발이 도착하였다.

《대감님께 아뢰오! 대감님의 령대로 절충장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밖에 진을 쳤나이다.》

두 정승의 동태를 감시하라고 파견했던 홍무관도 험레벌떡 달려왔다.

《대감님, 최정승은 어제 밤에 북서당패와 군사를 거느리고 벌써 해청도로 떠나갔나이다. 해청도로 대결을 읊긴다면서 가는 길에 운봉산에 들러 새로 만든 룡상을 가지고 간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지금 궁성안에 남아있는 문정승은 솔개국황제한테서 옥새와 왕관을 받았다고 하면서 서남당패와 군사를 출동시켜가지고 대궐로 향하고있나이다.》

눈에서 불이 일며 피줄이 툭툭 튀었다. 재빨리 생각을 굴리었다.

어느쪽을 먼저 칠것인가? 궁성에 있는 문정승은 아무때나 칠수 있으니 먼저 최정승의 뒤를 쫓는게 급선무였다. 리성은 최정승을 먼저 치라고 하였으나 감성은 문정승쪽을 택했다. 딸의 일로 해서인지 이

시각 최정승보다 문정승이 더 미웠다. 그렇다, 문정승을 먼저 치고 그다음 말을 때려몰아 운봉산에서 최정승을 붙잡자.

그는 즉시 전달병을 불러 룡대가리장식을 한 단도를 주었다.

《이 단도를 훈련원도감과 군영장에게 보이면서 즉시 군사를 대궐 대문앞으로 출동시키라고 해라.》

《알겠소이다.》

이어 유주성과파발에게도 령을 내렸다.

《절충장군에게 궁궐대문앞에서 함성이 일어나면 지체 말고 궁궐후문으로 진격하여 문정승의 배후를 기습하라고 일러라.》

《알겠소이다.》

전달병과 파발이 령을 받고 물러가자 홍무관에게로 돌아섰다.

《정황이 달라졌으니 어제 밤에 세웠던 계획을 바꿔야겠다. 문정승을 쳐서 대궐과 궁성을 장악하고 그다음 최정승의 뒤를 쫓아야 한다. 그러니 우린 정승부의 인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곧장 대궐로 진격하자!》

《알겠소이다.》

잠시후 박정승은 홍무관이 끌고온 말에 올랐다. 정승부의 파수병들과 문객들, 하인들이 무장을 갖추고 령을 기다렸다. 그는 말고삐를 힘차게 틀어잡으며 허리에 찬 칼집에서 일광검을 쭉 뽑아 들었다.

《대궐로 진격하라!》

40

박정승은 대궐로 진격하는 로상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훈련원도감과 군영장을 만났다. 그들이 데리고온 병졸들까지 합하여 군사수가 도합 5천여명이다.

그는 즉시 전체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홍무관과 훈련원도감을 각

각 좌우선봉장으로 삼아 무술이 뛰어난 문객들과 훈련원의 군사 1천을 거느리게 하였다. 군영장을 후군으로 삼아 1천군사로 뒤를 방비하게 하였으며 자기는 중군이 되어 3천의 기본병력을 거느리었다.

선봉을 앞세우고 기세등등해서 진격하는데 적정을 탐지하러 내보냈던 척후기마대가 험레벌떡 달려왔다.

《대감님께 아뢰오. 문정승의 서남당군사가 이미 대궐을 차지하고 대문앞에 진을 쳤나이다.》

《군사가 대략 얼마나 되더냐?》

《문정승이 남문의 파수군을 불러들이고 왕궁수비군까지 장악하여 그 수가 거의 1만명을 헤아리나이다.》

박정승은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전진하였다.

마침내 왕궁앞에 이르니 기마척후대의 보고대로 대문이 굳게 닫히고 문정승의 서남당군사와 왕궁수비군이 제법 궁궐담우에 기치창검을 벌려놓고 위세를 돌구었다. 대문옆에 서있는 높은 루대우에 왕관을 쓴 문정승과 정승복을 펼쳐입은 안사인의 모습이 보였다.

박정승은 군사를 멈추어세우고나서 몇명의 호위병만 거느리고 대궐문앞으로 여유작작하게 말을 몰아갔다.

그는 대문가까이에 말을 멈추고 루대를 향해 소리쳤다.

《문정승, 빨리 궁문을 열라!》

문정승이 길다란 목을 빼들고 아래를 굽어보며 마주 소리쳤다.

《이놈! 말버릇이 방자하구나. 네놈은 눈에 콩까풀을 씌워서 파인의 머리에 쓴 왕관을 못 보느냐!》

박정승은 말안장우에서 온몸을 들썩이며 꺾꺾 웃었다.

《왜 안 보이겠느냐. 꼭 수수대끝에 바가지가 열린것 같구나, 하하하...》

문정승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뉘앞이라고 감히 그런 천한 수작질이나. 당장 말에서 내려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여봐라, 안정승! 저놈에게 말버릇을 가르쳐주거라.》

안사인이 앞으로 나서자 박정승은 눈에서 불이 일었다.

《뉘, 안정승? 간에 붙었다 썩에 붙었다 하는 저 개보다 못한 놈

이 정승이라, 하하하...》

안사인이 목대를 뺏뺏이 세우며 소리를 질렀다.

《이보게, 박정승! 같은 정승인데 말버릇을 좀 고치게나. 이제라도 상감따마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네.》

《뭐가, 어찌구 어찌? 이놈, 당장 내려와 목을 늘어 내 칼을 받아라!》

박정승은 칼을 뽑아들고 허공에 휘둘러댔다. 안사인이 그러는 그에게 이죽거렸다.

《룡상을 탐내서 가짜도사까지 만들어낸 이 험잡군아! 똑똑히 바라, 여기에 문대감님을 송도국의 왕으로 봉한다는 솔개국황제의 조서가 있다. 네 몸뚱이에 목이 붙어있길 바라면 빨리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인차 솔개국군사가 네놈을 파리잡듯 할게다.》

박정승도 지지 않고 기염을 토했다.

《네놈들이 할애비처럼 기다리는 솔개국군사는 백마국군사들이 이 궁성안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다.》

문정승의 얼굴빛이 달라지는게 험둥하니 알렸다.

《너 이놈! 그러니 네놈이 백마국놈들한테 투항하는 역적짓을 했구나. 여봐라, 저 역적놈을 쳐라!》

삼시에 루대와 궁궐담우에서 화살이 비오듯 날아왔다. 호위병들이 방패로 담벽을 쌓아 비발치는 화살을 막으며 박정승을 엄호하여 본진으로 돌아왔다.

박정승은 분을 삭이지 못해 씩씩거리며 령을 내렸다.

《내가 중군을 거느리고 대문을 들이치겠으니 좌우선봉장은 량익측에서 궁궐담을 타고넘으라. 그리고 전달병을 다시 파견하여 절충장군에게 속히 왕궁후문을 기습하게 하라.》

《알았소이다.》

잠시후 홍무관과 훈련도감이 출발위치를 차지하자 박정승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북을 울리게 하였다.

둥둥둥...

《공격하라!》

병졸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물밀듯이 왕궁대문을 향해 돌진

하자 문정승의 군사들이 돌과 화살을 소나기처럼 퍼부으며 맹렬히 저항하였다. 량견에서 쏘아대는 화살이 하늘을 시꺼멓게 메우고 함성소리와 비명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박정승은 말우에서 전장을 굽어보며 수시로 전달병을 파견하여 싸움을 지휘하였다.

《총차를 가져다 대문을 부서라!》

수레에 아릅드리나무를 올려태운 총차는 성문을 깨는 파성무기이다. 병졸들이 즉시 총차를 밀고와서 대문을 향해 있는 힘껏 돌진하였다.

《쿵! 쿵!》

총차로 쉬임없이 들이받았으나 성문보다 더 든든한 대궐문은 드르릉드르릉 몸부림만 칠뿐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때 홍무관이 거느린 좌익선봉대쪽에서 함성이 울리고 이어 혼련도감이 거느린 우익선봉대쪽에서도 함성이 울렸다.

잠시후 두 선봉장이 보낸 전달병들이 달려왔다.

《좌익선봉이 궁궐담을 넘어섰나이다.》

《우익선봉도 궁궐담을 넘어섰나이다.》

《좋다! 빨리 대문을 열라고 해라!》

중군의 군사들도 힘을 다해 부지런히 대문을 들이치는데 별안간 멀리 궁궐뒤쪽에서 우뢰같은 함성과 지축을 울리는듯 한 말발굽소리가 터져올랐다.

절충장군이 후문을 들이치는 모양이구나! 그의 짐작이 옳았다. 절충장군이 불쑥 뒤를 기습하자 머리와 꼬리를 돌아볼수 없게 된 문정승의 군사는 순간에 와해되었다. 혼란된 그 틈을 타서 좌우선봉대가 대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박정승은 검을 추켜들고 말에 박차를 가하였다.

《대궐로 쳐들어가라!》

무수한 인마가 대문을 메우며 궁안으로 돌진하였다. 수많은 군사들이 물밀듯 쓸어들자 문정승의 병졸들은 즉시 창자루를 거꾸로 메고 저마끔 투항하였다. 순간에 싸움이 끝났다.

절충장군의 파발이 달려왔다.

《대감님께 아뢰오. 복새틈을 리용하여 문정승과 안사인이 남문 쪽으로 달아났소이다. 그래서 절충장군이 지금 그뒤를 추격하고있나이다.》

《알겠다.》

박정승은 즉시 홍무관과 훈련원도감을 불렀다.

《절충장군이 지금 문정승을 추격하고있으니 그놈은 뛰어야 벼룩이다. 훈련도감은 기마병들만 거느리고 급히 최정승을 추격하여 운봉산에 그놈의 발목을 잡아놓아라. 절충장군이 돌아오면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그 생취놈을 징벌하겠다. 홍무관은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대궐과 궁성을 지켜라.》

《알았소이다.》

훈련도감은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최정승의 뒤를 쫓았고 홍무관은 전장을 수습하였다.

얼마후 절충장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

《아뢰오. 안사인을 붙잡아가지고 왔소이다.》

《문정승은 어찌되었느냐?》

《우리 군사가 꼬리를 바투 물고 추격하자 안사인이 문정승과 아들의 목을 베가지고 스스로 투항하여왔소이다.》

병졸들이 쫄쫄 겁박한 안사인을 끌고왔다. 안사인은 그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리지며 애절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님, 아니 상감마마, 소인이 그만 정신이 썩 나가서 하늘땅이 용납 못할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죄를 씻으려고 저 교활한 문정승과 그 아들놈의 머리를 베가지고 왔소이다. 어제날의 정을 생각하시여 한번만 용서해주신다면 죽기로써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사이다.》

박정승은 코방귀를 끼었다. 네놈이 문정승과 담동의 목을 베었다는 말이지. 과시 안사인다운 처신이다.

절충장군이 부하들을 시켜 함룡에 넣은 문정승과 담동의 머리를 바쳤다. 둘다 눈을 감지 못하고있다. 문정승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있고 담동의 눈에는 애절함이 깃들어있다. 망할놈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했다고 스스로 분수를 지켰더라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것이다. 죽기는커녕 문정승은 계속 정승자리에서 남부러운것 없이 살았을게고 담동은 부마가 되어 온갖 향락을 누렸을것이다.

《상감마마, 은총을 베푸시어 살려주사이다.》

안사인이 결박당한 몸을 벌레새끼처럼 꿈틀거리며 계속 애걸복걸 하였다. 가소로운 그 꼴을 쓰겁게 지켜보던 박정승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를 참하여 분함을 씻고싶지만 옛정을 생각해서 용서해주지. 허나 허파에 바람이 든 계집년처럼 조석으로 변하는 네놈의 그 고약한 성미만은 고쳐주어야겠다. 여봐라! 저놈을 궁궐대문에 거꾸로 매달아놓아라!》

병졸들이 와락 달려들어 오라를 진 안사인을 대문들보에 거꾸로 매달아놓았다.

그가 검을 빼들고 한걸음한걸음 다가가자 안사인은 눈이 흘 뒤집혀가지고 안타깝게 몸부림쳤다.

《상감마마, 용서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제발, 제발 살려주사이다, 상감마마!》

박정승은 입귀를 실룩거렸다.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느거야 너도 알지 않느냐. 용서는 해주지만 네놈의 배반기질은 없애야겠다. 네놈의 이마우에 난 그 사마귀는 지혜주머니가 아니라 배반주머니이다. 그러니 그걸 떼버려야 해!》

그는 왼손으로 안사인의 상투를 거머쥔 다음 오른손에 쥔 검으로 안정승의 이마우에 돋은 사마귀를 주욱 도려냈다. 안사인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것과 동시에 순식간에 붉은 피가 팔팔 쏟아지며 땅우에 비방울처럼 후드득 떨어졌다.

이어 그는 좌우에 분부하였다.

《여기에 파수를 세워 누구도 이놈을 못 다치게 하라. 배반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모두가 똑똑히 보게 해야 한다. 절충장군, 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운봉산으로 떠나자.》

박정승은 일광검을 칼집에 꽂아넣고 다시 말우에 올랐다.

박정승이 대군을 거느리고 운봉산에 당도했을 때는 훈련도감이 거느린 기병대가 길목을 막아서 최정승의 군사가 더이상 달아나지 못하고 산정에 진을 치고있었다.

박정승은 즉시 장수들을 불러 령을 내렸다.

《최정승이 산정에 진을 치는것은 장기전을 피하면서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자는것이다. 틀림없이 어지라 칭하고 지방군과 북서당의 심복들을 불렀을것이다. 훈련도감은 즉시 부대를 증강하여 운봉산과 통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라. 난 절충장군과 함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적진을 들이치겠다. 신속히 행동하여 속전속결하지 않으면 형편이 다르게 변할수도 있다.》

《알겠소이다.》

훈련도감은 군사들을 세 길로 나뉘어 길목마다 매복시키고 절충장군은 정예병을 거느리고 운봉산기슭에 진을 쳤다.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는 가운데 박정승이 직접 말을 타고 진앞에 나서자 산정의 진우에서도 최정승이 작은 몸을 끌고 앞에 나섰다.

박정승은 말채찍으로 최정승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최정승 이놈! 무죄한 장졸들을 죽이지 말고 빨리 산을 내려 죄를 청하고 잔명을 보존하라.》

최정승도 지지 않고 마주 소리쳤다.

《천시도 알지 못하고 날치는 이 어리석은 놈아, 네놈도 아다싶이 파인은 운봉도사가 점지한 송도국의 왕이다. 국왕을 반대하여 칼을 빼드는것은 천추에 용납못할 역적죄다. 삼대멸족을 면하겠으면 서둘러 칼을 바치고 살기를 도모하라.》

《하하하...》

박정승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 통쾌하게 웃었다.

《네놈이 국왕이라구? 이놈아, 그 운봉도사는 가짜다. 그러니 가짜도사가 점지한 국왕도 가짜다. 자고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했거늘 내 어찌 가짜왕을 섬기겠느냐.》

최정승은 악에 받쳐 발까지 구르며 소리질렀다.

《여봐라, 당장 저 역적놈의 목을 베거라.》

산정의 진에서 북소리가 울리며 유겸상이 말을 놓아 산아래로 쏜살같이 달려내려왔다.

《무모한 역적은 한갓 강포함만 믿고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는 고! 내 랑치검이 용서를 안할테니 도망칠 생각은 아예 말아라!》

박정승옆에 있던 절충장군이 말을 때려몰아 유겸상을 맞받아 달려나가며 천둥소리같이 꾸짖었다.

《네놈이 개, 돼지나 도살하던 칼을 검이라 들고나오니 웃음을 참지 못하겠노라. 어서 내 칼을 받아라.》

절충장군과 유겸상이 서로 어울려 수십합을 싸웠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절충장군의 검술도 뛰어나지만 랑치검을 휘두르는 유겸상의 솜씨도 결코 그만 못하지 않았다. 다시금 수십합을 싸우는데 별안간 쟁강 하며 유겸상의 랑치검이 부러졌다.

순간 최정승은 징을 쳐서 급히 유겸상을 진으로 불러들였다.

박정승은 유겸상이 혼비백산해서 달아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령을 내려 지휘기를 내흔들게 하였다.

《공격하라!》

수만군사가 일제히 함성을 울리며 산정으로 치달아올랐다. 허나 잠시후 산악이 무너지는듯 한 소리가 울리며 산정에서 집채같은 바위돌들이 와당탕 쏟아져내렸다. 병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서서 줄행랑을 놓았으나 깔려죽은자가 부지기수였다.

산정에서 최정승의 너털웃음이 터졌다.

《이 미욕한 박정승놈아! 맛이 어땡냐? 이진 과인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천시를 아지 못하는 네놈에게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박정승은 이를 부드득 갈며 소리쳤다.

《이 생쥐같은 놈아! 산정에 숨어서 피만 부리지 말고 용맹이 있으면 어서 내려와 나와 직접 겨루자.》

이번에도 최정승이 이죽거리며 계속 그의 약을 올렸다.

《예로부터 패자유구무언이라고 했거늘 패전지장이 오히려 용맹을 말하는고. 정말 용맹이 있으면 어디 올라와봐라! 하하하...》

박정승은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산정을 올려보며 일광검을 뽑아 들었다.

《단숨에 산정을 점령하라. 물러서는자는 이 칼이 먼저 목을 벨 것이다!》

병졸들은 겁에 질렸으나 장수들의 칼이 무서워 다시금 함성을 지르며 산정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다. 병졸들이 미처 출행량도 놓기 전에 돌사태가 쏟아져내리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맨앞에서 진격하던 절충장군도 돌에 깔려 죽었다.

박정승은 너무 분통해 입술을 깨물었다. 사상자가 많이 난 지금의 상황에서 싸움을 신속히 결속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 끝수록 그만큼 더 불리해질수 있었다. 아, 무슨 방도가 없을까?

फल리를 싸쥐고 진앞에서 서성대던 그는 한순간 눈이 번쩍하였다. 바람방향이 바뀌었는지 진앞에 늘어세운 기발들이 산정을 향해 펄럭이었다. 그렇다, 화공전술로 저놈들을 질식사시키자!

그는 즉시 수하장수들을 불러 령을 내렸다.

《삼군이 총동원하여 산기슭에 나무와 마른풀을 가득 쌓도록 하라. 군마를 먹이려고 가져온 건초도 다 동원해라. 바람방향이 바뀌었으니 불을 지르면 저놈들이 연기에 질식되고 불길에 타죽을게다.》

전군의 장졸들이 주변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마른 풀들을 걷어와 산기슭에 쌓기 시작하였다.

진에 들어박혀 방어만 하던 최정승의 군사들이 산아래로 짓쳐내려 오며 제편에서 공격을 해왔다. 네놈들이 바빠났구나. 박정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전달병을 불러 령을 내렸다.

《활잡이군들은 적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나머지 군사들은 계속 나무를 해오도록 하라!》

《알았소이다.》

공노수들이 소낙비처럼 화살을 퍼붓자 최정승의 군사는 얼마 공

격을 못해보고 다시 산정으로 쫓겨올라갔다. 그동안에 군사들은 계속 나무를 해왔다.

마침내 산기슭에 나무와 풀이 봉우리만큼 쌓이자 박정승은 령을 내렸다.

《불을 지펴라!》

등등등...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고 활잡이군들이 날리는 불화살들이 순간에 나무와 마른 풀에 불길을 지펴올렸다. 불길이 하늘높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산정으로 구름처럼 밀려올라갔다. 산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까맣게 날아오르고 산짐승들이 네굽을 놓아 산아래로 내달렸지만 불길에 휩싸여 오도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타죽었다.

불길은 산에 빼곡이 자란 아름드리나무들을 집어삼키며 산정으로 무섭게 치달아올랐다. 산정의 진우에서도 아우성소리가 터져나오고 얼마후 흰 기발이 여기저기에 솟아났다.

최정승이 진우에 나서서 두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박대감! 항복이요. 어서 불을 꺼주시우!》

허나 박정승은 랭랭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이건 내가 지른 불이 아니라 네놈의 말처럼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최악이 지중하여 이런 흉변을 당하는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하늘을 원망해라. 네놈이 말끝마다 재간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어디 그 재주를 한번 써봐라. 하늘에 다리가 있을진대 마땅히 천상으로 도망할것이요, 땅에 길이 있을진대 마땅히 지하에 숨을수 있으리로다, 하하하...》

최정승이 두주먹을 쥐고 부르짖었다.

《이놈아, 네놈도 사람이나. 무고한 장졸들이 죽는다. 어서 불을 꺼라!》

산정의 진우에 최정승의 수하장졸들이 모두 떨쳐나와 창과 칼을 내던지면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비명을 질렀다. 허나 짙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인차 그 모습들을 휘감아버렸다.

불은 꼬박 하루동안 산을 태우고 다음날 오후에야 꺼졌다.

박정승은 몇명의 심복부하들을 거느리고 새까맣게 재만 남은 산중

턱으로 올라갔다. 산중턱에 뛰어난 쟁인바치들을 가두어놓고 진귀한 물건을 만들게 하는 왕실전용의 비밀동굴이 있었다. 죽은 국왕은 살아있을 때 어지를 내려 이 비밀동굴에서 새 룡상을 만들게 하였다.

《동굴에 들어가 새 룡상을 꺼내와라.》

잠시후 부하들이 번쩍이는 룡상을 들고나왔다.

《대감님, 동굴안에 들어가보니 수십명이나 되는 쟁인바치들이 모두 질식되어 죽었나이다.》

어느 한 심복이 보고했으나 박정승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저 희열에 넘친 눈으로 정신없이 룡상을 어루쓸었다.

아, 드디어 이 룡상이 내것으로 되었구나.

그는 풀썩풀썩 재가루가 피어오르는 땅바닥에 룡상을 내려놓게 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그우에 올라앉았다. 드디어 소원이 성취되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룡상에 앉았다. 재더미우에 올라앉았지만 천상에 오른 기분이고 세상이 녹두알만 해보인다.

그의 흥그러운 기분을 알아차리고 심복들이 즉시 무릎을 꿇으며 환호를 올렸다.

《상감마마, 천세 천세 천천세!》

《경들의 수고가 있어 송도국의 찬란한 태일이 있게 되었노라. 이제 궁성으로 돌아가면 경들의 공을 높이 평가하겠노라!》

허나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들이 있는 산중턱을 바라고 험레벌떡 달려왔다. 자세히 보니 홍무관이다. 무슨 일인지 홍무관이 피투성이가 되어 비칠거리며 달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며 가슴이 싸늘해왔다. 지금껏 자기의 예감을 스스로 믿어왔지만 이번만은 그 예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원했다.

허나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홍무관의 목소리가 그 예감이 옳았음을 그대로 증명한다.

《대감님, 이 일을 어찌면 좋겠나이까. 글썽 백마국이 치라는 술개국은 치지 않고 궁성에 쳐들어와 대궐에 불을 질렀소이다.》

《뭐라구? 그게 사실이야?》

그는 룡상에서 벌떡 뛰어일어났다. 아니, 미끄러져 떨어졌다.

《사실이오이다. 궁성을 점령하고 닥치는대로 죽이고 닥치는대로 빼앗고있소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동남당세력까지 마저 요정내겠다고 여기 운봉산으로 진격해오고있나이다.》

손에 쥔 칼이 후들후들 떨렸다. 이놈들, 네놈들이 나를 업수이 여겨도 분수가 있지 철석같이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치솟는 분노로 하여 숨이 킁킁 막히고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다.

홍무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궁성과 잇닿아있는 멀리 길쭉에서 군마들의 울부짖음소리와 말발굽소리가 요란히 울리고 누런 흙먼지가 안개처럼 뽕얇게 피어올랐다. 선두에서 날리는 기발들을 보니 백마국군사였다.

이놈들, 어디 죽고살고 해보자. 무서운 분노를 안고 산아래로 달려내려간 박정승은 말우에 올라 고삐를 거머쥐었다. 어느새 따라왔는지 홍무관과 심복들이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대감님, 안되오이다. 술한 병졸들이 죽고 부상을 당한 지금의 형편에서는 백마국과 맞서는것이 닭알로 바위를 치는것이나 같소이다.》

박정승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돌려 병졸들을 바라보았다. 문정승과 최정승을 치느라 술한 장졸들이 죽고 남아있는 병력이 얼마 안된다. 그나마도 여러차례의 싸움에서 맥이 진한 병졸들이고 태반은 부상자다. 병졸들의 눈에 어린 피로와 고통을 보느라니 손맥이 스프르르 풀렸다.

허나 인차 자신을 다잡았다. 백마국놈들에게 송도국의 옥좌를 고스란히 넘겨줄수는 없지 않는가. 문정승, 최정승과 죽기내기로 싸운것도 다 그 옥좌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피로써 쟁취한 옥좌를 백마국놈들한테 넘겨주다니. 아니, 절대로 안된다, 안돼!

그는 고개를 버쩍 쳐들며 소리쳤다.

《나라의 운명이 칼도마우에 올랐는데 어찌 손에 쥔 칼을 내릴소냐. 충의지사는 환난을 당하면 제 한몸을 돌보지 않는다 하였거늘 진정한 송도국의 남아라면 목숨을 아끼지 말고 내뒤편 따르라!》

박정승은 말고삐를 잡아채며 말에 박차를 가하였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말도 네굽을 안고 화살처럼 내달렸다. 귀전으로 바람이

확확 스치고 뒤에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병졸들의 말발굽소리가 어지러이 들렸다.

광! 광!

요란한 폭음속에 백마국군사들이 쏘아대는 화포알이 줄지어 날아와 터지며 세찬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높이 타래쳐올랐다.

기세 좋게 내달리던 말들이 파편조각에 맞아 픽픽 거꾸러지고 살아난 말들도 겁에 질려 상사말처럼 앞발을 허공중에 들고 길길이 뛰여 오르며 주인들을 땅우에 내동댕이쳤다.

박정승도 래질하는 말우에서 허공 떨어져 그대로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온몸의 맥이 쪽 빠져달아났다.

여기저기서 말과 사람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울리고 화포세례를 받은 병졸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얼마후 화포소리가 멎고 백마국의 정예기병들이 와와 함성을 울리며 물밀듯 쳐들어왔다.

검을 지팡이삼아 의지하여 비칠비칠 일어난 박정승은 두발을 짝 벌리고 버티여섰다. 선두에 선 적장을 바라고 일광검을 짝 틀어잡았다. 이 박정승이 살아있는 한 통상만은 절대로 다치지 못한다. 허나 다음순간 왼쪽가슴에 모진 동통을 느꼈다. 백마국의 궁수들이 날린 화살이 그의 가슴에 면바로 들어박혔던것이다.

아!— 원통하구나!

그는 눈을 지리감고 혀를 깨물었다. 한순간 숨이 킁 막히며 속에서 무엇인가 울컥 솟구쳐올랐다. 입을 벌려 뱉으니 시뻘건 피덩이다.

가슴이 찢어지는것처럼 아팠다. 상처로 인한 아픔도 있었지만 보다는 모든것이 끝장났다는 통절한 아픔이 더 컸다.

내가 있으면서 백마국놈들한테 나라를 먹히우다니? 믿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이였다. 대궐이 불타고 궁성을 빼앗기고 장졸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의 눈앞으로는 백마국이 송도국의 지경을 넘어선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때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였으면 얼마든지 백마국의 침입을 막아낼수 있었다. 허나 통상에 눈이 어두워 바깥도적은 등한시하고 집안싸움만 일삼았다.

그렇다, 집안싸움바람에 모든것을 망쳤다. 저저마다 자기 자리를 넓히려겠다고 집기둥을 짊어놓은 언뜻 불어친 바람이 집을 통채로 주저앉혔다.

자기의 몸에서 피비린내가 난다고 하면서 머지않아 가문을 망칠 것이라고 하던 아버지 박첨량의 말이 생각났다. 늙으면 반귀신이 된다더니 아버지의 말이 들어맞았다. 다른것이 있다면 그 피비린 싸움이 가문만 망친것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쳤다는것이다. 룡상에 앉으려고 벌린 싸움이 그 룡상을 아예 없애버렸다.

가문의 대를 끊어놓았으니 저승에 가서 조상들의 낫을 어떻게 대하겠는가고 입버릇처럼 외우던 아버지의 말도 생각났다. 하다면 가문만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친 나는 저승에 가서 무슨 낫으로 력대 선왕들과 공신들을 대하겠는가. 살아서도 몸 건사할 곳이 없고 죽어서도 몸들 곳이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점차 눈앞이 뻗어지며 숨이 가빠났다. 손맥이 풀리며 칼이 툄러 떨어지고 뒤이어 몸도 털썩 넘어갔다. 하늘이시여, 어리석은 이 령혼을 받아주소사이다!

서쪽하늘에서 쇠잔해가는 저녁노을이 피바다의 전장에 붉은 피빛을 더해주며 서서히 어둠을 불러왔다.

장편소설 3인1당

편 집 문상봉 표지 김광석
편 성 한영실 교정 김연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 체 101(2012)년 월 일
발 행 주 체 101(2012)년 월 일

ㄱ-16566

값 120원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BN 978-9946-22-437-4